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1 APRIL 2021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EXECUTIVE OFFICERS 2020.9.1.~2022.8.31.

President	Woo, Chan-je(Seogang University)
Vice Presidents	Kim, Yang-sun(Hallym University) Kim, Jung-hee(Seoul National University) Ryu, Bo-sun(Kunsan University) Min, Eun-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 Soo-jeong(Myongil University) Sim, Won-seop(Dokkyo University) Woo, Rim-geol(Shandong University) Yoo, Sung-ho(Hanyang University) Yoon, Sang-in(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Myeong-ho(Kyunghee University) Lee, Wook-yon(Seogang University) Cho, Sung-won(Seoul Women's University) Ham, Jeung-Im(Donga University) Carolina Meira(Univ of Buenos Aires, Argentina/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 USA/English Literature)
Secretary-financial General	Choi, Sung-Min(Kyunghee University) Yoon, In-sun(Catholic University)
Research Planning	Kwon, Hyeok-ryul(Jilin University) Kim, Seo-young(Kwangwoon University) Kim, Seok(Konkuk University) Kim, Ye-rim(Yonsei University) Noh, Dae-won(Jeju National University) Moon, Hye-won(Ajoo University) Pak, Dong-Ho(Kyunghee University) Park, Soo-ye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Joo-taek(Kyeonghee University) Sim, Won-seop(Dokkyo University) Yang, Dong-kook(Sangmyeong University) Um, Sung-won(CHA University) Lee, Yun-Jong(Seogang University) Lee, Chae-Won(Korea Nazarene University) Lee, Hyeong-kw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ng, Cheol-hwan(Yonsei University) Jeong, Ggeut-byeol(Ewha Women's University) Jeoung, Eui-jin(Sangmyeong University) Cho, Kang-sok(Yonsei University) Choi, Chang-Reuk(Nanjing University) Yeo, Tae-Chon(Dongduk Women's University)
Journal Editor	Oh, Hyung-yup(Korea University)
Editorial Board	2020.9.1.~2022.8.31
Kang, Yong-hoon(Incheon University)	Kim, Gi-Bong(Kyonggi University)
Kim, Dong Gyu(Yonsei University)	Kim, Te-Gyung(Kyunghee University)
Kim, Ho-young(Hanyang University)	Do, Yoon-Jung(Inha University)
Park, Sung Ho(Kyunghee University)	Park, In-Seong(Catholic University of Pusan)
Yoon, Hye-joon(Yonsei University)	Lee, Kyung-soo(Chung-Ang University)
Lee, Jae-bok(Hanyang University)	Chang Seijin(Hallym University)
Jeong, Seung-hoon(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Jung Eui-jin(Sangmyung University)	Cho, Man-soo(Chungbuk University)
Cho, Jae-ryong(Korea University)	Jin, Joo-young(GeorgeMasonUniv.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 published three times a year in April, August, and December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Membership is open to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The annual membership dues including subscription to the journal are 30,000 won (US \$30) for individual members and 50,000 won (US \$50) for institutional members. Manuscripts for publication and correspondences including change of address should be sent to the IACKS official contact point (E-mail : newiacks@empal.com).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9 NO.1 APRIL 2021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was organized in 1991 in Berlin and incorporated in 1992 in Paris to promote and develop Korean Studies in the world through interdisciplinary and comparative research.

권두언 / 9

| 특집기획 |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젠더와 페미니즘**

- 김양선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 15
젠더, 노동, 네트워크
- 류수연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 ————— 37
- 이채원 팬데믹이 가져온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과
그 함의 ————— 65
영화 <팬데믹 ONLY>(2020, 타카시 도셔 감독)을 중심으로

| 비교한국학의 전망과 쟁점 | **한국전쟁의 기억과 외부자의 시선**

- 김려실 ‘조선전쟁’의 기억과 마이너리티 연대의 (불)가능성 ————— 99
사키 류조의 「기적의 시」(1967)를 중심으로
- 김지민 할리우드의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한국인 상(象)에 대한
역사적 분석 ————— 127

| 비교한국학 리뷰 |

- 박수빈 근대 '한국학' 과 동아시아 지식장의 형성 ————— 157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의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2020)에 대한 서평

일반논문

- 김정남 부르디외의 상징폭력과 1950년대 上京人의 소외의식 ——— 183
戰後 서울의 표징으로서의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읽기
- 박유희 한국영화사에서 개신교 표상과 국책 장르의 친연성 연구 ——— 211
- 전은경 근대계몽기 학회지의 독자 인식과 서사적 실험 ————— 251
동유록계 서사를 중심으로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 287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 293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 294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 297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299
논문 심사 요지서 / 302
연구 윤리 규정 / 303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308

Preface / 9

| Special Topic | Gender and Feminism in the Post-Pandemic Era

Response of (Female) Literature to post-Pandemic Society

Gender, Labor, and Network ————— Kim, Yangsun — 15

Mother on the Border of Care and Labor, Re-reading Gong Seon-ok' Novel

————— Ryu, Su-yun — 37

The Patterns of Control over Women in the Totalitarian Society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movie, *ONLY* ————— Lee, Chae Won — 65

| Issue and Prospect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Memories of the Korean War and the Gaze of Outsiders

Memories of the Korean War the (Im)possibility of Minority Solidarity

Focused on *the Miracle City*(1967) by Ryuzo Saki ————— Kim, Ryeosil — 99

The Insignificance of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Historicizing Hollywood War Film Representations of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 Kim, Jimin — 127

Comparative Korean Studies Review

Formation of Modern 'Korean Studies' and Sites of Knowledge in East Asia

A book review on 『Sites of knowledge in East Asia and the birth of the modern Korean Studies』 by the Humanities Korea Plus(HK+) Project Group of Yonsei University's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 Park, Subin — 157

General Topic

Pierre Bourdieu's Symbolic Power and the Sense of Alienation of

a Person who Coming up to the Seoul in the 1950s

Reading Choi Il-nam's novel 「Portrait of Seoul」 as a sign of postwar Seoul

————— Kim, Jeong-nam — 183

A Study on Affinity between the Representations of Protestantism and the National Policy Film Genres in Korean Film History

————— Park, Yuhee — 211

A Study on the Perception about the Readers and the Narrative Experiment of the Academic Journal i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Monghyurok* ————— Jun, Eun-kyung — 251

이번 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특집기획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젠더와 페미니즘’ 하에 세 편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들은 2021년 2월 6일 본 학회가 주최한 제41회 국내학술대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 페미니즘/젠더의 향방’에 발표된 글과 더불어 상기 기획에 대한 확장된 논의의 일환으로 투고된 글들로 구성되었다. 2020년부터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출된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과 이에 대응하는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학의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상기 학술대회에 대응하는 특집기획으로 이 논문들을 수록한다.

김양선의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젠더, 노동, 네트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여성들의 사적, 공적 영역에서의 위기에 대해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즉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연대를 상징하는 언어로 제시된 ‘With You’와 연결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상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논구한다. 실명제 서사의 귀환이라는 특징적 현상으로 설명되는 최근 여성서사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성별화된 감정노동, 돌봄 노동의 전담자로서의 여성-사회적 약자에게 연결과 연대가 생존을 위한 대안이자 공동체를 위한 대안이며, 이것은 문학의 공공성과도 연결되는 가치임을 역설한다.

류수연의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발점이자 현재의 ‘페미니즘 리부트’의

전사(前史) 격인 1990년대의 공선옥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와 접속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모성신화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 생명과 공존에 대한 화두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특히 팬데믹과 함께 불거진 여성노동과 돌봄의 문제에 주목하여 ‘엄마’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던 일련의 공선옥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돌봄의 문제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조망한다.

이재원의 「팬데믹이 가져온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과 그 함의 - 영화 <팬데믹ONLY>(2020, 타카시 도서 감독)을 중심으로」는 영화 <팬데믹ONLY>의 서사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을 인류존속에 필요한 공공재로 치부하고 권리를 침탈하는 국가권력의 형상화에 주목하여 여성의 역할을 종족 보전을 위한 재생산으로 치부하고 이를 근거로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가 지닌 파시즘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양한 사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마이크로 파시즘의 출현이 단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장기간에 걸쳐서 고착화된 관념으로부터 배태된 ‘오래된 미래’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2015년 하반기부터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란을 통해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학 연구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논문, 혹은 한국학 연구의 전망을 갱신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기획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의 주제는 ‘한국전쟁의 상흔과 외부자의 시선’이다. 28-3호에서 다룬 식민지기와 더불어 근현대사 초유의 사건이자 한국학의 주요한 테마 중 하나인 한국전쟁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의 한국전쟁 소재 내러티브가 이를 기록하고 조망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연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김려실의 「‘조선전쟁’의 기억과 마이너리티 연대의 (불)가능성: 사키 류조

의 「기적의 시」(1967)를 중심으로」는 베트남전쟁 중인 1967년에 나온 사키류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누렸던 ‘전쟁 특수’ 속에서 당시의 일본 사회가 이웃 나라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는지를 분석한다. 식민 지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를 환영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내면화하는 이중성의 형상화를 분석하였다. 김지민의 「할리우드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한국인 상(象)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한국전쟁 전후로 제작된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미국 사회가 지녔던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의 변화와 더불어 ‘봉쇄’와 ‘통합’이라는 두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속의 냉전 질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비교한국학 리뷰’란에 실린 박수빈의 「근대 ‘한국학’과 동아시아 지식장의 형성」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한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2020)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학이라는 개념의 논쟁적 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그 계보와 대상,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국학이 지닌 다성성의 면모를 고찰하였다. 한국학의 영역을 동아시아 지식장 개념과 연결하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닌 긍정적인 면모와 더불어 한국학 개념이 불러온 학제간 연구에 대한 추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간극의 문제를 짚어냄으로써 관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끔 하였다.

이 외에 이번 호에 투고된 일반 논문들도 ‘비교한국학’이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에 여러 고민할 지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속에서 나타나는 상경인과 서울이라는 공간의 관계를 부르디외의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문화적 일상성 속에서의 아비투스の問題를 분석한 김정남의 「부르디외의 상징폭력과 1950년대 上京人의 소의의식 - 戰後 서울의 표징으로서의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 읽기」, 1960~

1980년대 사이의 국책 영화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 표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반공과 계몽, 문예와 개신교 간의 친연적 관계를 살펴본 박유희의 「한국 영화사에서 개신교 표상과 국책 장르의 친연성 연구」, 근대계몽기 학회지의 몽유록계 서사에 주목하여 이전의 서사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 대상에 따라 다양한 실험적 장치를 사용하면서 공감과 소통의 대상으로서의 독자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논구한 전은경의 「근대계몽기 학회지의 서사적 실험과 근대성 - 몽유록계 서사를 중심으로」 등 다양한 이론과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선생님,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제41회 국내학술대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 페미니즘/젠더의 향방’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특집기획|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젠더와 페미니즘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젠더, 노동, 네트워크

김양선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

류수연

팬데믹이 가져온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과 그 함의

영화 〈팬데믹 ONLY〉(2020, 타카시 도셔 감독)를 중심으로

이채원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여성)문학의 응답

젠더, 노동, 네트워크

김양선*

1. 서론-팬데믹, 여성/노동의 장을 흔들다
2. 복수(複數)의 주인공들, 실명제 서사가 구현한 서사 네트워크
3.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여성사(事/史)
4. 결론-팬데믹 이후 여성-문학의 향방

| 국문초록 |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들이 사적, 공적 영역에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영역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최근 여성문학의 경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의 재구조화에 어떤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지금까지 비가시적 존재로 여겨져 왔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역설적으로 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 비가시적 존재들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한다고 보았다. 공동체 성원들의 책임과 연대는 최근 여성문학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최근 여성서사의 특징을 복수의 주인공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여하는 실명제 서사의 귀환이라고 보았다. 이 장에서 논의한 김의경의 『콜센터』와 정세라의 『피프티 피플』은 실명제 서사이면서, 각 장의 인물-이름들이 서로 연결되는 소위 네

*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부교수.

트위크 서사 전략을 통해 인물들 간의 연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3장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여성사(事/史)’에서는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수행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소설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여성화는 엄마와 딸이 대를 이어서 이런 노동들을 전담하거나(황정은, 「하고 싶은 말」), 여성노동자가 웃음마저 연기하면서(황정은, 「복경」) 감정을 관리하는 상황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이 장에서는 돌봄 노동 전담자가 노인, 로봇, 상품화된 돌봄 제공자와 같은 비가시적 존재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윤이형, 「대니, 장류진, 「도움의 손길」)

결론적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연대를 상징하는 언어인 ‘With You’는 팬데믹 이후에 대한 상상과 연결된다. 『콜센터』, 『피프티 피플』의 네트워크 서사, 「하고 싶은 말」, 「복경」, 「도움의 손길」의 ‘그녀’들이 성별화된 감정노동, 돌봄 노동의 전담자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현실은 연결과 연대가 생존을 위한 대안이자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한 대안임을 보여준다. 이는 문학의 공공성과도 연결되는 가치이다.

주제어: 코로나19, 감정노동, 돌봄 노동, 네트워크 서사, 연결, 연대

1. 서론-팬데믹, 여성/노동의 장을 흔들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을 멈추고, 광장의 모임을 멈추게 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이 어떤 계층과 성별, 어떤 지역과 세대에게 더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여성이 처한 상황을 가시화하고, 이 문제를 정책과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들이 사적, 공적 영역에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특히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영역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최근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의 경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의 재구조화에 어떤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전망하고자 한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으로 출발한 문학 출판 분야의 페미니즘 리부트(Reboot)는 『현남오빠에게』, 『새벽의 방문자들』 같은 페미니즘 테마소설,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한국문학의 정상성을 묻다』(오혜진), 『#문학은 위험하다-지금 여기의 페미니즘과 독자 시대의 한국문학』(소영현 외)과 같은 페미니즘 문학비평, 그리고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대중 독자용 도서 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을 분기점으로 “문학장을 향해 직접 자신을 발화하고 욕망을 주장하기 원하는 새로운 독자들”이 기존의 문학적 ‘대의/재현’을 흔들고 있다고 보는 관점¹은 문학의 미학성과 정치성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하였다. 현재 페미니즘 문학의 재부상은 민족, 계급, 성차의 교차성을 작품에서 토포했던 80년대의 여성해방문학론, 여성의 욕망과 여성적 글쓰기를 발견하는 데 주력했던 90년대의 여성주의 문학론, 이천년대 초반 탈근대, 탈중심론, 포스트페미니즘을 거쳐 페미니즘이 다시 정치성과 공공성, 실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여성문학은 어떤 쇄신과 실천, 그리고 문학의 공공성을 재현의 영역에서 구현할 것인가

¹ 김미정, 「흔들리는 대의/재현의 시간: 2017년 한국소설 안팎」, 『문학들』, 문학들, 2017년 겨울, 48쪽.

가? 그리고 그 재현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더 격화된 혐오와 증오,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들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먼저 코로나19가 여성의 일상과 생존에 미친 영향부터 살펴도록 하자.

코로나19의 종식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은 지난 1년 동안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담론과 현실 장 전반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재난에도 남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팬데믹 상황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진단도 이미 여러 통계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상황은 돌봄 노동의 위기, 감정노동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적 영역의 돌봄 노동 비중이 증가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돌봄부담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40%에서 70%로 증가했다.² 봉쇄조치(셧다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 보육시설, 장애인, 고령인구를 위한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중단되고 임금 가사노동자를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돌봄 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돌봄 위기’가 심화된 것이다. 공적 영역의 대표적인 돌봄 노동의 현장 역시 위기에 처했다. 보건사회 분야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의료 현장의 가장 앞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³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빠르게 사라졌다. 2020년 3월 한 달간

2 한국여성민우회,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2020.10.28.

3 채효정, 「누가 이 세계를 돌보는가-코로나 이후 돌봄의 의미와 가치의 재구성성을 위한 단상」,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20.12, 32~50쪽
서보경은 저임금과 성차별에 기반한 착취구조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과 조우할 수밖에 없는 연결성은 우리 사회가 타자로 정의한 이들을 배제하고, 필수적인 돌봄 노동을 혈값으로 후려치면서 간신히 정상성의 장막을 유지해 왔음을 폭로한다고 말한다.

요양, 어린이집, 급식, 청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0~60대 중년 여성의 해고가 50~60% 이상 급증했고, 11만 5,000여 명이 실직했다. 학교뿐 아니라 사교육 시장도 위축되면서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 감소율은 남성(31%)의 두 배(70%)에 이르렀다. 돌봄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시장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집 밖과 집안의 돌봄 노동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사적 영역에서의 무급 돌봄 노동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급 돌봄 노동의 저임금을 초래해 왔다. 돌봄 경제의 가시화, 돌봄 노동의 여성화, 탈가족화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저평가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와 돌봄 노동 전담자라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구조가 코로나19의 외중에 되살아나고 있다.

여성-청년의 이중고는 더 심하다. 2020년 1월에서 8월 사이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은 전체 자살시도자의 32.1%로 이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⁴ 20대 여성 56.7%, 30대 여성 50.5%, 60대 여성 57.9% 등 여성 대다수가 ‘코로나19’와 ‘우울(blue)’이 합쳐진 단어인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⁵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이 높은 직업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성이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여성 안에서도 위기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계층과 직군에 비해 취업 감소 및 일시휴직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영역에서 감정노동⁶ 영역의 취약성 역시 돌봄 노동과 겹치면서 심화

서보경, 「서둘러 떠나지 않는다면 - 코로나19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돌봄의 생명정치」, 『문화과사회』 33(3), 문화과지성사, 2020 가을, 38쪽.

⁴ 「코로나19는 공평하지 않다 - 2020년 상반기 여성 자살 사망자 1,924명」, 『경향신문』, 2020.1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80921001)

⁵ 「여성 · 젊은층에 더 절게 드러내는 ‘코로나 블루’의 그늘」, 『의사신문』, 2020.12.6.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87>)

되었다. 코로나가 환기한 여성-감정노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김관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28명 집단감염 (2020.3.10.)’을 든다. 2020년 3월 22일까지 관련된 확진자가 152명이었고, 서울 최초 사망자도 콜센터 확진자의 남편이었다는 점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김관옥은 전국에 1000여 곳의 콜센터, 그중 서울에만 520여 곳이 있는 콜센터와 그곳에 근무하는 4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태에서야 비로소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태를 두고 “상당사의 몸은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가 되고 나서야 주목을 받는, 즉 소위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을 얻게” 되었다고 지적한다.⁷

특정 종교시설이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낙인찍히기 전,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콜센터, 택배 회사, 게이 클럽으로 특정되는 곳에서 일어난 사실은 예의 팬데믹이 여성, 노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19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약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감염의 종식을 위해서는 이 비가시적 존재들에 대한 돌아봄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은 최근 한국 여성문학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최근 문학 장에서 페미니즘 리부트를 이끈 한 축이 앞에서 살펴본 페미니즘 문학의 부상이라면, 또 한 축은 최은영, 황정은, 김금희, 김숨, 김혜진 등이 주도하는 여성서사의 귀환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작가들은 ‘아무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사회적 약자들 혹은 ‘쇼코’나 ‘복경’, ‘복자’로 불리는

6 감정노동은 감정이 노동시장에서 팔리는 노동력 상품으로서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혹실드는 감정을 노동시장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자아의 핵심적 부분을 자본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앨리 러셀 혹실드, 이가람 옮김, 『감정노동 -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매진, 2009, 21쪽.

7 김관옥, 「바이러스는 넘고 인권은 못 넘는 경계, 콜센터」, 『창작과비평』, 창비, 2020 여름, 401쪽.

딸이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 소설의 장에 소환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문학의 특성을 실명제 서사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이 두 번째 축을 중심으로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을 다룬 소설들이 어떻게 연대를 이야기하는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향방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수(複數)의 주인공들, 실명제 서사가 구현한 서사 네트워크

최근 여성서사⁸에서 실명제 이야기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신경숙의 소설에서 ‘그녀’ 혹은 ‘너’로 호명되었던 여성들이 어느 순간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 A, B, K와 같은 알파벳으로 호명되었던 상황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무기명(無記名)에 가까운 이 무국적의 호칭은 아마도 그녀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이 여성들이 잊힌 혹은 비가시적 존재임을 환기하기 위한 서사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희미했던 ‘그녀들’이 이제 복자(김금희, 『복자에게』), 복경(황정은, 『복경』), 한영진, 이순일(황정은, 『하고 싶은 말』)의 이름을 가지고 서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다. 잊힌 혹은 비가시적 존재였던 여성들의 이야기의 귀환이라 할 만하다.⁹

이 장에서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자기 삶의 서사에 구체성을 부여받게 된

⁸ 이 글에서는 ‘여성서사’를 ‘여성작가’가 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로 느슨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⁹ 정홍수는 최근 글에서 『연년세세』는 이순일, 한영진, 한세진이 이름을 되찾고 ‘하지 못한 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공간이라고 평한다. 연작소설의 첫머리에 놓여 있는 「파묘(破墓)」를 읽는 일은 온통 이름(정확히는 성명)을 읽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소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자리를 전통적 가족 관계의 호명(부, 모, 장남, 장녀, 차녀 등) 안에서 지워온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거부로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이 글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실명제 서사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정홍수,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광장’이라는 신기루」, 『문학과사회』, 문학과 지성사, 2020 겨울, 346쪽).

이 여성들, 청년들이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현장에서 모욕을 견디고, 고객과 관리자의 갑질과 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성)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에 주목할 것이다. 대상 작품은 김의경의 『콜센터』, 정세라의 『피프티 피플』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콜센터 상담사의 현장을 기술한 김관옥의 글은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콜센터 상담사를 주제로 소설을 쓴다면 첫 장면은 무엇으로 시작할까? 감정 노동을 대표하는 직업인 만큼 폭언 앞에 찢쩍매고 있는 상담사를 묘사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제6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한 김의경의 소설 『콜센터』(광화문글방, 2018)는 어떤 장면으로 시작할까? 피자 프랜차이즈 콜센터에서 실제 상담사 일을 했던 작가가 고른 장면은 ‘담배연기로 자욱한 옥상’이었다.

(중략) 소설의 첫 장면과 끝 장면에서 옥상 흡연구역은 중요한 장소로 부각된다. 옥상은 상담사들의 도피처이자, “걱정과 분노로 가득한 장소”(225쪽)로 묘사된다. 이들에게 흡연¹⁰은 악성 고객의 쓰나미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처럼 그려진다. 담배는 힘든 감정노동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구체적 사물로 등장한다.¹¹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환경은 단순히 고객의 갑질과 감정의 소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흡연과 같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고객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콜이 자동으로 배분되는 통

¹⁰ 조사에 따르면 여성상담사의 흡연율은 37%로 성인 여성의 흡연율 6.2%의 5배를 넘는 수치라고 한다. 실제로 콜센터, 백화점 등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흡연율은 40%에 이른다. 흡연은 갖가지 노동 통제와 고객의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여성의 흡연은 소설 『콜센터』에서처럼 민원의 대상이 된다(주리가 (...) 힘들게 끊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 현아 실장이 뛰어 들어왔다. “빨리빨리 내려가. 민원 들어왔어. 담배 피우는 것들 다 고소한대.”(『콜센터』, 8쪽)). 흡연을 둘러싼 성차의 정치학이 작동하는 것이다.

¹¹ 김관옥, 앞의 글, 402쪽.

제와 감시의 체제, 고객→팀장→동료상담사들로 층층이 위계화된 모욕의 시스템화는 콜센터 상담사를 취재한 김관욱의 글에도 나오고 소설 『콜센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된다.

필자가 소설 『콜센터』에서 주목하는 것은 감정노동 현장의 생생한 묘사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이유로 스무 살 청춘에 콜센터의 전장에 뛰어든 강주리, 우용희, 최시현, 박형조, 하동민 다섯 청춘의 서사를 번갈아 가며 진술하는, 익숙하지만 효과적인 서사 전략에 있다. 이 청년들은 취업난, 빈곤으로 점철된 개인사로 인해 잠시 머무는 밥벌이의 터로 비정규직 콜센터 상담사를 택한다. 소설에서는 다섯 명의 이름이 차례대로 번갈아가며 각 장의 제목이 되고, 이들은 자기 이름이 붙은 장에서 자기 서사의 주인공이 된다. 저마다 개인사는 다르지만 이들은 콜센터라는 노동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대를 한다. 진상 고객을 찾아 복수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이 여행을 아나운서 지망생인 시현이 방송원고로 복기하는 장면은 이들이 노동이 되어버린 감정, 갑질에 소진된 감정을 벗어나 상호의존성과 유대를 통해 모종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상담사와 전문상담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콜센터에서 주문을 받는 일반상담사, 블랙컨슈머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상담사.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욕상 말고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점에서 그들은 평등합니다. 하루 종일 진상 고객에게 시달린 전문상담사 최시현 씨, 진상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콜센터를 뛰쳐나갑니다. 그녀와 동행한 친구들은 1년 8개월간 동고동락한 스물다섯 살 청춘들입니다. …(중략)… 진상 찾아 삼만리를 한 1박 2일의 시간, 그 일탈의 시간은 단지 시간 낭비였을까요? …(중략)… 글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감정이 흐르는 대로 놓아두고 따라가다 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청춘이라고요.¹²

강주리에서 시작해서 강주리로 끝나는 이 소설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주리가 “진상 고객에게 시달린 시간”이 “조금은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회상하며 “다섯 명이 함께 일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감정노동의 시간이 한편으로는 연대의 시간이고, 이 청년들이 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각 장(chapter)의 제목이 곧 인물의 이름이며, 각 장의 초점인물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면서 이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의존하면서 네트워킹화되는 양상은 정세랑의 『피프티 피플』에서 더 주밀하게 드러난다. 이 소설은 수도권 외곽의 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또는 단단하게 연결된 병원 안팎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작가는 51명의 인물들에게 모두 이름을 부여한다.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각 장의 제목이 초점화 인물의 이름이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병원의 응급의학과 인턴의 서사(이기운)에 에피소드로 삽입된, 귀에 벌이 들어와 실려 온 환자가 다른 장(문우남)에서 주인공이 되는 식이다. 썩크홀 희생자의 남편인 병원 방사선사(이환의)의 서사와 썩크홀에 빠진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고 당사자 아내(배운나)의 서사가 연결되고, 배운나의 서사 안에 데이트폭력의 희생자인 아르바이트생과의 인연이 개입되고, 데이트폭력 희생자의 어머니(조양선)의 서사가 배분되는 식이다. 또한 이 소설은 썩크홀 사고 가족(최애선), 화물차 사고의 피해자 가족(장유라), 가슴기 살균 피해자 가족(한규익)의 서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재난 트라우마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재난의 일상화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른 지금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여전히 비상시국의 나날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우리의 고통을 야기한 재난의 뿌리가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 약탈 자본주의에 있음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한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연상시킨다.

12 김의경, 『콜센터』, 광화문글방, 2018, 185~186쪽.

병원과 그 주변 공간을 중심으로 수렴되는 동시에 확산되는 ‘그들의 이야기’는 소설 마지막 장 ‘그리고 사람들’에서 ‘나’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서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한 극장에 모인다는 설정, 화재가 나자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설정이 그것이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유가족을 만들지 않았다.”¹³는 결말의 문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재난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관계와 협력, 상호의존성에 있다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소설은 이 연대를 각 장의 인물-이름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서사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콜센터』와 『피프티 피플』이 보여준 연대의 서사, 네트워크의 서사를 돌봄 노동, 감정노동을 다룬 소설들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 여겼던 돌봄 노동, 감정노동이 시장의 상품경제 회로 속에 들어간 후에도 성별화되고 평가절하되는 상황을 이 소설들은 실명제 서사, 여성사(事/史)의 형식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다.

3.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여성사(事/史)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여성사는 황정은의 소설 『아무도 아님』에 수록된 단편 「복경」, 가족사(史), 그중에서도 모녀의 여성사를 다룬 근작 『연년세세(年年歲歲)』의 「하고 싶은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연년세세』의 「파묘」와 「무명」은 한국전쟁과 개발독재 시대를 월남민이자 하층민이자 여자로서 힘겹게 살아낸 엄마 이순일의 생애를 초점화한다. 「무명」에서 이순일의 어렸을 때 이름인 ‘순자’는 ‘복자’처럼 현대사 속에서 차별받은, 여아의 평범성

¹³ 정세랑, 『피프티 피플』, 창비, 2016, 389쪽.

을 환기한다. 「하고 싶은 말」은 딸을 대신해서 사적 영역의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엄마 이순일과 공적 영역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딸 한영진의 이야기이다. 아래 예문은 돌봄 노동과 감정노동이 엄마와 딸, 여성의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¹⁴

한영진은 종일 신고 다닌 스타킹을 벗지 못한 채였고 이순일은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한영진은 이순일이 아침에 잠자리를 떠나자마자 그걸 몸에 두르면 자러 눕기 직전해야 벗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순일은 한영진과 김원상의 집에서 그릇을 닦고 아이들 장난감을 정리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널고 식사를 준비했다. 한영진, 김원상, 예범, 예빈, 한중언, 이순일 자신까지 포함해 여섯 사람의 살림을 돌보고 그들이 먹을 반찬과 국을 만드는 일, 그 일의 대가로 한영진 부부는 늙은 부부가 살도록 아래층을 내주고 생활비를 댔다. 엄마의 사물들과 엄마의 짜증을 감당했다.¹⁵

이순일은 집에 있는 시간 내내 가슴과 배를 덮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과 그 상 사이를 오갔다. 리넨으로 만든 얇은 앞치마가 아니고 시간 상인들이 입는, 방수 기능에 충실하고 오염에 강한 앞치마였다. 그걸 두른 엄마의 모습이 주부라기보다는 푸줏간에서 일하는 푸주한처럼 보였던 것을 한영진은 생각했다.¹⁶

집에 와서도 채 벗지 못한 딸의 스타킹과 하루 종일 두르고 있는 엄마의

¹⁴ 통계청의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20만 명의 여성 가운데 비취업 여성은 절반 정도에 이르며, 이 중 중단녀는 39.8%에 달한다. 경력 단절 사유 중 1위는 육아 때문이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취업 여성이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남성의 두 배 이상이며, 이러한 불평등은 맞벌이 가구나 여성 외벌이 가구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경력단절을 피하고, 돌봄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의 이순일처럼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돌봄 노동의 전담자는 엄마·딸로 묶이는 것이다.

¹⁵ 황정은, 「하고 싶은 말」, 『연년세세』, 창비, 2020, 50쪽.

¹⁶ 위의 소설, 79~80쪽.

앞치마는 이들의 노동을 표상하는 시각적 소구이다. 딸 한영진이 식구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돌봄 노동의 전담자인 엄마의 노동을 바라보는 위 장면은 대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돌봄 노동의 힘겨움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몰락한 부모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야 했던 한영진은 감정노동으로 생활비를 벌면서도 “스스로를 모성이라는 게 결여된 잘못된 인간”이 아닌지 회의하며 도덕적 죄책감을 느낀다. 노동 시장이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지만 사적 영역의 돌봄 수행자는 여전히 여성이라는 고정 관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던 한영진이 기실 모성이 ‘만들어진’ 것이며, ‘학습’되고 ‘형성’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 이순일의 노동, 즉 돌봄 노동 덕에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과 감정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모녀의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연대감은 세대를 넘어 여성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자신의 자유를 헌납하면서 살아왔다는 상황과 역사, 즉 여성사(事/史)를 공유한 데서 나온다. 돌봄의 무한회로 속에서 여성들은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여성, 심지어 근처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려 온 것이다.

황정은은 이미 「하고 싶은 말」 이전에 발표된 「북경」에서 가난한 부모를 둔 생계부양자이자 감정노동의 최전선에 선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북경」의 ‘북경’은 백화점 침구류 매장의 판매원으로 “고객들에게 시달리기로 악명높은”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소설은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요. 자꾸 웃거든요. 나는 매일 웃는 사람입니다.”라는 상징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 ‘너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에 “웃고 싶지 않은데 매일 웃어야 하는, 웃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답변은 자본이 감정노동자에게 ‘웃음’조차도 서비스의 핵심 덕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¹⁷ 소설은 고객의 갑질 외에 감정노동자들이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한다. 판매원과 계산원이 서로를 증오하고, 미화원이 둘 다 증오하고, 조리사들이 이들 모두를 증오하고, 이들 모두가 조리사를 증오하는 부정적 감정의 무한회로는 감정노동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주의가 이들의 공적 관계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조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갑질로 푸는 상황을 소설에서는 매니저의 행동을 빌려 ‘도계자’라는 말로 표현한다. ‘도계자’는 “끓으라면 끓는 존재가 있는 세계. 압도적인 우위로 인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경험(173쪽)”이다. 매니저는 ‘무시당하는 쪽도 나쁘다.’,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나는 매니저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 감정노동자들끼리의 위계화가 자존감의 회복을 가져오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모멸감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존, 존귀, 귀하다는 것은, 존, 그것은 존, 존나 귀하다는 의미입니까(173쪽)”라며 ‘존귀’하다는 단어를 ‘존나’라는 비속어를 사용해 비틀고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을 수 있는 자유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웃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매순간 구겨지고 당겨지는 가짜 웃음”을 주인공은 마치 컴퓨터 자판의 오타처럼 ‘웃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진정성의 의미를 비속어나 오타를 구사하여 의도적으로 오염 시킴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시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돌봄 노동의 상품화, 탈가족화가 진행 중인 현실, 나아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AI)이 돌봄을 수행할 미래를 상상한 작품들이 장류진의 「도움의 손길」, 윤이형의 「대니」이다. 여성이 유급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가정에서

17 ‘웃늬’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선구적으로 소개했던 흑실드가 주목했던 감정노동자의 특징이다. 흑실드는 델타항공 승무원 연수에서 “근무할 때는 진심을 담아 웃어야” 한다고 교육하는 장면을 인상 깊게 소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감정 상태도 서비스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감정노동의 특징이라고 말한다(앨리 러셀 흑실드, 앞의 책, 18~21쪽).

직접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돌봄 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돌봄 노동의 상품화라고 한다. 그런데 돌봄 노동의 공급자, 즉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자기를 대신해 돌봄 노동을 할 사람을 구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대부분 여성이다. 집안과 집 밖 양 공간에서 돌봄 노동이 여성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 그러면서 돌봄과 관련된 일자리가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현상들을 ‘돌봄 노동의 여성화’라고 한다.¹⁸ 돌봄 노동의 상품화가 이미 진전된 상황이지만 공사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앞서 「하고 싶은 말」¹⁹, 장류진의 「도움의 손길」 등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이 돌봄을 수행하는 「대니」를 보자. 소설은 딸 대신에 손자를 돌보는 69살의 인간-여성과 24살의 베이비시터 로봇-남성 간의 감정적 유대를 다루고 있다. 이 둘은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라는 차이가 있지만, 돌봄 노동 전담자, 노인, 로봇이라는 중첩적 이유로 비가시화된 존재, 주변적인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²⁰ ‘대니’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 자녀를 대신해 혼자 아기를 키우는 노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꾼인가, 고독한 삶을 살며 무불 돌봄 노동으로 자발적 착취를 자처하는 노인들의 감정을 읽고 위로하는 존재인가? 손주를 키우는 ‘나’는 딸의 경력단절을 걱정하여 편안한 노후를 포기하고 손주를 양육하는 자발적 착취를 택하게 된다.

18 안숙영, 「돌봄 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8, 2~3쪽.

19 「하고 싶은 말」에서 어머니 이순일의 노동은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최근까지도 ‘진짜 노동(real work)’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여성들이 어머니, 아내, 딸, 혹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사랑의 행위’로 불리는 가운데,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무급의 활동으로만 간주되어”, 소위 ‘그림자 노동(shadow work)’으로 자리하게 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림자 노동’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5~7쪽을 참고함.

20 이들의 존재가 경찰의 취조라는 형태로 공적 영역 혹은 커뮤니티에서 가시화된 때는 그녀와 대니가 ‘돌봄 노동’의 역할과 영역을 벗어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로봇 원칙을 어기고 타인, 특히 사람을 공격할 때이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천사 같은 손주 키우기가 유일한 소일거리이자 낙인 늬은이”²¹이다. 하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적 모성성을 연기하면서 나는 “차라리 기계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봄 노동의 악순환 속에서 소진되어 간다. 반면 대니 - 돌봄 로봇은 기계이기에 ‘감정적 불안정’이 없다. 모성성을 연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딥러닝으로 ‘입력된’ 안정감을 아이에게 제공한다. 그런 ‘대니’가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딸조차 읽어내지 못한 나의 고통을 읽고 공감한다. 돌봄 노동의 어려움을 견디고 감정을 억제하는 인간, 인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로봇이라는 전치(轉置)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로봇이 인간과 살고 싶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인간이 인간 아닌 로봇에게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사회학이나 과학철학이라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은 당위이자 의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관계의 파국, 불안과 파괴를 이야기한다.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경계를 횡단하고, 상처로 점철된 감정을 위로하고 교류하는 돌봄의 서사는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돌봄 노동자 역할의 궤도를 이탈하는 존재들이 출현한다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장류진의 「도움의 손길」은 ‘돌봄의 상품화’가 이미 일상화된 현실에서 빚어질 법한 상황을 제시한다. 돌봄 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여성 임금노동자와 여성 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 여성들 사이에는 물질적, 감정적 위계가 생기게 되었다. 「도움의 손길」에서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여성 사이의 갈등에는 세대, 종교, 계급의 문제가 얹혀 있다. 안정적 삶을 위해 덩크를 선택한 젊은 여성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합당한 가사노동 서비스를 원할 뿐, 그녀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녀는 나의 생활 스타일과 비출산을 문제 삼거나 가사노동 경험을 빌미로 나를 가르치려 든다. 결국 가사노동 업무를 제대로

21 윤이형, 「대니」, 『러브 레플리카』, 문학동네, 2016, 21쪽.

수행하지 않으면서 둘의 계약관계는 깨진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만두는 시점에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을 맺기로 한 둘 사이의 묵약을 파기해 버린다. 돌봄 노동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벌어진 이 문제적 상황은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이 여성의 일로 할당되고, 상품시장에서 평가절하되면서 빚어진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지 않고, 여성 대 여성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축소하고 봉합해 버리는 정황들을 세심하게 짚고 있다.

돌봄 노동의 구매자인 ‘나’ 역시 갑의 위치에 있다기보다 노동자이면서 이상적인 스위트홈을 설계하고 관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이다. 나는 가부장제가 할당한 사적 영역의 관리자 역할을 돈으로 구매하고, 누군가를 부리는 게 불편해서 오랫동안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을 꺼렸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신중하게 선택한 뒤에도 그녀의 노동을 관리하는 일은 오롯이 아내의 몫이고, 남편에게는 ‘무임승차권’²²이 주어진다. 소설에서 욕실과 창틀, 주방의 청소상태를 신중하게 체크하고, 세제사용법을 두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등의 디테일한 상황 묘사는 돌봄서비스에서 빚어지는 갈등에서 남편은 가려지고, 여성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사적 갈등이 도드라지는 양상을 포착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현장을 그린 작품들은 ‘감정’이나 ‘돌봄’ 서비스가 시장경제의 회로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여성화’된 노동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여성들 간의 위계와 모순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한다. 그렇다면 「대니」에서 일부 보여준 것처럼 성차에서 빚어진 위계를 깨고 그 역할을 기계 - 비인간이 대체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소

22 돌봄 임무와 돌봄 역할 분담이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주어지고 이것을 ‘여성의 일’이라 여기는 영역에서 남성에게는 ‘무임승차권’이 주어진다.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3, 147쪽.

설이 아닌 현실 세계로 돌아와 그 단서를 찾아보자.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²³정책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에는 비대면 사업 육성의 방안으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돌봄 노동을 디지털 돌봄, 돌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이 가시화된다면 여성의 돌봄 노동이 줄어들거나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 실현되기는커녕 여성계의 우려처럼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²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계-로봇이 아니라, ‘대니’가 보여준 공감과 돌봄의 정서를 사회와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4. 결론-팬데믹 이후 여성-문학의 향방

2021년 2월 26일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11월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집단면역과 행동수칙을 통해서만 공동체와 나, 이 세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집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진술은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연대, 공생, 타자에 대한 모종의 윤리적 책임감에 있음을 환기한다. 이질적 존재들과 늘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함께-있음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통치를 넘어서는 돌봄의 정치적 전망²⁵이라는 제안이 의료윤리나 의료

23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63152&cid=42107&categoryId=42107>)

24 「한국판 뉴딜에 여성노동자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202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20>)

사회학 연구자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학은 이런 제안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최근 여성작가들의 돌봄과 감정노동의 서사들이 보여주는 돌봄의 윤리, 잊힌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여 호명하는 실명제 서사들은 각자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삶에 대한 탐색이야말로 문학적인 공공성의 의미와 맞닿²⁶아 있음을 역설한다. 필자는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연대를 상징하는 ‘With You’가 팬데믹 이후에 대한 상상과 연결된다고 본다. 『콜센터』, 『피프티 피플』의 네트워크 서사는 각 개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복경」, 「하고 싶은 말」, 「도움의 손길」의 그녀들의 서사는 한국 사회 빈곤의 젠더화가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의 형태로, 가족사(事/史)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온택트(On tact) 상황은 산업이나 과학 분야에서 말하는 초연결시대를 앞당기면서 연결과 연대가 인류 공동의 생존을 위한 대안임을 강제하는 듯하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여 페미니스트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관계 안에서의’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이다.²⁷ 이 글에서 다룬 소설들은 이 대안에 대한 문학의 답변이자, 문학의 공공성과 미학성을 함께 고민한 결과이자 출발점이다.

25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코로나19의 구호는 인간과 병원체, 제도와 시장, 의학과 정치, 성차, 지역적인 것과 글로벌한 것의 층위 모두에서 책임성에 기반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보경, 앞의 논문, 38~39쪽).

26 백지연, 「페미니즘과 공공의 삶, 그리고 문학」, 『창작과비평』, 창비, 2018 여름, 42쪽.

27 조안 C. 트론토, 앞의 책, 86~87쪽.

참고문헌

- 김관옥, 「바이러스는 넘고 인권은 못 넘는 경계, 콜센터」, 『창작과비평』, 창비, 2020 여름
백지연, 「페미니즘과 공공의 삶, 그리고 문학」, 『창작과비평』, 창비, 2018 여름
서보경, 「서둘러 떠나지 않는다면 - 코로나19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돌봄의 생명정치」, 『문학과사회』
33(3), 문학과지성사, 2020 가을
안숙영, 「돌봄 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8
오혜진,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한국문학의 정상성을 묻다』, 오월의 봄, 2019
정홍수,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광장’이라는 신기루」,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20 겨울
채효정, 「누가 이 세계를 돌보는가-코로나 이후 돌봄의 의미와 가치의 재구성을 위한 단상」,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20.12
한국여성민우회,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2020. 10.28
엘리 러셀 흑실드, 이가람 옮김, 『감정노동-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매
진, 2009
조안 C. 트론토, 김희강 · 나상원 옮김,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3,
「코로나19는 공평하지 않다—2020년 상반기 여성 자살 사망자 1,924명」, 『경향신문』, 2020.1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80921001
「여성 · 젊은층에 더 질게 드리우는 ‘코로나 블루’의 그늘」, 『의사신문』, 2020.12.6.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87>
「한국판 뉴딜에 여성노동자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202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20>

Response of (Female) Literature to Post-Pandemic Society

Gender, Labor, and Network

Kim, Yangsun | Hallym University

This article overviews the women who are in crisis in the private and public areas due to Covid 19, specially focusing on the emotional labor and care labor. And this tries to predict how the recent trend of female literature can provide the positive imagin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post-Covid era.

First, the disaster such as Covid 19 has paradoxically resulted in the visualization of invisible beings, including women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evoke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these invisible beings. The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of community members are also main topics in female literature these days.

In Chapter 2, I notice that the return of the real name narrative which gives names to each characters in recent female literature. Kim Eui-kyung's *Call Center* and Jeong Se-rang's *Fifty People* discussed in this chapter are real name narratives and these effectively express the solidarity between the characters through the so-called network narrative strategy.

Chapter 3, "Women's Story/History of Emotional Labor and Care Labor" analyzed how the novel depicts the situation in which emotional labor and care labor are transferred only to women. The feminization of emotional labor and care labor is revealed through situations in which mothers and daughters continue to take charge of these labors. (Hwang Jeong-eun 'What I Want to Say'), and female worker performs her laugh and manages her emotions. (Hwang Jung-eun, 'Bok-Kyeong'). In this chapter, it was also noted that care workers are invisible beings, such as the elderly, AI robot, and commercialized care provider. (Yoon Yi-hyung 'Danny', Jang Ryu-jin 'Hand of Help')

In conclusion, the 'With You' which symbolized the solidarity in the era of Feminism Reboot is connected with the imagination and vision about post Pandemic society. The network narrative in *Call Center*, *Fifty People*, and the gendered emotional labor and care labor in 'What I Want to Say', 'Bok-Kyeong', 'Hand of Help' show that connection and

solidarity are alternatives for the survival and the community. This is also linked to the public character of literature.

Key words : Covid 19, Emotional labor, Care labor, Network narrative, Connection, Solidarity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

류수연**

1. 공선옥과 1990년대라는 결절
2. 오월 광주에서 발견한 또 다른 존재들
3. 가부장제의 바깥, ‘엄마’에 대한 재인식
4.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서
5. 결론

| 국문초록 |

1990년대는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발점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모순적 대상이기도 하다. 공선옥의 90년대 작품은 바로 이러한 단절 속에서도 여전히 현재와 접속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여러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성신화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공존이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페미니즘이 문제 삼고 있는 화두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팬데믹과 함께 불거진 여성노동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 논문은 인하대학교 일반교수연구비를 지원받았음.

** 인하대학교.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공선옥의 90년대 소설 가운데에서도 가부장제적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 위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던 일련의 작품을 논의함으로써, 공선옥의 90년대 작품이 가진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선옥, 페미니즘 리부트, 90년대, 가부장제, 모성신화, 엄마, 돌봄, 노동

1. 공선옥과 1990년대라는 결절

2010년대를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페미니즘 리부트’일 것이다. 메갈리아부터 강남역 페미사이드, #○○내성폭력, 미투운동, 다시 최근의 탈코르셋 운동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은 사회 곳곳에 은폐되어 있던 젠더적 모순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손희정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용어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는 이 용어를 통해 2015년 이후 일어난 페미니즘 운동과 기존 페미니즘 운동 사이의 단절과 접속을 포착하고, 이러한 운동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과 (대중)문화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¹

그런데 본래 리부트라는 용어는 연속성보다는 새로움에 더 주목하는 개념이다. 그에 따라 페미니즘 리부트 역시도 기존 페미니즘 운동과의 단절이라는 지점이 좀 더 부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제시되었던 ‘접속’이라는 지점은 상당 부분 후퇴했던 것도 사실이다. 2015년을 전후로 등장한 페미니즘 리부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기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극복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전 시대와의 결별 없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단절의 이면에는 분명 ‘접속’이 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지점이다. 리부트라는 용어가 가진 ‘거리두기’는 이 ‘접속’과 함께 할 때 보다 상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결국 새로움이란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과 결별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부정하고 거부했던 것

¹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6쪽 참조.

은 전시대의 방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봉합하려는 시도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현재를 사유하고 비판하며 그 문제의식을 실행하고자 했던 역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공선옥의 90년대 작품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1990년대는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발점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모순적 대상이기도 하다. 공선옥의 90년대 작품은 바로 이러한 단절 속에서도 여전히 현재와 접속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여러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성신화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공존이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페미니즘운동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과 함께 불거진 여성노동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공선옥의 90년대 소설 가운데에서도 가부장제적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 위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던 일련의 작품을 논의함으로써, 공선옥의 90년대 작품이 가진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돌봄과 생존, 그리고 필연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환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사회적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조건까지도 환기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현재의 페미니즘 리부트가 전 시대와의 결별을 통해 그 방향을 오롯하게 한 것처럼, 90년대 여성서사 역시 동시대와의 불화를 통해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연계성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오월 광주에서 발견한 또 다른 존재들

공선옥은 1991년 계간 『창작과비평』에 등단작 「씨앗불」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공선옥의 등단작인 「씨앗불」은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후’를 그려내고 있다. ‘후일담 소설의 한 갈래인 이 작품은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흔을 그려내면서도 상투성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것은 주인공 위준의 아내인 진예의 시선이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해주었기 때문이다.’² 오월 광주에 대한 상흔은 작가 공선옥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로, 그의 90년대 작품들은 직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작품이 많았다. 단편소설 「떠도는 나무」(『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삼신각, 1993), 「목마른 계절」(『창작과비평』, 1993 여름호), 「목숨」(『창작과비평』, 1992 가을호), 「흰 달」(『실천문학』, 1993 겨울호) 등에서, 5.18은 등장인물들의 현재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은 역사적 조건으로 회상되거나 환기되었다.

그러나 「씨앗불」의 세계가 보다 확장된 것은 아무래도 장편소설인 『시절들』(문예마당, 199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한 남자의 삶과 성장에 개입된 5.18을 둘러싼 여러 굴절을 보여주는데, ‘그날’의 시간을 가족사의 맥락 위에서 그려냈다는 점에서 공선옥의 세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선옥의 초기작은 오월 광주의 기억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공선옥은 대표적인 오월의 소설가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5.18은 공선옥의 작가적 정체성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의식인 동시에 그의 작품을 재단하는 굴레이기도 했다. 실제로 자전적 성격이 뚜렷한 단편소설 「목마른 계절」³에서, 공선옥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자신이

² 이상경, 해설 「소재와 방법의 새로운 모색」, 『피어라 수선화』, 창작과비평사, 1994, 322쪽.

³ 「목마른 계절」은 『창작과비평』 1993년 여름호에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소설집 『피어라 수선화』

겪는 현실적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시인은 말했다.

“아줌마가 발표한 글 두 개 있지? 그것도 내리 쓰지예다.”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이젠 아줌마도 광주에서 벗어나야 해요. 2,30년대의 신파가 그보다 낫거든, 한마디로, 아직도 광주? 웬 광주?거든.”

썩고 있는 고깃점이 단물 빠진 껌처럼 입속을 굴러다녔다.

「목마른 계절」, 15~16쪽

그럼에도 공선옥은 광주에 대한 서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5.18에 대한 천착은 90년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작가세계의 한 부분으로 지속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내가 가장 예뻤을 때』(문학동네)는 공선옥에게 있어서 광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스물 살 청춘들을 어쩔 수 없는 비애로 몰아넣은 역사의 비극은, 결코 박제된 역사일 수 없음을 환기하는 것으로 독자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공선옥의 세계를 5.18이라는 키워드로 한정하긴 어렵다. 그것은 작가 공선옥의 모태이자 그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소재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의 세계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5.18을 바라보는 시선 끝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오월 광주를 통해, 그리고 그 너머에서 그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모습은 바로 동시대의 여성들이다.

(창작과비평사, 1994)를 인용하였다. 이하 인용에 대해서는 제목과 인용면수만 명시하고자 한다.

갑갑한 여자들. …(중략)…

나는 내 어머니나 내 작은어머니 점옥이를 그렇게 단정지었다.

제 인생을 스스로 한 남자의 틀 속에 가둬 놓고 소모시켜 버린 여자들. 순종의 미덕이라고? 나는 비웃었다. 나는 내 남편의 고뇌를 이해는 하지만 동참하고 싶지는 않았다. 같이 미치고 운들 무엇이 달라질까.

「떠도는 나무」⁴, 248쪽.

「떠도는 나무」와 「흰 달」은 공선옥의 시선이 광주를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설쓰기 소설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떠도는 나무」는 일종의 창작노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자매’처럼 살아야 했던 자신의 두 어머니에 대한 회상 위에는 애증이 중첩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여된 그 다정함은 자기부정에 가까운 헌신과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 이면에 놓인 것은 지독히도 선한,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노동했고 그러면서도 노동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는 의식을 가졌으며, 타지에서 폐병을 앓는 여인(작은 어머니 유점옥)까지 보듬어주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그의 선택에 따른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나’의 어머니(친어머니 밤실댁)의 희생이 전제되었다.

아버지의 새로 시작함은 어머니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꿈과 업적과 삶의 보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일상의 기쁨 따위들을 모조리 그것도 순식간에 부정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흰 달」⁵, 185쪽.

4 「떠도는 나무」,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삼신각, 1993.

5 「흰 달」은 『실천문학』 1993년 겨울호에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소설집 『피어라 수선화』(창작과비

「흰 달」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된다. 여기서 아버지는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늘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성향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의 삶마저도 정당화한다. 5.18로 도시가 차단되면서 병을 앓던 어머니는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간 아버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은 언제나 여자의 것이었고, 남자의 욕망은 ‘살아남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당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순과 함께 길을 나섰다.

“느이 애비를 원망하지 말그라. 사람이 허는 일마다 실패를 보고 나니께 몸과 마음이 허했는 거라.”

“그렇지만 어머니를 버려두고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 아줌마 배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아가 망칙허기는. 허나 그도 또 다행헌 일 아니더냐. 느이 애비가 그래도 영 세상 안 살라고 작정헌 것은 아닌 게로구나. 자식끼정 새로 싱구는 것 봉계로.”

「흰 달」, 217쪽.

우리는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고는 한시도 배겨날 수 없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해 오월은 죽음의 계절이었지만 또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계절이었는지 네가 아니? 그리고 우리는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났어. 그 여자가 그랬다더군. 내가 그해 오월에, 사랑을 나누고 싸움장으로 간 마지막 날 그날 죽은 줄 알았다고.

「흰 달」, 201쪽.

여기서 과거는 다시 현재로 겹쳐진다. 아버지의 욕망이 너무나 당연하게

평가, 1994)의 수록본을 인용하였다. 이하 인용에 대해서는 제목과 인용면수만 명시하고자 한다.

도 어머니의 희생을 전제했던 것처럼, 오월 광주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았던 남편은 첫사랑의 아이를 위해 너무도 당연하게 ‘나’의 희생을 강요한다.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논리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의 남편에게까지 이어진다. 남자들의 욕망은 정당한 것으로, 그들의 이기심은 ‘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지된다.

이 부분은 공선옥의 90년대 소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는 거의 모든 5월소설 텍스트를 관류하는 일종의 기저음이자 무의식”⁶으로 간주되고는 했다. 실제로 5.18을 다룬 공선옥의 소설에서도 유사한 경향은 발견된다. 하지만 공선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이면까지 발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월 광주에서 촉발된 시대적인 절망과 좌절, 부끄러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삼은 비겁함과 폭력은 용인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러한 자각이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떠도는 나무」로 돌아가 보자. ‘나’는 남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의 남편은 오월 광주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이고, 지난 10년간 그 ‘살아남음’에 따른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연민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 연민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는 떠나기로 하였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 입고 싶지 않았다. (……)
그것은 무엇이었나. 무엇이었다.

나는 그 시절 말할 수가 없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입 밖으로 후후 내뿔어 버려도 무방할 그런 성질의 상처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말하건대 그것은 십여 년 전 저 참혹했던 봄날의 학살 현장

6 정명중, 「5월의 기억과 부끄러움」,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322쪽.

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지인들과 애인들이 죽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있었다.(216쪽)

「떠도는 나무」, 216쪽.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당연한 듯 이어진, 그리하여 때때로 아름답게
미화되는 그 ‘헌신’의 본질을 작가는 놓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했던 두 어
머니를 두고 “제 인생을 스스로 한 남자의 틀 속에 가둬 놓고 소모시켜 버린
여자들(떠도는 나무)”이라고 냉소하지만, 그녀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꿈
과 업적과 삶의 보람을 송두리째 부정(「흰 달」)’하게 만든 가해자가 누구인지
를 왜곡하지 않는다. 작가 공선옥의 시선에 포착된 그 가해자는 다름 아닌
가부장제라는 질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선옥의 서사는 비극을 주조하고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서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비극의 원인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충동이었다. 가정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욕망으
로 그 틀 바깥으로 나간 혹은 나가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직시한다. 그리고
그 욕망이 또 다른 한계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바라본다. 바로 이 지점
에서 여성의 욕망은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도출된다. 그것은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으로써, 공선옥의 작품세
계를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축이 된다.

3. 가부장제의 바깥, ‘엄마’에 대한 재인식

공선옥의 작품에서 5.18만큼 자주 환기되는 소재는 바로 이혼이다. 이러
한 경향은 그의 1990년대 소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작가 자신의 체험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등단 이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공선옥은 90년대에만 4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동명의 장편소설을 표제작으로 한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삼진각, 1993), 소설집 『피어라 수선화』(창작과비평사, 1994)를 연속으로 출간했으며, 5.18을 그린 장편소설 『시절들』(문예마당, 1996)과 소설집 『내 생의 알리바이』(창비, 1998) 등이 그것이다.

등단작인 「씨앗불」부터 오월 광주의 ‘이후’를 잘 그려낸 작가로 평가받는 것이지만, 실제 그의 작품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오히려 이혼과 그 이후의 삶이다. 이는 구체적인 작품의 설정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표 1〉 1990년대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특징 분석

서명	작품명	주요인무 성별	혼인 상태	돌봄 대상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여	이혼	아이1
	떠도는 나무	여	이혼 직전	아이 사망
	장마	여	이혼	아이 사망
피어라 수선화	목마른 계절	여	이혼	아이2
	불탄 자리에 무엇이 돋는가	여 (관찰대상)	이혼	아이1+장애인 언니 1
	그들이 사라진 저쪽	여	이혼	아이1
	피어라 수선화	여	이혼	임산부
	목숨	여	이혼	임산부
	우리 생애의 꽃	여	사별	아이1
	흰 달	여	이혼 직전	남편의 사생아
	목포는 항구다	남	독신	
	씨앗불	남	기혼	
시절들	시절들	남	독신	

서명	작품명	주요인물 성별	혼인 상태	돌봄 대상
내 생의 알리바이	모정의 그늘	여	사별	성년이 된 아들 2(장애인 1)
	타관 사람	남	독신	조카1
	어린 부처	여	이혼 직전	아이3(전남편2+ 현남편1)
	어미	여	이혼	임산부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	여	이혼	임산부
	몸을 위하여	여	이혼	
	뭬 먹고 살게	여	이혼	아이2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	여	이혼	아이2
	세한	여 (관찰대상)	가정폭력	아이들
	우리들의 고향	남	독신	
	내 생의 알리바이	여 (관찰대상)	이혼	아이3

1990년대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공선옥의 작품은 장편을 포함해서 총 24편이다. 이 중에서 이혼녀가 직접적인 주인공이자 서술자로 등장한 작품은 11편, 이혼 직전인 상황에 놓인 경우는 3편, 사별한 경우가 2편, 주요 관찰대상이 이혼녀이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3편이다. 반면 남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가 5편인데 그 중에서 4편은 독신이고 1편만 아내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90년대 공선옥의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압도적인 주제는 이혼과 그에 따른 여성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녀이거나 이혼을 앞둔 여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임산부인 상태로 생계와 함께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가부장제를 지탱한 것은 ‘낭만적 사랑’이다. 앤서니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이 여성들을 ‘그들의 장소’ 곧 가정으로 밀어 넣는 데 일조”⁷⁾했

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여성 인물을 이혼상태로 설정한 공선옥의 90년대 소설은 “남성과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주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거부”⁸로 읽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선옥의 소설에서 결혼과 이혼이 갖는 층위는 좀 더 복잡적이다. 오히려 공선옥의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낭만적 사랑 자체가 배제되어 있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에서 결혼은 낭만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필요에 따라 선택된 것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낭만적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결혼은 그 자체로 가부장제라는 견고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본다면 공선옥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으로 이동된 여성과 그 자녀의 삶이 된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엄마’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서 환기되는 ‘모성’과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 여성을 ‘모성’이라고 지칭할 때, 그 대상은 완결된 존재로서 인식된다. 그것은 한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성질을 모성이라는 틀 안에 가두는 것이다. 즉 남성(남편)과 자녀라는 관계망 안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치와 책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는 근대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영역을 축소하고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 종속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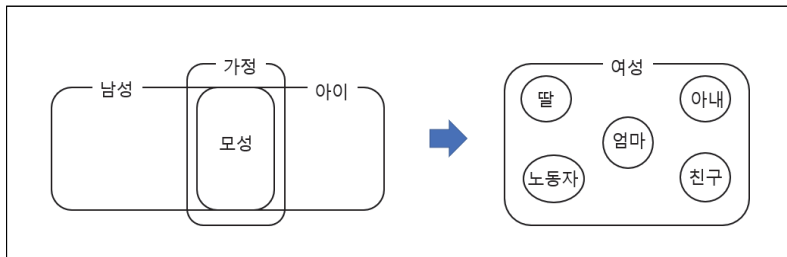
공선옥의 소설에서 이혼은 바로 한 여성이 자기 삶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모성’에서 벗어나 ‘엄마’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

⁷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외 역, 새물결, 1996, 26쪽.

⁸ 이덕화, 「공선옥론2: 반란의 시학, 삶의 거리지킴기」, 『한국문예비평연구』 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9, 107쪽.

은 “여성의 성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성을 정치와 경제, 이성에 의해 지배되고 주도해온 공공영역으로부터 배제”⁹⁾하고자 하는 모든 힘에 대한 저항이다. 이를 위해 공선옥은 엄마를 철저하게 하나의 ‘역할’로서만 인식하고자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표 2〉 공선옥 소설에 드러나 여성 인물의 성격변화



무엇보다 공선옥이 여성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모성이라고 환기할 때의 여성은 가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며 남성(남편)과 아이 사이에서 교집합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 때문에 부성이 대체로 그 부재를 통해 존재가 인식되는 반면, 모성의 존재는 언제나 당위적으로 인식된다. 공선옥은 바로 이 틀에서 벗어나 여성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가정이라는 틀 안에 여성을 가두었던 시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비로소 여성이라는 커다란 존재 틀 안에서 엄마는 여성에게 주어진 혹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공선옥은 처음부터 모성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인물들을 그려낸다. 애초에

⁹⁾ 윤광옥, 「공선옥 소설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13, 한민족문화학회, 2003, 89쪽.

가부장적 질서 안에 담아내기 어려운 인물들인 것이다. 그들에게 이혼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자기 삶을 억압하던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으로의 탈출인 동시에 ‘엄마’라는 무거운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자세이다. 공선옥의 서사에서 이혼녀로 규정된 여성 인물들은 누구도 ‘이혼당한 비운의 여성’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물론 그의 소설에서 남편들은 자꾸 바람을 피우고,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며, 무능하거나 때로는 가엽기도 하다. 이러한 남편의 설정에 상관없이 공선옥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그들이 처한 이혼이라는 상황을 대단히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녀들 누구도 남편을 붙잡지 않으며, 오히려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으로 밀려난 자신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수긍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이것은 특히 그의 단편소설에서 두드러진다.

나는 떠나기로 하였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 입고 싶지 않았다. (……)
그것은 무엇이었나. 무엇이었다.

「떠도는 나무」, 216쪽.

딱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보다 현재의 남편과 전남편에게서 난 내 딸들과 그리고 현 남편에게서 난 아들과 나, 이렇게 다섯이 이룬 가족이 어떤 불화감 내지는 불행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그 불행감을 말로 표현 못하고 어린애다운 생생함을 잃고 갈수록 시들시들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견디고 있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때 내가 그랬다.

「뭬 먹고 살까」¹⁰, 154쪽.

10 「뭬 먹고 살까」는 『잊혀진 자의 고백』(이청준 외, 오늘의 선택, 1998)에 수록된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소설집 『내 생의 알리바이』(창비, 1998)의 수록본을 인용하였다. 이하 인용에 대해서는 제목과 인용면수만 명시하고자 한다.

이혼을 바라보는 공선옥의 시선을 살펴보자. 공선옥은 이혼의 과정을 상당히 건조하게 그려낸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순응이나 인내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의 한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혼의 의미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선옥 소설에서 이혼은 5.18만큼이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서사의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5.18에 대한 서사를 초과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소재는, 공선옥의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서사를 직조하는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동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5.18과 이혼은 모두 그 이전까지 정상(正常)이라고 규정되었던 질서에 대항한다는 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질서가 사실상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위에 쌓여진 사상누각임을 깨달은 데서 시작된다. 5.18이 독재와 폭력적인 억압으로 점철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이혼은 여성의 삶을 억누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라는 질서로부터의 탈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국가의 권력이란 결국 사회화된 가부장제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두 가지 지향은 충분히 상통한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과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선택에 불과한 이혼이 어떻게 등치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이슈가 부딪치는 여러 국면에서 등장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 앞에서 뒷전으로 보내지기 일쑤이고, 가정폭력이나 학대는 민생의 영역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의라는 명분 앞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너무나 쉽게 포기가 논의되며, 때때로 생존을 위한 그들의 목소리는 이기심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 때문일까? 1990년대 공선옥의 소설을 이끄는 여성 인물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반대급부처럼 평가되고는 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의 욕망과 이혼을 둘러싼 의미가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여성 이혼을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여성 인물의 욕망을 그에 대한 반작용처럼 평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선옥의 소설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 가깝다. 오히려 공선옥의 소설에서 이혼의 과정과 결과는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길고 긴 투쟁으로 그려진다. 5.18의 ‘이후’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이혼 역시 그 ‘이후’가 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요소는 연속된 사건처럼 기술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선옥이 이러한 이혼의 이후를 그려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에서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독한 생존경쟁이다. 더구나 그들은 이 생존경쟁에 필요한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핸디캡이라 할 수 있는 이혼녀라는 꼬리표와 돌보아야만 하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 직업도 자본도 갖지 못한 그녀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무기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속악한 자본의 논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가부장제의 질서 안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왜곡된 방식이다.

따라서 이혼녀라는 상황에서 그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다름 아닌 생존이라는 문제이다. 다시 가부장제로의 재편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선옥 소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제 돌봄과 노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서

여성문제에 천착한 공선옥의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주목된 것은 ‘공선옥의 여성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와 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¹¹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 인물이 주가 되는 공선옥의 소설은 주로 “아이의 엄마로서 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정체성”¹²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인물들은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과 그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¹³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갈등에 시달렸다. 이것은 마치 엄마로서의 여성과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두 속성이 필연적으로 대립되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인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진정 꿈꾸고 있는 것, 더 나아가 작가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세계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연 공선옥의 소설 속에서 모성성과 여성성은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보다 본질적으로 한 여성(특히 기혼여성)의 삶에 따른 모든 가치가 모성이라는 것과 상충된다고 여겨질 만큼, 공선옥의 작품이 모성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요구한다. 기존 연구에서 모성성과 여성성이 대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가부장제적인 모성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것에 가깝다. 모성성을 여성성에 대립되는 속성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태도는,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 ‘엄마’로서의 역할이 마치 여성성 전체를 압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오류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 편입되어 있는 ‘모성’이라는 용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든 이는 필연적으로 모성이데올로기와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11 임진영, 「80년대를 보는 90년대 여성 작가의 눈-공선옥과 공지영」, 『실천문학』, 1996.2, 242쪽 참조.
12 이덕화, 앞의 글, 104쪽.

13 윤경순,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일탈적 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0쪽.

위해 본고에서는 모성이 아닌 ‘엄마’라는 용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호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여성문제, 그것도 이혼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선옥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은 언제나 복합적이다. 그들은 스스로 한 생명을 온몸으로 끌어안는다는 격한 희열에 감사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현실에서 겪어내며 고통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공선옥은 자신의 소설 안에서 한 여성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역할들의 충돌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결코 쉬운 방법으로 이를 봉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나를 외면했다. 고개를 외로 툰 아버지는 한없이 울다가 갔다.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 113쪽

울엄마 이름은 정옥이. 정옥이는 열아홉. 신랑은 하이칼라의 마카오 신사. 엄마는 노래하듯 이 부분에 음률을 섞었지. 그래도 정옥이는 신사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닌 그가 좋았대지. 하얀 와이셔츠를 반듯이 입고 펜대 잡고 일을 해서 월급을 타다주는 신랑보다, 그가 좋았대지.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 116쪽.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¹⁴를 살펴보자. 여기서 ‘나’의 엄마인 정옥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다. 반듯한 하이칼라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그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아이를 데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바닷가 마을로 왔고, 그에게 외면당했다. 그럼에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이(‘나’)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한다. 여느 작품이었다면 모녀는, 혹은 딸인 ‘나’만이라도

¹⁴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는 『문학사상』(1996.4.)에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내 생의 알리바이』(창비, 1998)의 수록본을 인용하였다. 이하 인용에 대해서는 제목과 인용면수만 명시하고자 한다.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을 것이다. 바닷가까지 찾아온 그 애정의 깊이를 고려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에서 ‘나’의 엄마는 또 한 번 그를 거부한다. 그녀의 현재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이렇게까지 완고한 그녀의 태도는 무엇 때문일까? 거기엔 여러 가지 추정이 따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애정의 문제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열아홉에 하이칼라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과연 청춘남녀의 평범한 연애했을 것인가? 더구나 ‘하이칼라’라는 말에서 유추되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사회적·정치적 사고와 참여의 범위는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학력 수준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정옥이가 거부한 것은 단지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하이칼라 남편 그 자체가 아니라 어리고 순종적이며 정숙한 아내의 역할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거부한 것은 다른 아닌 가부장제 그 자체가 아닌가?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자유를 던지고 그 억압적인 질서 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그녀가 딸인 ‘나’에 대한 돌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분명 열아홉의 그녀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은 갓난아이인 ‘나’의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혹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높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이칼라인 전남편에게 보내면 돌봄과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그녀, 아니 작가 공선옥이 꿈꾸는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에서 돌봄과 생존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서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한 역할로서의 엄마에 대한 재인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돌봄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공선옥 소설은 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먹고/먹이고’ 살아야 하는 목숨의 문제”¹⁵는 더욱 절박한 현실이 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환기할 수밖에 없다.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에서는, 돌봄과 노동이 어떻게 상충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제 아이들이 있는 그곳 아동일시보호소에 전화를 했을 때 둘째 아이가 몹시 아프다고 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내려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생산1과 정주임에게 고향에 한번 내려갔다 와야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내일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투입될 것이고 그는 그 자리를 결코 비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무엇보다 ‘애기엄마’이니까. 하지만 애기를 키울 능력이 없는 현실은 나를 애기엄마도 뺀다고 만들었다. 그럼 무엇인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 171~172쪽.

홀로 양육의 책임을 떠안게 된 엄마는, 바로 그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노동이 절실하다.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노동은 필수적이고 당위적인 현실로 눈앞에 다가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가부장제 바깥에서 마주친 세상은 더 큰 가부장적 질서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이 너무나 절실한 그들이지만, 반대로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가장 먼저 내쳐지기 일쑤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돌봄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아동일시

15 황도경, 「세 개의 불, 두 개의 알리바이」, 『실천문학』, 2000.2, 62쪽.

보호소가 그것이다. ‘일시보호’라는 말은 최종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대상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아동일시보호소라는 의미는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호아동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인 것이다.’¹⁶ 이것은 경제적인 능력도 도움을 받을 가족도 없이 돌봄과 생계라는 이중고에 내몰린 여성 인물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치는 유일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공선옥의 작품에는 이렇게 아동과 여성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여러 공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표방하는 복지의 내용은 남루하기 그지없다.

삶은 혹독했다.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더. 첫남편과 아무런 삶의 대책도 없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 먹여살릴 방도가 없어 애비 잃은 아이들을 아동일시보호소로 보내야 했던 시절이 작가 최강미에게 있었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무엇을 못 견디나, 싫어지면서 그래도 사람은 밥과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인지, 말하자면 사랑 그놈의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새로 꾸민 가정에 그것이 없어 먹고살기 위하여 해매던 시절하고는 또다른 시련이 그녀 가족들을 덮친 거였다.

「뭘 먹고 살까」, 155쪽

두 아이의 보증을 서고 난 후에 나는 태림이 잡아끄는 통에 할 수 없이 아동일시보호소의 언덕길을 내려와 그가 살고 있는 집까지 동행을 했다.

「내 생의 알리바이」, 264쪽

시립 부녀아동상담소를 찾아가는 길을 멀고 아득했다. 공원 입구에서 버스를 내린 영례는 갓난아이를 안고 세살 난 딸애더러 제 치맛자락을 꼭 붙들게 하고 가파른 아스팔트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부녀아동상담소는 공원으로 오르는 아

¹⁶ “아동복지시설”, 다음백과. <https://100.daum.net>

스팔트길의 꼭대기에서도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공원 깊숙한 곳에 들어앉아 있었다. 불별 더위가 아스팔트 위에서 자글자글 끓었다.

「어미」, 95쪽

「뭘 먹고 살까」, 「내 생의 알리바이」, 「어미」¹⁷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대단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남편의 부재는 곧 경제력의 부재를 의미했고, 그녀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도 아닌 두 명의 아이가 있다. 둘이나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그녀들이 아동 일시보호소와 부녀아동상담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생존을 위한 노동,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입소시키려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해 아이와 같이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 이것이야말로 돌봄과 노동의 경계라는 현실에 선 여성 인물의 처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과 노동의 문제는 작가 자신에게 끝없는 숙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공선옥의 소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아이를 둘 데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이혼녀의 모습은 하나의 전형을 이룬다. 그들은 주인공이기도 하고, 때로 서술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돌봄과 양립할 수 없는 노동의 현실이 그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서 엄마의 역할은 신화나 이데올로기라고 여겨질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질서 바깥에서는 어떠한가? 오히려 반대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그녀들에게 이 세계는 이중의 잣대를 들이댄다.

¹⁷ 「내 생의 알리바이」는 『문학동네』(1994 겨울호)에, 「어미」는 『금오문화』(1996, 6월호)에 수록된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소설집 『내 생의 알리바이』(창비, 1998)의 수록본을 인용하였다. 이하 인용에 대해서는 제목과 인용면수만 명시하고자 한다.

그녀들의 정숙성을 문제 삼아 비난하거나 아이와의 생존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상황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와 「어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아동일시보호소에 맡긴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정숙하지 못한 엄마라는 이유로 기차의 옆자리에 앉은 털복숭이에게 멸시를 당한다. 낯선 여자에게 추근대는 그의 행동은 비난받지 않지만,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나’의 기호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 비단 이쁜일까? 어떻게든 노동하며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엄마가 마주친 현실도 참담하다. 영례는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기기 위해 부녀아동상담소와 탁아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라는 말부터 먼저 한다.(「어미」)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들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이 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난과 멸시의 시선으로 응시할 뿐이다.

“미친 여잔가봐.”

그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영례는 좋았다. 영례는 아기를 업고 큰애를 안고 정신없이 걸어갔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어 있었다. 영례는 길가에 주저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젖을 물리며 영례는 앞으로 또다시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날을 꿈꿈이 생각하였다. 사람들과 차들이 영례 앞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다. 길 건너 은행건물 앞에서 콧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구경꾼들이 콧수 돌레를 삼시간에 에워쌌다. 젖을 다 물린 영례는 그냥 무심하게 콧수 앞을 지나쳤다.

「어미」, 103쪽

이처럼 공선옥의 소설은 아이와 함께 생존의 현장에 내동댕이쳐진 엄마이자 여성인 개인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여성에게 있어서 돌봄

과 노동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야말로 어쩌면 낭만적 사랑보다 더 견고하게 가부장제를 지탱시켜주는 힘의 본질임을, 그의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돌봄과 노동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돌봄의 경우에는 언택트로 대체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돌봄의 부재는 사회적 안전망을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⁸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었다.

노동 현장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수많은 의료 돌봄의 수요 속에서 여성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내몰렸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가부장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이라는 당위 앞에서 국가의 통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악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은 가부장제적 질서의 화려한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90년대 공선옥의 작품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30여 년 전에 제기했던 돌봄과 노동의 문제는, 오늘의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생존의 여성화’라는 문제제기이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가치 있는 인력, 경쟁력 있는 인력이 아니라 오히려 가계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

¹⁸ 류수연, 「돌봄과 공생의 윤리: 전염병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문예연구』 108, 문예연구사, 2021, 13쪽 참조.

계책임자로 나서게 되는 현상”¹⁹을 의미한다. 공선옥의 소설은 바로 이 생존의 여성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맥락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1990년대 공선옥 소설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30여 년 전 공선옥 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겪었던 현실적인 조건들이 오늘의 현재 위에 겹쳐진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견고한 틀은 유효하며, 여성들이 처한 희생적인 돌봄과 척박한 노동 조건은 온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선옥의 1990년대 소설이 갖는 현재적 의미 역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어제와 오늘의 페미니즘을 잇는 ‘접속’ 그 자체인 것이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 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지난 시간의 모순이 끊임없이 상기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같은 모순 속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 공선옥의 소설은 오늘의 페미니즘 리부트 운동의 본질이 무조건적인 배제와 단절이 아닌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비판임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

19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14쪽.

참고문헌

1차 자료

- 공선옥, 『내 생의 알리바이』, 창비, 1998.
_____, 『시절들』, 문예마당, 1996.
_____,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삼신각, 1993.
_____, 『피어라 수선화』, 창작과비평사, 1994.

2차 자료

- 류수연, 「돌봄과 공생의 윤리: 전염병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문예연구』 108, 문예연구사, 2021, 11~32쪽.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외 역, 새물결, 1996.
윤경순, 「공선옥 소설에 나타난 일탈적 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윤광옥, 「공선옥 소설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13, 한민족문화학회, 2003, 85~108쪽.
이덕화, 「공선옥론2: 반란의 시학, 삶의 거리지키기」, 『한국문예비평연구』 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9, 101~121쪽.
임진영, 「80년대를 보는 90년대 여성 작가의 눈-공선옥과 공지영」, 『실천문학』, 1996.2, 233~250쪽.
정명중, 「5월의 기억과 부끄러움」,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319~336쪽.
황도경, 「세 개의 봄, 두 개의 알리바이」, 『실천문학』, 2000.2, 56~70쪽.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1~37쪽.

다음백과 <https://100.daum.net>

Mother on the Border of Care and Labor, Re-reading Gong Seon-ok's Novel

Ryu, Su-yun | Inha University

In the 1990s, the feminist movement began in earnest in Korea, and it is a history of the ongoing feminist reboot. At the same time, it is a contradictory object that must be overcome. Gong Seon-ok's work in the 90s is worth noting in that he shares various keywords surrounding feminism, which is still connected to the present despite this very disconnection. From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maternal mythology and patriarchy to the question of life and coexistence. Contains an issue at being issue is the feminism of the day there. In particular, it is worth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women's labor and care that have arisen with Pandemics in that they reveal a pioneering view. In response, this paper discusses a series of works that actively explored the existence of "mother" in a sharp sense of criticism of patriarchal society, even among Gong Seon-ok's novels in the 90s,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meaning of Gong Seon-ok's works in the 90s.

Key words : Gong Seon-ok, Feminist Reboot, 90s, Patriarchy, Maternal mythology, Mother, Care, Labor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팬데믹이 가져온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과 그 함의

영화 <팬데믹ONLY>(2020, 타카시 도서 감독)을 중심으로

이채원*

1. 서론
2. 여성 통제 양상의 근원적 원인- 여성의 재생산 능력
3. 여성 통제의 수사학1- '보호'로 명명되는 통제
4. 여성 통제의 수사학2- 미화된 '희생양' 이데올로기
5. 전체주의 시스템의 통제기제와 저항과 해방의 잠재력
6.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영화 <팬데믹ONLY>(2020) 분석을 통해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과 그 함의를 고찰한다. 영화 <팬데믹ONLY>은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HNV-21이라는 가상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형상화 한다. 이 영화의 스토리세계에서 바이러스에 의해 여성들이 희생되자 국가권력은 여성들의 난자를 채취하여 인공배아 실험을 한다. 여성을 인류존속을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여성의 권리를 침탈하는데 이는 여성 개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일괄적으로 출산도구로 환원시킨 것이다. 국가권력이 여성을 통제해온 역사와 이에 저항했던 역사가 영화 <팬데믹>에 담겨 있다. 이 영화에서 재현되는 저항의 양상으로서 상식적으로 보이는 남자주인공 윌의 행동과 일견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에바의 행동은 또 다른 논점의

* 나사렛대학교 오웬스교양대학 대우교수.

의미망을 파생시킨다. 이는 통제를 ‘보호’로 명명하는 수사(修辭)이다. 보호와 통제를 혼용하는 수사학은 젠더권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부장 사회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또한 ‘희생양’ 이데올로기 역시 교묘한 여성 억압의 수사이다. 입체적인 캐릭터이자 영화 속 주 인물인 에바를 비롯해서 생존자 채팅방에 있던 많은 여성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저항한다. 따라서 영화 <팬데믹>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영화가 아닐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저항하는 생존자 여성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한다. 에바가 자신과 채팅한 여성들의 사진들을 벽에 붙여놓은 것은 개별적인 존재인 여성들이 차이를 넘어서 자매애로 연대해왔던 여성운동사에 대한 시각적 진술로 볼 수 있다.

팬데믹 상황과 비상계엄상태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에바에 대한 영화의 재현방식은 여성을 ‘희생자’로 일괄적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된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통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일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냉철함과 에바의 감성적 의지로 대별되는데, 영화 <팬데믹>에서 사용된 카메라 워킹 등의 재현 방식은 에바의 감성적 의지 쪽에 (내포) 작가의 에토스가 기술어져 있음을 알게 한다. 이는 전체주의를 지탱해 온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거부로 연결된다. 이는 또한 인간의 이성은 의심스러운 것이고 개별성을 무시하는 보편적 법칙에 윤리적 전망이 있지 않다는 레비나스의 통찰과도 일맥상 통한다. 영화 <팬데믹>이 증언하는 것은 특정 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이 이미 익숙한 ‘오래된 미래’이며 이에 대한 저항 역시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여성혐오’라는 바이러스는 이미 익숙한 팬데믹이다. 영화 <팬데믹>이 묘사한 디스토피아는 여성에게 늘 익숙한 현실이며 여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약간의 변형만 있었을 뿐 늘 같은 디스토피아였다.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전체주의인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저항 역시 오래되고 광범위하며 개별적이지만 연대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주제어: 팬데믹, 전체주의, 여성 통제, 가부장제, 저항, 연대

1. 서론

영화 <팬데믹 ONLY>(2020, 타카시 도셔 감독)은 HNV-21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상상하고 형상화 한다. 기존 재난영화, SF영화, 디스토피아 영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 등의 장르적 특성을 공유하고 여느 재난영화처럼 섬뜩하고 황량한 미장센이 이어지지만 다른 재난영화들과 달리 영화 <팬데믹>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HNV-21 바이러스에서 ‘21’이라는 숫자가 암시하듯이 2020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바로 지금 현재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2020년이라는 제작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술적 연구논문은 물론이고 평단의 평론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화 <팬데믹>을 기본 자료로 하는 최초의 학술논문이며 동시에 이 영화에 대한 최초의 비평적 고찰이 될 것이다. 이 영화가 과학적 설명에 그다지 충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서사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사의 공백(gaps)은 서사의 해석과 수사학에 큰 기여를 하지만, 그저 결합 있는 공백으로 남기도 한다”¹면 본고는 이 영화의 “서사의 공백”으로부터 본고의 논점과 연결된 수사학을 발견하고 서사의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팬데믹>은 바이러스 팬데믹이 야기한 아포칼립스를 보여주지만 사실상 이 영화의 방점은 한 명의 여성에게 있다. 원제인 ‘ONLY’는 지구상에 남겨진 한 명의 여성을 의미한다.² 이 영화가 여타 다른 재난영화 또는 SF적

¹ 노대원, 「팬데믹 조건 속에서 더욱 취약한 여성의 서사-「팬데믹이 가져온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과 그 함의」를 위한 토론」, 국제비교한국학회 학술대회, 2021, 1쪽.

² 이 영화는 신예 감독 타카시 도셔의 두 번째 장편영화이다. 타카시 도셔는 2018년 첫 장편영화 <스틸>로 제42회 애틀랜타영화제 조지아상을 수상했는데, 영화 <스틸>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다. 타카시 도셔는 영화 <팬데믹>에 관해서 “이 이야기는 내가 연인과 떠났던 5주 간의 여행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나에게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여성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토대로 현대적인 관계를 고립 상황에 집어넣은 뒤 현 사회의 남성성, 여성성의 차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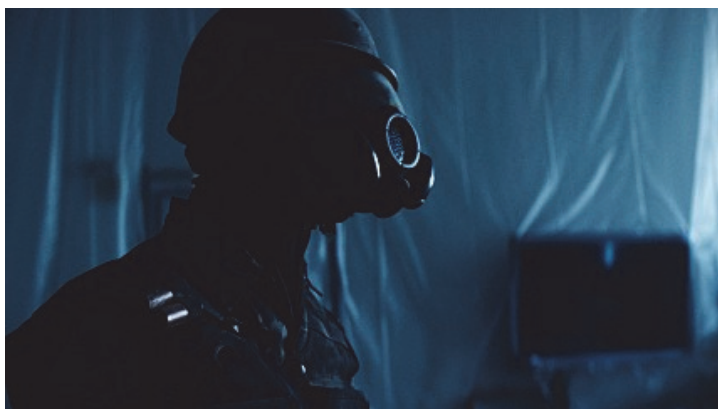
사고실험을 하고 있는 영화와 다른 점은 여자들만이 HNV-21 바이러스에 의해 희생되는 설정에 있다. 남자는 HNV-21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균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죽지 않는다. 여자들만이 감염 후 빠르게 죽음에 이른다. 이 지점이 본고에서 이 영화를 주목한 첫 번째 이유이다. 또한 영화의 주된 배경인 미국에서 HNV-21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은 젠더정치학의 많은 논점들을 내포하면서 여러 익숙한 레퍼런스를 상기시킨다. 이 영화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유사한 텍스트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1986년 작 『시녀 이야기』이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향이 영화 <팬데믹>과 소설 『시녀 이야기』를 비교분석 하는 것에 있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비교분석을 하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핵심 논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하려 한다. 본고에서는 영화 <팬데믹>에서 여자들만 바이러스의 희생자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권력이 여성들을 통제하는 양상이 내포하는 젠더정치학적 논점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영화에서 재현된 ‘오래된 미래’의 함의가 무엇인지 드러낼 것이다. 또한 전체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여성들의 저항과 해방의 잠재력에 관해 논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시선의 위치와 교차편집 등 영화재현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한 비평적 서술 역시 젠더정치학적 논점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2. 여성 통제 양상의 근원적 원인-여성의 재생산 능력

영화 <팬데믹>에서 HNV-21 바이러스에 의해 여자들이 희생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미 연방정부는 여자들을 모두 격리 수용시킨다. 이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여자들이 죽어가기에

이야기를 확장하고 싶었다”라고 밝힌다.

인류종말의 위험을 느낀 국가권력은 강압적으로 여성들의 난자를 채취하고 인공배아 실험을 한다. 여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총을 든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며 여자들에게 자진신고를 종용하고 심지어 생존 미국 여성을 신고하는 이에게는 2백만 달러의 포상금까지 제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월(레슬리 오덤 주니어)은 여자친구인 에바(프리다 핀토)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결국 감염되어 죽음을 예감한 에바가 월과 함께, 총을 들고 방독면을 쓴 채 집으로 찾아온 군인들을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이 영화는 팬데믹 이전의 행복한 연인의 모습과 감염병의 발발과 생존자 채팅방의 여자들이 모두 떠나고 결국 에바 혼자 남기까지 400여일의 시간을 아주 빠른 교차편집으로 전개한다. 빈번한 교차편집이 주는 수사적 효과는 우선 ‘물입’에 있다. 여기에 더해서 빈번한 교차편집은 과거를 현재화하며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이때 기억은 현재에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기이함과 폭력에 당연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지연시킨다.



〈사진 1〉 생존여성을 찾아서 체포하기 위해 에바와 월의 거주지를 급습한 군인

긴박함이 더해진 빠른 교차편집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속도감

있는 전개를 지켜보며 가장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공권력에게 여성의 난자를 채취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것이다. 에바의 아버지는 에바에게 전화를 걸어서 에바의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관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에바의 엄마까지 잡아갔다고 오열한다. 에바와 월이 폭포가 있는 산으로 가는 길에 들른 카페에서 생존 여성 신고 보상액을 발표하는 TV 화면 앞에서 남자들은 단순히 난자채취만 하는 게 아닐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웃기까지 한다. 여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압박붕대로 가슴을 동여매고 모자로 긴 머리를 가리고 얼굴에 흙먼지까지 발랐지만 에바가 여자임을 알아 본 카페 안 다른 손님인 부자(父子)는 에바와 월을 쫓아온다. 돈 때문이냐고 묻는 월에게 남자는 자기 아들에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월은 에바가 아프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난자는 사후(死後) 7시간 이내에 채취해야 하므로 환자인 에바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공권력도, 그 공권력에 협조하려는 남자에게도 중요한 것은 ‘난자’이며 ‘난자’와 그 난자의 주인인 여성을 인류존속을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강압적인 연행과 감금도, 총기로 무장하고 여자인 에바를 쫓아온 부자(父子)의 행위도 폭력적이고 기이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늘 있어왔던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이다. 에바의 저항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며 자신의 몸의 주인도 자신이라는 주체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여성을 생식을 위한 ‘도구’로 취급해왔던 가부장제 역사 동안 줄곧 이어져왔던 여러 형태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은 ‘생식’을 이유로 여성의 권리를 침탈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죄’이다. 낙태 관련 논쟁 시에 언제나 대결구도로 설정되어 온 논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내세워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낙태에 대한 규제는 언



〈사진 2〉 에바가 여자임을 알아보고 에바와 월을 쫓아 온 부자(父子)

제나 국가의 인구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어왔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인구급감과 함께 1953년 형법 상 ‘낙태죄’를 범죄화하여 낙태를 막음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했다. 반면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이라는 명칭 하에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고 보건소에서 피임시술을 했으며 낙태죄는 사문화 된 법률이 되었다. 심지어 가족계획사업의 하나로 월경조절술(MR Kit)을 실시하여 8주 이내까지의 낙태를 허용, 권장하였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낙태를 수용하였다.³ 이후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인구증가를 위해 낙태죄 처벌 강화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하에 지시되었다.⁴ 즉 낙태죄는 생명권에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와 연결되며 나아가서 임신 출산 육아에 큰 영향을 받을

3 김도경·허윤주,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낙태 허용도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중심으로-」, 『여성학 연구』 제23권 제3호, 2013, 8쪽.

4 2009년 11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무부처로서 낙태를 단속할 수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들과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0년 3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피임교육과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낙태수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도경·허윤주, 앞의 글, 9쪽.

수밖에 없는 여성의 삶에 대한 국가(남성)의 통제이다. 영화 <더 월If *These Walls Could Talk*>(1997, 낸시 사보카·쉐어 감독)에서 “만약 남성이 임신한다면 낙태는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시위구호는 ‘낙태죄’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삶, 재생산과 연관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남성(국가)의 통제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엄연히 존치하지만 ‘모자보건법’에 의한 예외조항을 보면 태아의 장애까지도 예외조항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생학에 대한 국가권력의 기획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애초에 ‘낙태죄’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시사한다. 지킬 가치가 있는 생명과 지킬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존엄함이라는 가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낙태죄’는 ‘살인죄’와 다른 범주이다. 즉 국가권력은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살인’으로 치부하는 모순된 담론을 통해 여성들에게만 죄책감을 강요하며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통제한다.

여성을 생식능력으로 환원시키고 바로 그 생식능력 때문에 여성의 몸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는 국가권력의 여성 통제 양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부장제 인류역사에서 정도와 양상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되어 왔다. 여성의 재생산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것으로 악명 높은 정권은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였다. 1960~70년대 차우세스쿠는 한 가정에서 4명 이상의 아이를 낳도록 법으로 강제했으며, 낙태를 가혹하게 처벌했다.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일명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이다. 국가권력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 체제 하에서 여성들은 생식기계에 불과했다. 일정기간마다 여성들로 하여금 산부인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으며 임신한 여성들은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많은 여성들이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불법낙태 도

중 사망한 여성의 시신은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했다. 인구수를 국력이라고 생각한 차우세스쿠 정권은, 그러나 태어난 아이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차우세스쿠는 자신의 민병대였던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에 의해 잔혹하게 총살당한다.⁵

기독교와 무슬림의 기원이 된 구약성서를 레퍼런스로 한 마거릿 애트우드 의 역작 『시녀 이야기 *The Handmaid's Tale*』 역시 전체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생식을 위한 도구로 통제되고 지배되는 사회를 묘사한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영화 <팬데믹>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인류종말이라는 SF적인 상상력에 근거한 반면, 『시녀 이야기』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쿠데타에 의해 세워진 정권에 의한 여성억압이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여성을 ‘생식도구’로 환원시키는 가부장적 사고에 대한 저항이라는 유사점을 공유한다. 저항의 방식은 <팬데믹>에서 좀 더 직설적인데 이는 전지구적인 아포칼립스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여주인공 ‘에바’의 캐릭터에 기인한다. 영화 속에서 남자주인공인 ‘월’은 시종일관 에바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인물로서 캐릭터의 변화가 크게 없는 반면 ‘에바’는 무척 입체적인 캐릭터이다.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단지 ‘생존’이상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 하며 그 ‘의미’가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게 한다 해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판단력이 뛰어나지만 무척 감성적이며, 관계지향적이지만 독립적이기도 하다. 연인 ‘월’을 신뢰하고 교감하지만 자신에 대한 통제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생존여성들과의 교감과 연대에 더 집중한다. 즉, ‘에바’는 매우 현대적인 여성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녀 이야기』의 주 인물인 (원래의 이름조차 제시되지 않는) ‘오브 프레드’는 감수성이 좀 더 부각되어 묘사되며 저항의 양상도 ‘여성적’ 글쓰기라는 은유적인 것이어서 캐릭터의 행동

⁵ 이 당시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가 크리스티안 문쥬 감독의 <4개월, 3주 ... 그리고 2일>(2007)이다. 이 영화는 2007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감은 전경화 되지 않는다. 대신 참혹한 억압의 상황과 이에 대한 은밀한 반란이 섬세하게 전개된다. 이 소설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하고 딸까지 있는 여성을 쿠데타 정권이 ‘시녀’라는 신분의 ‘대리모’로 만들어 몸과 삶을 통제하는 방식은 섬뜩하지만 낯설지 않다. 쿠데타 정권이 자주 인용하는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부터 현재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베일 등이 소설 속에서 차용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에 맡겨진 여성의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생식능력은 여성에게 ‘권력’이기보다는 ‘족쇄’가 되어왔다. 이를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논객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남녀의 결합은 오직 ‘생식’을 위한 것이며 이들은 ‘종족번식의 본능’을 내세워서 강간까지 합리화하는 주장을 펼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통제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해왔다.⁶ 그러나 남성이 권력을 가진 가부장사회에서 만약 남성에게 재생산 능력이 있었다면 재생산 능력은 통제의 근

6 마리 루티(Mari Ruti)는 그녀의 저서에서 미국의 남성 진화심리학자인 로버트 라이트의 『도덕적 동물(Moral animal)』과 데이비드 M. 버스의 『욕망의 진화(The Evolution of Desire: Strategies of Human Mating)』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한다. 라이트와 버스는 자식을 가능한 많이 남기라는 진화적 명령으로 연애 행동(이른바 짝짓기 행동)의 모든 면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과학적 사실처럼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강간도 하나의 성 적응이다. 이에 대해 마리 루티는 강간이 번식은 고사하고 성(섹슈얼리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지배력 과시와 관계가 있는 범죄라고 반박한다. 루티는 진화심리학이 자유의지 개념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즉 어떤 행동이 화학적 영향임이 밝혀질 때마다 누군가가 그것을 자유의지의 영역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즉 남성과 여성이 문화적 존재이기보다 생물학적 존재라는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리 루티는 인간의 감정에는 유전적 번식 논리 말고도 많은 것이 있고, 배우자 선택은 진화적 측면의 번식 적응도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공통된 목표, 바람,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또한 문화적 규범을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문화는 자연적 질서가 곧 올바른 질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연적 질서를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 루티(Mari Ruti) 지음, 김명주 옮김, 『진화심리학이 퍼뜨리는 젠더 불평등 /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The Age of Scientific Sexism, 동녘 사이언스, 2017.

거가 아니라 권력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트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은 여성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상의 국가 ‘이갈리아’를 배경으로 한다. 이갈리아에서 여성권력의 중요한 원천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있다. 창조주인 신의 능력과도 같은 생산 능력이 있는 여성은 우월하고 생산(창조) 능력이 없는 남성은 열등하며 그렇기에 여성이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은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 주장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의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 자체,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와 능력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약자혐오이며 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다.⁷ 젠더의 문제는 우리가 각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도

7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만 살아남아 후대까지 전해짐으로써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선택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작의 화려한 깃털은 자연선택의 결과로 진화한 다른 형질들과 달리 생존가치 면에서 낭비 그 자체다. 이는 자연선택설과 완전히 배치된다. 다윈이 고심 끝에 새로 얻은 통찰은 “자연선택 외에 다른 진화적 힘이 작용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암컷의 ‘성적 선호도’였다. 다윈은 암컷이 깃털·노래·과시행동에 대한 미적 선호도를 바탕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며, 수컷은 선택을 받기 위해 암컷의 선호도에 따라 자신의 장식물을 진화시켜왔다고 결론 내렸다. 자연선택설의 신봉자들은 다윈의 새로운 이론에 심기가 크게 불편해졌다. 암컷이 배우자 선택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림 반쯤어치도 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예일대 조류학과 교수인 리처드 프럼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새들의 배우자 선택은 특히 암컷에게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이러한 진화 역학은 새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효하며,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단지(현대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이 고안해 낸)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님을 알게 한다”는 통찰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성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여성의 진화적 몸부림이 인간의 진화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왜 아직도 전 세계의 여성들은 진화과정의 결실이어야 할 성적·사회적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리처드 프럼은 “여성의 배우자 선택이 성적 자율성을 크게 발달시킨 것은 맞지만, 뒤이어 진화한 인간의 문화가 성갈등의 새로운 문화적 메커니즘을 등장시켰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물질 자원의 통제권을 장악한 남성이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남성의 사회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 창출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대 여성들이 과거의 진화를 통해 얻은 성적 자율성을 완전히 향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주범은 가부장제라는 문화의 진화였다”고 말한다.

리처드 프럼 지음, 양병찬 옮김, 『아름다움의 진화』, 동아사이, 2019.

록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가 입력한 대로 자신의 젠더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지극히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문제를 ‘자연의 법칙’으로 덮으려는 의도 또한 지극히 정치적이다.

앞서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 - 영화 <팬데믹>에서 ‘왜 여성만이 HNV-21 바이러스에 희생되는 것으로 설정했는가?’ -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명백해진다. 만약 HNV-21 바이러스에 의해 희생되는 성별이 남자라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권력이 강제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가? 공권력이 강제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윤리와 인권 관점에서의 질문이라면, 강제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말 그대로 행위가 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남자들만 바이러스에 의해 희생된다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모두 격리 수용할 수 있을까? 권력을 남자들이 가진 상태에서 남자들을 모두 격리 수용하고 강제로 정자를 채취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 영화에서 여자들만을 바이러스의 희생자로 설정한 것은 통제하고 강제할 권력이 현재 남성에게 있기 때문이며, 여성의 생식능력이 여성의 권리도 권력도 아니었던 역사를 반영한다. 이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배이데올로기인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연결된다.

사실상 인류존속이 위협에 처한 팬데믹 상황에서만 여성이 남자 또는 생식능력으로 환원된 것은 아니다. 여성은 줄곧 생식능력으로 환원되어왔다. 다만 비상사태를 선포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생식능력으로 환원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강조될 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가 독일여

즉 비인간세계의 ‘자연의 법칙’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으며, 자연의 일부인 인간세계에서 종족번식에 유리한 쪽의 진화보다 더 힘이 센 것이 가부장제였다는 것이다.

⁸ 신희선, 「성평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교과 운영사례 연구」, 『윤리연구』 Vol.1, 한국윤리학회, 2019, 294쪽.

성이 해야 할 일로 강조한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었으며, 일본 군국주의에서 일본 여성의 명예는 야스쿠니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과 가치관과 삶의 역사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일괄적으로 출산도구로 환원시킨 것이다. “가부장제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개별성과 특수성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⁹이라면 사실 가부장제는 가장 광범위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여성만의 능력이라고 칭송하며 임신과 출산을 중용한 것은 남성과 국가였다. 남성과 국가가 ‘모성’에 어떤 찬사를 더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권력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역사 이래 가부장 사회의 현실이었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허락한 유일한 권력인 ‘아들의 어머니’가 가진 권력은 결국 다시 가부장제를 강화할 뿐이다. 가부장 사회에서 ‘모성’에 대한 찬미의 수사학은 여성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여성혐오이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조어(造語)가 ‘맘충’이다.

모든 여성이 같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 역시 개별성을 무시한 폭력이 된다. 모성에 대한 과도한 예찬은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갖지 않기를 선택한 여성들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정도와 양상으로 반복되어 온 압력이다. 리베카 솔닛은, 자신이 쓴 책에 대한 인터뷰 자리에서 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이를 낳지 않는냐고 질문하는 남자 인터뷰어와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그의 질문은 세상에는 여러 여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자만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며, 그 하나의 여자란 종 전체를 위한 엘리베이터처럼 반드시 결혼하고 번식해야 한다는 단언이라고 해석하며 리베카 솔닛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아이를 낳는 건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등대로』와 『3기니』를 쓰

⁹ 이선진, 「여성적 글쓰기로 성 지배 담론 전복하기 - 마가렛 앳우드의 『시녀 이야기』, 『여성학연구』 제30권 제1호, 2020, 125쪽.

는 건 오직 한 사람만이 해낸 일이었으며 우리가 버지니아 울프를 이야기하는 건 후자의 일 때문이다.”¹⁰ 영화 <팬데믹>에서 국가권력의 횡포에 문제의 식조차 갖지 못하고 ‘생식’에 거의 종교적인 맹목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형상화는 삶의 주체성과 타자의 윤리학에 대한 동시대적 질문이며 자율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체주의적 사고에 침윤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영화적 개입이기도 하다.

3. 여성 통제의 수사학1- ‘보호’로 명명되는 통제

영화 <팬데믹>에서 에바의 남자친구인 월은 바이러스로부터 에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또한 에바가 총을 든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난자 채취당하지 않도록 고군분투한다. 산으로 쫓아온 남자에게는 “너라면 아내를 그런 곳으로 보내겠는가?”라고 말한다. 월이 얼마나 세심하고 헌신적으로 에바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영화에서 자세하게 묘사된다. 에바에 대한 월의 애정과 헌신은 재난영화인 <팬데믹>에 ‘로맨스 영화’의 장르적 속성을 더한다. 에바는 월의 마음을 알고 월에게 동의했지만 자신을 찾는 아버지의 애타는 음성을 듣고 답하려 했으나 월이 보안을 이유로 통화를 못하게 하자 폭발한다. 월이,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기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자 에바는 “니가 뭘데 허락해?”라고 화낸다. 월이 에바를 보호하려는 거라고 말했을 때 에바는 자신에게 물어보거나 했냐고 흥분한다. 얼핏 보면 월은 무척 침착하고 사려 깊게 묘사되고 에바는 감정적이며 심지어 히스테리컬하게 묘사된 듯하다. 아빠와의 통화가 좌절된 후, 집안에 갇힌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호복을 입고 옥상으로 올라간 에바가 HNV-21 바

¹⁰ 리베카 솔닛 지음, 김명남 옮김,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창비, 2017, 15쪽.

이러스의 매개체로 알려진 의문의 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작심한 듯 방호복의 덮개를 벗고 마치 눈을 맞듯이 재를 맞는 상황과 이를 발견하고는 애통해하는 월과의 교차편집은 더욱 그러하다. 결국 예바는 감염된다.



〈사진 3〉 아버와의 통화가 좌절된 이후 방호복을 입고 옥상으로 올라간 예바

마지막을 예감한 듯, 행복한 추억이 있는 폭포로의 여행을 제안하고 떠나는 길에서도 예바의 감상적인 행동은 위험을 초래한다. 즉 이성적으로 보호하려는 월과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일을 망치는 예바의 대비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존 클리셰를 반복하는 (남성) 감독의 한계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황량한 거리 옥상에 올라와서 방호복을 벗고 바람의 촉감을 느끼는 예바는 무척 행복해 보인다. 사실상 이 장면이 본고에서 가장 주목하는 핵심적이며 상징적인 신(scene)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은 때로 ‘합리성’이나 ‘효율성’까지도 거부한다. 예바 역시 자신의 행동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예바가 옥상으로 올라 간 것도 위험한 선택이지만 방호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갈등 중임을 시사한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조차 예바는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으며 방

호복을 벗어던진 에바의 행동은 에바의 선택에 대한 시각적 진술이다. 여자 임이 발각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카페로 들어가기를 고집했던 것도 그것이 ‘마지막 만찬’임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산으로 쫓아온 부자를 격퇴하고 월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에바는 판단하고 거침없이 행동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보이는 월의 행동들과 일견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에바의 행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의미망이 만들어진다. 이는 ‘보호’라는 이름을 가진 통제에 대한 의구심이다. 즉 통제를 ‘보호’로 명명하는 수사(修辭)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명명은 인식과 언행에도 영향을 준다. 에바에게 현신적인 월이 에바에게 강압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을 ‘보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실에서 ‘보호’와 ‘통제’는 일정 부분 겹쳐 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보호와 통제와 달리, 여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에는 젠더정치학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통제해왔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딸들의 귀가시간을 통제하면서 그것이 딸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말해왔다. 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딸들의 시간과 공간과 행동을 제약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들들의 행동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잠재적) 피해자로 상정된 여자아이들에게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만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된 남자아이들에게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영 페미’로 불리는 이들은 “여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자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남성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시혜를 베풀 듯 말하는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거부한다. 착하게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를 자극하는 미러링을 택한다.

여성을 통제하는 이유는 정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이슬람 국가

들에서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게 한다. 머리카락만 가리는 히잡부터 온 몸을 감싸는 부르카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여성들이 써야 하는 베일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여성의 베일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으로 하여금 성욕을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머리카락을 보게 되면 남성은 성욕을 억제할 수 없게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남성을 통제하지 않고 여성을 통제하는가? 왜 (잠재적) 가해자를 통제하지 않고 (잠재적) 피해자를 통제하는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Minority Report>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2002)에서처럼 범죄 예정자를 통제하는 것이 그나마 이치에 맞지 않은가? 결국 젠더 권력 관계에 있어서 (잠재적) 가해자 쪽에 권력이 있기에 (잠재적)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애초에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은 힘과 권력과 결합된 범죄이다. 호르몬에 의한 본능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행하는 범죄이다.

보호와 통제를 혼용하는 수사학은 가부장 사회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대한민국 형법이 강간을 ‘정조 침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맥락으로 바꾼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보호’라는 외피를 쓴 ‘통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 욕망은, 엥겔스에 의하면 가족과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탄생과 기원을 같이 한 오래된 것이다. 이를 ‘보호’로 포장하고 심지어 ‘신의 말씀’을 참칭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슬람의 여성들과 가톨릭의 수녀들, 가톨릭 미사에서 여성들은 신이 주신 머리카락을 신의 이름으로 부정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처음에는 방호복을 입고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곧 방호복 모자를 뜯어내고 머리카락을 훑날리는 바람을 맞으며 공기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며 행복해했던 예바의 얼굴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예바가 원한 것은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완고함 속에서 안전함을 보

장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기를 에바는 원했다. 생존 이상의 가치를 에바는 추구했다. 남장을 해야 했던 에바가 쫓아온 남자들과 산에서 맞서야 했을 때 모자로 가렸던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반격했던 시퀀스는 그토록 에바를 보호하고자 애썼던 월의 통제를 넘어선다. 에바는 총쏘기에서 월보다 탁월한 명중률을 보였지만 쫓아온 남자들을 진압하고 결국 폭포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월의 ‘총’으로 상징되는 월의 남성성이 아니라 에바의 여성성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에바가 짐을 쌀 때 배낭에 카메라와 총을 넣는 장면이 근접촬영으로 재현된다. 총이 ‘남성성’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소도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영화에서 카메라는 폭포 앞에서 마지막 생존 여성인 에바를 기록으로 남기는 셀피(selfie) 도구로 쓰인다. 앞서 영화 <팬데믹>과 대비하여 논한 소설 『시녀 이야기』에서 ‘여성적’ 글쓰기가 저항과 기록의 도구였다면 영화 <팬데믹>에서는 그 역할을 카메라가 하는 것이다. 카메라는 또한 국가권력의 난자채취에 저항하며 은신처에서 생존하고 교감하며 소통했던 많은 여성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도 했다. 또한 에바가 자신을 쫓아온 남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공격할 기회를 찾는 장면은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힘의 원천으로 포용하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맥락 안에 있다.¹¹ 에바는 기꺼이 폭포 앞에서 셀피를 찍은 날짜를 자신의 마지막 날짜로 기록한다. 앞서 채팅방에서 많은 여성들이 했던 방식이다.

11 1990년대 이후에 나온 포스트페미니즘 계열의 영화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된다. 기존의 비평과 영화에서 여성의 몸이 남성의 시선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동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면 포스트페미니즘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오히려 여성성을 당당하게 과시하며 그것을 임파워먼트의 도구로 삼는다. 페미니즘이 가부장제와의 싸움에서 동등함을 쟁취하기 위해 여성성을 거부하거나 의문시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포스트페미니즘은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힘의 원천으로 포용하면서 당당하게 쾌락을 누릴 것을 중용한다. 이형식, 「포스트 페미니즘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몸: 대상에서 주체로」, 『문화와 영상』, 2012 가을, 570쪽.



〈사진 4〉 연방정부의 강제 체포를 피해 은신처에서 채팅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마지막 날짜를 기록에 남기고 사진과 함께 전송한다.

생존자 채팅방의 ‘생존자’라는 단어는 젠더 이슈에서 무척 익숙한 어휘이다. 여성들은 페미사이드와 성폭력 등 많은 젠더폭력 속에서 생존해왔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기록으로 남겼다. 팬데믹 상황에서 배아실험장소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은신처에서 채팅했던 그들 역시 그러했다. 그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으나 여자만 죽게 하는 바이러스¹²는 동서고금에 걸쳐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젠더폭력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4. 여성 통제의 수사학 2 -미화된 ‘희생양’ 이데올로기

에바가 여자임을 알아보고 에바와 월을 쫓아온 남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¹² 영화 <팬데믹>에 등장하는 HNV-21 바이러스는 가상의 바이러스이다. 하지만 재난 영화나 SF 영화에서 상상은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된다. 현재 현실세계에서 여성에게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는 인유두종(HPV) 바이러스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며 남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여성에게 치명적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주요원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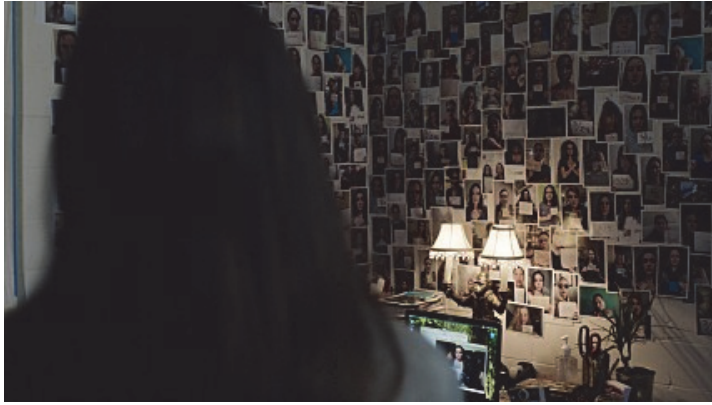
서’라는 명분으로 강제 난자채취를 정당화한다. 또한 그는 에바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앞서 ‘여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난자채취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난자채취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당위성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기도 함을 밝혔다. 이와 연결되는 맥락에서 ‘인류의 존속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여자에 대한 비난에는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질문도 유의미하다. 전체를 위한 하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지만 이는 비단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전체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이들도 때로 쉽게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 이때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희생을 강요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누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희생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절대로 희생할 일이 없는 이들이 아닌가? 많은 집단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하나의 희생양을 상정할 때 그 희생양은 공동체 구성원 중 타자화 되기 쉬운 존재이다. 따라서 희생양은 대부분 여성이다.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는 처녀들, 딸들, 강대국에 공납된 여성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때로 미화된 ‘희생양’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자발적인) 인신공양의 제물이 된다. 예를 들면, 칭송받으며 읽혀졌던 『심청전』은 뱃길의 안전을 위해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는 ‘처녀’ 희생양 모티프와 ‘효’라는 명분으로 딸의 희생을 미화하고 장려하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가득 담은 텍스트로서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 기실 아들의 ‘효’는 장래 가부장으로서의 보상이 전제된 것이지만 딸의 ‘효’는 이용되고 타자화되는 철저한 희생양의 의미이다. 패전국의 여성과 식민지의 여성 역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남성 국가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 성노예가 되어야 했고 이후 가족, 고향, 자국 내에서

도 수치스러운 존재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기도 한다.¹³

영화 <팬데믹>에서 연방정부는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모든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다. 공권력을 사용하여 여자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하고 난자를 채취한다. 하지만 에바를 비롯해서 생존자 채팅방에 있던 많은 여성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정당화 할 생각이 없다. 따라서 영화 <팬데믹>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영화가 아닐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저항하는 생존자 여성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한다. 에바가 자신과 채팅한 여성들의 사진들을 벽에 붙여놓은 것은 개별적인 존재인 여성들이 차이를 넘어서 자매애로 연대해왔던 여성운동사에 대한 시각적 진술로 볼 수 있다. 벽에 붙인 사진들은 개별적인 사진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는 희생자들의 목록으로 축소할 수 없는 의미망을 가진다. 이들의 사진은 폭력과 폭력에 대한 저항을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고 투쟁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기능을 한다. 남성중심 역사서술에서 여성들은 늘 지워졌지만 이들의 사진은 지워지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존재했고 저항했고 교감했고 소통했으며 생존하려 애썼고 생존 이상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 분투했다. 사진 속 얼굴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이자 활동가였다고 말한다.

월과 같은 남성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그런 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이다. 월에게 에바는 ‘난자’로 환원되는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얼굴을 가진 존재’이다.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개별적인 역사와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다. 우리가 개별성을 무시할 때 우리는 특정

13 약소국의 여성, 식민지의 여성은 식민주의 억압과 민족주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가야트리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인도여성의 예를 들었지만, 이는 ‘공녀’와 ‘환향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진 5〉 에바가 채팅방 여성들이 보낸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있다. 사진 속의 여성들은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다. 이 장면은 먼저 에바의 시점 쇼트로 제시되고 이후 카메라가 뒤로 물러간다. 이는 에바에게도 시선의 권력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기능으로 환원되어 버린다. 특히 남성중심 가부장적 국가에서 여성은 출산 기능으로 환원되기 쉽다. 출산 기능으로 환원된 여성은 또한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여성은 출산 기능으로 환원되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에게 있는 출산 능력은 여성 개개인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여성을 통제해온 역사와 이에 저항했던 역사가 영화 <팬데믹>에 담겨 있다.

5. 전체주의 시스템의 통제기제와 저항과 해방의 잠재력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도덕적 감수성과 선악에 대한 판단을 시스템의 권위적인 명령에 양도”¹⁴한다면 그 시스템은 국가, 군대, 종교 등의 형태

¹⁴ 박경미, 「전체주의 시대의 종교와 여성 - '유토피아적 부정'과 여성해방적 종교비판 - 」, 『젠더와 문화』 제1권(창간호 2008),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3쪽.

로 작동하고 예외 없이 남성중심적이다. 영화 <팬데믹>에서 에바와 월을 추격해왔던 남자들은 국가권력의 전체주의적 시스템에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고 복종했다. 이때 개인이 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단지 ‘두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박경미는 전체주의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개인의 도덕적 감수성과 선악에 대한 판단을 양도하는 이유를 ‘효율과 합리성’ 때문이라고 한다.

효율과 합리성은 진보든 보수든 이 시대의 누구에게서나 찬미를 받는다. 뱀처럼 영리하고 강철같이 강고한 이 시대의 지배자들, 시스템의 관리자들이 우선적으로 예찬하는 것도 효율과 합리성이고, 순응적인 전문가들이 순진하게 추구하는 것 역시 효율과 합리성이다. 그러나 바로 그 효율과 합리성이야말로 오늘날 대중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과정을 조종하고 촉진시킨다. 그것이야말로 각자의 선의와 열심이 협력해서 우리 모두의 지옥을 만드는 집단적인 광증을 지휘하는 지휘봉이다.¹⁵

사실 경제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독재자를 찬양하는 대중의 심리 역시 바로 이 ‘효율과 합리성에 대한 맹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영화 <팬데믹>에서 인류종말을 막기 위해 여성들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권력이 통제하여 난자채취를 하고 배아세포실험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또한 에바에 대한 월의 통제는 감염과 체포·구금으로부터 에바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에바의 자율성과 감성을 침해하는 것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에바는 국가권력의 효율적인 통제와 월의 합리적인 통제를 모두 거부했다.

¹⁵ 박경미, 앞의 글, 16~17쪽.

산으로 쫓아온 부자(父子)까지도 물리치고 희생양이 되는 것도 거부했다. 아버지와 통화하고자, 그를 위로하고자 했고 머리카락을 날리는 바람의 촉감을 느끼려고 했으며 사는 것에 생존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에바는 결국 감염되어 출혈과 마비가 시작되고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에 자신의 마지막 날짜를 기록한다.

그렇다면 에바가 결국 효율과 합리성을 따르지 않았기에 죽음을 자초한 것으로 보고 효율과 합리성을 따르지 않은 에바의 무모함이 죽음이라는 벌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이 영화는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에바의 감염을 ‘벌’로 해석하기에는 폭포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는 에바의 미소가 무척 행복하게 보인다. 에바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인구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에바를 보호하기 위한 월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고, 미래세대를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생존자들과 채팅하며 끝까지 버티라고 격려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감금되어 생명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을 택했다. 영화서사 속 내포저자는 월의 ‘합리성’보다는 그 ‘합리성’을 거부하는 에바의 편에 선 것으로 보인다. 영화에서 월의 시점쇼트보다 에바의 시점쇼트가 더 많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에바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 받는 대상은 연인인 월이 아니라 채팅방의 생존여성들이다. 생존자 채팅방에 자신을 포함한 두 명만이 남았을 때, 떠난다는 상대의 글에 떠나지 말라고 절규했을 정도로 에바는 그들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화 <팬데믹>에서 에바가 생존자들과 채팅할 때 에바의 얼굴 클로즈업과 채팅 화면의 쇼트 리버스 쇼트가 빈번하게 재현된다. 이러한 재현방식은 카메라의 시선이 에바와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즉 에바는 카메라의

16 서인숙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에서는 남성주인공이 주체가 되고 이들의 시점쇼트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감정적 동일화를 추구한 반면, <밀양>과 <시>에서는

시선에 의해 ‘대상화’ 되기보다는 많은 쇼트에서 시선의 주체가 된다. 심지어 에바를 추격해온 이들이 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의 시선에 에바가 포획되지 않고, 월을 협박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에바의 시점쇼트가 재현된다. 여성이 희생양이 되는 공포영화나 범죄영화 등에서 대체로 범죄자의 시선과 카메라의 시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관객은 카메라의 시선과 동일시되기에 희생자 여성은 타자화 되기 쉽다. 봉준호 감독이 대중적인 작가로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영화 <살인의 추억>(2003)에서도 이 같은 재현방식이 사용된다. 희생자가 되는 여성들은 범죄자의 시선 그리고 카메라의 시선에 포획되고 결국 시체가 되어 전시된다. <살인의 추억>이후 <추격자>(나홍진 감독, 2008), <브이 아이 피 V.I.P>(박훈정 감독, 2017)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영화가 여성시체들의 전시장이 된 것과 더불어 이러한 카메라 워킹은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여성에게 시선과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수동적인 피사체로만 재현함으로써 저항과 해방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그저 수동적이기만 하지 않다.

팬데믹 상황과 비상계엄사태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에바에 대한 영화의 재현방식은 여성을 ‘희생자’로 일괄적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입체적인 캐릭터로서 전경화 된 에바는 물론이고 채팅방에서 채팅글과 사진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생존여성들 모두 저항과 해방의 의미망을

여성주인공이 관찰대상이 되어 카메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재현됨으로써 감정적 동일화의 대상이 아닌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이를 남성주인공을 공적영역에 여성주인공을 사적영역에 배치한 것과 함께 이창동 감독의 젠더무의식을 드러내는 기제로 보고 있다.

서인숙, 「영화적 재현양식을 통해 본 젠더 무의식: 영화 <밀양>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2013년 겨울, 문학과 영상학회, 1011쪽, 1036쪽.

즉 영화에서의 재현이 누구의 시점쇼트로 이루어지는가와 피사체와 카메라와의 거리 설정은 영화(작가)의 젠더(무)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춤춤하게 엮어갔다. 그들 모두 개별적인 얼굴을 가진 개별적인 시선과 목소리의 주체이다. 영화서사 내에서 여자들만을 죽게 하는 HNV-21 바이러스와 공권력에 의한 강제 남자채취,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 미래세대를 위한 희생요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분투가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양상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것이 현실에 근접한 가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가부장제라는 오래된 디스토피아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거나 저항하거나 투쟁했다. “여성의 역사를 다양하고 비동질적으로 읽”을 때 “가부장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언제나 역사적 주체이고 능동적인 행위자였다는 사실을”¹⁷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한국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나라의 자궁이 되기를 거부하며, 보호로 포장한 통제를 거부한다. 이전 세대와 달리 남자형제를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으며 가부장적 가정 내에서 자신을 죽이면서 칭찬 듣는 것을 거부한다. 남자 기(氣)를 살려주는 소위 ‘개념녀’가 될 생각도 없다. 그 결과는 한국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는 ‘여혐’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이다. ‘여혐’이라는 바이러스는 이미 익숙한 팬데믹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 인한 혐오발언들이 도처에 넘쳐난다.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는 의도적인 무지여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혐으로 인한 폭력과 혐오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여성들과 남성들의 인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여성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고 노력하는 반면 남자들은 많은 경우 ‘여자 탓’을 하며 분노와 욕구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남자는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혐오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의 개별성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위한 대가라면 여성들

¹⁷ 박경미, 앞의 글, 38쪽.

은 타협하지 않는다. 영화 <팬데믹>이 묘사한 디스토피아는 여성들에게 늘 익숙한 현실이며 여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약간의 변형만 있었을 뿐 늘 같은 디스토피아였다.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6. 결론

지금까지 영화 <팬데믹> 분석을 중심으로 팬데믹이 초래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통제하는 양상들을 고찰했다. 영화 <팬데믹>의 스토리세계는 가상의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가상의 미래를 상정하지만 이는 결코 새롭지 않은 ‘오래된 미래’이다.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볼모로 한 여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보호’로 명명하는 수사학, 여성의 희생 위에 구축되는 공동체의 안녕이 효율성의 미명 하에 유지되어 온 방식은 가부장제가 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임을 보여준다. 전쟁이나 식민주의 하에서 작동되었던 여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과 폭력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주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된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통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남자주인공인 윌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냉철함과 여자주인공인 에바의 감성적 의지로 대별된다. 앞서 3장에서 분석했듯이 영화 <팬데믹>에서 사용된 카메라 워킹 등의 재현 방식은 에바의 무모하기까지 한 감성적 의지 쪽에 (내포)작가의 에토스가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5장에서 분석한 전체주의를 지탱해 온 맹목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거부로 연결된다. 이는 또한 인간의 이성은 의심스러운 것이고 개별성

을 무시하는 보편적 법칙에 윤리적 전망이 있지 않다는 레비나스의 통찰과도 일맥상통한다. 국가는 익명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자의 고유성에 무관심하고 이로 인해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레비나스는 체제 바깥에서 인간 개개인의 인격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와 윤리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¹⁸

인간 개개인의 인격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 <팬데믹>에서 전경화 된 것은 여성들 개개인의 얼굴을 담은 사진들이다. 이는 자신들을 체포 구금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반(反)해서 난자를 채취하려 하는 국가권력에 저항하여 은신처에서 채팅하다 바이러스에 의해 죽어간 여성들이 개별적인 존재의 저항을 넘어서 공감하고 연대했음을 증언하는 시각적 진술이다. 언어가 리얼리티를 만들어 낼 수 있듯이 사진과 영상이미지 역시 리얼리티를 만든다. 이때 사진과 영상이미지는 또한 증언의 기능을 한다. 월의 권총이 ‘남성성’을 상징한다면, 예바의 카메라는 ‘여성적 글쓰기’에 대응하는 ‘여성성’을 상징하며 기록을 남기고 증언한다. 영화 <팬데믹>이 증언하는 것은 특정 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이 이미 익숙한 ‘오래된 미래’이며 이에 대한 저항 역시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전체주의인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저항 역시 오래되고 광범위하며 개별적이지만 연대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존 이상의 삶을 살려 했던 예바가 보여주듯이 팬데믹도 국가권력도 가부장제도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18 강영안,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195쪽.

참고문헌

기본자료

타카시 도셔 감독, <팬데믹ONLY>, (주) 영화사 빅, 2020.

마거릿 애트우드 지음, 김선형 옮김, 『시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 1985), 황금가지, 2018.

인용자료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김도경 · 허윤주,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낙태 허용도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중심으로-」, 『여성학 연구』 제23권 제3호, 2013.

노대원, 「팬데믹 조건 속에서 더욱 취약한 여성의 서사-『팬데믹』이 가져온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통제 양상과 그 함의」를 위한 토론」, 국제비교한국학회 학술대회, 2021.

리베카 솔닛 지음, 김명남 옮김,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창비, 2017.

리처드 프림 지음, 양병찬 옮김, 『아름다움의 진화』, 동아시아, 2019.

마리 루티(Mari Ruti) 지음, 김명주 옮김, 『진화심리학이 퍼뜨리는 젠더 불평등/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동녘 사이언스, 2017.

박경미, 「전체주의 시대의 종교와 여성- ‘유토피아적 부정’과 여성해방적 종교비판-」, 『젠더와 문화』 제1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08.

서인숙, 「영화적 재현양식을 통해 본 젠더 무의식: 영화 <밀양>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13.

신희선, 「성평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교과 운영사례 연구」, 『윤리연구』, 한국윤리학회, 2019.

이선진, 「여성적 글쓰기로 성 지배 담론 전복하기- 마가렛 앳우드 의 『시녀 이야기』」, 『여성학 연구』 제30권 제1호, 2020.

이형식, 「포스트 페미니즘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몸: 대상에서 주체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12.

The Patterns of Control over Women in the Totalitarian Society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movie, *ONLY*

Lee, Chae Won |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movie *ONLY* shapes a virtual viral pandemic situation called HNV-21. When women are sacrificed by viruses in the story world of this film, the state power takes women's eggs and conducts artificial embryo experiments. Women are recognized as public goods for human existence and women's rights are violated. This is to return women to the birth tool in a lump, without recognizing individuality, ability, value and individuality of life. The fertility ability of women can lead individual women to make different choices with different meanings. The history of ignoring this and controlling women and the history that resisted it are contained in the movie *ONLY*. Eva's behavior, which can seem at first glance reckless, and the behavior of the male protagonist Will, who seems common sense in this film, derives another semantic network of arguments. This is a doubt about the control, which is called protection, and the reason why they control those who can be victims and do not control those who can be perpetrators is related to gender power. The rhetoric of the combination of protection and control is commonplace in the patriarchal society. Women are infected with the virus, but the virus that kills only women can be read as a metaphor for gender violence that has led women to death throughout the East and West. When the group assumes a scapegoat for the peace and well-being of other members, the scapegoat is an easy being to be otherized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Eva and many other women in the survivors' chat room have no intention of justifying the violence that is committed to them in the name of the future of mankind. Therefore, the movie *ONLY* is not a film that reproduces patriarchal ideology. Rather, it makes you look at the faces of the survivors who resist. Eva's photos of herself and the women she chatted with are attached to the wall as a visual statement about the history of women's movement, which women, who are individual beings, have been solidarity with sisterhood beyond the difference. In

the history of the old dystopia of patriarchy, women individually adapted, resisted, or struggled in their own way. The virus, 'misogyny' is a familiar pandemic.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ontrol and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were operated under war or colonialism, is changed while maintaining its attributes in the pandemic situation. The way to respond to the violent control of the state power packaged in good faith to serve the future of mankind in the pandemic situation is distinguished by Will's rational coolness and Eva's emotional will. The way of reproducing the camera working used in the movie *ONLY* reveals that Eva's emotional will is tilted by the artist's Etos. This leads to a rejection of rationality and efficiency that has supported totalitarianism. This is also in line with Levinas' insight that human reason is questionable and there is no ethical prospect in universal laws that ignore individuality. It is the photographs of the faces of each woman that are foregrounded in a way that can reveal the uniqueness of individual personality in the movie *ONLY*. Just as language can create reality, photography and image also make reality. At this time, the photograph and image also function as testimonies. The movie *ONLY* testifies that the female control aspect in the totalitarian society caused by certain viral pandemics is an old future that is already familiar and resistance to it continues. The resistance against the patriarchal system, the oldest and most extensive totalitarianism, is also old, extensive, and individual, but forms a network of solidarity.

Key words : Pandemic, Totalitarianism, Control over women, Patriarchal system, Resistance, Solidarity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

|비교한국학의 전망과 쟁점|
한국전쟁의 기억과 외부자의 시선

‘조선전쟁’의 기억과 마이너리티 연대의 (불)가능성
사키 류조의 「기적의 시」(1967)를 중심으로

김려실

The Insignificance of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Historicizing Hollywood War Film Representations of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Kim, Jimin

‘조선전쟁’의 기억과 마이너리티 연대의 (불)가능성*

사키 류조의 「기적의 시」(1967)를 중심으로

김려실**

1. 귀환자-프리케리아트의 전후와 냉전
2. ‘한국전쟁 특수’라는 망각의 경제와 재일조선인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전치된 복수
4. ‘냉전-평화경제’와 마이너리티 연대의 (불)가능성

| 국문초록 |

베트남전쟁 중인 1967년에 쓴 사키 류조의 소설 「기적의 시」는 한국전쟁 특수로 변형했던 일본 최대의 제철소 야하타제철소를 배경으로, 일본 사회가 이웃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일본어에서 市는 문맥에 따라 시가(市街)나 시장(市場)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적의 시(市)’란 한국전쟁 특수로 기적의 도시가 된 야하타시와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가리키는 이중적인 제목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났으며 일본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 작가는 한국전쟁을 배경화한 일본 작가들에 비해 ‘조선의 식민화-대동아전쟁-패전과 점령-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기억의 연쇄와 오버랩 속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았다. 중학생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식민 지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한국전쟁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4266).

** 부산대학교.

특수를 환영했던 일본 사회의 속물주의가 풍자되며 그와 같은 ‘망각의 경제’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도모했던 귀환자-프리케리아트와 재일조선인이 겪은 한국전쟁이 그려진다. 그러나 작가가 취한 미숙한 소년의 시점은 냉전과 분단의 심화에 따라 재규축되고 재분절화되었던 재일조선인의 복잡한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한편, 이 소설은 이차대전 때 미국과의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반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점령의 문제를 다룬다. 사춘기 소년의 과장된 남근적 욕망에는 명백히 불안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의 좌절된 욕망은 페티시로 전치되며 복수의 환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점령군을 향한 복수는 결국 덜 위험한 대상으로 전치되며 아들은 보상을 받고 냉전 질서에 타협하는 길을 택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한국전쟁 특수를 베트남전쟁으로 다시 열린 ‘기적의 시장’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았다. 한국전쟁 특수로 전후 부흥을 이루어낸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한 정당한 배상 대신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냉전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이 된 아시아태평양의 과거 식민지들을 원조한 것으로 배상을 끝냈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정당한 배상이야말로 탈식민화의 지난한 과정을 오래도록 겪어야 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냉전을 종식시킬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주제어: 사키 류조, 기적의 시, 냉전, 한국전쟁, 재일조선인, 귀환자, 한국전쟁 특수, 베트남전쟁

1. 귀환자-프리케리아트의 전후와 냉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일본 학자 마루카와 데쓰시는 「조선전쟁으로 돌아가라!—제2차 조선전쟁과 ‘핵’에서 벗어나는 힘」이라는 글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북한 때리기’에 응답했다. 동아시아의 냉전문화를 오래 연구해온 이 학자가 이 글에서 일본 사회에 요청한 바는 ‘조선전쟁’²을 ‘우리 조선전쟁’으로 보자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으로 완성된 현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무장을 살펴보는 일은 필연적으로 전후 일본이 만들어진 역사적 경위를 환기하는 일과 맞닿아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냉전’에 가담하고 한국전쟁의 병참기지와 무기고 역할을 맡아 그 거러 과정에서 ‘독립’을 감지덕지하며 받아먹은 전후 일본의 부끄러운 태생을 자각하는 과정”³이다.

마루카와의 주장은 현재 일본 학계의 움직임을 선취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일본인을 전투에 동원한 미군 측 극비 문서가 공개되고⁴ 이 분야의 연구가 진척되면서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론적 이행이 나타나고 있다.⁵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에서 한국전쟁 연구가 일국사(一國

1 이 글의 초출은 『現代文学』 2007년 2월호로,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썼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글 번역문은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역, 『리저널리즘』, 그린비, 2013 제3장 참조.

2 한국전쟁은 한국에서 ‘6·25’, 영미권에서 ‘Korean War’, 일본에서 ‘조선전쟁’, 북한에서 ‘조국해방전쟁’,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 등 이해 당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명명법이 말해주듯 이 전쟁은 많은 국가가 참전했거나 연루된 국가횡단적인(transnational) 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통칭으로 ‘한국전쟁’을 쓰고, 일본어 텍스트에서 원문을 인용할 경우 ‘조선전쟁’으로 쓰기로 한다.

3 마루카와 데쓰시, 위의 책, 191쪽.

4 일본인의 실질적 참전은 비밀리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미국 정부의 관련 문서 공개에 의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작년에 마이니치신문은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일본인 노무자들에 대해 미군이 작성한 극비 문서를 미국의 국립문서관(NARA)에서 입수하여 보도한 바 있다. 『朝鮮戦争 日本人が戦闘 米軍極秘文書に記録 基地従業員ら18人』, 『毎日新聞』, 2020년 6월 28일자 참조.

5 西村秀樹, 『朝鮮戦争に「参戦」した日本』, 三一書房, 2019; 藤原和樹, 『朝鮮戦争を戦った日本人』, NHK出版, 2020 등을 참조.

史적 연구를 벗어나 한중일 비교연구로 확장되어 가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즉, 한일 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서구의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동아시아의 냉전은 계속 진행 중이며 그 근원에 한국전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마루카와가 『냉전문화론』에서 다시 한 번 환기했듯 “북한 때리기”가 멈추지 않고 확대되어 가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물음은 “한국전쟁이라는 운명의 불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농락당했는가”⁶이다.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각자가 겪어내었던 한국전쟁을 관계사(關係史)적으로 연결하는 트랜스내셔널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이 논문에서는 냉전기에 일본 작가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쓴 소설에 주목했다. 이 시기 일본문학을 살펴보면, 사실상 1950년대나 60년대에 한국전쟁을 정면으로 다룬 문학이나 영화 텍스트의 수는 매우 적으며 1970년대 이후가 되면 이 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 텍스트의 과소(過少)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위를 환기하기”위한 노력이 매우 지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에 관한 일본 문학을 분석한 마루카와가 모두(冒頭)에서 “한국전쟁을 당사자로서 살아낸 하나의 모델 케이스”⁷로 김사량을 언급하며 ‘당사자’의 범위를 다시 ‘민족’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냉전기 일본문학의 현상이 탈냉전적인 오늘날의 인식을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냉전기에 한국전쟁을 다룬 일본문학을 단순히 분류하면 작가의 출신 및 창작배경에 따라 크게 당사자, 동조자, 기타의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당사자는 일본에서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했지만 그와 같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뉜 고국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인식했던 재일조선인 작

6 마루카와 테쓰시, 장세진 역,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북스, 2010, 177쪽. 일본에서 발간된 순서는 『리저널리즘』이 2003년, 『냉전문화론』이 2005년이었지만 한국어 번역본의 발간 순서는 『냉전문화론』이 먼저이다.

7 위의 책, 177쪽.

가군이다. 한국전쟁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작품을 생산했던 그들은 주로 좌익성향의 잡지를 무대로 활동했다.⁸ 예외적이지만 김사량의 경우처럼 중국으로 탈출하여 한국전쟁에 종군한 작가도 있다.⁹ 둘째, 동조자는 식민지 조선 출신의 일본작가나 공산당계 일본작가군이다. 그들은 재일조선인 작가들에 동조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연루된 일본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일본공산당이 주도한 한국전쟁 반대운동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 셋째, 한국전쟁을 소재적 차원이나 배경으로 삼았던 작가들이다. 이들은 전후 일본사회를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한국전쟁을 택했을 뿐으로¹⁰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았다.

「기적의 시」(奇跡の市)의 작가 사키 류조(佐木隆三, 1937.4.15.~2015.10.31)는 두 번째 작가군에 해당한다. 그는 『수용증명서』(身分帳, 1990), 『옴법정 연속방청기』(オウム法廷連続傍聴記, 1996) 등 다수의 논픽션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범죄사건을 취재한 소설로 명성을 쌓은 이른바 ‘사회파’ 작가이다. 국내에는 나오키상 수상작인 『복수는 나의 것』(復讐するは我にあり, 1975)과 만주일일신문사가 간행한 『안중근 공판 속기록』을 토대로 쓴 논픽션 『광야의 열사, 안중근』(伊藤博文と安重根, 1992)이 번역되어 있다. 사키 류조는 일조(日朝)문화교류협회 회원으로 1985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다.

「기적의 시」는 그의 자전적 소설로 『신조』, 『문학계』, 『군상』, 『스바루』와 더불어 일본 5대 문예지 중 하나인 『문예』(文藝) 1967년 12월호에 발표되

8 소명선,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와 ‘한국전쟁’: 1950년대 일본열도가 본 ‘한국전쟁」, 『일본근대학연구』 제61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 219쪽.

9 해방 이후 연안으로 탈출하여 북한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며 당사자로서 한국전쟁을 싸웠던 김사량의 중국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주춘홍, 「한국전쟁기 중국어로 번역된 김사량 작품 연구」, 『한국문화과예술』 30호,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9 및 김성화, 「연안(延安)으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 『한국문학논총』 84호, 한국문학회, 2020 참조.

10 예를 들면 한국전쟁에 대한 르포나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참전을 상상적 차원에서 재구성한 기타 모리오의 「부표」가 그렇다. 장지영, 「기타 모리오의 부표를 통해 본 한국전쟁문학」,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6, 318쪽.

었다.¹¹ 사키 류조의 본명은 고사키 료조(小先良三)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이다. 1941년 은광(銀鑛) 소장이었던 부친이 해군에 징집되자 일가족이 어머니의 친정인 히로시마현 다카타군의 한촌으로 귀환했다. 부친은 1945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전사했고, 같은 해 8월 6일 여덟 살이었던 그는 이모와 밭에서 풀을 뽑다가 원자폭탄의 섬광과 버섯구름을 보았다. 작가는 그 경험을 자전적 소설 『버섯구름』(1982)으로 한 차례 갈무리한 적이 있으나 말년에 자전적인 동화 『쇼와 20년 8세의 일기』(昭和二十年八月の日記, 2011)를 통해 다시 한 번 반추했다. 이 동화에서 1인칭 주인공은 여덟 번째 생일인 1945년 4월 15일부터 어머니와 히로시마에 갇던 10월 25일까지를 일기 형식으로 서술한다. 그는 병약한 형에게 비국민(非國民)이 아니냐고 따질 정도의 ‘군국소년’이었지만 막상 원폭으로 초토화된 거리를 마주하고 “형,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라고 속삭인다.¹²

「기적의 시」에도 중학생 주인공의 회상이라는 형식으로 네 살 반까지 살았던 식민지 조선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 필리핀에서 전사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 히로시마 원폭에서 살아남은 중학생 형에 대한 기억이 교차되어 있다. 위에서 논한 사키 류조의 원폭 관련 텍스트는 전쟁기억을 모티프로 한 자전적 내러티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창작 시점은 「기적의 시」가 가장 앞선다. 사키 류조의 「기적의 시」는 한국전쟁을 단순히 배경으로 삼은 작가들에 비해 ‘조선의 식민화-대동아전쟁-패전과 점령-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기억의 연쇄와 오버랩 속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본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억구조는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미국의 냉전에 동시에 전쟁책임을 묻은 재일조선인 작가 김달수의 「손영감」(1951)에도 나타난다. 그는 이 소설에서 한국전쟁 당시 재일조선인 부락민들의 전쟁물자 수송 반대

11 이 논문에서는 『コレクション戦争×文学 1 朝鮮戦争』(集英社, 2012)에 실린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12 「きのご雲の記憶絵本に、直木賞作家の佐木さん」, 『中國新聞』, 2011.6.28(朝刊).

투쟁을 다루었다. 주인공 손영감은 히라쓰카에서 공중폭격으로 아내와 손자를 잃고 지금은 점령군 해군기지와 항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근처의 조선 인부락에 산다. 조국의 독립 후 민족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석했던 손영감은 고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경쇠약에 걸린다. 그의 집 앞 군용도로를 수시로 지나는 트럭에는 고국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폭탄과 탄환이 실려 있다. 마을 청년들은 미군의 무기와 폭약 운송에 반대하는 삐라를 뿌렸던 일로 체포된다. 어느 날 밤, 재일조선인들의 집회가 허락되지 않기에 영화관을 빌려 영화회의 형태로 민족 집회가 개최되었다. 손영감은 한국전쟁을 보도한 미국 뉴스릴에서 공중폭격 장면을 목격했고 히라쓰카의 폭격을 떠올리고는 실성해버린다. 그리고 1951년 6월 23일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유엔에 휴전을 제의한 날로부터 나흘째, 손영감은 간선도로에서 나가떨어져 머리가 깨어진 채 사망한다. 그는 조선으로 가는 군수물자가 실린 트럭을 온몸으로 막으려다 트럭에 치인 것이다.

「손영감」과 「기적의 시」에서 전쟁기억의 구조적 상동성은 동조자로서 사키 류조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동조자와 당사자라는 두 작가의 위치에 따라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시각은 차이를 노정한다. 당사자로서 손영감은 몸을 던져 조국의 전쟁을 막으려 했지만 「기적의 시」의 주인공은 재일조선인들의 한국전쟁 반대운동을 관찰하거나 거드는 입장일 뿐 ‘우리 전쟁’이라는 의식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기억에 대한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가?

두 소설의 구조적 상동성은 식민자/피식민자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키 류조와 김달수 모두 식민지 조선 출신이며 공산당계 문인이라는 공통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작가는 일본공산당 당원으로서 좌파 문인단체인 신일본문학회(新日本文学会)에서 활동했는데 그들의 정치적, 문학적 노선 또한 한국전쟁에 대한 대항기억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¹³ 김달수는 1949년

에 공산당원이 되었고 1955년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결성되자 가입했다. 그는 창작 방법론과 정치 노선의 차이로 공산당과 갈등을 빚다가 1972년에 제명당했다. 한편, 문인이기 이전에 제철소 직공이었던 사키 류조는 노조에 가입했었고 1960년 안보투쟁 직전에 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곧 회의를 느끼고 공산당을 비판하는 소설을 쓴 뒤 1964년에 제명당했다.

「기적의 시」는 한국전쟁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제국주의 전쟁과 중첩해서 보았기 때문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이라는 서구 냉전 패러다임의 전면화로 망각된 일본의 식민주의를 문제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소설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아시아 국가들이 베트남전쟁 특수를 누리던 중에 씌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왜 작가가 식민지 조선의 과거를 ‘조선전쟁 특수’와 연결선상에서 보려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서구의 냉전 중에 일어난 아시아의 뜨거운 내전들은 각각의 단일사건들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역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근대가 미국의 냉전 근대로 재편되어가면서 발생한 복합사건이다. 즉,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의 전쟁을 통해 얻었던 경제 특수란 아시아를 대상으로 이차대전의 식민주의 경제가 미국이 주도한 냉전기 신식민주의 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의 일부였다.

식민지 조선 내지 만주로의 개척이민과 한국전쟁 특수로 인한 경제부흥은 사키 류조의 가족이 직접 경험한 과정이기도 했다. 만주사변 이후 전답을 팔고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해 잠깐의 성공을 맛보았으나 태평양전쟁으로 귀환하여 패전 후 최빈곤층이 된 그의 가계는 일본의 ‘식민자-근대가족’의 한

13 김달수는 1946년 10월 신일본문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단체의 문예지 『신일본문학』에 초기의 대표작 「현해탄」을 연재했다. 사키 류조 역시 신일본문학회 회원이었고 1963년 「가위바위보 협정」(ジャンケンボン協定)으로 신일본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일본문학회는 기본적으로 좌파 문인 단체였지만 공산당계 문인들과 공산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했던 문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분열을 계속하다가 1964년 공산당계를 제명함으로써 이후 공산당을 비판하는 노선에 서게 되었다.

전형을 보여준다. 가장의 죽음, 원폭, 패전이라는 불행을 한꺼번에 겪은 그의 가족은 전후 ‘귀환자-프리케리아트(precariat)’로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다가 도시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1950년 「기적의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된 후쿠오카현 야하타시로 이주했다. 그곳은 전시기 증산에 앞장섰던 일본 최대의 제철소, 야하타제철의 근거지였고 한국전쟁이 시작된 무렵 히로시마의 시골에서 온 작가의 가족처럼 각지에서 일거리를 찾는 인구가 몰려들었다.

「기적의 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부터 11월 하순까지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작가에 따르면 그가 1950년 6월에 히로시마에서 야하타로 이사해 중학교 1학년에 편입하고 얼마 뒤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어머니가 부상으로 일을 쉬자 1인칭 주인공인 ‘나’가 신문배달을 하는 에피소드도 작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석간신문 배달을 한 경험에서 나왔다. 작가는 야하타중앙고교를 졸업한 1956년에 야하타제철소에 직공으로 취직했다. 소설 제목은 한국전쟁 특수로 전후 일본의 경제가 기적적인 부흥을 맞이한 시기여서 ‘기적의 시(市)’라고 붙였다고 한다.¹⁴ 일본어에서 市는 시가(市街)를 의미할 때도, 시장(市場)을 의미할 때도 있다. 따라서 ‘기적의 시(市)’란 한국전쟁 특수로 기적의 도시가 된 야하타와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동시에 가리키는 이중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전쟁 특수’라는 망각의 경제와 재일조선인

「기적의 시」에서 야하타시¹⁵는 “제철소가 신 이상이니까 말하자면 기업제

¹⁴ 佐木隆三, 『もう一つの青春』, 岩波書店, 1995, 236~239쪽.

¹⁵ 후쿠오카현의 동북부에 위치했던 야하타시는 기타큐슈 공업지대의 중공업도시로 변형했으나 1963년 기타큐슈시에 병합되어 없어졌다.

(企業祭)는 천황탄생일 같은 거야”라는 소설 속 비유대로 제철소가 노동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배하는 공간이다. 히로시마에서 왔기 때문에 이름 대신 히로시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주인공의 삶에도 제철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는 재학생의 삼분의 이가 제철소 사원을 부모로 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는 제철소의 기업제가 다가오면 조례 때 “천하의 장관 우리 제철소”라는 가사가 포함된 시가(市歌)를 제창한다. 기업제 날은 휴교일이지만 학생들은 기행렬(旗行列)에 동원되어 기업제를 축하한다. 히로시마의 어머니는 제철소의 노동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야하타시에 서는 기업제에 맞춰 다른 회사들도 임시휴업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한다. 한편, 히로시마의 가족이 살고 있는 큰 이모네는 이모부가 전쟁 중에 야하타제철소 직공이었다. 패전 후 이모부는 점령군이 제철소를 해체해 전부 필리핀으로 옮긴다는 소문에 희망퇴직을 하고 마부가 되었다. 퇴직자임에도 이모네가 부를 쌓아 가는 과정은 제철소의 변명과 맞물려 있다. 전쟁으로 도로가 소이탄 구멍투성이라 트럭이 달릴 수 없게 되자 전근 대적인 운송수단인 말과 마차가 다시 주요 운송수단이 되어 이모네는 크게 성공한다. 삼년 뒤 말과 마차를 팔고 집을 개조해 잡화점을 열었는데 제철소 사택 옆이라 잡화점도 번성하게 된다.

심지어 제철소는 야하타에 거주하지 않는 주인공의 큰형에게조차 영향을 미친다. 일용직 인부인 어머니, 자동차 수리공장의 견습공인 작은형, 늑막염에서 막 회복된 누나, 중학교 1학년인 주인공으로 구성된 가족은 야하타시에 왔을 때 가장이 과부라는 이유로 신용이 없어 아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아 이모 집에 남아있던 마구간에 마루를 깔고 살고 있다. 어머니의 불안정 노동과 온가족이 매달린 부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 가족에게 성공이란 전기, 수도, 변소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아들들이 야하타제철소의 직공이 되는 것이다. 그 기회는 곧 다가온다. 한국전쟁 특수로 제철소

가 전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채용을 시작한 것이다. 고베에서 고용살이 중인 큰형은 이모부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일을 그만두고 야하타로 온다.

“엄마, 나도 수리공장을 그만두고 제철소 시험을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작은 형이 신바람 난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냐. 제철소는 18세 이상이 아니면 채용하지 않아.” 큰형이 밝게 웃었다.

“괜찮아. 작은 선생님 말로는 조선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니까 제철소는 네가 열여덟이 되기를 기다려줄 거야.” 누나가 작은형을 위로했다.

인용문과 같이 한국전쟁 특수는 전후 부흥에 따라 도시로 흘러든 뜨내기로서, 토박이들과 달리 제철소의 경제 회로에 편입되지 못한 이 가족에게 불안정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로 그려진다. 야하타에 공습 경제경보가 내려진 날¹⁶, “어차피 이번 전쟁은 원자폭탄으로 모두 죽을 게 뻔해”라고 했던 어머니조차도 곧 한국전쟁을 반기게 된다. 왜냐하면 그 전쟁 때문에 더 높은 일당을 줄 수 있는 고용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미군이다. 어머니는 막노동으로 버는 일당의 열 배인 4달러를 받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해 고쿠라 캠프로 운반되어온 미군의 시체에서 창자를 뽑는 일을 하게 된다. 전사한 미군을 미국 본토의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전에 미국의 장례 관습에 따라 방부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였다. 이처럼 한국전쟁 특수에서 프리케리아트의 몫으로 남은 것은 누구나 기피하는 최악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히로시마의 가족은 히로시마의 섬광을 잊고 이웃나라의 전쟁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란다.

한편, 이 소설에서 한국전쟁 특수가 제국주의 전쟁의 과거를 잊은 ‘망각의

¹⁶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9일 한반도와 가까운 기타큐슈에 정체불명의 비행기 한 대가 접근해 야하타를 비롯해 고쿠라, 도바타, 모지 등에 공습 경제경보가 내려졌고 등화관제가 실시되었다.

경제'라는 점은 두 명의 재일조선인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한 명은 어머니와 함께 토목청부회사에서 일하는 인부 박 씨이다. 어머니가 어설픈 조선 말을 건네자 친밀감을 느낀 그는 자기 내력을 알려준다. 박 씨는 조선에서 납치되어 후쿠오카현 북서부의 치쿠호 탄전으로 끌려와 광부로 일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야하타시로 흘러들어와 줄곧 인부로 일하고 있다. 박 씨는 제철소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우회적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이라는 제철소의 전쟁범죄를 상기시키는 인물이다. 한국전쟁 특수로 부흥하게 된 야하타제철(현재 일본제철)¹⁷은 이차대전 당시 '조선인전신노무동원'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전범기업'이다. 침략전쟁을 기회로 삼아 아시아로 진출한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식민지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 번영했고, 전후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배상도 없이 한국전쟁 특수로 통해 부흥했다. 점령이 종결된 이후에 이들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냉전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발전도상국을 경제적 신식민지로 삼았다.

귀환자와 재일조선인은 이와 같은 망각의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어머니와 박 씨는 미군의 '야하타 대공습' 당시 최악의 피해지였던 고이토 산을 깎아내어 공원화하는 공사에 투입되었다. 고이토 산의 대방공호 출입구에 폭탄이 명중해 피난민 천 몇 백 명이 한꺼번에 찌죽었는데, 불과 5년 만에 최악의 전재지(戰災地)는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즉, 다자이 오사무가 말한 '쿵쿵쿵의 전후'가 강제 징용된 재일조선인의 손을 빌려 건설된 것이다. 문예평론가 가와무라 미나토는 다자이의 자기고

17 야하타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은 GHQ의 재벌해체 정책에 따라 1950년 4월에 야하타제철과 후지제철로 해체되었다. 그 직후 야하타제철이 일본제철의 철강 부분을 이어받아 야하타제철주식회사가 발족했다. 1970년 야하타제철주식회사는 후지제철과 다시 합병하여 신일본제철이 발족되었다. 2012년 신일본제철은 스미토모(住友)금속공업과 합병하여 신일철주금으로 발족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상호를 일본제철로 변경했다. 현재 야하타제철소는 2020년 4월부터 일본제철의 제철소 재편성에 의해 오이타제철소와 함께 '규슈제철소 야하타지구'에 통합되었다.

백적인 서간체 소설 「쿵쿵쿵」에서 전후 부흥에 대한 회의와 부적응을 읽어내었다. 그는 일본은 (존 다우어가 말한 것보다) 좀 더 깊이 패배를 껴안고 원폭의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 잠시 멈춰서있을 수는 없었을까 라고 묻는다.¹⁸ 왜냐하면 전후 일본에서 건설의 망치 소리는 결국 전재지·평화공원의 ‘협상된 평화’의 종소리¹⁹와 중첩되어 천황제의 부활(상징천황제)과 전쟁책임의 망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적의 시」에서 일제시기에 징용당해 일본에서 전후를 맞이한 재일조선인은 그와 같은 망각의 경제 속에 포섭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내파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박 씨의 도시락을 씻어주려고 열어보니 공사장에서 흠친 게 분명한 다이어마이트가 들어있었다. 이 소설에서 박 씨가 흠친 다이어마이트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점령기 일본의 3대 소요사건(피의 메이테이 사건, 스이타 사건, 오오스 사건)의 주체가 점령 중지, 한국전쟁 중지를 주장한 공산당과 재일조선인 단체의 연합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다이어마이트의 용처는 추측 가능하다. 더구나 공산당 세포로 활동하는 또 다른 재일조선인 등장인물에 의해 그 추측은 강화된다.

주인공의 친구 가네무라는 제강공장이 문을 닫아 폐쇄된 철교 밑에 지어

¹⁸ 太宰治, 「トカトントン」, 『群像』, 1947년 1월호 및 가와무라 미나토, 「쿵쿵쿵과 변칙 쿵: ‘부흥’의 정신과 ‘점령’의 기억」, 나리타 류이치 외, 정실비 외 역, 『근대 일본의 문화사 8: 1935~1955년 2 감정·기억·전쟁』, 소명출판, 2014.

¹⁹ 두 평화공원은 점령기이자 전후 부흥기에 설계되었고 점령이 끝나고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진입한 1955년에 준공되었다.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은 1949년 8월 6일 공포된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축법’에 따라, 나가사키평화공원은 같은 해 8월 9일 공포된 ‘나가사키국제문화도시건설법’에 따라 설계가 시작되었다. 각각의 법안이 공포된 날은 두 도시에 원폭이 투하된 날인데, 이후 건설 과정을 보면 경제논리에 따라 원안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평화의 종’은 의외로 준공 당사가 아니라 두 공원이 다크투어리즘의 성지가 된 이후에 설치되었다.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는 1964년, 나가사키평화공원에는 1977년에 평화의 종이 설치되었다. 전재지에 세워진 두 공원이 표상하는 위령과 연결된 모호한 평화의 문제점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바 있고 지방정부의 관광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평화의 상품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진 무허가 판잣집에 사는 재일조선인 소년이다. 병약한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고 신문배달과 고철 줍기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제철소의 부흥으로 기차역이 재개되자 철교 밑 판잣집을 떠나야 한다. 신문배달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히로시마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며 가네무라는 어려운 부탁을 꺼낸다. 신문판매점에 비밀로 하고 경찰에 들키지 않게 『평화와 독립을 위해서』라는 점령군이 금지한 공산당 신문을 배달해달라는 것이다. 히로시마에게 공산당은 좋지도 싫지도 않고 그냥 경찰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에서 편 들어주고 싶은 정도의 존재이다. 그는 한국전쟁, 재일조선인 차별, 레드 퍼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열차 전복 기도, 국철 고위직 암살, 제철소 폭탄 테러 등 공산당의 폭력 투쟁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한 복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보다는 규모가 큰” 복수 정도로 생각한다. 히로시마는 자신이 겁먹었다고 가네무라가 오해할까봐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다. 그러면서도 내심 귀찮은 일이 생기면 신문을 배달하지 않고 도랑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기적의 시」가 취한 중학교 1학년 소년의 1인칭 시점과 위약적인 반어법은 부흥에 취해 전쟁책임은커녕 평화에 대한 도의마저도 저버린 일본 사회의 빠른 태세 전환과 무뎌진 양심을 비판하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와 같은 장치는 고스란히 이 소설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미성숙한 소년의 시점은 한국전쟁 전후 공산당 지도부의 분열이나 재일조선인의 복잡한 정체성과 그들의 반전/참전 민족운동을 그리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²⁰ 식민지 조선의 독립과 미국의 일본 점령으로 인해 재일조선인들

²⁰ 1949년 GHQ가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을 강제 해산한 이후 소속 재일조선인들은 일본공산당에 대거 가입했다. 당시 일본공산당은 미군의 점령 아래서도 평화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수파(소감파)와 그와 같은 생각이 미국의 제국주의를 미화한다고 보는 소수파(국제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중국혁명 성공 이후 소련은 일본공산당에 대미 투쟁을 촉구했고 다수파는 노선을 변경하여 비합법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해나갔다. 1950년 1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발족했고 민전은 공산당의 민족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조국방위중앙위원회를 건설하고 각지에 조국방위

은 국민도 외국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서 냉전 시장경제와 불안정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국적 문제와 정체성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피식민자로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은 아래와 같이 인종적으로 차이가 없는 식민자 일본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히로시마 사투리를 쓰는 주인공과 말을 더듬는 가네무라는 학급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들이라 따돌림을 당한다. 외톨이였던 두 사람은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동시에 물건을 훔치다 허용의 눈길을 교환한 뒤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히로시마가 가족조사표에 조선출생이라고 쓴 것을 본 제철소 계장의 아들 고지마는 그가 조선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자기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히로시마가 택한 방법은 고지마가 겁에 질려 말릴 정도로 가네무라를 철저히 때려눕히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식민지 조선에서 아버지가 행사한 폭력을 답습한 것이다. 히로시마는 아버지가 요금을 받으며 감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인 인력거꾼을 무자비하게 매질한 “우쭐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저항하지 않는 가네무라를 때린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 대한 기억과 중첩되어 있는 소년의 폭력은 식민지의 해방 이후에도 답습되었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시사해주지만 냉전과 분단의 심화에 따라 재구축되고 재분절화되었던 그들의 복잡한 정체성을 드러내주지는 못했다.

위원회와 행동대로서 조국방위대를 조직하여 공산당의 반전, 반미, 반기지 투쟁 등 각종 시위운동에 참가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민족대책은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이 아닌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 규정했고 재일조선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본 혁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민족학교 문제나 한반도 평화 같은 재일조선인의 민족적인 과제는 뒤로 미뤄졌고 재일조선인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한편, 대한민국의 공인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민단)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원군 모집운동을 전개했다. 자원병들은 ‘재일의용군’으로서 한국군, 미군에 편입되어 인천상륙작전 등에 투입되었다. 남기정, 『한국전쟁과 재일한국/조선인 민족운동』, 『민족연구』 제5호, 한국민족연구원, 2000; 니시무라 히데키, 심아정 외 역,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재일조선인과 스이타 사건』, 논형, 2020 참조.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전치된 복수

죽은 아버지의 폭력을 답습하는 주인공이 잃어버린 가부장의 권위를 보상하려는 시도는 남근적 욕망의 형태를 취한다. 학교나 집에서 수시로 자위를 하는 사춘기 소년 히로시마의 과장된 정력은 유머와 아이러니로 웃음을 유발하지만 거기에는 명백히 불안 또한 내포되어 있다. 야하타시로 막 이주했을 때 주인공의 가정은 어머니가 실질적 가장인 상태였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일터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돌아오자 그는 다짜고짜 도끼를 꺼내든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싸우다가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상은 철교를 통과하다가 머리 숙이는 것을 깜빡해서 생긴 것이었다. 그 사실을 들은 소년은 철교에 복수하기 위해 레일에 돌을 놓아 돌까, 전철기에 나무 조각을 박아 놓을까 고민한다. 그러나 결국 걱정이 많은 어머니가 생각에 빠져 멍하니 트랙에 선 채로 철교를 들이박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복수를 포기한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어머니는 여자치고는 큰 키에 “삼태기 운반으로 남자 이상의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곧 상용직이 될” 정도의 역척스러운 여성이지만 소년은 어머니의 보호자를 자처한다. 어머니의 부상으로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은 못미더우니 자신이 일거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장을 인정하지 않는 부권주의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성장 압박 속에서 히로시마는 여자를 취하는 남자가 그렇지 못한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남근적 상상에 빠지고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인 보상을 추구한다.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와 불안이 증폭된 날 그는 병문안을 온 어머니의 동료 이키요 씨를 흠쳐보면서 몰래 자위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반 여학생 에비타니 준코를 상대로 남학생들과 경쟁하다가 욕망

이 좌절되자 “손이 닿지 않는 에비타니 준코 대신 (그녀의 속옷을) 가게 진열장에서 날치기를 하는 요령으로 재빨리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고 그것을 계속 지니고 다닌다. 이처럼 욕망의 좌절로 인한 폐티시는 히로시마의 경우 도벽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지고 싶은 것을 정당하게 가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는 가지고 싶지만 돈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좌절의 경험이 있을 때마다 물건을 훔친다. 에비타니 준코 대신 그녀의 속옷을 훔쳤듯이, 그는 백화점에 갔다가 물정모르는 어머니가 헐값에 넘긴 집값이 겨우 신식 라디오 한 대 가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에 몸을 떨며 어머니의 손해와 전혀 무관한 라디오 진공관을 훔쳐 변소에 버린다.

한편, 히로시마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버지를 죽인 미국이 점령으로 상징적 아버지가 되고, 한국전쟁 개전 초기 유엔군이 수세에 몰림으로써 일본 내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다. 1950년 7월이 되자 학교에서는 신문에도 안 실리고 NHK 방송에도 안 나오는 확인할 수 없는 괴소문이 돈다. 예를 들면 전쟁에 투입되는 미 육군 24사단이 주둔 중인 고쿠라시의 조노 캠프에서 흑인군인이 200명이나 탈주하여 카빈총으로 위협하여 주택가의 여성을 닥치는 대로 해치웠다는 소문이 그렇다. 실제로 7월 11일 고쿠라시에서는 흑인군인들이 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집단 탈출하여 민가를 습격하고 약탈, 파괴, 강간을 자행했다. 당시 미군기지는 본토의 인종 분리 정책을 답습했고 흑인군인들은 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집단탈출 사건을 일으킨 흑인군인들은 하루 전 기후현에서 고쿠라시로 이동하여 다음날 한국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같은 사건을 모티프로 한 마쓰모토 세이초의 소설 「검은 바탕의 그림」(黒字の絵, 1958)은 미국의 인종주의를 문제시하는 동시에 일본인의 피해자 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내가 흑인 군인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로 이혼한다. 그는 미군 캠프의 시체처리반(AGRS, Army

Grave Registration Service)에서 일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마침내 그 흑인 군인의 시체를 훼손함으로써 목적을 이룬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적의 시」에도 AGRS에서 창자 뽑는 일을 전사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전치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두 소설의 복수는 피해자 의식을 통해 일본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형성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²¹ 그런데 일본남성의 피해자 의식은 특정한 망각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 자신을 피해자로 상상하는 일본남성은 점령군에 의한 거세 공포와 점령군을 향한 복수심을 일본여성을 강간한 흑인군인에게 전치하면서 과거 일본군인이 아시아의 전쟁에서 저질렀던 여성에 대한 범죄(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2학기가 되어 가네무라가 전차 회수권을 주운 덕에 히로시마는 처음으로 “백인, 흑인 군인이 덮어놓고 많은 데다 반드시 여자를 데리고 걸어 다니”는 고쿠라시에 가본다. 두 소년은 여자를 동반한 미군을 발견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자전거택시 운전수가 가르쳐준 대로 “유, 껌딱지, 베리 나이스네”하고 “큰 미군의 몸에 부속품처럼 달라붙어 있는 팡팡”을 놀린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주인공의 방어기제는 가부장제로의 회귀(여머니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아버지의 자리를 욕망하거나) 내지는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과장된 정력)로 나타났다. 그런데 큰 몸집의 점령군과 마주했을 때 두 소년은 점령군이 아니라 그의 몸에 부속품과 같이 달라붙은, 즉, 물상화된 일본 여성-팡팡에게 열등감과 적개심을 전치한다. 그들이 목이 쉴 정도로 팡팡 놀리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녀들이 침을 뱉거나 하이힐로 발길질을 하면서도 추잉검과 십 엔짜리 지폐를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반미 오이디푸스 구조 속에서 좌절된 살부 욕망은 페티시로 전치되며, 아들은 보상을 받고 아버지의 질서에 타협하는 길을 택한다.

자신의 금지된 욕망을 원래의 대상보다 덜 위험한 대상으로 돌리는 전치

21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비교한국학』 제2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28쪽.

는 주인공의 엇나간 복수의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히로시마는 어머니가 암
거래 쌀 운반으로 단속에 걸렸다고 멋대로 짐작하고는 주재소를 폭파하려
했고, 미군의 배가 접안한 부둣가에 팡팡은 들여보내주고 자기들은 막은 경
관에게 항의하다가 엉덩이를 얻어맞고는 빈 파출소에 들어가 오줌을 갈긴
다. 이 같은 어긋난 복수의 사고 회로를 거치면 아버지를 죽인 미국에 대한
복수는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죽은 미군의 창자를 뽑는 일로 전치된다.

“아빠가 돌아왔을 때는 상자 속에 달랑 위패만 하나 들어있었는데.” 누나가
히스테릭하게 말했다.

“왜 엄마가 미국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람.” 작은형이 누나에게
동조했다.

아무래도 누나도 작은형도 어머니의 이번 일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가 약한 소리를 하는 데는 단지 냄새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누나나 작은형의 말은 이상하다. 미국군인에게 죽은
일본군인의 유족이 미국군인의 유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면 복수를 위해 그 미운 미국군인의 창자를 뽑고 돈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차라리 어머니 대신에 내가 가는 것은 인정이 안 될까?

머리를 다쳐 일당이 줄어버린 어머니는 이키요 씨와 함께 고쿠라 캠프의
사체처리장에서 일하기로 한다. 소문에 따르면 조선에서 사망한 미군의 시
체가 캠프에 도착하면 방부 처리된 다음, 얼굴에 색을 입히고 이발과 수염까
지 깎아 살아 있을 때의 표정으로 되돌린 뒤, 호화로운 관에 넣어 모지(門司)
항에서 미국으로 보내진다.²² 어머니의 일당은 전보다 10배나 많아졌지만

²² 사체를 방부처리(embalming)하는 미국의 장례문화는 남북전쟁에서 유래했다. 4년에 걸친 긴 전쟁
동안 전사한 군인의 시신을 멀리 떨어져 있는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엠바밍이 시작되었다.
특히 전사자의 엠바밍 및 유해 수거는 국립묘지와 같은 국가적 추모 사업과 분리될 수 없고
전사자 예우의 핵심으로서 미래의 병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문제는 지독한 악취였다. “작업을 끝내고 샤워라는 세련된 물건을 썼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냄새 때문에 어머니는 첫날 돌아오자마자 일을 그만두려 한다. 위의 인용문처럼 누나와 작은형, 그리고 어머니까지 지독한 악취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미국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때문에 새 일거리에 불만을 느낀다. 미국령이었던 필리핀에서 미군과 싸우다 전사한 아버지의 경우 시체도 없이 위패만 돌아왔는데, 미군 유족들은 일본군 유족의 극한직업 덕분에 온전한 시체로 전사자를 제대로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머니에게까지 창자 빼는 일이 돌아온 것은 전임자인 마쓰모토 씨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오지 않으면 “조선행 배에 태운다고 협박을 당해” 필사적으로 후임자를 구했다고 한다. 이는 미군의 일본인 노무자 임의 고용과 일본인 노무자의 비공식적인 한국전쟁 참전을 시사한 에피소드이다.²³ 즉, 히로시마의 복수란 실제로는 불쾌하고 위험한 일을 보상(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값음)인양 전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치된 복수의 경제’를 국가 간의 전쟁배상으로 확대해보면 일본은 원폭이나 미군의 폭력에 대해서 미국에게 배상(권리 침해에 대한 값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입은 손해는 미국이 개입된 전후 부흥으로 인해 지불된 것으

한국전쟁 말기 북한에서 사망한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글로리 작전(operation glory)을 실시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유엔군 사상자의 송환을 요구하였고 1954년 9월과 10월에 걸쳐 약 4000여 명의 유해를 받았다. 그중 신원불명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군의 유해 1,868구는 하와이의 퍼시픽 국립묘지에 묻혔다.

- ²³ 한국전쟁 당시에 한일 양국 정부는 국민에게 일본의 한국전쟁 지원 및 참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주한 미군 가족의 피난지, 유엔군의 기지, 군수품 생산과 수송을 담당했으며 소해, 항만기술, 해상수송 및 하역을 위해 수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파견되어 유엔군의 전투를 지원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의 유엔군 지원은 미국에 의한 임의 고용이라는 형태의 비공식적 참전이었지만 거기에는 일본 정부가 깊이 관여했다. 예를 들어 미해군의 요청으로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편성하여 원산에 파견한 소해대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기뢰 제거 작업을 했다. 谷村文雄, 『朝鮮戦争における対機雷戦(日本特別掃海隊の役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참조.

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4. ‘냉전-평화경제’와 마이너리티 연대의 (불)가능성

「기적의 시」는 한국전쟁이 계속되어 아들들이 제철소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는 밝은 전망 속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어머니가 창자 빼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데서 끝난다. 그런데 사키 류조가 이 소설을 발표한 뒤 1971년에 오키나와로 이주해 약 2년간 오키나와복귀 투쟁과 반환협정 비준저지투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결말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전사한 원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히로시마 가족을 통해 작가는 일본인의 선택적 망각을 풍자한다. 그와 동시에 히로시마의 전치된 복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폭력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상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차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탈식민화가 이어졌지만 실상 어떤 국가도 미국의 식민화(필리핀과 하와이)나 핵실험(비키니 환초), 미 주둔군(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그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평화 경제’로 편입되면서 미국의 보상은 이미 끝난 사태가 되었다. 한편, 한국과 같이 이차 대전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나 점령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면 일본은 미국의 냉전에 가담하면서 과거의 식민지배의 책임으로부터 함께 면책되었다. 이들 신생독립국이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배상을 제기한 것은 서구의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이다. 그때까지 일본 정부는 정당한 배상 대신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냉전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이 된 과거의 식민지들을 원조한 것으로 배상을 끝냈다고 간주했다.

사키 류조가 1967년의 시점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전후 부흥을 되짚어보고자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냉전-평화경제 시스템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던 역사의 아이러니 때문일 것이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비약적인 고도 성장을 바탕으로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대동아전쟁긍정론』(大東亞戦争肯定論, 1963~1965)과 같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을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반격으로 보는 관점이 부활했다. 도쿄올림픽(1964)은 세계를 장악한 일본의 경제력을 가시화한 무대였으며 한일협정(1965)은 식민지 수탈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이 한국을 수출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프리패스(フリー・パス, 무세 통과)가 되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냉전 속 열전이 또 한 번 반복된 시기에 작가는 과거의 한국전쟁 특수를 미국의 동맹국에 다시 열린 ‘기적의 시장’²⁴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았던 것이다.

「기적의 시」는 미숙하고 속물적인 주인공을 통해 이번 전쟁에서도 마이너리티 연대, 아시아 연대의 (불)가능성이 반복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히로시마는 제철소가 재개되어 판잣집에서 쫓겨날 판인 가네무라에게는 안됐지만 친구 대신 신문배달을 하게 되어 기쁘고, 조선에 친척이 있는 가네무라에게는 거둬 안됐지만 조선전쟁이 계속되어 작은형도 제철소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즉, 열네 살 소년의 시각과 인식 수준이라는 소설적 장치를 통해 식민지 수탈의 책임을 망각하고 다시금 그 식민지로 인해 전후 부흥을 이루어낸 일본 사회의 속물화가 풍자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히로시마는 가네무라의 복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그의 복수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상을 향해 전치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일가를 원망하

²⁴ 당시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가 파병과 기지화의 대가로서 베트남전쟁 특수를 누렸다.

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니 그가 나처럼 복수를 한다면 제철소 구내에서 고철을 흠치는 방법이라도 생각해볼 일이다.” 히로시마가 예상했던 조선인의 전치된 복수는 이 소설이 발표되고 얼마 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베트남전쟁 중이었던 1968년 설립된 포항제철이 일본정부의 자금협력과 아하타제철, 후지제철, 일본강관의 기술협력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철강업의 입장에서 한국철강업은 기술공여의 대상인 동시에 수출시장이었고 아시아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확대를 위해 양국의 철강경제는 분업구조를 통해 역할을 분담했다.²⁵

점령기에 GHQ는 원폭에 대한 일본인의 복수 가능성을 점점하고 민심을 관리했고 일본은 전후 부흥과 한국전쟁 특수를 대가로 적당히 타협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이 배후에 있었던 한일협정을 통해 적당히 일본과 타협했고 베트남전쟁에 파병함으로써 전쟁 특수를 누렸다. 두 국가 모두에게 전쟁의 폐해를 껴안고 잠시 멈춰서는 일은 없었다. 해방/점령으로 미국의 새로운 전쟁에 휘말린 두 국가는 원조와 전후 부흥, 전쟁 특수의 형태로 재빠르게 미국 주도의 냉전-평화경제에 가담했다. 그러나 한-미-일의 위계적이면서 협력적인 삼자관계는 서구의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과 더불어 종말을 고했다. 1990년대 초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그러하듯 한국과 일본 모두가 전쟁배상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미국의 법정에서 관철하려한다는 현재적 모순을 낳았다. 즉, 한일 양자의 문제가 미국화된 정의(justice)에 의해 판가름될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²⁶

「기적의 시」의 주인공 히로시마는 미국에 대한 복수를 운운하면서도 직접

25 포항제철의 건설과정과 철강업의 한일 분업체계에 대해서는 류상영, 「박정희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 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일본연구논총』 제33호, 현대일본학회, 2011 제4, 5장 참조.

26 이에 대해서는 Lisa Yoneyam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ke University Press, 2016, 참조.

적으로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미국의 배상을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작가가 말년에 쓴 동화는 미국과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²⁷ 일본인들은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와 같은 인식이 자가당착적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긋난 복수를 정당한 배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1992년 외교정상화 당시 베트남정부에게 한국군에 의한 전쟁범죄의 진상 조사와 배상을 제안했으나 베트남정부는 그 대신 경제협력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을 통해 그와 같은 국가 간의 합의가 배상을 바라는 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당한 배상이야말로 탈식민화의 지난한 과정을 오래도록 겪어야 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냉전을 종식시킬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27 국제법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 조항으로 인해 교전 중인 두 국가 사이에서의 인권문제는 면제되므로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 중의 원폭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면제를 근거로 2021년 1월 9일 한국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였던 원고들이 강제로 연행되었을 당시 조선은 일본과 전쟁 상태가 아니고 식민지였으므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을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상 사태로 판단하고 매우 유감을 표했다. 만약 일본이 원폭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가당착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太宰治, 「トカトントン」, 『群像』, 1947년 1월호.
佐木隆三, 「奇跡の市」, 『コレクション戦争×文学 1 朝鮮戦争』, 集英社, 2012.
金達寿, 「孫令監」, 『コレクション戦争×文学 1 朝鮮戦争』, 集英社, 2012.
「きのこ雲の記憶絵本に、直木賞作家の佐木さん」, 『中國新聞』, 2011.6.28(朝刊).
「朝鮮戦争 日本人が戦闘 米軍極秘文書に記録、基地従業員ら18人」, 『毎日新聞』, 2020년 6월 28일자.

2. 논문

- 谷村文雄, 「朝鮮戦争における対機雷戦(日本特別掃海隊の役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김성화, 「연안(延安)으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 『한국문학논총』 84호, 한국문학회, 2020.
남기정, 「한국전쟁과 재일한국/조선인 민족운동」, 『민족연구』 제5호, 한국민족연구원, 2000.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비교한국학』 제2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류상영, 「박정희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 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일본연구논총』 제33호, 현대일본학회, 2011.
소명성,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와 ‘한국전쟁’: 1950년대 일본열도가 본 ‘한국전쟁」, 『일본근대학연구』 제61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
장지영, 「기타 모리오의 부표를 통해 본 한국전쟁문학」,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6.
주춘홍, 「한국전쟁기 중국어로 번역된 김사량 작품 연구」, 『한국문화과예술』 30호,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9.

3. 단행본

- 나리타 류이치 외, 정실비 외 역, 『근대 일본의 문화사 8: 1935~1955년 2 감정 · 기억 · 전쟁』, 소명출판, 2014.
니시무라 히데키, 심아정 외 역,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재일조선인과 스이타 사건』, 논형, 2020.
佐木隆三, 『もう一つの青春』, 岩波書店, 1995.
西村秀樹, 『朝鮮戦争に「参戦」した日本』, 三一書房, 2019.
藤原和樹, 『朝鮮戦争を戦った日本人』, NHK出版, 2020.
Lisa Yoneyam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ke University Press, 2016.

Memories of the Korean War the (Im)possibility of Minority Solidarity:
Focused on *the Miracle City*(1967) by Ryujo Saki

Kim, Ryeosil | Pusan National University

Ryujo Saki's novella *the Miracle City*(奇跡の市), written in 1967, during the Vietnam War, sheds light on how Japanese society viewed neighbors' war, the Korean War, in the backdrop of the Yahata Steel Mill, which flourished with Korean War special procurement by U.S. In Japanese 市 means city or market. Therefore, the title refers to Yahata City, which became a miracle city due to the Korean War, and also the Cold War capitalist market economy led by the U.S. at the same time. Born in colonized Chosen and having a history of joining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the author looked at the war in the chain of war memories and overlaps leading to the colonialization of Chosen, the Great East Asian War, the defeat and occupation of Japan and Korean War, compared to other Japanese writers who set the Korean War only in the background. From the first person point of view of a middle school student, the story satires the snobbery of Japanese society, which forgot the past of colonial rule and welcomed the Korean War special procurement and depicts the Korean War experienced by the repatriate-precariat and Zainichi Koreans in Japan, who sought survival at the bottom of such an "Economy of Forgetting." However, the immature boy's point of view does not properly reveal the

complex identity of Zainichi Koreans in Japan, which had been reconstructed and re-divided following the deepening Cold War and the division of Korea. Meanwhile, the story deals with the issue of U.S. occupation over Japan through the anti-American Oedipus complex of the boy who lost his father in the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I. His exaggerated phallic desire clearly contains anxiety, and his frustrated desire is transferred to fetish and translated into revenge fantasies. However, revenge toward the occupation forces is eventually transferred to less dangerous targets, and the son takes the path of compensation and compromising the Cold War order. As such, *the Miracle City* used the Korean War special procurement as a mirror to reflect the “Miracle Market” reopened through the Vietnam War. Japan achieved post-war revival with the Korean War special procurement and regarded its war reparation was over by providing aid to its former colon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have becom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a joint Cold War modernization project with Japan and the U.S. instead of right reparations for its past colonial wars. But legitimate reparations will be the basis for peace that will end the unfinished Cold War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has undergone a long and arduous process of decolonization.

Key words : Ryuzo Saki, Miracle City, The Cold War, the Korean War, Zainichi Korean, Repatriates, Korean War Special Procurement, the Vietnam War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

The Insignificance of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Historicizing Hollywood War Film Representations of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Kim, Jimin*

1. Orientalism and Cold War Rhetoric
2. Korean War Films
3. The Absence of the “Bad Korean” and the Imaginary of Containment
4. The “Good Korean” and the Imaginary of Integration
5. Conclusion

| Abstract |

The 1950s marked a time of uncertainty, contradiction, and anxiety in the post-World War II years as the Cold War started and the Korean War broke out. During the Korean War years (1950-1953), Hollywood war films provided entertainment as well as a medium helping the United States to construct a national identity and to redefine its relations with Korea. In particular, those films reflected interplays between Orientalism and the Cold War rhetoric. On one hand, Orientalistic gaze on Asia evolved during the Korean War, informing the ways in which those war films depicted both allies (South Korea) and enemies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ose Korean war films sought to educate the American public about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nations in the Cold War with two imaginaries — one of containment and the other of integration—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 Researcher, Mills College.

Hollywood legacy of the Korean War shows how American culture was politicized and the U.S.-Korea relations would be received in the American society during the Cold War.

Key words : Hollywood war films, Korean War, Orientalism, Cold War rhetoric, containment, integration, U.S.-Korea relations.

1. Orientalism and Cold War Rhetoric

A Hollywood's World War II movie *First Yank into Tokyo* (1945) starts with a scene that the U.S. government assigns Major Steve Ross to undergo irreversible plastic surgery to look like Japanese so that he can infiltrate Japan and help to free a captured American engineer whose knowledge is vital to the building of the atomic bomb. Before going to rescue the American prisoner of war, Ross is trained to act and speak perfectly as a Japanese person. A Korean underground agent named Haan-Soo channels information to Ross and helps him get access to, and ultimately rescue, the American prisoner. Steve and Haan-Soo heroically sacrifice their lives to help the American prisoner escape Japan, thus contributing to the U.S. victory in the war (Kim 289; Chung, 116).¹

The movie's premise—a Korean guiding an American spy charged with infiltrating Japan—was credible because of the unique position Koreans held in the United States up to the 1940s. Koreans in the U.S. were a minority group, but one that was distinct from the Japanese and other Asian communities: Koreans looked like Japanese, and given Korea's colonization by Japan, they were able to speak Japanese and were familiar with Japanese culture and behaviors. Koreans—regardless of whether they lived in Korea, China, or even in the United States—were also well-known as being political and against Japan's rule of Korea, and haters of Japan to Americans who were familiar with the region. In one scene of this movie Haan-Soo tells

¹ Koreans as underground helpers to Americans in World War II are also exemplified by the Chung Yu and Soon Hee characters in *Tokyo Rose* (1946).

Ross, “In 25 years fighting against Japanese, we Koreans have found many cracks of the wall.” Koreans were depicted as a “newly found ally,” clever, aggressive, and cooperative with U.S. plans against Japan during World War II years. However,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s would become more complex within a decade,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War. Soon this binary between “friend and enemy” based on races and ethnicities faced a challenge: differentiating people of the same race—Koreans in the South from Koreans in the North—during the Korean War.

In the Cold War years, Hollywood films were consumed as a popular culture and entertainment, helping to construct a national identity for the United States as a global power similarly to what Klein argues regarding literature in the same time period (9). This paper explores how Korean “allies” and “enemies” were defined in American war films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nd how they reflect interplays between Orientalism and the Cold War rhetoric.

Many conventional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United States’ political and military role in building and allying with South Korea to fight against international communism,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cultural aspect of the relations among the United States and the two Koreas. Although many scholars in cultural and Asian American studies have examined Orientalism about Asians in popular culture, the case of Korea or that in the early Cold War years has rarely been studied. The works on war films have been largely studied as history of cinema. By looking at Hollywood’s Korean War films from cultu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representations of Koreans were disaggregated into separate groups and rearranged in relation with the Cold War politics

and culture in the eyes of Americans and to seek their implications. Spickard describes that Asians had been “melded together into a single, faceless mass in the White imagination” (585-588) in the early years. This paper will examine how this simple categorization of ‘Asian’ was challenged, even before the Asian American activism started in the 1960s when the Asian American identity was purposefully constructed in a coalition of activists and their intellectual allies for political purposes.²

Analyzing Korean representations in American war films during Korean War involves two separate but interrelated concepts: Orientalism and Cold War rhetoric. Edward Said’s Orientalism as a pervasive Western discourse about the East suggested an instrument of Western domination over the East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presenting the West as rational, progressive, adult, and masculine, and the East as irrational, backward, childish, and feminine (Said; Klein 10). Despite criticism over the model’s errors and limitations—including the fact that Said originally referred to Middle East when he mentioned the “East”—when applying to East Asia in the twentieth century, recent studies have acknowledged its usefulness for critical inquiry of scholarship and writings (and other cultural products) of non-European ‘other,’ politics, and the links between them (Elmarsafy and Bernard 1; Kraus 149). Kraus suggests that Orientalism was shown “deeply entrenched attitudes and beliefs common among American policymakers (and scholars)” (149-150) for the post-colonial Korea, such as negative imagery of the Korean people, being unreasonable, politically immature, and

² For Orientalism and perspectives on Asian Americans, see works by Anderregg, Bernstein and Studlar, Tuan, Lee, Ma, Ono and Pham.

backward (157). Paternalistic representations of the Korean people “bounded to socially constructed binaries such as modern/traditional and west/east,” by the White House and across the U.S. government limited Korean agency (Bush 155; Kraus 156-158). In addition, common ways that American scholars and writers depicted the Korean people with Orientalist prejudice in the 1940s and 1950s helped to reinforce an unequ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raus 163).

Said’s original model of Orientalism fit comfortably for representation of Asians in American popular culture in the 1920s and 1930s. The “Fu Manchu” book series of the 1920s had the main villain and title character who was depicted as “the yellow peril incarnate in one man” (Rohmer 26). When Japan empire’s moves became increasingly militaristic and aggressive in the 1940s, Hollywood films featured “a clandestine ‘Japanese menace’ from well-organized, ruthless spy networks run by Tokyo,” which had already appeared and grew in the interwar years (Everest-Phillips 244).

The Orientalist gaze was visible in American popular culture during World War II. As Dower describes, to many contemporary Americans, the Asian Pacific War—World War II fought in the Pacific and Asia—was a “race war” (4). During the war, the mass media reflected and bolstered the American public’s anti-Japanese views in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posters, cartoons, and caricatures.³ The most popular works of wartime propaganda that reflected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otherness” of Japanese took the form of feature films.⁴ Many Hollywood war films

³ For descriptions of Japanese in *Life*, *New Yorker*, *Collier's*, and other popular magazines during World War II years, see Wang 40-41.

containing Japanese characters dealt with espionage activities in the U.S. It was an extension of American fears of Japanese spy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ier decades. In the 1930s, Japanese expatriates, including fishermen, immigrants, tourists, and businessmen, “were increasingly regarded as part of the vast web of commercial espionage which Japan had spread over the areas she planned to dominate.” After Japan’s surprise attacks on Pearl Harbor in December 1941, the connection between the Japanese successes and long-held western fears of Japanese espionage “was not questioned,” despite the reality that there were no plans for fifth-column sabotage by Japanese residents nor any intelligence agents playing important roles in the attack on Pearl Harbor. The groundless accusation led to the incarceration of Japanese-Americans from 1942 to 1945 (Everest-Phillips 244-249; 262).⁵ During the war, the Japanese “were routinely depicted as back-stabbing monkeys lurking in the jungle or as vermin in need of extermination” (Ibid. 306). This image of aggressive, sneaky, dangerous, and inhumane Japanese built on preexistent racist images.

Compared to the earlier decades, Said’s model of Orientalism does not necessarily fit American view of Asians during the Cold War years. Klein attributes it partly to the fact that American understanding of race evolved after WWII, moving away “from the idea of immutable biological difference” to a pluralistic model of cultural difference in explaining the diversity of the world’s people, accepting anthropologist Franz Boas’ work. Cold War

⁴ From 1942 to 1944, 374 out of 1,313 feature films (approximately 30%) were “war films,” that were directly concerned with some aspect of the war (Jones 2-3).

⁵ For details about the incarceration, see works by Hayashi, Weglyn, Daniels, many others.

ideologues in the United States mobilized the “idea of a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America in the service of U.S. global expansion” (Klein 11). In addition, while Orientalism is a theory explaining phenomenon, Cold War rhetoric was an intentional logic, attitude, culture, and policy to contain Communism, a certain opponent during the specific time period of the Cold War, in this case intention of the U.S. government to justify the involvement in Korean War. As a result, Orientalism in American perspectives of the self and others and their gaze of Asian and Korean people, changed into more complicated ways that fit the Cold War politics.

As soon as World War II ended, the Cold War rhetoric dominated U.S. thinking until the mid-1960s. A series of events from outside shook the nation: the Soviets exploded their first A-bomb; Communists won the Chinese Civil War; and Germany was permanently divided in 1949. In early 1950, the Soviet Union began a boycott of the United Nations, protesting it for not recognizing the new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hina began (Pierpaoli Jr. 16). At the same time, anxiety over the threat of internal espionage and subversion was increasing. In 1948,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Alger Hiss was accused of being a Soviet agent. In 1950, a former British member of the Manhattan Project, Klaus Fuchs, confessed that he had passed secrets to the Soviets. In 1951, Julius and Ethel Rosenberg were convicted of being spies of the Soviets and executed two years later. Senator Joseph R. McCarthy (R-Wisconsin) began his anti-communist witch hunt, starting with his speech in West Virginia in February 1950.⁶ These events

⁶ In his speech in West Virginia in 1950, McCarthy claimed that he had a list of 206 known communists

“galvanized Americans to an enhanced perception of dangers of Soviet espionage and to the need to be aware that even Americans could be turned to serve the enemy” (Hendershot 27-28).

Anti-communism was both a reaction to the perceived threat from international communism and also a response to questions of social order *within* American society in the Cold War years (Whitfield vii). Resonating with the pervasive thoughts and sentiments of anti-communism, cultural formation during this time “imagined and facilitated the forging of a new set of affiliations.” Internationally, this meant affil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communist parts in the world. Domestically, it was an era of negotiation between diverse social and political groups within the United States (Klein 7-8). In her analysis of American middlebrow text, Klein interprets the Cold War politics through the lens of two global imaginaries: one of containment, a foundational concept of Cold War foreign policy and culture in conventional studies, and another of integration. These two imaginaries were articulated by the Truman Doctrine speech (1947) and Wilcox’s speech (1957), respectively. The concepts of containment and integration were not invented by these individuals, but were instead “collectively produced over the course of the late 1940s and 1950s by a broad array of political elites, journalists, academics, and cultural producers” (23). I argue that Korean War films are also important medium that visibly embody the containment and integration rhetoric both in internal and external levels, especially in terms of the U.S.-Korean relations in the early Cold War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McCarthy’s political influence is seen as ended in 1954.

2. Korean War Films

The Korean War (1950-1953) began with a surprise attack of South Korea b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on June 25, 1950. It was the first military action of the Cold War. Many American public and officials perceived it as a war against the international communism. The United States soon entered the conflict on South Korea's behalf, but within a year the war turned into an interminable stalemate and finally became a "limited war" as then Secretary of Defense George Marshall characterized it during the Senate hearings on Korea in May 1951 (U.S. Congress 610). From the second year, American attitudes toward the war began to fluctuate. As a result, the Korean War soon became broadly unpopular among U.S. soldiers as well as on the home front. Soldiers' letters to their families back home, full of complaints about conditions at the battlefield, became an important subject of political discourse in early 1951 (Casey 223-225). On the home front, critics denounced the outrageous expenditures and needless waste of human life. Some contended that morale among the troops was waning "because the American people are not behind them," as a young corporal in the Marine Corps—John Moullette—put it in a letter to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for example. As part of the government's public information effort, Acheson wrote an open response to Moullette's letter in order to convince the wider audience of the American people about the necessity to fight in Korea. The essential point in Acheson's letter was that if America had responded to aggression earlier in the 1930s, World War II could have been averted. Korea served the same purpose now. In other

words, the U.S. government had to convince the public that the Korean conflict was necessary to prevent a larger war against Communist power in the future. Early Korean War films followed a similar line in justifying the American fight in Korea. For example, in a short documentary, *Why Korea?* (1950), the narrator repeatedly draws parallels between now (1950) and the 1930s. But it received a lukewarm and sometimes even a negative response from the public (Casey 223-225).

Just as the Korean War has been called the “Forgotten War,” commercial films about the war have not been well remembered. Whereas “more than 500 of the approximately 1,700 movies” produced between 1940 and 1945 were about World War II, fewer than hundred films were made during the Korean War, with no more than three dozen actually released during the war (Edwards vii).⁷ The unpopularity of Korean War films was attributed to the nature of the war, nicknamed simply as the “Forgotten War,” sandwiched between the “Good War” (World War II) and the “Bad War” (the Vietnam War) (Pierpaoli Jr. 15). Edwards points out that films about the Korean War portrayed the war as a struggle between governments, not as a people’s war, as World War II was commonly seen. Rather, the Korean War was understood as a war between nations and ideologies, and “most persons were in it because they believed in their government” (23).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the relative failure of Korean War films is that it was perceived as a war without heroes and without victory, ending in a stalemate (Ibid. 23-24).

⁷ Numbers of the Hollywood’s films on the war vary depending on scholars. Shaw and Youngblood mention that over fifty films were made on the Korean War, many of which stressed the expansionist teamwork of Beijing and Moscow (Shaw and Youngblood 24).

Similarly to films produced during World War II years, Hollywood films reflected the public understanding as well as wartime propaganda on the Cold War and the Korean War.⁸ When dividing trends in Hollywood films during the Cold War from 1947 to 1990 into several phases, the Korean War films are outputs from its earliest period, around the years from 1947 to 1953, when the films were dominated by hard-line negative propaganda.⁹ As Hollywood “followed rather than led political and public opinion” in those early years, Hollywood’s Korean War films showed a general consensus on anti-communism. At the same time, it is noteworthy that the increasingly oligarchic filmmaking industry was hostile to communism “owing to political conviction and economic self-interest, not because they felt beholden to officialdom” (Shaw and Youngblood 17-19) in the early years of the Cold War.

3. The Absence of the “Bad Korean” and the Imaginary of Contain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Korean War films, along with other

⁸ From the late 1940s Hollywood’s major studios released a series of anti-communist thrillers, including *The Iron Curtain* (1948), *The Red Menace* (1949), and *I Was a Communist for the FBI* (1951), much as they had released anti-Nazi and anti-Japanese films during World War II. According to Shaw and Youngblood, during the earliest Cold War years between 1948 and 1953, Hollywood released about seventy explicitly anti-communist movies, roughly 5 percent of the total film output during those years (21).

⁹ Shaw and Youngblood divide the Hollywood’s Cold War films into five periods: 1947-1953 (hard-line negative propaganda); 1953-1962 (soft-core, positive propaganda); 1962-1980 (pro-détente propaganda); 1980-1986 (New Right propaganda); and 1986-1990 (a call for peace) (18-19).

cultural works, tried to “construct a national identity for the United States as a global power,” a new position for the country in the Cold War period (Klein 9). The earliest Korean films were documentaries or movies explaining why it was worth fighting in Korea, resulting in a lack of Korean characters in *Why Korea?* (1950), *A Yank in Korea* (1951), and other early war films.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cultural producers in the Cold War period were concerned with trying to redefine the American self and its relations with others, and had little interest in Asia or Korea for their own sakes (Klein 10). However, starting in December 1951, as the fighting dragged on, major studios produced a string of Korean War films, such as *I Want You* (1951), *Korea Patrol* (1951), *Steel Helmet* (1951), and *Fixed Bayonets* (1952), which included Korean characters.

As opposed to the obvious and uniform racial bias against the Japanese characters in World War II films, here the filmmakers had to divide and differentiate between “Good Koreans” (South Korea) and “Bad Koreans” (North Korea and its sympathizers). The North-South division in 1945 was a very new event in Korea’s long history. The artificially drawn 38th parallel line sometimes divided small towns and villages in two, making it seem a temporary barrier. One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people from the North and those from the South by their language, culture, clothes, or appearance. On the surface, the only way to differentiate these two kinds of Koreans on film was by their military uniforms. Yet this could not be a consistently reliable criterion, as sometimes a man in a South Korean uniform turns out to be a “traitor.” Then how do we discern Good Korean from Bad Korean? Let us look at Korean war films through the perspectives

of containment and integration in both external and internal contexts, which aligned with the contemporary Cold War politics.

For Americans,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tangible sign in the postwar world of communism’s sneaky and insidious nature,” partly because the war began with a surprise attack by North Korea (Hendershot 35). Furthermore, firsthand accounts of the war depicted North Koreans as a ruthless racial and ideological “other.” The American public, fed a diet of news reports and personal memoirs about atrocities against American prisoners of war (POWs from now on), perceived “North Koreans as a particularly cruel ‘Oriental communist’ enemy” (Gauthier 345-346). For example, a Journalist Hanson Baldwin referred to the North Koreans as an army of “barbarians as trained, as relentless, as reckless of life...as the hordes of Genghis Khan” (Baldwin 4, qtd. in Gauthier 346). More importantly, North Korea was seen as a puppet controlled by its masters, “Red China” and the Soviet Union (Doherty, *Cold War* 7).

What is most surprising about the “enemy” characters in Hollywood’s Korean War films is abstract nature of North Korean enemies—in many cases, North Koreans are virtually absent from these films.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ways that Hollywood films had depicted Japanese villains in the 1940s. The North Korean forces appear merciless and threatening in *A Yank in Korea*, *Korea Patrol*, and other battle films, but they are not personified as specific villains like the Japanese characters in World War II films. They appear rather as a vague notion, a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action occurs, or an obstacle that the main character has to overcome. In some cases, North Koreans play a key role in hindering the protagonist

from completing his/her mission. In *Jet Attack* (1958), the main characters rescue an American scientist captured by North Koreans with the help of Tanya, a Russian spy. North Korean security chief Major Wan is the person who questions, observes, and suspects Tanya's behavior, heightening the narrative tension. However, this is an exception. More typically, North Koreans are lumped together as undifferentiated communists, led by Russians, with Chinese forces often portrayed as doing the actual fighting and the main target of containment. North Korean identity was subsumed into a larger Orientalized American construct, exemplified by Asian stereotypes "that were enmeshed closely with period racism and domestic fears about the Cold War," as Gauthier observes for *The Manchurian Candidate* (1961) (366).

Most Korean War films feature Russian enemies instead of North Koreans. In *Prisoner of War* (1954), an American army officer, Captain Web Sloane, is troubled by reports of brutality inside North Korean POW camps, and volunteers to investigate. There he witnesses scenes of GIs being brainwashed, beaten, subjected to mock executions, deprived of food and water, and tortured in a variety of ways under the supervision of a Russian colonel. Sloane learns that the American soldiers courageously endure their captivity. The Russian adviser, Col. Nikita Biroshilov, interrogates and beats American prisoners who do not cooperate. He initiates a propaganda campaign alleging that the U.S. is using germ warfare and forces American pilots to "confess" to this. He also tries to brainwash American prisoners into believing that capitalism is dying, tortures those who do not agree, and offers to free them if they will sign

statements swearing, they have never witnessed atrocities at the camp. Although North Koreans carry out the orders of this merciless, violent, and cunning Russian villain, they are only seen as assistants and subordinates, much like Major Wan in *Jet Attack* and Col. Kim in *Prisoner of War*. The ultimate enemy of the U.S. in the Cold War (and also the “hot war” in Korea) and the subject of containment is the Soviet Union as the leader of the whole communist world in the films.

The same phenomenon is reflected in *The Manchurian Candidate*, one of the most well-received films on the Korean War. In the film, villain Yen Lo, a Chinese doctor, brainwashes an American POW into becoming an unwitting age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st conspirac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it was usually Chinese characters, not Russians, who conduct mysterious, sneaky, and “Oriental” techniques to brainwash Americans in those films. By comparison, with the single exception of Chunjin—a North Korean spy/houseboy character—“North Korea is entirely outside the consciousness of the film” (Gauthier 366). Replaced by the formidable Russians and incomprehensible Chinese as the enemy, North Korean characters were positioned in the background in general. As Gauthier argues, “the blending of North Korea with broader Asian stereotypes” in those films was fitting for an American public that “never viewed the DPRK as an independent Cold War enemy” (366). The insignificance of North Korea in the war films reflects then American understanding that viewed the Korean War as an attack by international communism schemed and directed by Stalin against the free world led by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North Korean forces was depicted as a nuisance rather than a severe and direct threat to

the U.S. in the Korean War, a civil war as much as it was an international war. It tells us that the Hollywood films during the Korean War were mostly about a new self-identit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ld War, rarely about conditions, origins, or predictions of the Korean War or Korea.

This aspect is more apparent in the domestic context with the imaginary of containment. For example, *The Manchurian Candidate* (1961), *Conspirator* (1949), *The Web of Subversion* (1954), and other films reflect anxiety about communist espionage in the United States (“the enemy within us”) and the threat of subversion, especially the perceived vulnerability of naïve and gullible Americans to communist propaganda and even mind control (Hendershot 28). A persistent myth regarding American conduct in Korea was that American POWs “were morally weak and uncommitted to traditional American ideals” (Wubben 3-19, qtd. in Hendershot 38). Returned POWs who were assumed as having been brainwashed by Chinese and North Korean communists posed a genuine threat. In *The Manchurian Candidate*, a brainwashed former POW becomes an assassin for the communists, who thereby insinuate themselves “into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the American family, even the American mind.” Facing Yen Lo’s tactics of mind control, American soldiers are defenseless, becoming “like Asians, like communists: passive, conformist, and obedient to authority” (Klein 37). In other words, those films conveyed the message that Americans should fight against the enemies outside the country, while “containing” and cautiously watching enemies inside the American society.

4. The “Good Korean” and the Imaginary of Integration

Against this backdrop of communist threats from without and within, war films sought to present integration first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non-communist world, and secondly among American soldiers. Internationally, the films sought to vindicate American soldiers and “Good Koreans” as loyal and brave. The “Good Korean” is discernable mostly by his/her loyalty and “correct” ideology. One way is to show the Good Korean following (“runnin’ with”) Americans. In *Steel Helmet*, the main character, Sergeant Zack, is accompanied by a young orphaned Korean boy, whom Zack nicknames “Short Round.” Together they encounter a small group of American soldiers and join them. Short Round wants to be Zack’s friend and insists on scouting for him during their search for the enemy lines. Eventually Short Round is killed by snipers. Motivated by a desire to avenge the boy’s death, Zack kills a Chinese major they had taken prisoner. Zack and his unit finally defeat a large Communist force. How Zack distinguish enemy from ally is summarized in one scene. When another American soldier asked him how to tell Koreans apart, Zack answers, “He’s a South Korean when he’s runnin’ with ya, he’s a North Korean when he’s runnin’ after ya.” But South Koreans, represented by Short Round, are victims needing protection, rather than partners to work with. Short Round walks barefoot through battlefields, looking for someone to take care of him. The South Korean boy represents innocence and hopefulness. Zack’s murder of the Chinese major as revenge shows that he has grown to cherish the South Korean orphan (Lentz 335-338). Whil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s seen as a core value in many of Korean War films, it is unambiguous that South Korean characters were seen as someone to be protected and rescued out of trouble, and supposed to “follow” the direction where American forces was heading.

Integration between Americans who lead and Good Koreans who follow is repeatedly emphasized, just as Korean characters had assisted American heroes in World War II films. In *Jet Attack* (1958), a post-Korean War film, a U.S. Air Force captain and lieutenant enter North Korea to rescue an American scientist, who has been captured while testing his long-distance radio transmitting device. The protagonists, Tom and Bill, are attacked by North Korean forces, but are rescued by a South Korean guerrilla outfit led by Captain Chon. The South Koreans work with Tanya, a Russian spy for the guerrillas, and provide a hideout and protection to the Americans.

Korea Patrol is one of the rare films that contain a number of active Korean characters and shows exactly how Good and Bad Koreans are distinguished. The movie is set in South Korea with Lieutenant Craig and his five-man patrol, including two South Korean scouts and three American soldiers. Craig receives word that North Korean troops have crossed the 38th parallel and is instructed to help two other units secure a strategic bridge. Within hours, Ching, a South Korean runner, brings Craig word that the others have been ambushed and presents orders for Craig’s squad to dynamite the bridge to prevent the enemy from using it. Sergeant Kim, Craig’s advisor, noticing Ching’s cowardly behavior, suspects him of sympathizing with the enemy, and threatens to kill him if he interferes with their objective. After many grueling days, Craig, Kim, Ching, and the rest

of the men reach enemy territory. Kim is then sent to collect dynamite from an abandoned construction site to execute their plan. After many difficulties along the way, the men finish their mission, destroying the bridge and delaying the North Korean advance. The men make their way back to the Allied forces to continue the fight.

In the movie, Kim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team, guiding them geographically and, more importantly, helping Americans discern good and bad Koreans. On one occasion, Kim tells Craig that Ching “is not a good Korean” and he is “ashamed of him [Ching].” He describes Ching as not trustworthy because he talked about attending political meetings when he was in Seoul, and says that, like many “weak Koreans,” Ching could easily work with the North. In one scene Ching attempts to run away from a battle. Kim grabs him, calling him a “coward” and an “enemy of our people.” When the two Koreans argue with each other, Ching insists that only the U.S. wants wars, while Kim argues that the U.S. and South Korea are fighting together. Although at the end Ching regrets his own cowardly behavior and volunteers to take the dynamite to destroy the bridge, he is seen as suspicious and potentially traitorous throughout the movie. Ching is in South Korean uniform and belongs to the American-South Korean team, but he is still a “Bad Korean” because of his weak allegiance to the cause. The message of this movie is pretty clear: the “Good Korean”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Bad Korean” by his loyalty and trustworthiness. Cooper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Americans and South Koreans is based on sincerity, sacrifice, and trust, which will lead to victory. At the same time, this film, like other examples of the Korean War genre, warns that the real danger

lies in “weak, cowardly, and political” *traitors on our side*, the free world.

If the films mentioned above featured the external integ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ome other films dramatize internal integration *within* Americans, across diverse races, cultures, and groups.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war fought by the newly racially integrated U.S. military (Jacobson and Gonzalez 122), and interactions among soldiers from different races and cultures were new to many Americans from front line to home front. The films highlight the major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friends” from “enemies” as ideological suitability and loyal commitment to the great cause, rather than physical or racial characteristics. Even the history of Japanese-Americans’ incarceration during World War II cannot prevent unity between soldiers of various races in fighting against communist threats. In *The Steel Helmet*, the Japanese-American Sergeant Tanaka (nicknamed “Buddhahead”) is a member of the all-American combat squad. A captured Chinese major tells Tanaka that he should be ashamed of his allegiance to a country that interned his people (Japanese) during World War II. The Chinese prisoner of war tries to establish racial commonality between himself and Tanaka, stating, “You’ve got the same kind of eyes I have.” However, Tanaka ignores his words, prompting the prisoner to call him a “dirty Jap rat.” In the same movie, Blacks are integrated into the Armed Forces with greater prominence and stature than before. In many occasions, this movie tries to show the audience of the desirability of overcoming racism among us to win the war. In one scene, Sergeant Zack refers to Short Round as “gook,” a derogatory term for Asians. Short Round objects, “I am no gook! I am Korean!” From that time, Zack refrains from using the

word. Zack is “casually racist” (Lentz 335), but the film shows several occasions that Zack changes his attitudes and language toward Koreans and Blacks. The film presents frontline American soldiers as brave and strong, both in battle and against crude and sneaky indoctrination attempts by the communists (Hendershot 38-39; Doherty, *Projections* 276). As such, the soldiers were ideally described as prioritizing the fight against the communism to conflicts and differences among them. Thus, the American soldiers’ imperviousness to communist propaganda is emphasized by the internal integration across racial and cultural barriers in the ally.

5. Conclusion

This paper has revealed that Hollywood war films during the Korean War tried to educate the American public about their evolving relationships with other nations in the new order of the Cold War, on the premise of anti-communism. In sum, they sought to impress the audience with the threat of communism while simultaneously reassuring them about the ability of Americans to stand up to this threat (Hendershot 39). They presented two imaginaries—one of containment and the other one of integration, both internal and external. As examples of the films show, these imaginaries we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On the one hand, effective containment of communist expansion requir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gration. By forging strong bonds within a multi-racial America and with the non-communist world, the U.S. would be able to fight against the threat

of communism. On the other hand, containment of the enemy (which starts with defining the line between foe and allies) would let Americans embrace differences within “us,” thus fulfilling the American ideal.

This paper has also pointed out that while Orientalism in Hollywood films had a long history before the Cold War, it evolved during the Cold War and the Korean War, an occasion for transformation of the interrelations between anti-communism and Orientalism. Orientalism was embedded in depicting both allies and enemies. Orientalism also informs the ways in which these war films reflected the contemporary American perceptions of the DPRK as “a uniquely brutal pawn of the PRC and the ‘Communist monolith’,” as Gauthier suggests. At the end of the Cold War, when American officials and journalist began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actor, rather than merely a loyal puppet of Communist China and Soviet Union, they began to substitute North Korea’s inherent irrationality for sycophancy to explain North Korean motivations (367). Even today, long after the Cold War’s sudden end in the early 1990s, this image of North Korea persists. In addition to Orientalist gaze, power im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as explicitly reflected in films. As a result, both people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remained as obscure and passive characters in the background, not active players in those films. The insignificance of Koreans in Hollywood films, therefore, reveals the American view of the Korean War and self-positioning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ld War years.

The Hollywood legacy of the Korean War shows how American culture was politicized and mobilized around questions of communism and

anti-communism in the 1950s. Memories of the Korean War soon faded from the attention of American public as well as policymakers, as they were in many ways displaced by the war in Vietnam. This change corresponded to domestic issues, such as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 urban crisis, and the anti-war movement. As Jacobson and Gonzalez argue, there soon appeared critiques of anti-communism, which stemmed from a suspicion that “anticommunism itself posed [a threat] to real Americanism and to individual liberties” (40). However, the Korean War and U.S. involvement in it remains one of the most crucial events in post-World War II history, a turning point that allowed anti-communist culture to form and thrive in 1950s American society.

Reference

- Anderegg, Michael. *Inventing Vietnam: The War in Film and Television*. Temple University Press, 1991.
- Baldwin, Hanson W. "The Lesson of Korea." *The New York Times*, July 14, 1950, p. 4.
- Bernstein, Matthew and Gaylyn Studlar. *Visions of the East: Orientalism in Film*. Rutgers University Press, 1997.
- Bush, Barbara. *Imperialism and Postcolonialism*. Longman, 2006.
- Casey, Steven. *Selling the Korean War: Propaganda,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1950-1953*.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hung, Hye Seung. *Hollywood Asian: Philip Ahn and the Politics of Cross-ethnic Performance*. Temple University Press, 2006.
- Connell, Thomas. *America's Japanese Hostages: The US Plan for a Japanese Free Hemisphere*. Praeger-Greenwood, 2002.
- Daniels, Roger. *Prisoners Without Trial*. Hill and Wang, 2004.
- Doherty, Thomas. *Cold War, Cool Medium: Television, McCarthyism, and American Cultur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Projections of War: Hollywood, American Culture and World War II*.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Dower, John W. *War Without Mercy: Race & Power in the Pacific War*. Pantheon Books, 1986.
- Edwards, Paul M. *A Guide to Films on the Korean War*. Greenwood Press, 1997.
- Elmarsafy, Ziad and Anna Bernard. "Orientalism: Legacies of a Performance." *Debating Orientalism*, edited by Ziad Elmarsafy, Palgrave Macmillan, 2013.
- Everest-Phillips, Max. "The Pre-War Fear of Japanese Espionage: Its Impact and Legac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42, no. 2. 2007.
- Gauthier, Brandon K. "A Tortured Relic: The Lasting Legacy of the Korean War and Portrayals of 'North Korea' in the U.S. Media, 1953-1962."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2, 2015.
- Hayashi, Brian. *Democratizing the Ene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Hendershot, Cyndy. *Anti-Communism and Popular Culture in Mid-Century America*. McFarland & Company, 2003.
- Jacobson, Matthew Frye and Gaspar Gonzalez. *What Have They Built You to Do?: The Manchurian Candidate and Cold War Americ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 Jones, Dorothy B. "The Hollywood War Film: 1942-1944." *Hollywood Quarterly*, vol. 1, no.1, 1945.
- Kashima, Tetsuden. *Judgment Without Trial: Japanese American Imprisonment during World War II*.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 Kim, Jimin. "Representing the Invisible: The American Perceptions of Colonial Korea, 1910-1945."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11.

- Klein, Christina Klein.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Kraus, Charles. "American Orientalism in Korea.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2, 2015.
- Lee, Robert G. *Orientalism: Asian Americans in Popular Culture*. Temple University Press, 1999.
- Lentz, Robert J. *Korean War Filmography: 91 English Language Features through 2000*. McFarland & Company, 2003.
- Ma, Sheng-Mei. *The Deathly Embrace: Orientalism and Asian American Ident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
- Ono, Kent A. and Vincent N. Pham. *Asian Americans and the Media: Media and Minorities*. Polity, 2009.
- Pierpaoli Jr., Paul G. "Truman's Other War: The Battle for the American Homefront, 1950-1953." *OAH Magazine of History*, 2000.
- Rohmer, Sax [pseudo. Arthur Ward]. *The Insidious Dr. Fu Manchu*. New York: McBride, Nast & Company, 1913.
- Said, Edward W. *Orientalism*. Vintage Books, 1979.
- Shaw, Tony and Denise J. Youngblood. *Cinematic Cold War: The American and Soviet Struggle for Hearts and Mind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 Spickard, Paul. "Whither the Asian American Coalition."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76, no.4, 2007.
- Tetsuden Kashima. *Judgment Without Trial: Japanese American Imprisonment during World War II*.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 Tuan, Mia. *Forever Foreigners or Honorary Whites? The Asian Ethnic Experience Toda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 U.S. Congress.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Eighty-second Congress, First Session, to Conduct an Inquiry into the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and the Facts Surrounding the Relief of General of the Army MacArthur from His Assignments in that Are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 Wang, ShiPu. "Japan against Japan: U.S. Propaganda and Yasuo Kuniyoshi's Identity Crisis." *American Art*, vol. 22, no. 1. 2008.
- Weglyn, Michi. *Years of Infamy*. University of Washington, 1996.
- Whitfield, Stephen J. *The Culture of the Cold Wa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 Wubben, H. H. "American Prisoners of War in Korea: A Second Look at the 'Something New in History' Theme." *American Quarterly*, vol. 22, no.1, 1970.

할리우드의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한국인 상(象)에 대한 역사적 분석

김지민 | 밀스 칼리지 연구원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던 세계는 불확실성, 모순, 우려가 뒤섞인 채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1950-1953)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냉전시대의 질서가 자리 잡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제작된 미국 할리우드의 전쟁영화들은 오락의 대상인 동시에, 미국 대중들에게 새로이 시작된 냉전시대에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전쟁 수행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특히 이 시기 전쟁 영화들은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과 냉전시대의 수사학이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 대중문화와 사회에서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진화했는데, 특히 영화 상에서 한국을 아군(남한)과 적군(북한)으로 구분하게 되면서 그 이미지가 더욱 분화되었다. 다른 한편 한국전쟁 영화들은 냉전 초기 미국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용한 두 가지 상(象)을 통해 냉전시대 미국의 역할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유용한 도구였다. 그 두 이미지는 봉쇄(containment)와 통합(integration)으로, 각각 대내적, 대외적인 차원에서 구체화되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을 다룬 할리우드의 전쟁영화들은 어떻게 당시 미국인들이 대중문화를 통해 냉전시기 세계질서 초기에 새로이 규정된 한미관계를 이해해 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제어: 할리우드 전쟁영화, 한국전쟁, 오리엔탈리즘, 냉전시대 수사학, 봉쇄, 통합, 한미관계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비교한국학』 리뷰

근대 '한국학' 과 동아시아 지식장의 형성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의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2020)에 대한 서평

박수빈

근대‘한국학’과 동아시아 지식장의 형성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의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2020)에 대한 서평

박수빈*

1. 서론 : ‘한국학’ 개념의 탄생과 내적 욕망
2. ‘우리만의’ ‘자체적인’ 개념 형성을 위하여
3. 근대계몽기의 계보를 ‘정리’하는 일
4. 우리가 의식한 ‘외부’
5. 결론

| 국문초록 |

‘한국학’은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다. 이를 ‘학(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의 대상을 한정하는 문제, 계보를 정리하는 문제 등 ‘한국학’은 이 순간에도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치 생물(生物)처럼 변화한다. 그러나 지금-여기서, 지나온 그 과정을 확실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 책은 ‘한국학’ 개념의 탄생과정과 그 개념의 변천과정을 우리 내부에서 추동한 내적 욕망과 외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조명한다. 서로 다른 전공과 배경지식,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이 쓴 총 12편의 글은 절묘하게 직조되어 하나의 상(像)을 만든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의문이 남는 부분도 많다. 아직은 시론적인 이 책은 근대 ‘한국학’과 동아시아 지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식장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의 한 조각으로 충분할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토론자가 되어, 본고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연구의 성과와 제기되는 의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한국학, 동아시아, 지식장, 개념사, 계보학

1. 서론 : ‘한국학’ 개념의 탄생과 내적 욕망

…… 그러한 탈근대의 문맥 속에서 진행된 논의가 과연 실제 텍스트에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를 박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면이 있다. 첨단의 이론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압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새로운 이론은 전에 없던 시점을 제공해 주고 그리하여 새로운 맥락을 재구성해 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 이론으로는 설명해 내지 못하는 어떤 징후들을 무심히 놓치고 지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이 책의 머리말에 있는 위의 문장에는 저자의 겸허함과 불안이 드러나 있으나, 한편 지금-여기 문학연구에 대한 일침이 숨겨져 있다. 경쟁적으로 미지의 대륙에 깃발을 꽂듯 끊임없이 외부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연구풍토 속에서 그저 새로운 ‘대상’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익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꼭 알아야 하는 것조차 겉어림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저 넓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질 수 있을까.

‘책소개’를 보면 “이 책은 1980년대 이래로 진행되어 왔던 한국학 관련 각종 자료들에서 주제어, 인물, 레퍼런스, 지명,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메타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학의 형성 과정을 재조명, 더 나아가 21세기 한국학의 전망을 모색한 사업의 성과”라고 쓰여 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연세 근대한국학HK+ 연구총서의 1권¹은 『근대지식과 ‘조선-세계’ 인식의 전환』²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1 연세 근대한국학HK+ 연구총서는 모두 같은 해 같은 날짜에 동시 출간되었다. 여기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등의 순번에 대한 서술은, 총서에 매겨진 각권의 번호를 뜻한다.

2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근대지식과 ‘조선-세계’ 인식의 전환』,

2019년 발간된 이 연구서는 전통의 변혁과 서양 문물의 수입을 통해 격변기에 대응하고자 했던 근대 한국 지식사회의 활동들을 조망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당대 전통 지식인의 학문 활동 및 특정한 표상과 세계 이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중 언어의 문제, 근대매체를 통한 자국 인식의 전환, 서양 학문과 문물의 유입 확산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황성신문>, <만세보>, <제국신문> 등 근대 초기 신문잡지가 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지식장을 구성하고 확장해나갔던 여러 학술적 개념들에 주목한 것이다. 같은 해 나온 두 번째 도서는 『‘국어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하여-근대 한국어학의 지적 기반 성찰』³이다. ‘국어학’을 근대 국민국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가장치의 하나로 인식하고, ‘근대계몽기’부터의 국어(학)의 기본 가정과 전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세 번째 책이 바로 이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이다.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내에서 이 책들이 어떻게 구상, 설계되었는지 여부는 다 알 수 없으나 일종의 연속물로 이 책들을 구성한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민족국가’와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고유한 언어와 지식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사적(史的)으로 검토하여 ‘한국학’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구하고자 함이다.

의식한 결과이겠으나 ‘근대계몽기’, ‘근대전환기’ 등의 특정 시기 및 정체성을 가진 시대에 대한 명명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연구 주제는 다양하지만,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신문, 잡지 등의 매체라는 점도 여러 저자의 글이 모인 연구서에서 합의된 부분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 실린 주시경의 「국문론」을 분석하고, 독본과 잡지들을 모두 살펴 ‘국민’ 개념 등이 도출되고 정리되는 과정은, 새로운 연구방법론과 시각을 엿보는 데 있어서도 좋은 참조점이 되어준다. 특정 시기 여러 문건들을 두고 당대

소명출판, 2019.

3 김병문, 『‘국어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하여-근대 한국어학의 지적 기반 성찰』, 소명출판, 2019.

에 참고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역으로 추적해본다거나⁴, 정부의 정책이나 연구소 건립과 같은 외부적 조건들이 연구에 미친 영향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흥미롭다.

이 책에는 가까운 과거와 현재의 인문학 연구풍토, 대학원의 ‘시장성’에 대한 기록들도 소개되어 있다. 1990년대 세계화의 흐름과 발맞춰 한국학의 위기담론이 고조되었던 시기, 창작과 비평사에서 있었던 좌담 —「지구화시대의 한국학-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긴장」⁵—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오고갔다.

무조건 밥그릇만 많이 만들면 장땡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차지하면 밥값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밥그릇을 챙기지 않으면 당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일단 밥그릇을 확보하되 밥을 먹은 만큼 제 소임을 다하도록, 제대로 무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밥그릇을 제 스스로 찾고 만들어내는 창의적 노력이 이제 더욱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⁶

2000년대 초반의 임형택은 “한국문학 연구에서 ‘세계적 지평’은 학문 주체의 지향점”⁷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21세기에 당면해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학문전략이기도 하지만, 앞서 위대한 학문을 성취한 실학자들의 기본자세와도 통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정신의 식민성, 학문의 종속성’에서 탈피하지 못해 주체의식이 흐리멍텅해진 상태로 학문을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화시대의 한국학, 세계문학 내의 한국

4 김병문, 「근대계몽기 ‘국문론’의 레퍼런스에 대하여」,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 소명출판, 2020.

5 이태진·임형택·조혜정·최원식, 「지구화시대의 한국학-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긴장」, 『창작과 비평』 96, 창작과비평사, 1997.

6 임형택, 위의 글, 27쪽.

7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346-347쪽 참고.

문학에 대한 공통의 감각과 고민은 2000년대 이후 HK사업 등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에 의해 여러 연구로 활성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국적 이해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000년 이후 한국학 연구방향에 대해 “근대성 이해라는 관점이 전지국적, 동아시아적 시야를 강조했던 측면이 있으며, 인문학의 학제간 연구를 강조한 HK사업의 방향도 한몫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한 조형열은 한국학이 정치와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현재 우리 인문학 지식장의 형성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⁸한다.

이 책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연구자 중 한명인 이지원은 세계 근대 학술사에서 자국학(National Studies) 탄생의 보편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전통 ‘창출(invention)’을 하고, 국사·국어 등 ‘자국문화(national culture)’를 체계화하는 것은 근대 학술사의 일반적인 현상”⁹이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듯 ‘한국학’ 탄생의 이면에는 근대의 기획과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망각된 기억들이 존재한다.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 시작이 늦었다는 불안감, 부족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열등감, 그리고 세계문화 나아가 지구문화의 좌표 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한국학’은 탄생했다. 그 ‘감정’의 실천적·사상적 모색이야말로 근대를, 한국학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힘의 정체라 할 것이다. 본 서평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이 책이 담고 있는 학술적인 가치와 더불어 한국학 연구에서 지닌 의의를 조명하고, 나아가 오늘날의 한국학 연구가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비교 연구로서 확장되기 위해 담지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8 이 시기 HK사업에 선정된, 한국학 연구와 관련 있는 연구 아젠다와 사업단의 키워드가 크게 ‘소통’, ‘치유’, ‘통합’, ‘상생’, ‘세계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으로 ‘동아시아’, ‘번역’, ‘비교문화학’을 들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의 87쪽을 참고할 것.

9 이지원, 『동아시아의 근대와 한국학의 근대성』,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 소명출판, 2020, 19쪽.

2. ‘우리만의’ ‘자체적인’ 개념 형성을 위하여

- 메타 연구의 명암, 1부에 실린 세 편의 글에 대하여¹⁰

서미옥은 연구경향에 있어 메타분석이 증가하는 이유는 유사한 주제의 결과들이 상이하거나 오랜 결과물들의 축적으로 인해 이를 다시 통합 및 요약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병합된 결과로 또 다른 변인을 예측가능하게 되었으며, 학자들마다 다른 관점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이지원, 송인재, 조형렬의 글이 담긴 1부는 ‘근대한국학 연구의 성찰과 21세기 한국학의 자리 찾기’라는 제목 하에 이루어진 메타연구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근대 한국학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다. 다양한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과 시각, 개념들이 어떤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며 형성되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제시한다.

주제의 범위가 크고 넓은 만큼, 1부 세 편의 글은 가장 읽기 어렵다. 총론격의 이 글들은 문장 하나하나의 밀도가 높다. 긴 역사와 큰 주제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연구자들의 문장을 보면 그 방대한 공부량에 누구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굳이 ‘유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연구자들이 논증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총론격의 글인데다 큰 범위와 역사를 시원시원하게 아우르는 과정에서 종종 문장들은 과한 확신에 차 있기도 했다.

1부의 연구 대상은 동아시아 근대와 한국학의 근대성, 한국 개념사의 이론적 탐색에 대한 회고와 전망, 1970년대 이후 한국학의 방법과 과학론

¹⁰ 1부에 실린 글의 저자와 제목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지원, 「동아시아의 근대와 한국학의 근대성」; 송인재, 「한국 개념사의 이론적 탐색에 대한 회고와 전망」; 조형렬, 「1970년대 이후 한국학의 방법과 과학론의 모색 시론-근대전환기 인식을 중심으로」.

¹¹ 서미옥, 「메타분석 연구의 고찰과 연구방법론적인 제언」,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2011.

의 모색 등 모두 다루기 어려운, 또 매우 덩치가 큰 대상들이다. 이지원은 그의 글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만들다’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학”¹²이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경위와 그 역사에 대해 논한다. 정리하자면, 근대학술사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는 서양으로부터 타자화 되면서도 서구화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아시아의 정체성을 담은 근대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세계화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주체화의 욕구를 자극했으며, 서양적 문명화에 대한 욕망은 동아시아 전반에 ‘상대적 열등감’을 낳았다. 일제강점기 친일조선인들의 2등 국민되기(친일예의 투신 및 내적 논리 형성과정을 보여주는)나 일본의 유럽선망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대 조선이 아시아에서 이를 선두적으로 모방한 일본을 보며, 근대 자국학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 당대 언론 미디어에는 ‘애국’, ‘애국심’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고, ‘단군내셔널리즘’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저자는 ‘국사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경향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지원의 핵심주장은, **동아시아와의 연동성과 동아시아 내부의 차이 속에서 한국학을 위치 지우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민족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큰 일국사적인 자국 중심의 연구보다는, 복수의 한국학, 동아시아 한국학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한국 개념사의 이론적 탐색에 대한 회고와 전망」에서는 유럽을 지나 동아시아에서 무수한 의미망, 관계짓기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학 ‘개념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개념사는 기초가

12 이지원, 앞의 책, 17쪽.

13 이는 이지원만의 것이라기보다는 김경일, 백영서, 이영호, 류준필, 김종준 등의 연구자들을 통해 수행되고 공유되고 있는 연구관점이기도 하다.

취약한 인문사회과학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되었음을 알게 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단순히 한국 개념사의 자기맥락 찾기에서 나아가, ‘한국학’의 등장배경을 설명하는 말로써도 의의를 갖는다.

한국 개념사는 21세기 한국의 시대적 학문적 상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방향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를 통해 개념사는 단순히 외래 이론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체적인 의제와 영역을 설정하려고 시도했다.¹⁴

유럽, 특히 독일 개념사의 발달과 동아시아 수용 양상 등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이 글은 메타 연구가 갖는 장단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넓은 개념과 시공간을 간단하게 정리해내는 저자의 문장이 시원시원해서 독자 입장에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불친절해지거나 거칠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¹⁵

「1970년대 이후 한국학의 방법과 과학론의 모색 시론」은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글이다. ‘한국학’ 연구의 내적동기가 아닌 외부적 조건과 환경에 주목한 저자는 글의 서두에서 한국학 개념의 ‘정치성’,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의 의의에 대해 논한다. 그래서 1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대계몽기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 욕망 등이 반영되어 있었던 ‘한국학’ 발흥의 순간부터, 2000년대 HK사업 등 정부 주도 지원정

¹⁴ 송인재, 「한국 개념사의 이론적 탐색에 대한 회고와 전망」, 앞의 책, 51쪽.

¹⁵ 대표적으로 이 글의 60쪽에 정리된 다음의 부분을 들겠다. “... 한국 개념사의 과제로 서양의 근대를 수용한 이래 한 세기 가까이 형성된 근대를 성찰해서 ‘미완의 근대를 완성하거나 혹은 근대의 그늘에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대를 성찰하는 ‘방법’, 번역 없는 번역된 근대를 다루는 ‘의미’, 동아시아의 상생을 지향하는 ‘소통’ 세 가지가 한국 개념사의 논점으로 제시되었다.” 한국 개념사가 개념사라는 학문 방법론에 동의하는 기반 위에서 근대 연구 시각의 다변화와 탈서구 중심주의, 지역 통합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자각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보다 실증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책이 만들어낸 연구 아젠다들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신사적인 맥락, 물리적인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 총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기란 공동의 작업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말이다. 1970년대 이후 이른바 ‘관계 한국학’에 대해 당시 연구자들의 반응과 2000년대 중후반 HK 사업에 선정된 연구아젠다를 상세히 소개하는 부분은 특히 눈길을 끈다. 저자는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만들어진 ‘동아시아 한국학’이라는 명명은 한국학을 바라보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저자가 인용한 “한국의 역사·문화가 가지는 개별성, 특수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역사·문화와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동아시아적인 보편성, 더 나아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¹⁶는 박찬승의 말은 의미심장하지만, 우리가 찾아낸 한국학의 개별성과 보편성이란 무엇인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확보하는 과정 중 우리는 어디까지 다다랐나? 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게 된다. 1부의 세 글은 그렇게 현재를 진단하고, 그 의문의 해소를 다음 논의들에 넘기고 있다.

3. 근대계몽기의 계보를 ‘정리’하는 일

- 2부에 실린 네 편의 글에 대하여¹⁷

2부의 제목은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를 찾아서’이다. 그래서 그 시작은 ‘언어’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내용상 핵심어는 국민, 민족, 언어라 할 수

¹⁶ 조형열, 「1970년대 이후 한국학의 방법과 과학론의 모색 시론 - 근대전환기 인식을 중심으로」, 앞의 책, 89쪽.

¹⁷ 2부에 실린 글의 저자와 제목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소영, 「한말 지식인들의 ‘국민’ 성립론-공통의 언어, 혈연, 역사 그리고 종교」; 안예리, 「근대 한국어학의 지적 계보를 찾아서 - 지식영의 국문·국어 연구를 중심으로」; 김병문, 「근대계몽기 ‘국문론’의 레퍼런스에 대하여」; 손동호, 「『청춘』의 현상문예와 근대 초기 한글운동」.

있겠다. 2부에는 근대한국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과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학’이란 그 자체로 ‘우리만의/무엇을/만들고자 한 분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학’은 주변을, 외부를, 세계를 다분히 의식한 개념이다. 한국학은 그 자체로 결과물일 수는 없는 정신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다. 그것의 핵심에는 ‘민족(의식)’이 있으며, 마땅히 그 설명은 언어로부터 시작된다.

이 책에서 ‘우리만의’를 설명하는 부분은 “상호 일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¹⁸이다. ‘혈연으로 이어져있는 동일한 인종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명제. 그래서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는 ‘언어’와 ‘인종’, ‘역사’와 ‘종교’에 주목하여 서술된다. 당시 지식인들의 ‘국민’ 형성과 통합과정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다. <독립신문>,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서북학회월보>, <태극학보>, <대한매일신보>, <호남학보>, <대한자강회월보>, <기호홍학회월보>, <황성신문> 등.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매체를 검토하고 당대 논쟁사를 정리한 것은 실로 대단한 정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실증적 연구물들은, 방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1900년대 초반, 국민의식과 애국심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문이 아닌 한글을 ‘국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한문과 한글 중 어느 하나를 ‘국문’으로 완전히 결정하기에는 어려웠으므로, 두 가지를 절충한 ‘국한문혼용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책은 이 과정을 ‘언어민족주의’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국민의식, 애국심, 국민정체성, 동질성. 바로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것이 ‘단군’이다. 동일한 조상을 모시는 동일한 자손, 곧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국민’이고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는

¹⁸ 김소영, 「한말 지식인들의 ‘국민’ 성립론 - 공통의 언어, 혈연, 역사 그리고 종교」, 앞의 책, 114쪽.

‘민족’과 ‘국민’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고-착각하고-있는 여러 개념들에 대한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다.

당시 ‘가족국가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이유에 대한 다음의 서술은 매우 흥미롭다.

유길준을 비롯해 많은 지식인들은 ‘인민’의 절대적 동등과 자유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지와 결합으로 국가가 성립했다고 보는 국가계약론을 ‘인민’의 방종과 무질서를 야기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국가주권이 ‘인민’의 의지와 계약으로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국가계약론보다 국가를 혈연으로 뗃어진 가족공동체의 확장 또는 집합체로 인식하게 하여 **국가구성원들에게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족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¹⁹

또한 ‘지석영’²⁰을 통해, 근대 한국어학의 지적계보에 접근한 연구도 이목

¹⁹ 위의 책, 141쪽.

²⁰ 이 글을 읽기 전에는 국어학자 지석영보다는 조선에 ‘종두법’을 시행한 선구자, 의료인으로 익숙했다. 그러나 지석영은 여러 실천적인 저술활동을 통해 국문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 인물로 의미가 있다. 그는 한문으로 된 의서 『牛痘新說』(1885), 한문으로 된 농서 『重麥說』(1888), 순국문으로 된 예방 의학서 『신학신설』(1891), 한자 및 외국어 학습서 『兒學編』(1908), 한자 및 한자어 학습서이자 참고서 『言文』(1909), 자전 『字典釋要』(1909)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국어 표기 및 음운과 관련하여 순 국문으로 된 국문론(1896), 국한문으로 된 新訂國文(1905), 한문으로 된 大韓國文說(1907.5), 국한문으로 된 大韓國文說(續)(1907.7), 국한문으로 된 國文研究案(1907~1909) 등의 논설을 저술하였다. 이런 저술의 흐름은 그가 외국의 의서를 번역하는 방식 등으로 조선의 근대 의학을 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한 것에서부터 표기 수단으로서의 한글과 한자의 문제,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문과 국한문의 사용 및 이와 관련한 문제 사용의 문제, 쓰이게 되는 어휘의 문제 등을 고민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이런 국문과 한문의 공존 시대에 그는 국문과 관련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국문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남들이 하지 못한 한자, 한자어, 한문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공구서를 편찬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에서 지석영은 문제 및 어휘 사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현대 한국어문학 형성기 문자의 사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꼽기에 적합한 독보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준환, 「현대 한국어문학 형성기 漢字語의 表記와 漢字 한글 使用의 문제 - 池錫永의 「국문론」,

을 끌었다. 국어학사의 흐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어문연구 및 어문정리에 크게 기여한 선각자로 평가받는 인물. 다만 아직은 시론격의 글로, 그의 업적에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근대계몽기’의 여러 ‘국문’ 관련 논의, 즉 ‘국문론’에 대한 연구는 지식영, 주시경을 중심으로 정리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 이론의 정합성을 논하기보다는 그 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참고삼았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유추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새롭다. 책은 주시경과 지식영의 국문론의 내용 또한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당시 국문론에는 (1905년 이후 실록에 실린) <훈민정음>의 내용이 알려지기 전까지 당대 학자들이 갖고 있던 고민, 즉 ‘국문’이란 본래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지적 욕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백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해당 글이 발표된 시점에 논의가 어디까지 전개되었는지, 당시 어떤 문헌을 참고하였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주시경과 지식영의 논의가 <훈민정음> 발견과 함께 일순간 무용한 것 또는 오류투성이가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주장도 얼마든지 다른 자료들의 발견을 통해 뒤집힐 수 있을 것이나, 그 자체가 곧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부에는 1910년대 잡지인 <청춘>의 현상문예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성과를 밝히는 연구도 있다. 손동호는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가 근대독자참여제도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특히 “본격적인 문인재생산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²¹에 그 의의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인‘재’생산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저자는 <매일신보>와 <청춘>의 현상문예 내용을 비교하면서, <청춘>이 독자 확보와 신인 발굴 외에 조선의 문예를 부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言文』 등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55쪽 참고.

21 손동호, 「『청춘』의 현상문예와 근대 초기 한글운동」, 앞의 책, 203쪽.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선작만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감을 통해 신문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창작지도’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예 부흥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후감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과도한 의미 부여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광수의 “그림을工夫하여가지고야 그리는것가 티 小説도工夫가 잇고야 짓는 것이오”라는 말이나 “더욱 修養하고 더욱 奮闘하여서 진실로 新文學의 建設者에게 合當한 事業을 일우기를 바랍니다. 아아 希望만흔 新文壇의 希望만흔 勇士들이시어”와 같은 말로 이를 뒷받침하기란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어느 시대의 선후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상문예에서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었던 ‘문체 규정’으로 인해 언문일치의 문제와 직결되는 ‘시문체’(우리말 어법에 따른 문장 쓰기를 지향했으며, 글의 종류에 따라 한문 문장의 개입 정도가 다른 문체였다고 설명된다) 보급 및 확산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4. 우리가 의식한 ‘외부’

- 3부에 실린 다섯 편의 글에 대하여²²

3부의 연구물들은, 우리(조선·민족)가 의식한 외부에 대해 조명한다. 첫 번째 연구는, ‘타자의 시선’을 취해본다는 것이 한국어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 연구다. 주시경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 국어와 국문에 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므로

22 3부에 실린 글의 저자와 제목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병문, 「타자의 시선과 자국학 성립의 한 가능성-근대계몽기 서양인들의 이중어사전 및 문법서를 중심으로」; 유은경, 「메이지시대 일본문학을 통해 본 조선인식」; 심희찬, 「일선동조론의 계보학적 검토를 위한 시론-일본사의 탄생과 타자로서의 조선」; 미쓰이 다카시, 「근대 일본 역사학과 조선-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일조동원론(日朝同源論)’을 중심으로」; 윤영실, 「우드로우 윌슨의 ‘self-determination’과 ‘nation’ 개념 재고-‘National self-determination’을 둘러싼 한미일의 해석 갈등과 보편사적 의미」.

그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서 학술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보는 관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레퍼런스가 된 것이 “서양인들의 이중어사전 및 한국어 관련 문법서”²³였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된다. 실제 그 이후 주시경의 저술 활동을 살펴보면, 모어 화자에게는 인식되기 어려운 ‘음운변동’에 대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거나 조사와 어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저자는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모어를 바라보았을 때 포착된 한국어의 몇몇 요소들은 ‘국어학’이라는 자국학 성립에 때로는 결정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²⁴는 점을 밝힌다.

일본의 문헌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본 내에서 ‘조선인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추적한 연구는, 1868~1912년까지의 메이지시대에 주목한다. 저자는 메이지시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인에게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한”²⁵ 시기라고 말한다. 각기 다른 저자가 쓴 두 권의 『조선사정』을 비교하면서 중국에 기대고 있는 나약한 조선(왕)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조선은 일류 학자들에 의해 학문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조선(한국) 관련 어구가 텍스트 속에서 대화나 지문 등에 쓰인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그 텍스트의 중심 화제가 되는 경우는 적다”²⁶고 하면서, 굳이 조선표상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메이지문학전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종군기사 고스기 미세이²⁷의 『진중시편』의 「조선일기」 또한 메이지시대의 일본 ‘문학’이라고 보기에, ‘조선인식’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워 굳이 고스기를 연구대상

23 김병문, 「타자의 시선과 자국학 성립의 한 가능성 - 근대계몽기 서양인들의 이중어사전 및 문법서를 중심으로」, 앞의 책, 249쪽.

24 위의 책, 273쪽.

25 유은경, 「메이지시대 일본문학을 통해 본 조선인식」, 앞의 책, 276쪽.

26 위의 책, 286쪽.

27 고스기 미세이는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의 서양화가이자 시인, 수필가다. 그에 대한 연구에서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는 것은 단연 러일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사실이다.

으로 삼은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조선인은 흰옷을 입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조선이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정도인데, 그로 인한 다음의 결론은 다소 허망하다.

메이지 시기의 일본에서 조선이 이야기되지 않은 것은 ‘과거의 기억’이라기 보다 당시에 ‘현재의 숨기고 싶은 가해에 대한 꺼림칙함’에 가까운 것이다. 메이지 일본인이 범한 이웃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개척, 제2차 세계대전 패배에 더해 침략자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괴롭기 때문이다.²⁸

이 결론은 논의의 결과로써 도출된 것이 아니며, 논의의 과정에서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선동조론’의 계보를 그려보는 작업을 통해 세기전환기 일본에서 ‘일본사’가 탄생하는 과정과 조선인식의 양상을 검토한 글에서는 은폐된 식민주의의 존재가 드러난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사는 조선 및 중국의 사서와의 비교를 통해 추정되거나 기술되는 식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곧 일본의 역사를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위치시키려는 작업이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구별’또는 ‘구분’되는 무언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적 보편성의 세계로 진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저자가 소개하는 데이칸의 『충구발衝口發』을 통해 ‘일선동조론’이 일제강점기 우리에게 남긴 인상 그대로 일본 우위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해진다. 데이칸 사유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열린 이후 존재했던 대부분의 문화가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것”²⁹이기 때문이다. 1800년대부터 꾸준히

²⁸ 위의 책, 316쪽.

²⁹ 심희찬, 「일선동조론의 계보학적 검토를 위한 시론 - 일본사의 탄생과 타자로서의 조선」, 앞의 책, 331쪽.

일본 내에서 ‘일선동조론’을 둘러싼 해석의 경합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그 경합이 결과적으로 제국일본의 침략과 팽창을 지탱하는 식민지주의 이데올로기의 전위로 변질되었다는 사실도. ‘역법’이 없어 기년이 부정확했던 과거 일본이 이를 확정하기 위해 『삼국사기』나 『동국통감』 등을 참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한사漢韓史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는 학자들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항한 주장은 항상 ‘정신’의 차원이었다는 서술 또한 흥미로웠다. “(기년론)은 일본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키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외부에서 고찰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고 반응했다는 일본 내의 국학자와 신도자들, 근대 역사학의 확립과 일본사의 탄생은 타자로서의 조선을 시야에 넣지 않고는 그 의미를 물을 수 없다는 저자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한 대상을 다루는 또 다른 글³⁰의 저자는 ‘일선동조론’이 아닌 ‘일조동원론(日朝同源論)’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일선동조론’은 언어학자 가나지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가 1929년 펴낸 책의 제목에 불과하고, 이 논의에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그는 “천황제 아래에서의 일본민족관의 금기를 깬 사람”³¹, 역사가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동원론’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국에서 식민지를 바라본 관점의 변화를 추적한다. 저자가 특별히 그에 주목한 것은 이 역사가가, 일본 또한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혼종된 존재’이며 일본민족은 언어적으로도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는, 1915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30 미쓰이 다카시, 「근대 일본 역사학과 조선 -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일조동원론日朝同源論’을 중심으로」, 앞의 책, 2020.

31 위의 책, 359쪽.

위로는 황실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인민에 이르기까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일본 국민이 대체로 모두 같은 일족이며, 황실은 그 종가라고 하십니다. (……) **이것은 학문상의 연구로서는 본래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나 혹은 교육상으로는 다소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극히 유익한 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야마토 민족은 다른 여러 나라 국민과 달리 단결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은 조상이 모두 같아서 그러한데, 국민 전체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상으로 애국심을 고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³² (강조는 인용자)

그 발언의 핵심은 강조한 부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동조론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 이유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학문상으로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대사의 여러 기록들은 일본민족의 성립 과정에 이인(夷人), 잡류, 귀화민족이 결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다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후예가 다 절멸했다면 국민 모두가 동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에서는 학자로서 이러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강경함도 느껴진다. 이 글을 통해 제국일본이 주장한 동원론의 핵심은 대립 해소 융화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은 내부결속을 꾀하는 프로파간다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드로우 윌슨 사상의 핵심 개념들을 재검토하는 논의에서는, ‘국민’과 ‘민족’은 각기 ‘nation’과 ‘people’에 대응하는 번역어였음이 흥미롭게 서술된다. 애초에 ‘민족’이 nation이 아닌 people의 번역어였다는 점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자결’의 단위 또한 생각해볼 문제다. 인종(a race), 영토적 지역(a territorial area), 공동체(a community) 중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1918년

³² 위의 책, 385쪽.

처음 명시적으로 사용된 ‘self-determination’은 문맥상으로 지시하는 대상(독일의 유럽 내 식민지)은 명확했음에도, 당시의 국제정세와 컨텍스트와 결합하면서 분분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게 되었다.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월슨이 정의한 주요 개념들(people, nationality 등)에 대해 정치적 맥락과 더불어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주목되는 그의 주장은 “식민지 민족-nation이란 정체성의 발현이 아닌 주체화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³³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3·1운동 이전에는 ‘조선민족(민족-nation)’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뭉텅이 없는 자들인 ‘조선인(민족-people)’만이 있었다는 것, 스스로를 자결의 권리를 지닌 주체로 선언하는 수행적 해석과 해방을 향한 저항적 실천이 비로소 ‘조선인’을 문화정치적 공동체이자 잠재적 국민으로서의 ‘조선민족(민족-nation)’으로 만들었다는 해석은 이를 개념사적 단절의 맥락에서 읽어내 더욱 유의미해진다.

5. 결론

2019년 이 책의 토대가 된 두 학술대회가 열렸다.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의 형성(2019.7.18.~19)’,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2019.10.11.)’라는 두 학술대회의 주제는 적절히 결합되어 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 인문사회분야 내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이 책의 일부분을 담당했다. 이러한 연구서들이 갖는 장단점은 명확하다. 다양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을 하나의 주제 아래 한 권의 책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여러 번 협의를 거친다 해도 결코 통일될 수 없는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33 윤영실, 「우드루우 월슨의 ‘self-determination’과 ‘nation’ 개념 재고 - ‘National self-determination’을 둘러싼 한미일의 해석 갈등과 보편사적 의미」, 앞의 책, 432쪽.

글들의 관련성이 미약해 한권의 책 안에 담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하나로 묶인 의의가 더 큰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담긴 연구들은 대부분 ‘시론’격의 논의들이다. 무엇을 대표하지 못한다. 시대를, 제국을, 식민지를. 이 책은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지엽적인 것들에 주목하여 본질을 향해가는 길 위에 있다. 익히 아는 대상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써 설명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주한다. 기타의 동원론은 당시 제국일본이 조선을 향해 있던 여러 식민지배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가? 그렇지 않다. 지식영은 어떠한가? 그는 조선의 언어학자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시 그렇지 않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개념의 핵심이 아닐 수 있다. “하나의 개념을 자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역사적 구성물이자 이질적 용법들이 경합하는 장으로 기술”³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윤영실의 문장은 이 책을 꿰뚫는 핵심이 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 책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식장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학의 제문제를 확인하고 검토하고자 했다. 2007년부터 ‘동아시아 상생과 소통의 한국학(koreanology for East-Asia Community)’이라는 아젠다로 연구를 진행한 류준필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은, 한국이라는 주체의 공간적 위치로 모두 수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³⁵ 요컨대 한국학의 존재 형식이 자국학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 학술사’는 한국학의 복수성 혹은 복수의 한국학‘들’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³⁴ 위의 책, 401쪽.

³⁵ 류준필, 『동아시아한국학 연구노트1 : 한국학의 복수성複數性 혹은 한국학‘들’의 학술사를 위하여』, 『동아시아한국학의 발자취』,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07~108쪽 참고.

의미에서 이 책은 한국학‘들’에 대한 논의는 물론, 새로운 문학사나 문화사가 가야할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상과 개념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새로운 해석이 불러오는 학문의 방법론적 반성과 모색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적 학술장에서의 ‘조선학/한국학’의 구성과 작동에 대한 후속 논의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의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 소명출판, 2020, 1~437쪽.
- 김병문, 『‘국어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 근대 한국어학의 지적 기반 성찰』, 소명출판, 2019, 1~374쪽.
- 서미옥, 「메타분석 연구의 고찰과 연구방법론적인 제안」, 『교육학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교육학회, 2011, 1~23쪽.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근대지식과 ‘조선-세계’ 인식의 전환』, 소명출판, 2019, 1~383쪽.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의 발자취』, 글로벌콘텐츠, 2017, 1~236쪽.
-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1~479쪽.

Formation of Modern 'Korean Studies' and Sites of Knowledge in East Asia

A book review on 『Sites of knowledge in East Asia and the birth of the modern Korean Studies』 by the Humanities Korea Plus(HK+) Project Group of Yonsei University's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Park, Subin |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n Studies' is a very controversial concept. As we can see from a pretty much intrinsic question if it can be acknowledged as a 'Studies' as well as other issues like limiting its subjects, organizing genealogy, etc., 'Korean Studies' interacts with outside and keeps changing like an organism even at this moment. However, numerous researchers will sympathize with the necessity to clearly organize the process that we once have gone through here and now. In this book, the birth of the concept 'Korean Studies' and the process of its transition are examined in multilateral ways based on desires that have been inspired inside us and external influences. The 12 articles written by researchers with different specialties, diverse background knowledges, and various interests get exquisitely woven and forms a single image. Matters to be obtained and questioned are as many as the number of diverse discussions currently being made. Is this book, which can be regarded as contemporary opinions, sufficient to serve as a part of the whole picture of the modern 'Korean Studies' and sites of knowledge in East Asia? The contents of this book are to be introduced and performances achieved as well as questions arisen in terms of the studies are to be examined in this article from the viewpoint of a spontaneous and active debater.

Key words : Korean studies, East Asia, sites of knowledge, history of concept, genealogy, Yonsei University's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

일반논문

부르디외의 상징폭력과 1950년대 上京人의 소외의식
戰後 서울의 표징으로서의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읽기

김정남

한국영화사에서 개신교 표상과 국책 장르의 친연성 연구

박유희

근대계몽기 학회지의 독자 인식과 서사적 실험
몽유록계 서사를 중심으로

전은경

부르디외의 상징폭력과 1950년대 上京人의 소외의식

戰後 서울의 표징으로서의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읽기

김정남*

1. 서론: 전후문학과 리얼리티의 문제
2. 서울의 상징폭력과 상경인의 의식
3. '촌놈'의 아비투스과 열등의식
4. 청년들의 연대와 살아남음의 의미
5. '종삼'과 '르네상스'라는 구원의 방식
6. 결론: 서울에 남는 일과 실향 의식

| 국문초록 |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은 상경인의 체험에 근거하여 일상성의 차원에서 전후 서울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 최일남은 도시민적 삶의 허구성에 대한 성찰을 위한 세태 풍자에 집중한 바 있는데 이는 “악착같이 서울 생활을 견뎌내어 돈을 모으고 어느새 자신의 신분을 과장하려드는 이른바 ‘출세한 촌놈’을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출세한 촌놈의 허위의식의 원인이자 그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서울의 초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초상」은 1950년대 전후문학에서 발견되는 이념적 경직성이나 위악적 비극의 포즈에서 벗어나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모습을 짙은 시절을 회상하는 상경인의 렌즈를 통해 경험적·상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베에르 부르

* 가톨릭관동대학교.

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이론에 기초하여 상경인이 마주하게 된 서울이라는 공간의 상징폭력과 그 동화의 방식에서 나타난 아비투스 문제를 아프레 게르(apres guerre)의 상황성에 기초한 서울의 사회·문화적 일상성 안에서 고찰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지금-여기 서울공화국이라 칭해지는 서울의 상징폭력을 전쟁 직후 서울에 상경한 젊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그려냄으로써 수부 중심 이데올로기의 파행의 원적지를 탐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촌놈의 아비투스과 열등의식으로 나타났으며, 전쟁 직후 살아남음의 의미가 유일무이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던 시기, 청년 연대(남성 연대)에 기초한 상징적 경험을 통해 종삼과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당대 서울의 도피와 망각의 문화적 풍속도를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그토록 탈색하려 했던 촌놈의 아비투스는 서울에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촌사람의 지표로 남겨지고, 결국 실향민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아이러니와 이를 통해 감득되는 고향에의 미안함은, 수부 중심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편입되려 한 지난날에 대한 반성기제로 작용한다.

서울이라는 수부의 역사가 곧 한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된 거대역사를 대표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한계였다면,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이는 지역과 소사회의 역사 더 나아가 개인사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중심주의가 가져온 레드오션 체제가 한국인의 삶을 불균형과 양극화로 치닫게 하고 있는 현실은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는 식의 '경로 의존' 때문이며 곧 이것이 지방을 서울의 내부 식민지로 만든 의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상징폭력, 상경인, 일상성, 아비투스, 남성 연대, 종삼, 르네상스, 수부 중심 이데올로기, 로컬리티

1. 서론: 전후문학과 리얼리티의 문제

한국문학사에서 전후(戰後)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950년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한국전쟁은 휴전상태로 사실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1950년 6월부터 3년간의 전면전이 끝난 이후를 지칭한다고 해도 그 기간은 지금·여기까지를 포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문학은 1950년대 문학과 동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기간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전후 4·19 전까지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문학”²이라고 단정되어 왔다. 한국전쟁에 대한 성찰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전후를 1950년대에 가두려는 것은 역사를 단절적으로 파악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상흔과 질곡을 특정 시기에 유기해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일차적 대상은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³으로서 이 작품을 통해 1950년대 서울의 상징폭력과 상경인의 의식, 아프레 게르(apres guerre)의 상황 속에서 영위되는 도시적 삶의 일상성,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경인의 실향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 텍스트는 1983년 『소설문학』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상황을 일상성의 차원에서 상경인의 체험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 최일남은 소시민적 삶의 허구성을 성찰하기 위해 세태 풍자에 집중한 바 있는데 이는 “악착같이 서울 생활을 견뎌내어 돈을 모으고 어느새 자신의 신분을 과장하려드는 이

1 거시적인 맥락 하에서 보아도 전후(postwar)의 개념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복합적인 기의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문학에서 ‘전후’ 혹은 ‘전후문학’이라는 기호는 ‘한국전쟁 이후’라는 1차적인 기의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후’라는 일본적 기의와, ‘2차대전 이후’라는 구미(歐美)의 기의가 혼용되어 있어서, ‘1950년대 문학’이라는 기호와는 별개의 다의적이고 중층적인 개념”(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34쪽.)이기 때문이다.

2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14쪽.

3 본고의 텍스트는 최일남, 『꿈길과 말길』, 한국소설문학대계 41, 동아출판사, 1996이며 출전은 인용문 말미에 쪽수를 괄호병기 하는 방식으로 밝히기로 한다.

른바 ‘출세한 촌놈’을 추적하는 것”⁴으로 나타난다. 가령, 「차 마시는 소리」, 「우화」, 「서울 사람들」이 그것인데, 도시적 삶 조건 속에서 “삶의 참다운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주인공들의 행태를 희화적으로 그려내고”⁵ 있다. 여기서 「서울의 초상」은 이러한 출세한 촌놈의 허위의식의 원인이자 그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을 배경으로 상경(上京) 청년의 도시생활기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도시소설의 형식적 층위에서 이른바 ‘도시입성형 체험 소설’⁶의 전형적 문법을 따르고 있다. 이 소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소위 전후문단으로 지칭되는 1950년대 소설과는 차질되는 삼중(三重)의 여과장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필터링의 장치는 1950년대 서울이라는 공간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의 리얼리티에 값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문제작으로 여기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첫째, 이 작품은 1983년에 발표된 것으로서 1950년대의 사회상이나 문학적 상황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사실상 1950년대의 문학적 상황에서 “6·25를 다룬 우리 소설의 대부분은 전쟁의 압도적 압력에 휩쓸려 비극적 순간의 포착에 머무르거나, 또는 설익은 고발이나 소박한 휴머니즘의 수준에 맴돌았으며, 아니면 이념적 이분법의 틀에 갇혀 경직된 추상적 관념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그쳤”⁷기 때문이다. 이는 “손창섭의 「비 오는 날」(1953)이 보여주는 병신스러움의 세계”⁸, 전통주의와 순수문학에 근거한 김동리나 황순원

4 권영민,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251쪽.

5 위의 책, 251쪽.

6 Diane W. Levy, “City Signs-Toward a Definition of Urban Literature”, *Modern Fiction Studies*, Vol. 24, No. 1, 1978, p.66.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78쪽에서 재인용. 도시입성형 경험 소설이란 “시골 태생의 순진하고 감수성 있는 어리거나 혹은 젊은 주인공이 익명·소의 그리고 혼잡·고독 등의 표상을 지닌 도시 입성과 그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정을 통해서 도시의 삶의 특성과 그 실체를 발견하거나 동화됨을 드러내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위의 책, 278쪽.)을 뜻한다.

7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322쪽.

류의 “서정적인 휴머니즘”⁹, 오상원의 「유예」(1955)나 선우휘의 「불꽃」(1957)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단선적 반공 이데올로기가 각각 이에 대응한다.¹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고의 방식으로 서술되는 이 작품은 이러한 1950년대 전후문단의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의 문제가 단지 1950년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학적 성찰이 수행되고 있고 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이 작품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망하던 ‘서울에 남는 일’에 성공”(305)한 초점화자가 서울 수복과 함께 서울로 복귀하여 생활하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는 회고적인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초점화자의 현재의 입장은 작품 말미에 언급됨으로써 그 서술의 시점이 중국적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작중 사건과 서술 시점의 불일치를 통한 회고적 서술방식은 전쟁 직후의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속에서 영위되는 불안한 삶의 일상성과 인식론적 거리를 갖게 한다. 이는 과장된 포즈와 위악적 태도에서 벗어나 1950년대 전쟁 직후의 사회상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이 작품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시골이 고향인 상경 대학생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앞서 말한 회고적 서술방식이 시간적 차원의 인식론적 거리(distance)를 산출한다면, 시골이 고향인 인물의 시선에서 그려지는 서울의 풍경은 공간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의 거리를 만들어낸다. 서울이라는 대도회의 삶에 익숙해져 그 풍경이 하나의 자의식의

8 김윤식, 「60년대 문학의 특질」,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5.1, 56쪽.

9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학회, 2018, 443쪽.

10 게다가 당시 작가들이 구현한 언어적 성취도 “모국어미달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는 “손창섭류의 허무주의로 변장한 과도한 낯설음의 세계로 혹은 선우휘 식의 사회적 팜플렛의 세계로 주도하는 데”(정영화, 「1950년대 소설 연구」- 선우휘와 손창섭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0, 중앙어문학회, 2002, 356쪽.)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로 내면화된 존재가 아니라 시골 출신의 한 대학생의 눈에 포착된 서울은, 그 낯센만큼이나 강렬한 정동(affect)¹¹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작품 속에서 언급되듯이 단지 “처음 밟아 본 서울의 땅을 일단은 자기 것으로 굳히기 위해서”(288) 경험되는 일련의 사태라고 할지라도, 상경인이 겪는 통과례의 과정들은 그 시대의 격량을 통과하기 위한 상징적인 몸짓이라고 할 때, 그 경험들은 일상성의 차원에서 1950년대 서울에 대한 고현학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이론에 기초하여 상경인이 마주하게 된 서울이라는 공간의 상징폭력과 그 동화의 방식에서 나타난 아비투스の問題를 아프레 게르의 상황성에 기초한 서울의 사회·문화적 일상성 안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서울의 상징폭력과 상경인의 의식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은 초점화자인 ‘성수’가 기차 안에서 철교 아래를 굽어보며 한강을 목격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얼음에서 갓 풀려난 3월의 푸르고 잔잔한 한강에 대해 기가 꺾기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고향의 한계천(寒溪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크기와 수량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서울을 의미하는 데서 오는 주눅들림”(239)이었다고 설명한다. 성수라는 초점화자에 의해서 서술되는 이와 같은 ‘한강=서울’이라는 강렬한 상징성은 상경인에게 다가온 서울이라는 이름의 ‘위력’에 다름 아니다. 이는 1978년에서 1981년을 주요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경숙의 『외

11 여기서 정동이란 “인간 존재들의 관계를 통과하며 그 과정에서 의식, 감정, 사유를 발동시키는 ‘되어감’의 힘”(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사람의문학』, 도서출판 사람, 2018 가을, 218~219쪽.)을 가리킨다.

판방』에서 16살의 나이로 상경한 시골 소녀가 서울역 광장 앞에 서 있는 대우빌딩을 바라보며 “거대한 짐승으로 보이는 저만큼의 대우빌딩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엄마와 외사촌과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¹²라고 진술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주눅들림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성수는 고향에서 일 년 동안의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 생활을 마치고 수복과 함께 서울로 복귀하는 학교를 따라 상경을 결행하게 된다. 고향을 떠날 때 초라한 역사(驛舍)에서, 연방 손을 흔들며 눈물을 찍어내던 누이를 보면서도 너무 흔해빠진 장면의 재연 같아 이를 외면하였지만 그 역시 같은 심정이었고 이 감정은 곧 “살불이 하나 없는 서울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284)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는 성수에게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를 고향에 붙잡아 두려는 그의 부모의 의사는 고향에의 안주(安住)라는 강력한 구심력으로 작동한다. 그의 부친은 돈 없이 서울에 가서는 살 수 없으니 농사나 지으며 농치고 살자고 말하며 그나마 전시연합대학이라도 다닌 것도 억지였음을 강조하고 서울행을 작파할 것을 강권한다. 그의 모친 역시 서울에 대한 공포를 과장함과 동시에 욕심 부리지 말고 농사 짓다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사는 평범한 농민의 삶을 요구하며 서울행을 만류한다.

이에 성수 역시 서울에 대한 두 가지 감정 —“가자니 까마득하고 놀러 있자니 어떤 들쭉심 같은 것을 하여 견딜 수가 없는”(285)—에 휘말린다. 그는 결국 가슴 밑바리에 있는 서울을 향한 열망을 견딜 수 없게 되고, 상경에의 욕망이 갖는 원심력의 항배를 따르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 조그마한 불씨를 당겨준 것은 서울 여자와 결혼하여 서울에 거점을 마련한 선배 ‘H’의 조력 —딱 보름만 자신의 처가(妻家)에 기식할 수 있도록 해줌—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의 본격적인 서울 생활 최초의 전초기지가 마련된 셈이었는데,

12 신경숙, 『외판방』, 문학동네, 1999, 33쪽.

데, 선배 역시 성수의 서울에서의 안착을 소망하고 있다기보다는 “모처럼 서울 구경이나 하고 내려가거라. 전쟁으로 쑥밭이 되어서 볼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에게는 볼 만한 것이 많을 테니까.”(286)와 같이 서울에 대한 일회적인 경험의 기회를 부여한 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수의 상경은 정착을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한 노력은 촌놈(country man)의 때를 벗고 철저하게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에 따르면 “사회세계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 이야말로 계급투쟁의 주요 측면”이며 “기존질서가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은 주로 상징폭력이라는 문화적 재생산 과정에 의해서 보장”¹³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상징폭력(symbolic power)’은 문화적 상징을 통해 사회행위자로 하여금 사회적 위계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적 헤게모니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가리킨다. 이는 일종의 상징적 지배(symbolic domination)로서 “외적 압력에의 수동적 복종도, 지배적인 가치의 자발적인 선택도 아닌 일종의 공모(共謀)를 전제”¹⁴로 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천을 지배적인 평가 기준에 맞추어 나갈 때, 진정으로 상징적 지배가 시작”¹⁵된다고 했을 때, 서울이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징폭력은 강제적인 지배가 아니라 “점잖고 또 비가시적인 형태의 폭력”¹⁶으로 행사된다.

서울에 들어선 기차 안에서 성수는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서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불태운다. 하지만 이 적개심은 동화되지 않으려는 적시(敵視)의 감정이 아니라 이른바 ‘촌놈’의 열등에 기인한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징폭력에 의한 심리적 열등의식은 서울과

13 정일준, 「왜 부르디외인가」-문제는 ‘상징권력’이다,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27쪽.

14 비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51쪽.

15 위의 책, 51쪽.

16 위의 책, 47쪽.

같아지려는, 즉 서울이라는 상징 속에 내재한 지배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화의 전략을 피하게 되고, 이는 부르디외가 말하는 바와 같이 “오인과 인식의 독특한 혼합(mélange)”¹⁷의 형태로 상징폭력이 작동함을 보여준다.

3. ‘촌놈’의 아비투스과 열등의식

서울에 입성한 성수의 제1의 행동 규준은 촌놈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역에 도착해 웅덩이그런 역사와 이른 봄의 간간한 바람에 으스스 떨며 썰렁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다. 이윽고 군용 담요로 만든 외투를 걸친 늙은 여자가 깨끗한 하숙과 예쁜 색시가 있다고 호객을 해도 첫 서울이 주는 당혹감에서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한다. 그는 여자를 밀치고 역전의 잡담 속으로 자진해서 휘말린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멀거니서 있거나 사방을 돌레돌레 훑다가는 영락없는 촌놈으로 치부”(286)된다는 언어들은 상식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유 없이 갑자기 몰아닥친 황폐감을 달래기 위해서”(286)이기도 하다. 여기서 작중 인물의 상황과 그 외연으로서의 사회적 포즈와 연결되는 심리문체(mind style)¹⁸의 요소는 ‘당혹감’, ‘황폐감’, ‘자진해서’, ‘휘말렸다’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황폐함은 첫 서울이 주는 당혹감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도회의 익명적 군중 속으로의 자발적 휘말림을 선택한 것이다.

이 적극적 동화의 방식에 의해서 나타난 학습효과는 두 번째 다가온 여자에게 “여자까지 끼워서 하룻밤 자는 데 얼마요?”(286)라고 미리 묻는 것으로

¹⁷ 위의 책, 70쪽.

¹⁸ Leech, Geoffrey N. Short, Michael H., *Style in Fiction*, Longmansgroup limited, 1981.

분명하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그는 단골집 운운하며 이골이 난 오입쟁이 같은 말씨를 놀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여기서 회상의 시점에 서 있는 서술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논급한다. 그것은 촌놈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행위였으나 결국 “상촌놈의 허세”(287)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작중 사건 속의 인물에게는 동화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허세까지 동원해서라도 촌놈의 기질을 감추어야 할 것이었고, 그것이 서울 입성의 제1의 과제였던 것이다.

H선배의 처가를 찾아간 성수는 그의 방문을 땔떠름해하는 선배의 부인과 장모에게 냉대를 받는다. 연방 아래위를 훑으며 자신을 살피는 그들의 눈길에, 성수는 퇴색한 잠바며 무릎이 튕겨져 나온 바지가 서울역에서 갓 보고 온 꼴렁한 건달과 진배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남루한 행색에 대해 자각한다. 그는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여기를 나가면 있을 데가 있느냐, 등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건조한 질문에 시달리지만, 그는 자취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볼 것이라고 말을 돌려대며 선배의 처가에 거처를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튿날부터 그는 서울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것은 성수에게 처음 밟아 본 서울 땅을 자기 것을 굳히기 위한 전유의 한 방식이었다.

성수는 그렇게 며칠 서울 땅을 밟고 돌아다니자 “자기가 서울 사람이 다 된 것 같고 털털어진 몸짓으로, 또는 때가 낀 꼬락서니로 뒤통거리고 있는 고향 친구들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다 보여지고 있음”(288)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중앙과 로컬의 우열적 이항대립 구조는 로컬을 타자화·열등화함으로써 중앙의 선민의식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에의 자발적인 동화의 노력은 고향을 낮추보는 인식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이처럼 “상징폭력은 우선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이항 대립으로 분류할 뿐 아니라, 그 대립에 위계적인 의미를 부여”¹⁹한다. 서울의 상징폭력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한 그는 어떤 일

19 조애리, 「상징폭력과 의식고양」, 『작은 변화들』, 『신영어영문학』 33집, 신영어영문학회, 2006, 154쪽.

이 있어도 서울에 남아 서울을 단단히 부여잡음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려는 생각을 키워가게 된다. 그런 그에게 서울에서 물려나는 것은 패배이자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기에 그는 악착같이 서울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달구질한다.

이렇게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른바 촌놈의 아비투스(habitus)를 거세해야 하는데, 이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장사치들과 우연히 건네는 한마디 말에도 “깍뚝한 서울 말씨”(289)를 섞으려 애쓰는 행위를 통해 구체화된다. 물론 이것이 서술의 시점에서 다시 뒤집어 보면 “촌놈의 열등감”(289)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성기제가 작동하나 전쟁 직후의 혼란상 속에서도 촌놈의 내면에서는 서울의 상징폭력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성수가 사투리 사용자로서의 오래된 언어 습관을 버리고 깍뚝한 서울 말씨를 쓰려는 이유는 사투리가 ‘언어 자본’을 다른 자본(사회적 지위, 부(富) 등)으로 전환²⁰하는, 이른바 ‘태환성(台換性)’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으로서의 언어의 문제가 부상하는데, 이는 담론의 장을 하나의 ‘언어시장’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언어시장이란 언어 자본(linguistic capital), 즉 문법적으로 완벽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특수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적절한(a propos) 표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²¹이 교환되는 장(champ)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당한 언어능력은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권위자—이 공식적 상황에서, 정당한(즉 공식적인) 언어—공인된 권위 있는 언어로서 널리 인정되고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한마디로 수행능력(performative)이 있고(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효력이 있다²²고 주장되는 담론—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승인된 능력이다.

20 베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p.57.

21 위의 책, 58쪽.

22 위의 책, 144쪽.

여기서 서울 말씨라는 ‘공식 언어’는 대중적이고 순수히 구어적인 방언들을 ‘사투리(patois)’로 격하시키고,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공식 언어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 그것은 종종 점진적이며 암묵적이며 감지할 수 없는 주입과정을 통해 성향(disposition) 속에 —보다 정확하게는 아비투스 속에— 새겨진다. 따라서 공식 언어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화자는 ‘지식없는 인식(reconnaissance sans connaissance)’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공식 언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식(reconnaissance)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적 오인(méconnaissance)이나 관습적 합의에 의해 자신들의 실천을 지배적인 평가 기준에 맞추어 나갈 때, 상징적 지배가 시작²³되는 것이다.

성수는 H선배의 처가에 몸을 담은 지 열흘쯤 되었을 때, 노골적으로 이제 그만 나가주었으면 하는 기색을 발견한다. 그의 뻔뻔함을 힐책하는 얘기가 요란한 설거지 소리에 섞여 들려오자, 그는 결국 고향 친구들이 자취하고 있는 방에 끼어들게 된다. 친구들에게는 수중에 있는 돈을 건네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고 얘기를 해두었는데, 자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염치·배짱·배포, 이런 것들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친구들 사이를 파고들게 된다. 그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울의 속살에 더욱 근접하게 되고 이른바 서울에 길들여지는 경험이라는 이름의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4. 청년들의 연대와 살아남음의 의미

성수는 결국 “잘 왔다. 거털날 때까지 버티어보자.”(290)라고 말하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건어물상의 아들인 ‘기철’과 “어쩌면 이 시대가 주는 이런

²³ 위의 책, 50~51쪽.

멜랑콜리와 시련은 우리 자신을 더 튼튼히 동여매는 조건이 되어 줄지도 몰라.”(290)라고 말하는 고향 유일의 외과 의사의 아들인 ‘필구’의 환대를 받으며 이들의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연대”²⁴는 전쟁 직후의 피폐함과 궁핍함 속에서 펼쳐지는 1950년대 소설에서 쉽게 발견되는 특징적 장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가령, 서기원의 『암사지도』에서 전장에서 유일한 친구이자 전우였던 미대생 ‘김형남’과 법대생 ‘박상덕’이 만든 연대를 보자. 거처도 의지할 곳도 없는 형남은 우연히 만난 상덕의 권유로 그의 집에 기거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상덕이 함께 살고 있던 윤주라는 여자를 두고 제안한 이른바 ‘윤주 공유론’은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되는데, 이에서 비롯한 정신적 파탄과 마멸의 과정을 볼 때 이들의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성숙한 밤의 포옹」에서 연인인 ‘상희’가 폐병으로 죽어간다는 편지를 받고 탈영한 화자는 시골처녀를 겁탈하려다 실패하고 신고에 두려운 나머지 처녀를 죽이고 상희의 집에는 가지도 못한 채 방황한다. 그러다 사창가에서 만난 ‘선구’가 자신의 방을 은신처로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이들 사이에 ‘진숙’이라는 창녀가 가로놓이는데, 진숙의 동반 자살 제안에 선구는 죽어야 할 이유조차 발견할 수 없고 절망하게 된다. 전자와 같이 “춘천에서 교대로 놀던 일 잊었니?”²⁵라며 상덕이 윤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후자와 같이 “침대 밑 창고 속에 세워두었던 오줌 병과 똑같은 자격으로” “그 병들도 선구의 배설물로 위를 채우면서 이 방에서 기식”²⁶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 청년들의 연대가 기실, 자기모멸과 절망의 공유지점에서 만들어진 서로를

24 박필현, 「아비 잃은 자의 아비 되기, ‘포트 다(fort-da)’의 율리」- 서기원 초기 소설 속 청년들의 연대와 불안정한 욕망 회로,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81쪽. 이 용어는 서기원의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후 청년들 사이의 공생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를 ‘청년들의 연대’라는 다소 반어적인 어법으로 지칭하였다.

25 서기원, 『암사지도』, 민음사, 1995, 16쪽.

26 위의 책, 75쪽.

되비추는 비참한 거울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하지만 「서울의 초상」에서 성수가 기철과 필구의 자취방에 끼어들어서 만들어진 청년들의 연대는, 서기원의 작품에서와 같이 살벌한 전장이나 사창가에서 만들어진 우정이 아니라, 같은 고향 친구라는 공동기억의 토대 위에서, 모두 서울에 유학을 온 20대 초반의 동갑내기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부정적 계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쟁 직후의 황폐한 서울이라는 낯선 공간에 내던졌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만난 동향의 친구라는 사실에서 보다 순연한 연대의식이나 공속감을 공유한다. 여기서 초점 화자인 성수는 세 사람의 합류를 자축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 동거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이 뒤섞이는 가운데 “병병하면서도 짜릿짜릿한 느낌”(290)을 받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향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고, 서울이라는 치열한 생존의 장에서 서로 만나 옥신거리는 젊음을 달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에 새콤달콤한 감회에 젖는다. 더불어 이런 자리에 끼지 못하고 일찍 죽어 간 동갑내기 사촌형을 떠올리며 오직 “살아남았다는 사실”(291) 그 자체가 주는 기특하고 소중한 감상에 젖는다.

여기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단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여타의 존재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만들고 절대적 가치에 균립하는 순간, 전후의 상황은 또 다른 의미의 거대한 생존의 장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성수의 눈에 비친 전쟁 직후 서울의 풍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수가 일차적으로 포착한 서울 사람들의 낯빛에는 전쟁의 초조함이나 공포가 사라져 있다. 그것은 앞서 화자 자신이 드러낸 감정과 같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특함이나 소중함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후의 잿더미 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포개어졌을 때 나타나는 탐욕과 보상욕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면이나 도사림 같은 일체의 문화적 코스트이나 윤리적 여지는 소거되고 자신을 곧추세워야겠다는 탐욕이 꿈틀거리

기 마련이다. 전쟁이라는 ‘킬링 필드’를 통과한 자들의 눈빛에는 아직도 살벌함이 남아 있고, 이는 곧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이전투구가 판을 치는 또 다른 의미의 ‘베틀 필드’로 전환된다.

이것이 전후 사회의 민낯이었다면, 실존주의의 늪을 헤매며 음울한 인간 군상의 화석화된 이미지를 직조하던 1950년대 문학은 이와 얼마나 많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일까. 가령, 전후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손창섭의 문학 세계를 보자. 잘 알려진 대로 그의 소설에서 “‘비’, ‘골방’, ‘병자’는 손창섭의 소설을 설명해 주는 주요 키워드로서”²⁷ 이 시대의 문학적 상상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가령, 「비 오는 날」의 경우 ‘원구’와 친구인 동옥 남매(여동생 ‘동옥’)의 관계를 보라. 원구는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동옥의 집에 찾아가 짧고 가는 다리로 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눈초리로 자신을 노려보는 동옥을 발견한다. 그러나 비가 올 때마다 원구는 동옥 남매의 집을 찾아가다. 동옥은 원구에게 동옥을 보살펴 줄 것을 이야기하며 그녀와의 결혼을 은근히 요구하지만 원구는 즉답을 피한다. 하지만 소설의 말미, 동옥 남매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고, 집 주인은 동옥의 얼굴이 반반하니 몸이라도 팔아서 굶어죽진 않을 거라고 말한다. 이에 원구가 느끼는 죄의식은 바로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²⁸라는 자책 속에 잘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죄의식을 포함하여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멜랑콜리는 바로 이러한 능동적 우울”²⁹로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타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³⁰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물고 뜯고 밀어내는 전후의 살벌한 생존의 장 안에서 이러한 윤리가 전후의 상황성을 뒤흔들게 포착한 것일 수 있을까 의문부호를 던지게 된다.

27 강유진, 「손창섭, 경계 위의 생애와 그의 소설」, 『작가세계』, 작가세계, 2015 겨울, 19쪽.

28 손창섭, 「비 오는 날」, 『영여인간 外』 - 한국소설문학대계 30, 동아출판사, 1995, 59쪽.

29 이다은, 「전후 손창섭 문학의 애도와 멜랑콜리」,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468쪽.

30 위의 책, 474쪽.

어쩌면 비 내리는 골방 안에서 자학과 모멸을 곱씹으며 상처의 나날들을 보내는 손창섭의 인물이 그 시대의 알레고리라면 거기서 건져 올린 인간적인 연민이나 애도의 가능성도, 관념이 지어낸 상징적 풍경이 아닐까. 여기서 원구가 가지는 윤리의 가능성은 「생활적」에서 사타구니에 구더기가 꼬무락 거리는 순이가 죽자 “왈각 시체를 끌어안고” 그 “주검에 키스를 보내는”³¹ ‘동주’의 행위와 같은 엽기적이면서도 억지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진다. 소설적 형상화에 있어 리얼리티가 아무리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³² 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의 구체적인 장소성나 당대 삶의 뒤틀림으로부터 떨어진 위악적 포즈와 작위성 자체를 수동적 재현에서 벗어난 리얼리티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1950년대의 현실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은 이데올로기와 윤리와 같은 거대이념이 지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물어뜯고 밀어냄으로써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하는 보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음을 작가 최일남은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5. ‘종삼’과 ‘르네상스’라는 구원의 방식

전후라는 황폐한 삶을 전제로 저마다 절박한 생존의 이전투구를 지속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은 관능과 퇴폐를 근간으로 하는 데카당스라는 문화적 저류와 자웅동체의 관계에 놓인다. 「서울의 초상」에서 “옛그제 전쟁 마당을 지나온 젊은이들은 유난히 그쪽을 파고들었다.”(292)는 화자의 진술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전후의 상황에서 성(性)이 “가장 확실한 위안이자 삶의 확인”(292)이었기 때문이라는 심리적 근거를 통해 합리화된다. 이때 종삼(鍾三)

31 손창섭, 「생활적」, 『잉여인간 外』 - 한국소설문학대계 30, 동아출판사, 1995, 85쪽.

32 정여울, 「소설의 리얼리티vs현실의 리얼리티」, 『자음과모음』, 자음과모음, 2011 여름, 436쪽.

이라는 사창가는 전후 권력의 방조와 묵인 하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의 집결지”³³로서 일종의 남성 욕망의 “배설의 공간, 망각의 공간”³⁴이자 “사내다움”과 “낭만성”으로 포장되어³⁵ 온 장소다.

한편, 전후파 여성 즉 아프레 걸(apres-girl)로 지칭되는 당시의 여성의 풍속도도 이러한 현실과 맞물린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프레 걸은 “직업 전선에 뛰어들든 미망인,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 고등교육을 받은 (리버럴한) 여성”³⁶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퇴폐해진 사회 속에서 등장한 신종의 여성”³⁷으로 받아들여졌다. 문학적으로도 이러한 전후의 데카당한 성풍속도를 드러내는 여성 캐릭터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가령, 김승옥은 「생명연습」을 통해 “상부(喪夫)한 후로 피란지에서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이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살해할 궁리를 하는 형, 그런 형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나’와 ‘누나’”³⁸를 통해 전후의 반륜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서기원은 「암사지도」에서 전쟁터에서 맺어진 남성 연대인 ‘형남’과 ‘상덕’의 아프레 걸 ‘윤주’를 대상으로 한 성적 공유라는 엽기적이자 그로테스크한 상황을 통해 전후의 암담한 현실을 형성화한 바 있다.

「서울의 초상」에서 초점화자인 성수는 자신의 친구인 “기철이와 필구가

33 종로의 유곽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1950년대 전쟁기반의 붕괴로 밀매음이 급속히 증가”했고 “공식적으로는 공창제폐지령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했으나 예규를 통해 성매매로 인한 성병 확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조치를 제도화”(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관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66~76쪽.)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에는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위안부’가 재등장”하는가 하면, “미군 주둔이 장기화하면서 ‘기지촌’의 필요가 생겨났다.”(위의 책, 146~149쪽.)

34 전종한,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6), 대한지리학회, 2009, 791쪽.

35 이희영, 「은유로서의 ‘종3(鐘三)」, 이동하는 ‘박카스아줌마’ - 서울 종로 3가 성매매 공간의 정치학, 『젠더와 문화』 13(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0, 20쪽.

36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서해문집, 2004, 207쪽. (괄호—인용자)

37 백철, 「해방 후의 문학작품에 보이는 여인상, 『여원』, 학원사, 1957.8, 156쪽.

38 김정남, 『현대소설의 이해』, 경진출판, 2020, 84쪽.

종삼과 르네상스 얘기를 꺼낸 것은 좀 과장하면 구원”(291)이었다고 말한다. 종삼에 첫발을 들인 이들은 우선 흥정부터 해야 한다는 풍월을 떠올리며 서울 토박이로 굴러먹어서 이런 방면에는 달통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선 사창가에선 모든 행동이 얼어붙고 만다. 살벌한 전쟁을 지켜본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간의 무서움까지 느끼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종삼에서의 매음은 모두 “서울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의 하나”(295)이자 “서울에 길들여지는 한 방법”(296)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 행위는 정당화된다. 이는 서사적으로는 서울이라는 공간에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순치시키기 위한 통과의례일 뿐, 성수와 기철과 필구로 상징되는 “종삼동서들”의 남성 연대(male bonding)³⁹의 행위는 서술의 시점에서도 반성적으로 사유되지는 않는다. 그저 필구의 말과 같이 “나는 허망하고 괜히 눈물이 나올라고 하더라!”(297)와 같은 낭만성을 동반한 청년의 치기로 간주되고, 더 나아가 냉혹한 서울 살이를 위한 단련의 과정 혹은 경험치로 환원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수는 여자에게 끌려가면서도 이를 통해 “조금씩 닳아지고 무디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이악스러운 꼴로 변모될 것으로”(296) 믿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이 주는 냄새나 꼬드김이라면 무엇이든지 말고 핥고 싶은 그”(296)였다는 서술자의 침입적 논평에 의해 뒷받침된다.

서울에서의 첫 매음을 경험한 이들은 일주일 후 ‘르네상스’⁴⁰라는 클래식

³⁹ 이희영, 앞의 책, 20쪽.

⁴⁰ 르네상스는 실존했던 클래식 음악다방으로,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박용찬(호남 갑부의 아들로, 일제강점기 일본 명치대 유학시절부터 음반을 수집)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던 음반과 관련 기기를 가져와 대구 중구 향촌동에서 1951년 문을 열었다. 이후 1954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6년간 문을 열었고 그 후 1960년 12월 서울 종로1가 영안빌딩 4층에 자리 잡은 이후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곳은 곧 음악학도들과 문화예술인,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의 음악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며 명소가 되었다. 문인 김동리·전봉건·신동엽, 음악가 나운영·김만복, 화가 김환기·변종하 등이 유명 단골손님이었다. 이후 1987년 문을 닫게 되고 1만3천여 종에 달하는 음반과 오디오 기기 등을 문예진흥원에 기증했다. 김봉규, 「박용찬, 세간 다 버리고 음반 한 트럭만 싣고 피란

음악다방으로 진출한다. 종삼이 이들에게 본능적이고 말초적인 위안을 선사한 형이하학의 최저낙원이었다면, 르네상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데카당한 관념으로 장식되어 있는 형이상학의 별천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공적 여가공간 중 다방”⁴¹은 “1950년대 소설에서 매우 두드러졌고 등장 빈도도 높았”⁴²는데 이에 따라 그 공간의 의미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 공간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전쟁 당시 서울에 남아 있던 자들의 외로움과 공포를 달래주는 공간이거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주거공간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과 아늑함을 주는 공간”⁴³으로 기능한다.

「서울의 초상」에서 르네상스를 가는 데 앞장선 필구는 그 다방이라는 공간을 데카당들이 모이는 곳으로 뭇 좀 안다는 치들이 있는 곳이니 촌놈 티를 내지 말 것이며, 특히 K여고 출신들이 많이 모인다고 경고를 날린다. 이어 회상의 시점에서 화자는 고향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서울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부터는 늘 촌놈 냄새를 의식해야 했고 “하루 빨리 자기를 서울의 살갓에 갖다 붙이고 더불어 휩싸이고자”(297) 애썼다고 서술한다. 이 촌놈의 아비투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내장된 성향체계로서 육체에 새겨지고 육체적 핵시스(Hexis)의 한 차원을 구성한다. 이것은 귀로(Pierre Guiraud)가 말하는 ‘조음 스타일(임모양)’의 한 측면과 상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⁴⁴ 부르디외는 이러한 육체적 핵시스를 계급적 성향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몸에 새겨진 일종의 촌놈의 계급성이다. 결국「서울의 초상」에서 이 세 명의 촌놈들은 르네상스라는 서울의 고급스러운 문화

와 개업 ... 향촌동 음악다방 ‘르네상스’, 『영남일보』, 영남일보사, 2020.7.16.

41 이은숙·정희선·김희순, 「도시소설 속에 나타난 도시민의 여가공간 변화」- 1950년 이후 수도권 배경의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한국도시지리학회, 2008, 146쪽.

42 위의 글, 146쪽.

43 위의 글, 146쪽.

44 피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64쪽.

공간의 문턱에서 또 한 번의 진입장벽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의 첫 느낌은 이들에게 “조금은 느적지근하고 사람의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고급스런 냄새”(298)로 다가온다. 이 공간의 반대편에는 “막걸리 냄새”나 “도나캐나 쇠똥말똥 났은 흙발”(298)이 상징하는 일상인의 삶의 범주가 자리한다. 이 지극히 가라앉은 치장으로 휩싸여 있는 르네상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고개를 모로 꼬거나 눈을 지그시 감음으로써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이 공간에 첫 발을 들인 그들에게 이상한 감동의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그 공간이 전쟁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목도한 그들이 겪어온 세상과 정반대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성수는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엇갈림을 감지하며 얼마 전에 겪은 ‘종삼’과 ‘르네상스’의 거리가 한 없이 멀리도 턱없이 가까운 것으로도 느껴진다. 이렇게 ‘종삼’과 ‘르네상스’라는 서울의 두 얼굴 —“무르고 따뜻한 살덩이를 사는 일”(292)이라는 본능적 세계와 클래식 음악에 파묻혀 있어 “어쩐지 안온하고 구원받은 것 같은”(300) 고답적 세계 —은 현실도피나 현실망각의 지점에서 결국 동일한 소실점에 모인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라는 공간에서 얻게 되는 위안은 모든 것이 전쟁으로 파괴된 상황과 상반되는 “도착된 여유”이고 그 공간은 죽음과 삶의 벼랑을 해매다가 찾아든 “또 하나의 피난처”(300)인 것이다.

이렇게 들뜨지 않고 아픔이나 상처 따위를 조용히 삭이고 있는 것 같은 가라앉은 분위기와 사람들의 조금은 위악(偽惡)스럽게 타락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모습에 매료당한 성수는 다시 르네상스를 찾는다. 그는 거기서 첫날 만난 럭키스트라이크라는 담배를 피우던 새파란 여자와 다시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조우는 서울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떤 풍물이나 거리, 그리고 막연한 인심보다는 구체적으로 사람과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몇 마디 말이 오가기도 전에 그녀는 성수에게 대뜸 시골에서 올라

왔느냐고 먼저 묻게 되고 그녀와의 인연은 서두부터 헛된 망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어 성수가 여러 번 르네상스를 찾아갔지만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슈팽글러의 『서양의 몰락』⁴⁵을 읽던 이지적인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성수는 “모처럼 손에 쥔 살아 있는 서울”(303)을 놓친 기분에 휩싸이며 전쟁 중에 있었을 지도 모를 그녀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상상하고 그 픽션 속에 그녀의 이미지를 봉인하고 만다. 이렇게 전후 서울의 극적인 두 장면, 형이하학적 체험기로서의 종삼과 형이상학적인 경험기로서의 르네상스로 상징되는 서울 입성을 위한 통과의례는 막을 내리게 된다.

6. 결론: 서울에 남는 일과 실향 의식

「서울의 초상」의 말미에서 같이 자취를 하고 있던 기철과 필구가 성수에게 이제 그만 나가주었으면 하는 눈치가 보이면서, 잠시 유지되었던 청년들의 연대는 끊어지고 만다. 그럴수록 성수는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강고한 의지를 다지며, 가정교사를 시작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 교정원으로 취직하기까지 서울에서의 요행과 불행을 무수하게 경험한다. 그는 종삼과 르네상스를 만난 것처럼 서울의 이곳저곳을 섭렵하고 바람처럼 사라져간 르네상스에서 만난 여대생과 비슷한 여자들도 여러 번 조우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렇게 갈망하던 “서울에 남는 일”(305)에 성공한다. 여기서 회상의 시점에서 기술되던 작중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지만 이 작품의

⁴⁵ 르네상스에서 여자가 읽고 있었던 『서양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슈팽글러는 역사를 단선적으로 사유하는 데서 벗어나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발생, 성장, 쇠퇴, 사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본다. 그는 20세기 서구의 문명이 제국주의와 러시아 혁명, 세계대전을 정점으로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파악했다. 이념적 냉전구도와 강대국의 대리전의 양상을 띠었던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파국의 상황 역시 슈팽글러가 말하는 서구 근대문명의 파행적 말로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

대미를 장식하는 아웃트로에 해당하는 에필로그 서사는 성수가 영원히 서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최종적인 방점을 찍는다.

성수는 요즘에 와서야 비로소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렸던 서울이 자신의 생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찰한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그 일의 시비(是非)에 대한 결론은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집안에서 혼자만 쑥 죽을 찾아먹는 그에게 아들이 “아버지는 그런 풀을 어떻게 잡수세요. 아버지는 촌사람이야.”(305)라고 말한다든지, 술만 마시면 ‘타향살이’를 흥얼거리는 자신에게 부인이 “당신은 갈데없는 실향민이로군요.”(305)라고 하는 것과 같이, 조소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서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님에 회의를 느낀다. 몸에 새겨진 촌놈의 육체적 핵시스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언제나 근원적인 잠재태로 항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고향에 대한 미안함”(305)을 동시에 떠올리는데 서울에 정착한 수많은 촌놈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고향에 대해 지니는 미안함이란 서울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향이라는 자신의 존재론적인 근본을 철저하게 탈색하려 했던 지난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이는 우리 문학사에서 무수하게 씌어졌던 상경(上京) 소재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성적 사유이다. 가령,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이 종내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실제로 어두웠던 과거를 통과하고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자 무진을 잊고 살았던 편이었다고 말한다. 이때 고향을 잊는다는 것은 “‘돈’과 ‘빚’으로 표상되는 도시적 삶에로의 편입 내지 동화를 의미”⁴⁶한다. 아내 덕에 대회사계약회사 전무 자리를 보장받은 그는 “도시에서의 성공을 떼떈하게 느끼지 못하고 수치로 인한 도피”⁴⁷로서 ‘무진’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⁴⁶ 김정남, 위의 책, 46쪽.

⁴⁷ 위의 책, 46쪽.

인물들을 만나서 안개 속의 유영을 계속하지만 결국 “급상경 바람”이라는 아내가 보낸 ‘전보’라는 서울에의 인력(引力)에 이끌려 다시 세속의 공간을 향하는 과정에서 결국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최일남의 「서울의 초상」은 1950년대 전후문학에서 발견되는 이념적 경직성이나 위악적인 비극의 포즈에서 벗어나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모습을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상경인의 렌즈를 통해 경험적·상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지금-여기 서울공화국이라 칭해지는 서울의 상징폭력을 전쟁 직후 서울에 상경한 젊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그려냄으로써 수부 중심 이데올로기의 파행의 원적지를 탐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촌놈의 아비투스⁴⁸와 열등의식으로 나타났으며, 전쟁 직후 살아남음의 의미가 유일무이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던 시기, 청년들의 연대와 상징적 경험을 통해 종삼과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당대 서울의 도피와 망각의 문화적 풍속도를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그토록 탈색하려 했던 촌놈의 아비투스는 서울에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촌사람의 지표로 남겨지고, 결국 실향민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아이러니와 이를 통해 감득되는 고향에의 미안함은, 수부 중심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한 지난날에 대한 반성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끄러움이라는 반성적 의식은 토착주의(indigenism)의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로컬리티(locality)의 관점과도 연관된다. 즉 로컬리티가 구성하려는 메타 역사는 “국가의 거대 기억, 공식기억에서 배제되거나 묻혀진 ‘소사회’의 기억을 통해 국가경계 단위로 서술된 국민의 역사가 아닌 다원화된 ‘소사회’ 질서 속의 인간의 역사를 읽어내”⁴⁸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이라는 수부의 역사가 곧 한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된 거대 역사를 대표하

⁴⁸ 오미일, 「로컬리티 연구의 쟁점 메타 역사의 재구성, 로컬 히스토리 쓰기」, 『로컬리티의 인문학』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7쪽.

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한계였다면, 이는 지역과 소사회의 역사 더 나아가 개인사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집권체제가 가져온 ‘레드오션’ 체제가 모든 한국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⁴⁹은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는 식의 ‘경로 의존(path dependency)’ 때문이며 곧 이것이 지방을 서울의 내부 식민지로 만든 의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⁴⁹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2008, 347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최일남, 『꿈길과 말길』-한국소설문학대계 41, 동아출판사, 1996.

2. 단행본

-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2008.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권영민,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김윤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정남, 『현대소설의 이해』, 경진출판, 2020.
서기원, 『암사지도』, 민음사, 1995.
손창섭, 『잉여인간 外』-한국소설문학대계 30, 동아출판사, 1995
신경숙, 『외판방』, 문학동네, 1999.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Bourdieu, Pierre,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Leech, Geoffrey N. Short, Michael H., *Style in Fiction*, Longmangroup limited, 1981.

3. 논문 · 평론 및 기사

- 강유진, 「손창섭, 경계 위의 생애와 그의 소설」, 『작가세계』, 작가세계, 2015. 겨울, 18~29쪽.
김봉규, 「박용찬, 세간 다 버리고 음반 한 트럭만 싣고 피란 와 개업 ... 향촌동 음악다방 '르네상스」, 『영남일보』, 영남일보사, 2020. 7. 16.
김윤식, 「60년대 문학의 특징」,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5. 1.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박필현, 「아비 잃은 자의 아비 되기, 『포르트 다(fort-da)』의 윤리」- 서기원 초기 소설 속 청년들의 연대와 불안정한 욕망 회로,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75~102쪽.
백 철, 「해방 후의 문학작품에 보이는 여인상」, 『여원』, 학원사, 1957. 8.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사람의문학』, 도서출판 사람, 2018. 가을, 217~230쪽.
오미일, 「로컬리티 연구의 쟁점 메타 역사의 재구성, 로컬 히스토리 쓰기」, 『로컬리티의 인문학』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6~7쪽.
이다은, 「전후 손창섭 문학의 애도와 멜랑콜리」,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457~495쪽.

- 이은숙·정희선·김희순, 「도시소설 속에 나타난 도시민의 여가공간 변화」- 1950년 이후 수도권 배경의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한국도시지리학회, 2008, 139~154쪽.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서해문집, 2004, 107~148쪽.
- 이희영, 「은유로서의 '종3(鐘三)', 이동하는 '박카스아줌마」- 서울 종로 3가 성매매 공간의 정치학」, 『젠더와 문화』 13(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0, 7~43쪽.
- 전종한,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6), 대한지리학회, 2009, 79~796쪽.
- 정여울, 「소설의 리얼리티vs현실의 리얼리티」, 『자음과모음』, 자음과모음, 2011. 여름, 423~437쪽.
- 정영화, 「1950년대 소설 연구」- 선우휘와 손창섭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0, 중앙어문학회, 2002, 347~371쪽.
- 정일준, 「왜 부르디외인가?」- 문제는 '상징권력'이다,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6~42쪽.
- 조애리, 「상징폭력과 의식고양」- 『작은 변화들』, 『신영어영문학』 33집, 신영어영문학회, 2006, 153~168쪽.
-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학회, 2018, 407~447쪽.

Pierre Bourdieu's Symbolic Power and the Sense of Alienation of a Person who Coming up to the Seoul in the 1950s

Reading Choi Il-nam's novel 「Portrait of Seoul」 as a sign of postwar Seoul

Kim, Jeong-nam | Catholic Kwandong Univ.

Choi Il-nam's novel 「Portrait of Seoul」 specifically depicts the scene of Seoul after the Korean War based on the experiences of a person who coming up to the Seoul in terms of *quotidieneté*. Writer Choi Il-nam focused on the satire of the social conditions to reflect on the falsehood of *petit bourgeois* lives, which appeared to be tracking “successful country man who endured life in Seoul tenaciously, saving money and trying to exaggerate his social position.” As such, the 「portrait of Seoul」 corresponds to the cause of the false consciousness of a successful country man and that prehistory.

「Portrait of Seoul」 is an empirically and figurative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situation of the time through the lens of a person who coming up to the Seoul, recalls the youth of Seoul right after the Korean War, breaking away from the pose of ideological rigidity or pernicious pose in postwar literature in the 1950s. To this end, this paper is based on Pierre Bourdieu's theory of ‘symbolic power and cultural reproduction’, symbolic power of the Seoul and a person who coming up to the Seoul encountered and the problem of *habitus* in the way of assimilation were examined in the social · cultural everyday life of Seoul based on the situationality of *apres guerre*.

In this sense, this work explored the original site of the collapse of the Seoul-centrism by portraying Seoul's symbolic power, now called the ‘Seoul Republic’, and the gaze of a young college student who came to Seoul shortly after the war. This was specifically shown as *habitus* of country man and inferiority complex, and shaped that through symbolic experiences based on the youth bonding(male bonding) during the period when the meaning of survival right after the war was accepted as only value, the cultural situation of escape and oblivion of Seoul, represented by Jongno 3-ga, coffee shop Renaissance.

But the irony that *habitus* of country man, who has tried to bleach so much, is left as

an indicator of a country man despite his survival in Seoul, and the sense of sorry for his hometown, which is eventually placed in the position of displaced people, serves as a reflection on the past days when he tried to blindly accept Seoul-centrism.

If the history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has so far been the limit of our history to represent the great history associated with a nation's identity, it needs to be reconstructed further into the history of the region and small society and within individual history from point of view of locality. In addition, The reality that the red ocean system brought about by Seoul-centrism is turning Koreans' lives toward disparity and polarization because of its 'path dependency' which means that all roads lead to Seoul, which is the core of the consciousness that has turned the provinces into an internal colony of Seoul.

Key words : Symbolic power, A person who coming up to the Seoul, Quotidienneté, Male bonding, Jongno 3-ga, Coffee shop Renaissance, Seoul-centrism, Locality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

한국영화사에서 개신교 표상과 국책 장르의 친연성 연구*

박유희**

1. 국책 장르와 기독교
2. 개신교 재현 영화의 유형과 추이
3. 개신교의 계몽적 소명의식과 근대화 프로젝트의 투합(投合)
4. 반공과 개신교, 전일적(全一的) 이분법과 전향의 내러티브
5. '聖[초월]'과 '俗[현실]' 사이 문예영화의 입계
6.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남한 정부에서 지원했던 국책 영화와 개신교의 재현이 각별한 친연성이 있다고 보고 그 양상을 살펴 맥락과 내적 논리를 구명하는 것이다.

1957년부터 국산 우수영화에 대한 보상 특혜 차원에서 외화수입권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우수영화보상은 한국영화 제작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우수영화 보상으로 인한 이권이 주로 반공, 계몽, 문예 부문에 부여되면서, 1960년대 이후 세 부문은 국가가 장려하는 국책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 3대 국책 장르의 생명력은 제작업과 수입업의 연계가 폐지되는 1984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영화들에서 개신교는 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5407).

** 고려대학교.

현 빈도가 가장 높은 종교로서, 계몽의 상징이자 반공주의의 거점이었고, 초월적 예술관의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영화의 자질을 담보했다.

그러다 국책 영화 장르가 쇠락하는 1980년대 초반에 가면 개신교를 재현하는 영화의 패러다임 또한 바뀐다. 1970년대를 지나며 교세가 크게 확장된 개신교를 비판하는 사회물이 새로운 영화 세대에 의해 제작되는 가운데, 개신교 조직의 후원을 받는 복음영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국책영화와의 친연성을 형성했던 반공과 계몽의 논리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영화에서는 고난과 갱생의 논리로 활용된다. 국책영화와의 유착은 깨졌지만 그 논리는 그대로 내부화된 것이다. 국책 영화와 개신교의 이와 같이 남다른 친연성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개신교가 국책 영화의 이념적 거점이자 세계관의 틀로 작용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케 한다.

본고에서는 3대 국책영화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1960년대-1980년대 초, 개신교의 세계관과 종교적 고민이 영화의 핵심 갈등을 구성하는 극영화를 대상으로, 국책 장르에서 개신교가 재현되는 양상과 역할에 주목하여, 반공, 계몽, 문예와 개신교 간의 친연적 관계를 구성하는 동궐의 논리와 접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제어: 개신교, 표상/재현, 국책영화, 친연성, 반공영화, 계몽영화, 문예영화, 세속화, 멜로드라마

1. 국책 장르와 기독교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남한 정부에서 지원했던 국책 영화와 개신교의 재현이 각별한 친연성이 있다고 보고 그 양상을 살펴 맥락과 내적 논리를 구명하는 것이다.

1957년부터 시작된 ‘우수영화 보상’ 정책은 ‘국산영화 제작 장려 및 영화 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 차원에서 외화수입권을 특혜로 부여한 것이었다.¹ 이 정책은 1984년 영화법 제5차 개정으로 제작이 자유화되고 제작업과 수입업의 연계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면서 한국영화제작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² 그런데 보상특혜의 대상이 되는 우수영화의 기준은 모호하여 선정기준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자주 불거지곤 했다. 우수영화는 대개 국내 영화상 수상실적과 해외영화제 출품 여부로 평가되었는데, 해당 영화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권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시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외중에 우수영화 보상 부문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국책 장르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장르가 반공영화였고, 이외에 계몽과 문예 영화가 있었다. 부문 명칭이 반공에서 ‘안보’로, 계몽은 ‘새마을’로 바뀌기도 하고, 문예는 1965년부터 포함되고 1969년에 잠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지만, 세 개 부문은 최소 20년 이상 한국영화 장르 지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했다. 세 개 부문이 반공영화이면서 문예영화이기도 한 식으로 서로 겹치기도 하고, 영화산업의 자발적 전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장르들, 예컨대 멜로드라마, 역사극, 액션, 추리물 등과 겹치고 혼용

1 한국전쟁 이후 재건과 국민통합이 사회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영화정책 역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면세조치’나 ‘우수영화 보상’과 같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우수영화보상 정책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우석, 「광복에서 1960년까지의 영화정책(1945~1960)」, 『한국영화정책사』, 도서출판나남, 2005, 167~169쪽.

2 제5차 개정영화법의 개요에 대해서는 조준형, 「한국영화산업과 정책: 1980~1997」, 한국영상자료원 편, 『한국영화사공부 1980~1997』, 이채, 2005, 150~153쪽.

되고 절합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권을 보장하는 종(種)으로서 막강한 위상을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문 아래 우수영화로 호명되었던 영화에서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나는 요소 중 하나가 기독교에 관련된 표상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병인박해를 다룬 <지성탑>(1948)이 교육용 영화로 제작되어³ 1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이후 <구원의 정화>(1956)부터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작으로 제작된 <소명>(1984)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박해를 다룬 ‘순교영화’는 줄곧 우수영화로 선정되었다. 유관순, 안중근과 같은 항일 열사들의 전기 영화에서는 기독교도로서의 소명이 강조되며 그들의 죽음이 애국을 넘어 순교의 의미를 띠었다.⁴ 이 영화들은 정부뿐 아니라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기도 했고 우수 계몽영화로 관람이 권장되었다. 또한 <순교자>(1965)부터 <장군의 수염>(1968), <사람의 아들>(1981), <낮은 데로 임하소서>(1982)와 같이 기독교의 신을 상정한 상태에서 인간 실존의 문제를 묻는 내용의 영화들은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주요 영화상들을 수상했다.⁵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일반 장르영화들에서도 기독교의 이미지는 자주 나타났다. <열애>(1955)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1961)에서의 예배와 기도, <상록수>(1961)나 <귀로>(1967)에 나오는 교회와 종탑은 대표적인 예다. 이 영화들은 대부분 문예영화나 우수영화로 호평 받았다. 이 영화들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지고지순한 사랑, 계몽과 윤리, 정결이나 세련 등을 내포하

³ 「少年宗教映畫化」, 『조선일보』, 1948.7.14.

⁴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화는 4회(1948, 1959, 1966, 1974),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는 3회(1946, 1959, 1974) 제작되었다.

⁵ <순교자>는 제5회 대중상영화제(1966) 감독상을 수상했고 우수영화로 선정되어 제26회 베니스영화제와 제9회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장군의 수염>은 제7회 대중상영화제 각본상을 비롯해 제5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시카고영화제, 시드니영화제, 멜버른영화제에도 출품되었다. <사람의 아들>은 제19회 대중상영화제 최우수작품상과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제21회 대중상영화제에서 문예부문 작품상과 감독상을, 제18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도덕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고상해야 하는 장면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클리셰가 되기도 했다. 요컨대 한국영화사에서 기독교 관련 표상은 상당 기간 동안 영화의 수준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불교 영화가 ‘문예’에 기대어서야 작품성이 인정되고 무속을 야만이나 미신으로 그리지 않는 영화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제작된 것과 비교해 보면 보다 확연해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난 것이며 그 함의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1980년대 초까지 기독교가 반공, 계몽, 문예로 구성된 국책 장르에서 재현되며 우수영화의 자질을 담보했다면, 그리고 줄곧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친연성을 넘어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기독교가 국책영화의 이념과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기독교가 국책영화의 이념적 거점 내지 세계관의 틀로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한국영화에 나타난 기독교 표상의 양상과 추이를 살피면서 그것이 한국영화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이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전반기까지 기독교의 세계관과 고민이 영화의 주제나 핵심 갈등을 구성하는 극영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기독교 영화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교회 조직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제작과 유통에 관여하는 영화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상업영화로는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 전반기까지 활발하게 제작되며 이 시기는 국책장르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화들이 본고의 주된 관심이 될 터인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 영화에 주목할 것이다. 천주교 영화가 성인전기(Hagiography)⁶나 순교를 재현하는 스펙터클한 시대극의 양상을 띠면서 일

6 파멜라 그레이스에 의하면 성인전기는 기독교 영화의 핵심적인 특성을 보여주는데, 소망의 성취와

반적으로 알려진 기독교영화(Christianity film)에 해당하는 특성⁷을 보이는 것에 비해, 개신교 영화는 남한의 특수성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면서 특이한 양상을 띤다. 반공, 계몽, 문예 장르와의 친연성 역시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개신교 영화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또한 양적인 면에서도 개신교 영화의 편수가 제일 많아서 한국 종교영화에서 주류를 이룬다. 종교학계에서 내놓은 2015년까지의 한국 종교영화 편수 통계를 보면 전체 184편 중 개신교 영화가 61편으로 약 ⅓을 차지한다. 1990년대까지는 전체가 132편인데 개신교 영화가 35편, 천주교영화는 16편이다.⁸ KMDB에서 ‘종교’로 검색하면 97편이 뜨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영화가 36편이다. 종교 영화, 그리고 개신교 영화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교를 다룬 한국영화 중에서 개신교를 다룬 것이 ⅓ 정도라고 봐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국영화를 개신교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 논의는 종교학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룬다. 종교학 관점에서의 논의는 기독교 복음이나 교육의 차원에서 영화에 나타난 기독교의 세계관이나 윤리에 집중하는 것과 종교의 역사에 대한 학술적 탐구로 다시 갈린다. 후자에서 종교영화를 목록화하고 전기로 다루어진 실존인물에 대해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한 작업은 한국영화사 연구에도 기초를 마련해주고 있다.⁹

기적의 시간, 고난과 희생으로 구성된다.-Pamela Grace, *The Religious Film: Christianity and the Hagiopic*,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9, pp.2~12.

7 이러한 영화는 종교영화(Religious film)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할리우드에서는 이를 ‘대하서사(Epic)’장르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벤허>나 <십계> 등이 있다.

8 박종수, 「한국 종교영화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한국예술연구』 13호, 한국예술연구소, 2016, 206쪽.

9 종교학자 신광철은 2000년대 초에 한국의 종교영화를 무속영화, 불교영화, 가톨릭영화, 개신교영화, 신종교영화로 나누고 목록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기독교 영화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종교학연구』 19호, 2000, 83~96쪽), 「한국 종교영화의 현황과 전망」(『한국종교』 28호,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4, 121~153쪽)가 있고, 이외에 <상록수>, <을화>, <불의 딸>, <과부춤> 등에 대한 각론이 있다. 이 연구사는 박종수, 앞의 글, 216~217

한편 영화 연구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작품론 위주의 비평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으로 나뉜다. 전자로는 2000년대 영화를 대상으로 한국영화에 나타난 기독교 표상을 분석하는 논의가 가장 많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사마리아>(2004), <친절한 금자씨>(2005), <밀양>(2007) 같은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미학 차원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작용하는 양상에 주목한다.¹⁰ 후자로는 유현목 감독의 영화들(<순교자>(1965), <사람의 아들>(1981) 등)이나, 무속과 기독교의 충돌을 다룬 영화들(<무녀도>(1972), <올화>(1979), <불의 딸>(1983) 등)을 중심으로 기독교 재현 양상에 대한 고찰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기독교 영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1980년대 활발하게 제작된 기독교 영화들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시대정신과 기독교 영화 내러티브의 상동성을 주장한 노지승의 논문¹¹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영화사 연구의 맥락에서 1960년대~1980년대 초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영화 중 개신교의 교리와 세계관이 영화의 주제나 핵심 갈등을 구성하는 영화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개신교 영화에 접근하는 관점은 종교학에서 바라보는 ‘종교영화’¹²와는 다르다는 것, 본 연구는

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의 개신교 영화를 정리한 논문으로는 김성희, 「한국 개신교 영화의 흐름 및 특징 연구: 연대기적 고찰(1948년~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 윤성은, 「한국 기독교 영화의 미학적 과제: 영화 미학과 기독교 미학의 만남을 위하여」, 『장신논단』 43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11 등이 있다.

¹⁰ 이러한 연구로는 조미영, 「한국영화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 양상 연구: 영화 <친절한 금자씨>와 <밀양>을 중심으로」, 『문학과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1; 최민식, 「기독교 철학과 영상: 여성의 모성신화와 성애화-영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11호, 한국기독교철학회, 2010 등이 있다.

¹¹ 노지승, 「1980대 초 한국영화와 기독교: 아버지 - 신(神),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영화 내러티브」, 『어문논총』 6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399~435쪽.

¹² 종교학계의 논의에서는 ‘종교영화’는 종교를 소재로 한 영화로 정의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 기독교 [개신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기독교영화’, 천주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가톨릭영화’,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불교영화’ 등으로 개념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범박하여 그 범주를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종교학계에서도 종교영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 특정한 시각을 전제한 조작적 정의가 불가피하다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박중수, 앞의 글, 199쪽.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재현된 개신교의 표상에 대한 고찰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신교 재현 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¹³ 2장에서는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중에 개신교가 영화의 중심 구조를 이루면서 재현된 영화들을 정리하면서 갈래지어 본다. 이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개신교 재현 영화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한국영화사에서 그 전개 양상을 개괄하기 위한 것이다. 3장부터는 우수영화로 선정되었던 영화들에 나타난 개신교 재현 양상을 분석하면서 반공, 계몽, 문예, 3대 정책장르와 기독교 표상이 맺는 관계를 다각도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계몽, 4장에서는 반공, 5장에서는 문예 영화를 다루게 될 것이다.

2. 개신교 재현 영화의 유형과 추이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개신교 재현 영화의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추이를 고찰한다. 1980년대까지 살피는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독교 영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에 천주교 전래 200주년과 개신교 전래 1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 영화 붐이 일었는데 이를 계기로 기독교 조직이 제작에 직접 나서는 선교영화 시대로 넘어간다.

<표 1>은 개신교가 영화 주제와 내용의 핵심을 차지하며 재현되는 영화들을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정리한 것이다. 장르는 KMDB의 장르 분류를 기초로 정리하였고, ‘현전자료’는 현재 영상자료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내역을 표시한 것으로 ‘프’는 프린트, ‘시’는 시나리오, ‘검’은 검열서류를 말한다.

13 본고에서 ‘재현[representation]’은 대상을 영화 매체로 표현하는 작업과 장치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에는 ‘표상’과 혼용된다.

〈표 1〉 개신교 재현 영화 목록

개봉일	제목	감독 (제작사)	장르	현전자료
1948.01.02	죄 없는 죄인	최인규 (고려영화사)	전기(계몽)	
1948.04.08	유관순	윤봉춘 (제공문화협회)	전기(계몽)	
1955.08.13	열애	홍성기(신영화프로덕션)	문예 멜로	프
1959.05.21	유관순	윤봉춘 (동보영화사)	전기(계몽)	프/시/검
1961.02.15	8.15 전야	안현철 (동보영화)	액션 멜로	시/검
1961.09.20	상록수	신상옥 (신필립)	문예 계몽	프/시/검
1965.06.17	순교자	유현목 (합동영화)	문예 반공	프/시/검
1967.01.01	유관순	윤봉춘 (아성영화주식회사)	전기(계몽)	시/검
1967.03.24	원죄	김기덕 (극동필립)	멜로(일본소설)	시/검
1968.09.06	피해자	김수용 (제일영화)	문예 멜로	프/시
1968.09.14	장군의 수염	이성구 (태창흥업)	문예	프/시/검
1969.05.03	애수의 언덕	김대희 (세기상사)	문예 멜로	프/시/검
1972.05.13	무녀도	최하원 (태창영화)	문예	프/시/검
1974.04.05	유관순	김기덕 (합동영화)	전기(계몽)	프/시/검
1974.07.20	청녀	이만희 (화천공사)	문예	프/시/검
1975.01.17	악마의 제자들	이성구 (태창흥업)	반공	프/시/검
1976.01.26	순교보	임원식 (한일문화)	전기(계몽)	
1977.08.10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임원식 (합동영화)	전기(계몽)	프/시/검
1977.11.09	사랑의 원자탄	강대진 (남아진흥)	전기 반공	프/시/검
1978.11.18	사랑의 뿌리	강대진 (연방영화)	반공 전기(계몽)	프/시/검
1979.06.17	석양의 10번가	강대진 (우진필립)	전기 멜로	프/시
1979.09.28	을화	변장호 (동아수출공사)	문예	프/시
1981.01.01	사람의 아들	유현목 (합동영화)	문예	프/시/검
1981.08.07	어둠의 자식들	이장호 (화천공사)	사회물	프/시/검
1982.10.21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김수형 (화풍흥업)	전기(계몽)	프/시/검
1982.11.20	하늘가는 밝은 길	김성호 (대양필립)	반공	프/시/검
1982.06.26	죽으면 살리라	강대진 (신한문예영화)	전기(계몽)	프/시/검
1982.06.26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장호 (화천공사)	전기 사회물	프/시/검
1982.07.17	고방동네 사람들	배창호 (현진)	사회물	프/시/검
1983.11.05	불의 딸	임권택 (동아흥행)	문예	프/시/검
1984.02.02	과부춤	이장호 (화천공사)	사회물	프/시/검
1984.05.01	상한 갈대	유현목 (신한영화)	멜로(가죽)	프/시
1988.04.08	좁은 길	이중휘 (경인필름)	멜로(가죽)	프/시
1989.07.19	하나님이 보내준 엄마의 편지	임원식 (동명흥업)	멜로(가죽)	프/시

위 목록을 보면 우선 기독교인 전기가 13편인데 이는 계몽 장르에 포함된다. 그리고 문예가 11편, 반공 4편, 사회물 3편 순(順)이다, 반공영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은 반공영화로 굳이 분류할 필요도 없이 해방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개신교 재현 영화에서는 대부분 반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 영화 장르를 살펴보면 문예와 반공영화는 1980년대 전반기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다. 전기(계몽) 영화로 보면 유관순 열사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네 번에 걸쳐 영화화되었고, 순교 목사의 전기 제작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회물은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갈래 별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물은 항일 순교자, 반공 순교자, 고난을 극복한 기독교인의 이야기로 크게 나뉜다. 항일 순교자 전기로는 주기철 목사의 삶을 다룬 <저 높은 곳을 향하여>(1977), 반공 순교자 전기로는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의 원자탄>(1977), 고난을 극복한 기독교인의 이야기로는 최자실 목사의 성공기를 담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1982)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항일 순교자의 전기는 <유관순>이나 <상록수>의 서사구조와, 반공 순교자의 전기는 반공영화의 문법과 겹친다. 고난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비단 기독교 재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웅 서사에 해당하기도 한다.

둘째, 개신교 반공영화에서는 기독교와 공산당의 대립을 전면화하며 공산당을 악마와 같이 재현함으로써 반공의 도식을 철저하게 구현한다. <악마의 제자들>(1975)이 전형적인 영화 중 하나다. 그런데 반공 이념은 한 장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는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재현되므로 전기이지만 반공영화에 해당한다. <순교자>는 문예영화로 분류되고 유현목 감독도 자신이 만든 반공영화

에서 제외하고 있는 영화이나, 북한 공산당의 개신교 탄압으로 인한 순교를 다루고 있으므로 반공이 전제되어 있다.

셋째, 문예영화는 유현목 감독이 연출한 <순교자>(1965)와 <사람의 아들>(1981)을 비롯해 개신교와 무속의 대립을 다룬 <무녀도>(1972), <을화>(1979), <불의 딸>(1983), 그리고 사회물 경향을 띠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1982)와 같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편수도 많고 스펙트럼 역시 넓다. 따라서 문예영화에서 이루어지는 개신교 재현은 하나의 경향이나 일정한 논리로는 포획되지 않는다. 이는 ‘예술성’이라는 지향 아래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서사구조와 표현방식을 취할 수 있었던 문예영화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넷째, 사회물은 사회 참여의 관점에서 개신교의 세계관을 재해석하는 영화들이다. 이러한 영화는 198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엘리트가 갑자기 실명한 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는 목사가 된다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나 빈민촌인 꼬방동네의 이야기 속에 빈민과 함께 하는 목사가 나오는 <꼬방동네 사람들>(1982)이 그러한 영화다.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어둠의 자식들>(1981)이나 <과부춤>(1984) 역시 이 영화들과 동궐을 이룬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책영화는 물론이고 사회물도 거의 제작되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개신교의 교세가 팽창하고 1980년대에 매체 면에서도 비디오가 보편화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신교 재현의 패러다임이 전도영화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때 실화에 바탕을 둔 극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교회 조직 중심으로 상영되고 비디오로 유통된다. 극영화로는 고난 극복이나 갱생 등 계몽적인 주제를 멜로드라마 문법으로 풀어내는 영화들과 교육용 드라마가 주류를 이룬다. 전자로는 <상한 갈대>(1984), <좁은 길>(1988), <천국의 비밀>(1990), <하나님이 보내준 엄마

의 편지>(1989) 등이, 후자로는 <다윗과 골리앗>(1983)과 같은 성서 교육 애니메이션이 있다.

3. 개신교의 계몽적 소명의식과 근대화 프로젝트의 투합(投合)

한국 근대사에서 개신교와 근대 계몽은 뗄 수 없는 순접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 강인철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나 미국 근본주의자들에게서 확인되는 반(反) 근대주의적 태도¹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를 근대성의 상징으로 간주하거나 개신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근대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¹⁵ 장식만은 초기 개신교 신자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개신교는 스스로를 새로움의 화신으로 부각하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재래관습을 제시하여 정체성을 세워나갔다고 말한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재래관습은 새로운 시대[근대]와 어울리지 않는 짓으로 선전되어 철저히 단절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 개신교는 새로운 문명의 담지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⁶ 요컨대 개신교는 선진 서구 문명의 침병으로 들어와 근대 교육과 의료를 주도하며, 근대적 깨우침과 미래를 향한 발전, 엘리트와 부강함을 상징하는 막강한 종교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에 산업선교의 영향과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당시까지의 개신교가 정교분리(政教分離)라는 명분으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한 채 교세의 확장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일어날 때¹⁷까지 이러한 이미지

14 개신교에서는 공산주의권을 이기기 위해 경제적 부강이 필수적이라 여겼으나,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서양의 물질문명 자체를 비판했다.-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2015, 277쪽.

15 강인철, 『한국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 중심, 2007, 61쪽.

16 장식만, 『초기 개신교 신자의 개종(改宗)이 지닌 성격: 1900~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종교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7, 119~124쪽

17 한국영화에서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 이 상황에

는 대부분의 개신교 재현 영화에 반영되었다. 1960-70년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되는 기독교의 이미지나 무속과 함께 등장할 때 기독교가 어떤 함의를 지녔는지를 떠올리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개신교 재현이 국책 계몽영화와 만나는 형식은 주로 전기를 통해서였다. 항일과 반공의 논리로 전유될 수 있는 순교 목사들과 함께, 유관순과 같이 개신교도이면서 일제에 저항한 인물들이 ‘위인’으로 재현될 때 그들의 죽음은 순교에 유비되었다. 한편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갱생하는 경우 그것은 해피엔딩의 영웅담에 비견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붐을 이루었던 갱생과 선교의 성공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영화들에서 주인공들은 기독교도로서 남다른 공동체의식과 높은 윤리 기준을 지닌 인물들이다. 영화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의식은 민족주의와 합일되고, 윤리 기준은 반공, 반일 의식과 투합한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것은 순교인 동시에 순국이 된다.

이에 더하여 계몽 장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근대화를 선전하는 것이다. 근면과 협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것은 해방 이후 지속된 범국가적 목표였다. 1960년대부터 경제근대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목표는 계몽 장르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홍보된다. 이러한 계몽 장르의 전범이 되었던 영화가 <상록수>(1961)였다. 실존인물 최용신¹⁸을 모델로 한 심훈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상록수>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30년대를 배경으로 농촌 계몽에 힘쓰다 요절하는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다. 개봉 다시 이 영화는 “심훈의 이상을 잘 그린”,¹⁹ “원작에 충실한 문예영화”²⁰이자 “격조 높은 드라마”²¹

대해서는 노지승의 앞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¹⁸ 최용신(1909~1935)은 함경남도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YWCA의 일원으로 농촌에 파견되어 계몽에 힘쓰다 요절한 농촌계몽운동가이다.

¹⁹ 『동아일보』, 1961.9.24.

로 호평 받았고 흥행에도 성공한다. 또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이 영화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²² 일련의 사실은 전후 재건과 근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강했던 시기에 이 영화는 대중의 기대가 정권이 내세우는 근대화와 조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1962년 신설된 대중상 영화제에서 주연배우 최은희는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이 영화에는 공로작품상이 수여되었다. 이후 이 영화의 주제와 형식은 <쌀>(1963)로 이어지고,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을 선전하는 국책 계몽영화의 계보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1978년 임권택 감독 연출로 다시 제작되기도 했다.²³ 이 영화의 주인공 채영신(최은희)은 감리교신학교 학생으로 기독교 청년회 농촌사업부에서 활동하면서 농촌에 투신하여 농민 의식의 근대화와 문맹퇴치에 힘쓴다.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은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구원한다는 종교적 소명과 문맹퇴치를 통해 농민을 계몽하고 나아가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자연스럽게 합치되는 접점이 된다.

영화는 산길을 따라 버스가 움직이는 것이 시네마스코프 화면에서 통속으로 패닝되며 시작한다. 이 장면은 2분 이상 이어지고 그 차에서 주인공 채영신(최은희)이 내리고 다시 그녀가 산길을 따라 걷는 것이 1분, 시골마을에 들어서서 교회당에 도착하기까지 걷는 것이 1분 30초에 이른다. 그녀가 얼마나 멀고 외진 곳에 왔는지를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사명감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오프닝이다. 이러한 오프닝은 <유관순>에서 주인공 관순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만세 봉기를 준비하는 것과 겹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서 주기철 목사가 험지인 줄 알면서도 평양

²⁰ 『조선일보』, 1961.9.20.

²¹ 『경향신문』, 1961.9.26.

²² 신상옥, 『난 영화였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78쪽.

²³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상록수>에서는 개신교 이념이 약화되고 민족주의 관점과 멜로드라마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있어서, <표 1> 개신교 재현 영화 목록에서는 이 영화를 제외했다.

산정현교회로 향하는 첫 장면과도 겹친다. <상록수>에서는 교육이라는 목표가 전경화되어 있는 데 비해 <유관순>에서는 민족 봉기가,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서는 종교적 목적이 강조되는 것이 다를 뿐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오프닝의 마지막에 비로소 영신은 마을 언덕에 올라 올망졸망한 초가집들을 내려다보며, “이 곳 청석골도 하나도 신기할 것 없는 자연 속에서 가난과 무지와 억압에 시달린 동족들이 들끓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둠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동혁씨는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독백한다. 이를 계기로 화면은 박동혁(신영균)이 기독교 청년회 ‘학생농촌계몽대 귀환보고대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으로 플래시백된다. 영신과 동혁은 이 회합에서 만나 농촌계몽에 대한 동지(同志)를 확인하게 되는데, 두 인물의 애초 입장은 다소 다르다. 영신은 YWCA 총무로 있는 백현경 선생의 집에 기숙하며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동혁은 백현경 선생이 누리고 있는 서구식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해 “농촌운동자라는 간판을 내건 사람의 말과 생활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영신은 동혁의 뜻에 동의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농촌사업에 투신하나, 농촌사업 역시 교회를 기반으로 해나간다. 영신이 청석골에 도착하여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청석예배당의 송장로이고, 한글강습도 예배당 건물에서 시작한다. 이와 달리 동혁은 낙향하여 청년들을 모아 농우회를 조직하고 농촌개혁에 힘쓰는데 그러면서 일제와 결탁되어 있는 지주와 대립한다. 영신의 교육운동과 동혁의 농지개혁운동은 두 사람이 연인으로 설정됨으로써 잠시 하나의 움직임으로 통합된다.

또한 두 사람의 로맨스 요소는 그들의 희생적 행보에 극적 긴장을 더함으로써 대중의 몰입도를 높이고 계몽적 효과 또한 강화한다. 이 영화는 영신과 동혁이 각각 청석골과 한곡리로 떠나 농촌사업에 투신하다가 동혁은 투옥되고, 영신은 과로로 죽기까지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영신과 동혁

의 대사, 내레이션을의 형태로 발화되는 계몽적 언설은 주제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대사의 양이 매우 많은 편이며 그만큼 계몽성이 전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주된 긴장은 연인이 견우직녀와 같이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동혁과 영신이 서로에 대한 연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농촌운동을 우선시하여 한곡리와 청석골에 따로 살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관객의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유발되는 것이다. 더구나 두 인물은 동지이자 연인으로서 서로를 믿고 사랑하지만, 시종일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태도를 취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층 믿음직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애처롭다. 소명의 실천이 혼사장으로 작용하여 멜로드라마적 긴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정신적 사랑이 견지됨으로써 이 영화는 극적 재미 속에서 계몽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에 더하여 이 영화에서는 음악과 소리를 통해서도 계몽성과 대중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언어를 비롯해 음악, 음향 등 소리에의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도 음악과 음향이 계몽적 언설의 지루함을 상쇄하며 오히려 영화에 극적 긴장을 상승시킨다. 영신이 청석학원(靑石學院)을 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동혁은 종(鐘)을 선물한다. 영신은 종을 침으로써 학생들을 모아 농촌사업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 종은 영신이 죽은 뒤 동혁이 청석학원을 맡게 되면서 그 결심을 알리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또한 영신이 한곡리를 찾았을 때 동혁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애향가(愛鄉歌)를 선물한다.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송백처럼 청청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비바람이 험곳과 물결은 거세도/ 피와 땀을 흘려가며 내 고향 지키세.

이 가사는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의 곡조에 실려 영신이 한곡리에 머

무는 동안 계몽의 의지를 복돋는 감성 기제로 활용된다. 주지하다시피 올드랭사인은 애국가의 멜로디로 차용되었던 것이어서 영신은 이 곡조를 두고 “뜻있는 멜로디”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노래는 영신이 통통배를 타고 한곡리를 떠나는 순간까지 동혁이 이끄는 농우회 청년들에 의해 불리면서 영신이 이루어야 할 대의를 상징하게 된다. 애향가는 청석골에 옮겨져 학교의 벽에 붙여지고 올드랭사인의 곡조는 영신의 임종 순간에도 흘러나온다. 이로써 기독교를 제유하는 청각 장치들은 민족의식과 융합하고, 기독교도로서 영신의 소명과 민족적 사명은 하나가 되며, 영신은 농촌계몽에 투신한 기독교인이자 민족 계몽을 위해 헌신한 애국 영웅으로 의미화된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당시 정권의 기획에도 부합한다. 원작에서는 동혁이 영신의 장례를 치르고는 농민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한곡리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동혁이 영신의 뜻을 이어받아 청석학원을 맡는다. 영신은 죽음을 통해 소명을 다하고, 그러한 희생을 밑거름으로 동혁이 그 소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개신교의 순교담 구조에도, 당시 추진되었던 근대화 프로젝트에도 부합하는 결말이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한곡리에서 지주에 맞서던 농민들의 조직은 와해되고 결국 기독교에 기반을 둔 교육운동만 살아남게 된다. 개신교의 정교분리(政教分離)가 환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더해 <상록수>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쌀>에서 주인공 차용(신영균)이 지주의 딸 정희(최은희)와 결합하며 지주와 연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우연한 결말이라고는 보기 힘들다.²⁴ 요컨대 그만큼 당시 개신교와 정권의 입장은 조응하고 있었으며 <상록수>는 그 지점을 절묘하게 녹여낸 것이었다.

주인공 영신이 죽는다는 사실로 볼 때에 <상록수>는 비극이지만, 다른

²⁴ <상록수>에서 박동혁을 맡은 신영균은 <쌀>에서 주인공 차용 역을 맡고, 채영신 역의 최은희는 아버지와 맞서 차용의 아내가 되는 친일 지주의 딸로 나온다. 그리고 <상록수>에서 친일 지주 강기천 역을 맡은 배우 정민은 <쌀>에서도 지주 역을 맡는다.

주인공 동혁을 통해 그 뜻이 이어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동혁에게 종을 선물 받은 날 영신이 했던 대사-“종은 아침저녁으로 꼭 제가 치겠어요. 그 종소리는 제 가슴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어두운 귀와 깊은 잠을 깨워주며 멀리멀리 퍼질 거예요.”-가 들리는 가운데 동혁은 종을 치고 아이들은 종소리를 듣고 학교로 뛰어간다. 그리고 그 위로 애항가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영화는 죽음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비계(飛階)를 갖춘 멜로드라마이자 계몽영화로 완성된다. 안이숙의 수기 제목을 빌리자면 ‘죽으면 살리라’²⁵인 셈이다.

요컨대 미래의 발전을 향한 진취적인 태도와 ‘밝고 건전한 것’이 요구되었던 계몽 장르는 갱생 서사의 구조와 친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멜로드라마 장르와도 친연적인 것일 수 있었다. 개신교 계몽영화들이 주로 멜로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현세에서의 확실한 성공을 보여주는 ‘밝고 건전한’ 기독교 계몽영화들이 등장한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1982)나 <낮은 데로 임하소서>(1982)와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다. 이 영화들은 개신교가 자본주의의 윤리로 세속화된 시대, 현실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계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문예 장르와 개신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뒤 다시 논하겠다.

4. 반공과 개신교, 전일적(全一的) 이분법과 전향의 내러티브

개신교 재현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인 유현목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²⁵ 안이숙(1908~1997)은 1930년대 신사참배 반대 투쟁 중 박관준 장로와 도일하여 일본 국회에 들어가 유인물을 뿌리며 신사참배 반대를 외치다 체포된 인물이다. 그는 1968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는 그 후편으로 『죽으면 살리라』를 출간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죽으면 살리라>(1982)는 제목의 전기 영화로 제작되었다.

반공영화는 4편이라고 회고한다.²⁶ 그러나 4편 이외에 유현목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화인 <순교자>(1965), <장마>(1979) 등에도 반공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 전제에서 대상화되는 공산주의는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이념이자 광기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전향으로 그것을 떼어내거나 죽음으로써 없애는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공산당은 회개나 구원의 여지가 없는 악마로 환치되며 반공주의와 기독교는 접합한다.²⁷ 이로써 국군과 인민군, 남한과 북한, 기독교와 공산당의 대립은 천사와 악마의 대립으로 비유되면서 공존할 수 없는 구도가 된다. 그리고 이는 ‘항일투사 대(對) 일제’, ‘신사참배 거부 순교자 대(對) 일제’, ‘반공 순교자 대(對) 공산당’으로 유비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분법 구도는 반공영화 뿐만 아니라 계몽 장르에도 편재하게 된다. 이 구도가 잘 드러나는 개신교 반공영화는 <악마의 제자들>(1975)과 <사랑의 원자탄>(1977), <하늘가는 밝은 길>(1982) 등이다. <악마의 제자들>은 1970년대 초반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로 한국전쟁 전 북한을 배경으로 개신교와 공산당의 대립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랑의 원자탄>은 한국전쟁 당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느라 피난까지 앓았다가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손왕원 목사의 이야기다. <하늘가는 밝은 길>은 주기철 목사 아들인 주영진 전도사의 순교를 다룬 영화로 항일 이분법이 어떻게 반공 이분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세 영화의 서사구조는 유사하므로 이 중 가장 이른 영화인 <악마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반공영화의 내러티브를 살펴보겠다.

²⁶ 유현목 감독은 “나는 반공영화를 네 편이나 만들었다. <악몽>(68년)을 필두로 하여 <카인의 후예>(68년)와 <나도 인간이 되련다>(69년), <불꽃>(75년) 등이다.”라고 말했다.-유현목, 『예술가의 삶: 영화 인생』, 혜화당, 1995, 154쪽.

²⁷ 한경직은 공산주의자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룡’으로 표현하기도 했다.(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1947),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1, 149쪽; 윤정란, 앞의 책, 264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사탄론에 근거하면 공산주의자는 절멸해야 할 대상이 되고 공산주의와의 대립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신성한 전쟁’이 된다.

1974년 현재, 정보부의 유수사관(박암)이 김영식 목사(이순재)를 찾아가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기독교연맹 함흥지부 위원장 박춘길(이일웅)이라는 인물이 귀순하였는데, 그는 남한의 기독교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타락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월남했으며, 월남하기 전 김목사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김목사가 그의 정체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 유수사관의 요청이었다. 김목사는 박춘길을 본 순간 “저 사람의 인상은 내가 본 그들의 인상”이라고 하며 해방 후 북한에서 겪었던 일을 회상한다. 김목사의 플래시백으로 제시되는 과거 스토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주 김한영의 아들 김영식은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으며 고목사(양광남)의 딸 정희(박지영)와 약혼한 사이다.
- ② 김영식 집의 하인이었던 박침지의 아들 용훈(박근형)이 보안서장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는 곳간에서 쌀을 훔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낸 지주 김한영에게 복수하고자 하고, 정희도 차지하고 싶어 한다.
- ③ 용훈이 고목사에게 교회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걸 것을 강요하자, 고목사는 우상숭배라며 거부한다.
- ④ 용훈과 정치부원(문오장)은 인민재판을 열어 정희를 인질로 삼아 고목사에게 하나님을 부정할 것을 강요한다.
- ⑤ 고목사와 정희는 교회에서 쫓겨나 산속으로 들어가고 우연히 만난 발벗은 소녀를 구하여 문둥병 할머니를 돌보게 된다.
- ⑥ 감옥에 갇힌 병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용훈에게 잠시 협력했던 영식과 함께 떠났던 신도들이 고목사에게 다시 모여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두 함께 월남하기로 한다.
- ⑦ 남하하는 기독교인들을 공산군은 무차별 학살한다. 그 공산군 속에 박춘길이 있었다.

김복사의 회고는 ‘개신교—지주—인륜—반(反) 우상숭배—박애와 사랑’이 ‘하인—공산당—패륜—우상숭배—탐욕’과 선악으로 대립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이 중에서 선(善)은 남한 개신교의 입장을 반영하며 도덕적 명분이 되는 화소들로 구성된다. ①과 ②에서는 월남한 지주의 윤리적 정당성이, ③에서는 우상숭배로서의 신사참배와 공산당에 대한 저항이, ④에서는 수난으로서의 고문이, ⑤에서는 버림받은 양을 돌보는 박애의 실천이, ⑥과 ⑦에서는 회개와 순교가 나타난다.

우선 월남 지주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의 구성과 감정적 반공²⁸은 반공영화 장르에서는 빠지지 않는 요소다. 실제로 개신교와 반공주의의 유착은 한국전쟁 이후에 강화되었고, 월남 개신교도를 중심으로 반공은 이념을 넘어 종교적 신념으로까지 뿌리내리게 된다.²⁹ 지주계급이 공산당에게 탄압을 받아 월남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 원한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원한이 공산당에게 탄압받은 종교라는 명분과 손잡을 때 막강한 이념이자 신념체계를 형성하며 남한 사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³⁰ 이 정당성 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도덕성의 문제이고 도덕성을 구성하는 것은 전통적 유교윤리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삼강오륜 같은 실천 강령과 함께 기독교의 정신적 사랑이다. 예를 들어 하인의 아들인 용훈이 지체가 달랐던 영식을 능멸하고, 부모 연배에 ‘동무’라 부르는 것은 패륜이다. 또한 용훈은 정희에게 밤마다 ‘네 꿈’을 꾸다고 말하

28 이하나는 1950~60년대 반공주의가 특정 감정을 자아내고 배제하는 감정 규율이었음을 지적한다.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95호, 한국사회사학회, 2012, 201~241쪽.

29 강인철은 “한국전쟁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반공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킨 사건”이라고 말한다. 강인철, 앞의 책, 295쪽.

30 가족을 구하고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은 자발적으로 대공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게 함으로써 골육지정(骨肉之情)이 골육지화(骨肉之禍)로 변했다. 권현익, 「피는 이념보다 진한가?: 한국전쟁의 도덕적 역사」, 한양대학교 국제석학강연,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국제문화대학 520호; 윤정란, 앞의 책, 230쪽에서 재인용.

는데, 이때 정희는 ‘불결하다’고 화를 낸다. 정희의 꿈을 꾀다는 것은 육체적 욕망이고, 육체적 욕망은 곧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희가 영식과는 성가대에서 만나고 서로 존대하면서 지내는 것과 대조되며 ‘불결 vs. 순결’의 의미구조를 이룬다. 이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정희의 몸을 매개로 공산당의 패륜을 최대한으로 폭로하면서 기독교도들의 수난을 극한으로 보여주는 데로 이어진다.

③에서 보이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에 경의를 표하는 것에 저항하는 반공 실천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기독교 계율의 실천이 되면서 정치적 행동을 넘어 종교적 행위로 의미화된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주의적 행동으로 의미화되기도 한다. 남과 북의 역사적 정통성 문제는 경쟁적이고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는데, 관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항일이었다. 그리고 개신교의 대표적인 항일 명분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순교한 인물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 개신교에서 가장 내세우는 순교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옥사한 주기철 목사다.³¹ 그의 죽음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순교인데,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주체가 일제라는 점에서 항일 순교로 의미화되고,³² 이는 다시 민족주의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반공 순교의 시원으로 맥락지어진다. 여기에 명분과 정당성을 더하는 것이 손양원 목사의 순교 이야기다. 그는 주기철 목사와 함께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르고³³ 해방 이후 출옥하여 한센

31 주기철 목사의 생애와 순교에 대해서는 박용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전기』(동화출판문화사, 1977), 민경배, 『주기철: 근대인물한국사 313』(동아일보사, 1992) 참조.

32 개신교에서는 “일본을 반항하다 바친 피로 오산하지 말라. 주목사가 바친 피는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드린 피인 것이다.”라고 하여 주기철 목사의 순교가 종교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고 주기철 목사 순교 20주년 기념예배」(새문안예배당, 1964.4.23.), 박용규, 위의 책, 219쪽.

33 손양원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가 생전에 “나는 북에서 싸울 터이니 제군은 남에서 싸우라”고 말했다고 한다. 손양원, 「생존시 손양원 목사가 은사 주기철 목사 순교 후 부치는 글」, 박용규, 앞의 책, 242~243쪽.

병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런데 여순사건 때 두 아들이 좌우갈등 속에서 좌익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는 본인이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했다.³⁴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항일과 기독교적 실천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물론 죽음을 통해 반공까지 실현한 것이다.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는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와 함께 개신교의 이념적, 역사적 정당성을 보증하는 사표로 계속 회자되었다. 1970년대 후반 기독교 영화 붐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영화화되었던 전기가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의 원자탄>이기도 했다.

④에서와 같은 고문은 반공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다. 이는 기독교도로서의 시험이자 수난으로 종교적 의미를 획득한다. 그런데 이 고문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공산당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이다. 중간지대가 허용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면에서 반공주의와 기독교의 택일신주의³⁵가 접목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같은 항일 순교영화에서는 ‘하나님이나, 천황이나?’로, <하늘가는 밝은 길>과 같은 반공 순교영화에서는 ‘하나님이나, 공산당이나?’로 변용된다. 그리고 <유관순>과 같이 주인공이 항일투사이자 기독교도일 경우에 그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은 민족적 저항이자 의로운 죽음인 동시에 기독교도로서의 수난이자 순교라는 의미를 띠게 된다.

한편 고문이 기독교적 의미를 펼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잔혹하기

34 손양원 목사의 생애와 순교에 대해서는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일대기』(성광문화사, 2009) 참조.

35 기독교의 택일신주의는 세상의 모든 다양성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는 것들의 발현 이면에 그 모든 것을 납득시켜주는 하나의 궁극적 실체가 있다는 일체성(oneness)에 의거하여 하나의 신만을 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에는 복수성(複數性)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신앙은 타종교를 신봉하는 것과는 다른 생명을 건 ‘전향’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바트어만,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허형은 옮김, 갈라파고스, 2019, 156~194쪽 참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버금가는 고통은 기독교도가 감수해야 할 시험으로 전시되며 신성한 것이 된다. 그래서 순교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극단적 고문이다. 이는 가톨릭 재현에서나 개신교 재현에서나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기해박해를 재현한 <초대받은 사람들>(1982)에서는 관리가 천주교도 어머니 앞에 자식들을 데려다놓고 하나님과 자식 중에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처녀에게는 천주를 부정하지 않으면 옷을 벗겨 수감중인 무죄배에게 던지겠노라 협박한다. <유관순>에서는 주인공이 갖은 고문을 받던 끝에 자궁이 파열되어 죽는 것으로 재현되고³⁶,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서는 주인공이 못 박은 송판 위를 걷는 참혹한 장면이 나온다. <악마의 제자들>에서는 이러한 잔혹성이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전시된다. 고목사가 우상숭배를 거부하자 공산당은 인민재판을 열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대중 앞에서 딸의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처녀의 몸을 제물로 삼는 포르노그래피적 설정은 고목사에게 지워진 종교적 시험이 되고, 이것은 공산당의 패륜적 행동을 폭로한다는 반공 명분에 맞닿으며 이중으로 정당화된다.

⑤⑥⑦은 개신교도의 윤리적 우월함과 집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관습적 재현이다. ⑤에서 고목사가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서는 손양원 목사가 떠오르고, 과학적 의료와 근대 교육을 주도했던 개신교의 역할도 환기시킨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한국 개신교의 진보적이고 계몽적인 측면과 연관되는 것이다. ⑥⑦에서 공산당의 위협에 못 이겨 고목사에게 돌을 던졌던 신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모이는 모습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기독교도 간의 신뢰를 확인시켜 준다. 그들을 학살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공산당의 야만성은 극에 달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기독교인의 순교는 집단적인 경험으로 확장된다.

36 1970년대까지 네 번에 걸쳐 제작된 유관순 전기 영화에서 유관순이 죽음에 이르는 사유는 계속 유사하게 재현된다. 이에 대해서는 박윤희, 「순결과 형극: 한국영화에 나타난 유관순 열사의 표상」, KMDB, 한국영상자료원, 2019 (<https://www.kmdb.or.kr/story/237/5052>) 참조.

5. ‘聖[초월]’과 ‘俗[현실]’ 사이 문예영화의 입계

문예영화는 개신교가 핵심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장르다. 편수로는 전기 계몽물이 많으나 <유관순>과 같이 여러 번 제작된 영화들이 있고, 전기물 중에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와 같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신교와 문예영화의 겹침이 큰 이유는 개신교가 영화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문예’라는 이름으로 문학의 예술성을 전유하는 동시에 종교적 초월성을 역시 예술성으로 전유함으로써 ‘영화예술’이 되고자 했는데, 그 접점에 바로 개신교 문예영화가 있었다. 따라서 개신교 문예영화는 문예영화 장르에서 개신교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한국영화의 예술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효과적인 렌즈다.

문예영화 중에서 개신교로 인한 갈등이 영화의 핵심부를 차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기독교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속 같은 재래 문화와 개신교 간의 대립을 다루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순교자>(1965), <사람의 아들>(1981) 등 유현목 감독의 영화가 대표적이고, 후자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무녀도>(1972), <을화>(1979)가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유형을 중심으로 개신교와 문예영화의 친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신교보다 오히려 개신교와의 대립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으로서의 무속에 중점이 놓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개신교는 종교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른 종교는 개신교와의 관계 속에서 위상이 부여되는 경향을 보인다. 무속 또한 1970년대에 들어 개신교와의 대립 속에서 다루어짐으로써 미신에서 전통문화로 격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신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재현을 통해 개신교와 문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순교자>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신 앞의 실존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개신교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검열로 인해 <순교자>에서 억압되고 정향될 수밖에 없었던 면들이 이후에 어떻게 발현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순교자>의 후편이자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도 고찰의 대상이 된다.

<순교자>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배경으로 기독교의 역할과 의미를 묻는 영화다. 이 영화는 1964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던 김은국의 영문 소설 『The Martyred』을 원작으로 했으며, 원작을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영화는 1950년 가을, 인천상륙작전으로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국군이 진주하기 직전, 평양 감옥에 갇혀있던 14명의 목사 중 12명의 목사가 공산당에 의해 살해된다. 그런데 연합군이 평양에 진주하면서 살아남은 두 명의 목사가 석방되자 신도들은 그들을 배신자로 의심한다. 그러나 정작 진실은 배신자는 따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심이 깊었던 박목사(전창근)조차 마지막 순간에 신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한목사는 존경했던 박목사의 마지막 모습에서 충격을 받아 미쳐버렸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신목사(김진규)는 끝까지 가장 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민군 소좌가 오히려 살려준 것으로 나온다. 영화는 ‘신목사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느냐, 마느냐?’는 질문을 중심으로 추리물 형식을 띠며 전개된다. 주인공 이대위(남궁원)는 신목사가 진실을 밝혀야 하다고 주장하나, 장대령(장동휘)으로 대표되는 군 당국에서는 12명의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어 반공 영웅으로 선전하고 싶어 한다. 이 어려운 결단 앞에서 신목사는 스스로 배신자가 됨으로써 12명의 목사를 순교자로 만든다. 그 이유는 군에 협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종교적 이유에서다. 그는 배신자가 됨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끝까지 평양에 남음으로써 결국 순교자가 된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에 이르러 순교자가 되는 인물은 신목사 하나만이 아니다. 평양에 남아있던 국군 병력이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날 의사인 민소령은 환자들을 차마 두고 갈 수 없다면서 다리를 폭파하기 직전에 차를 돌려 평양 병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장대령은 고목사(박암)가 남쪽에 세우는 개척교회를 위해 성경책 살 돈을 남기고 죽는다. 전쟁은 여러 의미의 순교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영화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을 배경으로 기독교적인 소명의식과 희생정신이 보편적 인간성 속에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이념을 확장적으로 적용하여 재현한 것이다. 그래서 독실한 개신교도이자 ‘영화예술’을 추구했던 유현목 감독은 이 영화를 자신이 연출한 반공영화 필모그래피에서 제외한 것을 물론 자선 대표작으로도 뽑았던 것으로 짐작된다.³⁷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개신교와 반공주의를 결합하여 민족주의로 확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남한 체제의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강박이 끊임없이 투입한다. 이는 영화가 원작소설과 달라진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영화는 “피에 굶주린 공산주의자들은 동족상잔의 지랄 같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반격을 개시한 우리들은 3.8선을 넘어서 노도처럼 북한에 밀려들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고, 인민군들이 학살을 저지른 동굴부터 보여준다. 이 첫 장면에서는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는 데 주안점이 놓인다. 이와 달리 원작에서 주인공 이대위가 분노한 것은 공산당의 만행보다도 호기심으로 시체를 찍어대는 기자들의 행태로, 이러한 서두는 이대위의 성격과 [영화와는 각도가 다소 다른] 소설의 주제를 암시한다. 또한 원작에서는 이대위와 장대령의 의견이 사사건건 대립하며 반목하는데, 영화에서는 우호적인 사이로 순치하여 국군 안에서 분열이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다. 장대령이 공

³⁷ 유현목은 자선 대표작으로 <오발탄>, <잉여인간>, <순교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네 편을 뽑았다.-유현목, 앞의 책, 213~237쪽.

산당에 향해 내뿜는 비속어나 ‘빨갱이’와 같은 표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이대위도 알고 계시죠?”와 같은 대사는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에서는 원작의 마지막 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각색한다. 원작에서는 고목사의 난민교회를 찾아간 이대위가 복벽에 남은 형제들을 위해 고목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는 난민들에 섞여 걸어가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대위의 목소리로 “그리고 암담한 고난의 땅을 향하여 나는 맹세했다. 그 희생의 거룩한 밤에 비록 무거운 고난을 짊어진 나라일지라도 난 두려움 없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이리하여 나는 숙명적인 끈에 의해 나의 조국과 얽매어졌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한에 남은 기독교도들에 대한 걱정을 기반으로 삼기는 원작과 영화가 마찬가지다. 이미 양쪽 모두 반공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작에서는 그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데 비해 영화에서는 그러한 기독교를 반공주의와 애국주의로 전유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소설³⁸을 영화화하면서 한국의 잉마르 베리만(Ingmar Bergman)을 꿈꾸었던 유현목 감독³⁹이 애초에 이렇게까지 애국주의를 표면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현목 감독 자신이 월남한 개신교도로서 의심할 바 없는 반공주의자⁴⁰였지만, 강박적 애국주의의 표출은 무엇보다

38 김은국의 소설 『The Martyred』는 1964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이 작품은 읍, 도스토옙스키, 카뮈의 위대한 전통 속에 있다”(뉴욕타임스), “이것은 우리가 위대한 소설이라 부를 소수의 20세기 작품군에 포함될 만한 눈부시고 강력한 소설”(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이라는 극찬을 받았고, 1967년에 김은국은 한국계 미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도정일, 「소설 『순교자』의 미스터리」, 김은국, 『순교자』, 도정일 옮김, 문학동네, 2010, 314쪽; 「김은국 연보」, 김은국, 같은 책, 323쪽.

39 독실한 개신교도였던 유현목 감독은 영화 속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의 윤리와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잉그마르 베리만 영화에 대한 동경과 지향을 수차 드러내기도 했다.

영화의 미학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각색할 수밖에 없었다면 거기에는 외부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영화는 국방부, 미공군 K55, 한국기독교시청각전도회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그런데 이 북의 목사들이 공산당에 굴복하고 신을 부정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이단이라며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⁴¹ 그러한 상황에서 반공주의자이면서 기독교인인 동시에 영화예술을 추구했던 유현목 감독이 타협해야 했던 지점이 영화 <순교자>다. 따라서 만약 <순교자>에서의 종교적 물음이 강박적 애국주의에의 요구나 기독교계의 검열 없이 전개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를 통해 ‘문예영화’라는 이름으로 추구되었던 영화예술, 기독교와 문예가 손잡는 지점을 오롯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은 16년 만에 이문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사람의 아들>(1981)을 통해 실현된다.

<사람의 아들> 역시 <순교자>와 마찬가지로 추리물 형식을 빌려 신과 종교의 역할을 질문한다. 영화는 어느 비오는 밤 주인공 민요섭(하명중)이 기도원에 찾아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신에게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튿날 민요섭은 칼에 여러 군데를 찔린 시체로 발견된다. 그러나 그의 죽은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타살이 명백함에도 불가사의한 점을 남긴다. 추리물에서 탐정에 해당하는 김형사(최불암)가 범인을 찾기 위해 민요섭의 주변인을 탐문하고 다니며 민요섭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악해가는 것으로 영화는 구성된다.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 드러나는 민요섭의 행보는 다음과 같다. 추리물의 특성상 탐정의 조사서사에 따라 사건서사가 역순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40 유현목 감독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박윤희, 「문예영화와 검열: 유현목 영화의 정체성 구성과정에 대한 일고찰」, 『영상예술연구』, 영상예술학회, 2010, 178~184쪽.

41 유현목 감독은 반공 순교자들을 ‘순수하게’ 재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신교계로부터 ‘가릇 유대’라고까지 비난받았다. 영화 <순교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박윤희, 위의 글, 191쪽.

- ① 신학교 학생 요섭은 실천신학에 경도된 데다 문목사의 부인(오미연)과 간통하여 신학교에서 쫓겨난다.
- ② 요섭은 빈민들과 나환자촌을 돕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노동으로 돈을 마련한다.
- ③ 요섭이 부산 여인숙에 묵을 때 여인숙 주인의 아들 조동팔(강태기)이 요섭을 추종하기 시작한다.
- ④ 요섭은 부산 부두노동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팔은 요섭을 돕기 위해 강도와 도둑질을 감행한다.
- ⑤ 요섭과 동팔, 그리고 사창가에서 나온 양순(오수미)과 순녀(김윤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천막집을 짓고 생활한다.
- ⑥ 요섭은 빵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풍요로움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천막집을 떠나 기도원으로 들어간다.
- ⑦ 요섭의 선택이 배신이라고 생각한 동팔은 기도원으로 찾아가 요섭을 살해하고 자살한다.

이야기의 전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실천신학에 빠졌던 한 신학도가 보수적인 신학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빵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풍요로움’이라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보면 <순교자>에서 신목사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전쟁과 분단의 참화 속에서 절망한 사람들로 1980년대 식 어휘로 옮기자면 ‘민중’이 될 것이다. 신목사는 그들을 위해 스스로 배신자가 되었고 탈출하라는 권유를 모두 물리치고 북한에 남았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은 반공이자 애국의 의미로 수렴되었다. 그런데 반공과 애국을 견어내고 거짓말과 순교의 명분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돌연 기도원으로 돌아간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소경’이 부는 대금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신학에 경도되었던 자신의 행보를 모두

‘방향’이라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전 회로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섭을 찾아온 동팔의 애원이 절박 하게 다가오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동팔이 오히려 마지막에는 주인공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국책 장르로서 문예영화와 기독교가 손잡을 수 있었던 임계로 보인다. 문예영화에서 추구되는 예술성은 정치와 분리되는 것으로 기독교의 정교분리(政教分離), 성속이원론(聖俗二元論)과 동궐을 이룬 다. ‘정치’를 배제하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사회 문제에 대 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술가의 시선은 초월적 영역(만) 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술이 초월성을 지향하는 것은 낭만주의적 예술 관과 상통하게 되고 이러한 예술관은 남한의 기독교가 정교분리를 표방하는 가운데 지향했던 ‘종교적 초월성’을 영화예술의 핵심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 초월성이 영화에서 구현될 때, 현실이나 민중은 가여운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추상적으로 호명되고, 그들에 대한 고민도 관념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추상화와 관념화의 공간이 바로 예술성이라고 불리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민요섭이 기도원으로 돌아가야만 <사람의 아들>은 예술성을 지닌 문예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낮은 데로 임하소서>나 <꼬방동네 사람들> 과 같이 민중 신학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유현목 감독 세대에게는 ‘사회물’이지 ‘예술영화’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임계를 통해 볼 때 기독교와 문예영화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손잡을 수 있었 는지는 분명해진다.

<사람의 아들>은 개신교 문예영화의 역사에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나오는 개신교 재현 영화들은 개신교를 외부에서 비판하는 영

화와, 신앙을 간증하는 내부용 영화로 나뉘어 전개된다. 이 중에서 개신교의 반성을 촉구하는 전자의 영화들은 1980년대 초반에 사회물로 연달아 몇 편 나오다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은 1970년대에 크게 확장된 교세를 기반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후자의 복음영화들이었다.⁴² 그런데 이 두 갈래는 모두 ‘기독교의 세속화[secularization]’를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궐을 이룬다. 전자가 자본에 물든 속화된 개신교에 대한 비판을, 후자는 개신교의 현실적 유용함과 그것에 힘입은 갱생의 성공담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탑승하던 남한 사회와 그것에 적극 개입했던 개신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국책영화의 종언과 함께 한국영화계의 세대교체를 증언하기도 한다. 유현목과 같은 국책영화 시대의 감독들은 대부분 물러나고 1970년대 청년문화를 이끌었던 이장호와 그의 조감독이었던 배창호를 필두로 새로운 영화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사회물’ 장르로 개신교의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어둠의 자식들>, <꼬방동네 사람들>, <과부춤> 등은 두 감독이 연출한 새로운 영화들이었다.

6. 맺음말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영화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음 또한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한국영화에 대한 논구 역시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요청되

42 이 영화들에서는 상투적 계몽 코드를 지닌 멜로드라마가 주류를 이룬다 이에 대해서는 안진영, 「한국 기독교 영화의 상투성에 나타난 계몽적 코드 연구: 영화 텍스트의 내용과 스타일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3~88쪽.

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 영화사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했던 한국영화사의 면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21세기의 일부 영화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왔고, 기독교와 한국영화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은 오히려 종교학계의 성과에 빚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극영화를 대상으로 개신교가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영화산업을 관리하면서 형성되었던 국책 장르에서 개신교와의 각별한 친연성이 발견된다는 점이었다. 1957년 이후 우수영화보상정책이 시행되며 국가는 반공, 계몽, 문예 부문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개신교는 이 영화들에서 지향하는 반공, 계몽, 문예의 논리에 명분과 거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화들은 줄곧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3대 국책 장르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개신교가 재현되는 영화 중 개신교의 교리와 세계관이 영화의 주제와 핵심 갈등을 구성하는 영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계몽영화에서 개신교는 선진 문명의 상징으로, ‘진보, 엘리트, 이타적 희생’을 함의하는 표상으로 재현되는데, 이것은 근대교육을 받은 젊은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논리로 전유되면서 1960년대 남한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투합한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을 다룬 심훈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1961년에 제작된 <상록수>다. 이 영화에서 개신교도 주인공은 농촌에 투신하여 문맹퇴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교육운동을 하다가 과로하여 죽음에 이른다. 그의 활동은 개신교도로서 종교적 실천이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기에 민족 계몽의 의미를 강하게 띤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순국이자 순교이기도 하며 여기서 <상록수>의 서사는 <유관순>과 같은 개신교도 항일 열사를 다룬 전기 영화의 서사

와 동궐을 이룬다. 이와 같이 개신교와 근대화 논리가 합치되며 형성된 영화의 구조는 <쌀>(1963)로 이어지고 1970년대에는 새마을영화의 골간이 되어 국책 계몽 영화의 계보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반공영화에서 개신교는 역사적,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하고 저항해 왔으며 그러기에 유난히 박해받는 집단으로 재현된다. 천주교의 순교자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개신교의 순교자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증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서북지방의 개신교도 월남민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 정서는 공산주의자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신념체계로 남한 개신교 안에 자리 잡게 되며 반공을 국시로 삼는 남한 정권의 입장과 맞닿는다. 개신교와 공산당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에서 개신교도에게 공산당에 협조하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즉 전향을 종용하는 것으로 제안 자체가 가혹한 고난이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택일신주의는 극단적인 형태로 반공주의 전선과 결합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반공 순교 영화에서는 물론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같은 항일 순교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문예영화에서 개신교는 현실 초월적인 질문을 가능케 하는 틀로 기능하며 예술의 논리를 제공하고 예술성을 담보하기도 한다. 무속이나 불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1970년대 들어서야 문예영화의 범주에서 본격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데 비해 <순교자>(1965)와 같이 개신교의 교리가 영화의 주제부를 구성하는 영화는 더 일찍부터 문예영화로 분류되었다. 이는 앞서 계몽영화에서 논구한 대로 근대 이후 개신교가 선진 서구문명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재현되었던 것과 깊이 연관된다. 더구나 한국영화는 끊임없이 서구영화를 전범 삼아 모방하고 지향했으므로 개신교의 이미지가 영화의 선진성을 표방하는 데 활용되었다. 예술성은 그러한 선진성의 일환이었고 나아가

개신교는 성속이원론(聖俗二元論)에 입각한 초월성을 예술성의 논리로 제공하였다. 문예영화가 국책 장르로 번성했던 1960-70년대는 사회 부조리를 재현하거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우울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조차 검열로 금지되었다. 이때 서구 선진 문명을 상징하는 개신교에서 비롯된 현실 초월의 논리는 문예영화에서 예술성을 담보하는 요소이자 명분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초에, 정교분리(政教分離)를 주장해온 개신교의 기존 태도를 비판하는 사회물이 등장하면서 전기를 맞이한다. <사람의 아들>은 이 시기에 제작된 개신교 문예영화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한다. 이 영화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신앙을 실천하던 신학도가 결국 마음의 풍요를 찾아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국책 문예영화에서 추구되었던 예술성의 임계를 보여준다.

경제 근대화와 함께 개신교의 교세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1980년대에 개신교는 신도들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이 되었다. 남한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개신교의 세속화가 본격화된 것이었다. 1980년대 초에 등장한, 민중 신학 관점의 사회물 또한 동일한 기반에서 발현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개신교 영화의 주류는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한 복음영화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국책 영화 장르에서 반복되던 계몽적 주제나 순교와 갱생의 서사, 그리고 반공주의는 복음영화에서 재연된다. 이는 국책 장르 영화와 남한 개신교의 친연적 관계를 다시금 목도케 한다.

참고문헌

1. 논문

- 김성희, 「한국 개신교 영화의 흐름 및 특징 연구: 연대기적 고찰(1948년~2012년)」, 이화여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노지승, 「1980대 초 한국영화와 기독교: 아버지-신(神),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영화 내러티브」, 『어문논총』 6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 도정일, 「소설 『순교자』의 미스터리」, 김은국, 『순교자』, 도정일 옮김, 문학동네, 2010.
- 박유희, 「문예영화와 검열: 유현목 영화의 정체성 구성과정에 대한 일고찰」, 『영상예술연구』 제17호, 영상예술학회, 2010.
- _____, 「사면의 기억: 한국영화에 나타난 ‘무당’ 표상」,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_____, 「순결과 형극: 한국영화에 나타난 유관순 열사의 표상」, KMDB, 한국영상자료원, 2019.
- 박종수, 「한국 종교영화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한국예술연구』 13호, 한국예술연구소, 2016.
- 신광철,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종교학연구』 19호, 2000.
- _____, 「한국 종교영화의 현황과 전망」(『한국종교』 28호,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4.
- _____, 「영화바로읽기(1): 임권택 감독의 영화 <상록수>-영상화된 최용신의 이미지 읽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47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1.
- _____, 「영화바로읽기(2): 변장호 감독의 <올화>-기독교와 무속의 마주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48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1.
- _____, 「영화로 읽는 기독교 역사, 문화 이야기(3): 임권택 감독의 영화 <불의 딸>-기독교와 무속의 마주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49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1.
- _____, 「영화로 읽는 기독교 역사, 문화 이야기(4): 이장호 감독의 영화 <과부춤>-기독교는 이 시대의 희망일 수 있는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50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1.
- _____, 「한국종교영화 작가론(1): 최하원 감독의 영화세계와 그의 기독교 영화」, 『한국종교사연구』 11호, 한국종교사학회, 2003.
- 안진영, 「한국 기독교 영화의 상투성에 나타난 계몽적 코드 연구: 영화 텍스트의 내용과 스타일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윤성은, 「한국 기독교 영화의 미학적 과제: 영화 미학과 기독교 미학의 만남을 위하여」, 『장신논단』 43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11.
-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95호, 한국사회사학회, 2012.
- 조준형, 「한국영화산업과 정책: 1980~1997」, 한국영상자료원 편, 『한국영화사공부 198~1997』, 이채, 2005.

2. 단행본

- 강인철, 『한국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 중심, 2007.
-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2005.
- 김예림·김성연 편, 『한국의 근대성과 기독교의 문화정치』, 혜안, 2008.
- 김은국, 『순교자』, 도정일 옮김, 문학동네, 2010.
-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푸른역사, 2009.
- 민경배, 『주기철: 근대인물한국사 313』, 동아일보사, 1992.
- 박용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전기』, 동화출판문화사, 1977.
- 박유희, 『한국영화 표상의 지도』, 책과함께, 2019.
- 신상옥, 『난 영화였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일대기』, 성광문화사, 2009.
-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 신망애사, 1968.
- _____,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의 속편』, 기독교문사, 1976.
- 유현목, 『예술가의 삶: 영화 인생』, 혜화당, 1995.
-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2015.
- 윤해동·이소마에 준이치 엮음, 『종교와 식민지 근대: 한국 종교의 내면화, 정치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책과함께, 2013.
- 이문열, 『사람의 아들』, 민음사, 1981.
- 이청준, 『낮은 데로 임하소서』, 열림원, 1998.
- 장석만, 『한국 근대종교란 무엇인가』, 모시는사람들, 2017.
- 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1949-1968』, 소명출판, 2015.
- Asad, Tala. *Formation of the Secular: Christianity, Islam,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Erman, Bart D.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a Forbidden Religion Swept the World*, 허형은 옮김,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갈라파고스, 2019.
- Grace, Pamela. *The Religious Film: Christianity and the Hagiopic*, John Wiley & Sons, Incorporated, 2009.
- Weber, Max.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형 옮김, 도서출판 길, 2010.

3. 신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A Study on Affinity between the Representations of Protestantism and the National Policy Film Genres in Korean Film History

Park, Yuhee | Korea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aspects and contexts of special affinity between national policy film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epresentations of Protestantism from the 1960s to the early 1980s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ir affinity.

In 1957, a policy was implemented to grant a license to import foreign films to film producers that made excellent films in the nation as a reward and preferential treatment. Such rewards for excellent domestic films served as the major driving force in the production of South Korean films. The rights and interests involving rewards for excellent films were bestowed mainly upon anti-communism, enlightenment, and literary film sectors, which ended up settling down as the national policy film genres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1960s. The life force of these three national policy film genres continued to live until 1984 when the connections between film production and import of foreign films were abolished. Protestantism was the religion that recorded the highest frequency of reproduction in these films, being the symbol of enlightenment and the base of anti-communism and providing the logic of a transcendent viewpoint of art to guarantee the qualification of Literary films (as art films).

Entering the early 1980s that marked the decline of the genre of national policy films, there was a shift in the paradigm of films reproducing Protestantism. As new generation film producers made films reporting on the society and criticizing Protestantism whose religious influence expanded considerably throughout the 1970s, gospel movies sponsored by the Protestant organism became the mainstream in the Protestantism film industry. The logic of anti-communism and enlightenment that established affinity with national policy propaganda films was used as the logic of suffering and rehabilitation in gospel movies targeting believers. The logic became internalized as it was despite its broken relationship with

national policy films. This special affinity between national policy film genres and Protestantism makes it a rational inference that Protestantism worked as an ideological base and framework view of the world in such films in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reproduction patterns and roles of Protestantism in the national policy film genres in film narrative whose main conflicts came from Protestantism's view of the world and religious contemplation in the 1960s~the early 1980s when the three major national policy film genres were officially released, the present study shed concrete light on the logic and contact point of the same tracks that comprised the affinity relations between anti-communism, enlightenment, literary films and Protestantism.

Key words : Protestantism, representations, National Policy Film genre, affinity, anti-communism, enlightenment, literary film, secularization, melodrama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근대계몽기 학회지의 독자 인식과 서사적 실험

몽유록계 서사를 중심으로

전은경*

1. 서론
2. 근대계몽기 학회지와 몽유록계 서사
3. 몽유록계 서사의 계승과 역사 인식
4. 몽유록계 서사의 변형과 실험
5. 학회지의 독자 인식과 몽유록계 서사의 근대성 - 계승과 실험의 경계

| 국문초록 |

근대계몽기에는 국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회지, 정치 단체의 기관지로서의 잡지, 일본 유학생들이 발간한 학회지 등 다양한 학회지들이 등장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회지와 일본 유학생 학회지를 중심으로 몽유록계 서사 양식을 분석하였다. 이전 전통적 몽유록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실험과 변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서사 양식을 분석해봄으로써 근대문학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천착해보고자 하였다.

근대계몽기 몽유록계 서사 양식은 국가의 존폐 위기 속에서 계몽과 교육이라는 필요, 또 조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판하며 풍자하려는 필요에 의해 선택되었다. 전통적인 몽유록 양식을 계승하여 역사적 인물을 소환하고 이 인물을 통해서 독자 대상을 교화하고 계몽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는

* 경일대학교 후지오네칼리지 교양학부 조교수.

이전 시대와는 달리 국가의 현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선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영웅의 힘이 아니라,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인식하여 개인의 힘, 교육의 힘을 강조하는 것도 한 특징이 되고 있다.

또한 이전 몽유록계 서사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 대상에 따라 다양한 실험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학회지 혹은 잡지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비슷한 처지와 관심사를 가진 인물들이 이 잡지 내부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몽유록계 서사 양식의 경우에도 모방과 변형,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관심사를 표출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특히 구세대들의 폐습과 고루한 사상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하는 도구로서 몽유록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교류와 소통은 그들만의 새로운 ‘공통감’을 형성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계몽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향유하면서 이들 지식인들은 근대문학의 잠재적 작가이자 독자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근대계몽기, 몽유록계 서사, 지역 학회지, 일본 유학생 학회지, 계몽, 풍자, 매체의 소통, 근대문학, 잠재적 작가, 잠재적 독자, 독자 인식

1. 서론

근대계몽기는 신문과 잡지 등 다양한 근대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활자미디어는 전국 지·분사를 통해 동시대에 전국 지역 독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¹ 다양한 신문과 학회지를 비롯한 잡지들이 쏟아지면서 이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지식인들의 활동들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잡지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이 같거나 뜻을 같이하는 학회 소속자들을 대상으로 간행되었기에, 지식인들의 참여 역시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근대 매체에는 다양한 서사물들이 실리게 되는데, 신문은 여러 계층의 다양한 독자들을 상대로 보다 대중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의 연재물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에 반해 학회지 등의 잡지는 신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독자들을 상대하며 그 잡지의 성향에 맞춘 서사물들이 등장하였다. 잡지의 경우, 소속된 회원들을 위해 출판한 것이므로 독자들, 혹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접근이 좀 더 쉬웠을 것이다.

특히 국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회지나 정치적 결사 형태의 잡지, 또 일본 유학생회 학생들이 결성하여 만든 학회지 등 매우 다양한 학회지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학회지들은 주로 한문체 또는 국한문체 등을 활용하여 편찬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 또 유학을 공부했거나 신학문을 접한 인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회지의 경우, 소속된 회원들, 특히 잡지의 특성상 당대 지식인들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단형서사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직 근대적 소설의

¹ 나가미네 시게토시는 근대 일본의 활자미디어와 독서 문화가 메이지(1867-1912) 30년대에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했다고 보았는데, 근세적 독서 세계에서 활자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독서 세계로 이행되었다고 여겼다. 특히 활자미디어의 유통, 여행 산업, 독서 장치의 보급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독서국민' 개념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활자미디어의 유통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국구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독서가 가능한 근대적 독서 세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나가미네 시게토시, 다지마 테쓰오·송태욱 역, 『독서국민의 탄생』, 푸른역사, 2010, 7쪽)

개념이나 문예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역사 전기물, 대화체 서사, 몽유록계 서사, 수필과 같은 개인의 서사 등이 실리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계몽기 서사물에 대한 연구 중 몽유록계 서사류에 대한 연구는 박은식, 신채호, 유원표 등이 발간한 소설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다.² 이 가운데서 잡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류에 대한 연구는 문학사 연구에서 시기적 장르의 특징으로 서술된 경우³와 작가의 사상과 문학을 연결하여 연구한 경우⁴, 또 각 잡지 및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단편 서사물 연구⁵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근대계몽기에 등장한 몽유록계 서사는 전통의 계승으로 볼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몽유록 서사가 이전 조선 시대에서 유행하다가 어느 정도 침체기를 겪은 후, 근대계몽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즉

- 2 이러한 작가들의 몽유록 소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볼 논의로는 정여울의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찬기의 「근대계몽기 몽유록의 양식적 변이상과 갱신의 두 시선」(『국제어문학』 39, 국제어문학회, 2007, 315~341쪽)을 들 수 있다. 정여울의 경우는 박은식, 신채호, 안국선, 유원표가 발간한 소설뿐만 아니라, 신문에 실린 몽유록 4편,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 3편까지 함께 아울러 연구를 진행하여 근대계몽기 몽유록계 서사의 다양한 양식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였다.
- 3 몽유록계 서사류에 대한 문학사 연구 중 주된 논의로는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85; 김윤규, 『개화기 단행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10 등을 들 수 있다.
- 4 작가 연구 중 근대계몽기 학회지에 수록된 몽유 서사와 연관한 논의로는 류양선의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984, 91~120쪽)을 들 수 있다. 류양선은 박은식의 문학을 분석하면서 「몽배유지장군기」에 대해 「몽배금태조」를 예비하는 작품으로서, 박은식의 사상이 을지문덕의 말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고 보았다.(앞의 글, 112쪽)
- 5 잡지 및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에 대한 연구로는 문한별의 「근대전환기 학회지 수록 몽유 서사 연구」(『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39~361쪽); 전은경의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와 과정」(『한국현대문학』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5~40쪽); 「근대계몽기 『교남교육회잡지』의 「로컬리티」 인식과 서사와 전략」(『어문론총』 8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40~170쪽); 「영남 출신 유학생 잡지 『낙동친목회학보』의 「지역성」과 서사문에 전략」(『어문론총』 86,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59~86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문한별은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을 종합하여 12종의 학회지의 서사체 양식을 조사하여 서사체 양식 중 총 224편 가운데 몽유록체 6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6 조동일은 몽유록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해 말할 때 적절하게 이용되었고, 전후의 안정이 이루어지자 몽유록의 쓰임새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이전의 장르 개념을 지니고 있되, 근대계몽기에 새롭게 재등장할 때는 이전 장르 개념과는 변모 또는 변형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의 시기적 특징이 반영되면서 당대 지식인들이 이 장르를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시기 몽유록계 서사는 전통의 연계이면서 새롭게 변용된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대계몽기 당대 지식인들은 이전 양식들 가운데 이 몽유록계 서사를 선택했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이전의 유교 교육과 새로운 개화사상을 함께 교육 받은 세대로서 기존의 양식에 새로운 변형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유록계 서사는 근대계몽기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한 다양한 서사적 실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몽유록을 선택한 이유와, 이 몽유록 서사를 통해 보여준 새로운 변형과 실험을 근대매체의 환경과 독자 대상의 문제 속에서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당대 지식인들은 바로 이후 등장할 근대 문학의 잠재적 독자이자 잠재적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으로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당대 지식인들의 고민과 실험, 그 역할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 근대문학사를 풍성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⁷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근대계몽기 지역 학회지 속에 게재된 몽유록계 서사를 대상으로 정치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내 지역 학회지 속에 등장한 몽유록계 서사의 특징과 독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 유학생 학회지 속에 등장한 몽유록계 서사의 변용과 새로운 시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2011, 462쪽) 이후 오랫동안 적절한 구실을 찾지 못해 침체기에 들었던 몽유록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끝내고 근대에 들어서려고 할 때 다시 부각되었다고 보았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10, 327쪽)

7 김윤규는 그 전이나 후의 문학과 비교해서 비교적 완결되지 못하고 형식이 안정되지 못하다고 해도 한 시기의 문학은 그 문학현상대로 그 시기의 문학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미완성된 형태와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문학사에서 제외되거나 경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한다.(김윤규, 앞의 책, 200쪽)

통해 몽유록계 서사류를 선택한 당대의 지식인들이 근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새롭게 구성해가고자 했는지, 또 이들이 근대문학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천착해보고자 한다. 특히 단절이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계승과 연계되는 가운데 변형을 이루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2. 근대계몽기 학회지와 몽유록계 서사

1906년부터 1910년 사이 학회지 등의 잡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당시 잡지들에 대해서 임상석은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치결사의 기관지적 성격을 띤 잡지인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조양보』, 『대동보』, 둘째, 학회 단체가 발간한 학회지인 『서우』, 『서북학회월보』, 『호남학보』, 『기호학회월보』, 『교남교육회잡지』, 셋째, 일본 유학생 단체들이 발간한 잡지로, 『태극학보』, 『공수학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낙동친목회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잡지인 『소년한반도』, 『야외』, 『소년』 등이 그것이다.⁸

이 가운데 학회지 계열은 국내 지역학회지와 일본 유학생회가 출간한 잡지들이 해당될 수 있다. 국내 지역학회지로 발간된 종류는 총 5개였는데, 이들 지역학회지에 실린 서사류는 다음 표와 같다.

⁸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46~47쪽.

〈표 1〉 지역학회지의 서사류 관련 글⁹

분류	세부사항	서우	서북학회월보	호남학보	기호흥학회월보	교남교육회잡지
서사류	격언		10		12	4
	기행문		1			1
	대화체(문답체)	3	16	3	8	2
	문학 잡지		1			
	몽유	1				1
	산문		9			1
	서사	3			2	
	역사 전기	35	26	50	10	
	우화	2	2			
	전설	5				
	풍자소설				1	
	총계	49	65	53	33	9

지역학회지를 보면, 다양한 서사류들이 실리고 있지만, 가장 많이 실린 서사류는 역사 전기물이었다. 이는 기존 전 양식을 활용하여 애국 계몽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소개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서사류는 대화체 또는 문답체 양식이었다. 이는 근대계몽기에 가장 많이 활용된 양식이기도 하며, 신문과 잡지를 가리지 않고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 서사적 장치를 활용한 서사물은 사실 많지 않다. 몽유, 우화, 풍자소설 등이 간혹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서사물들은 앞서 역사 전기물이나 대화체 양식과는 달리 필자가 서사적 장치나 허구성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문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일반 독자나 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서사물이기도 하다.

그 중 몽유록계 서사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서우학회의 『서우』에 1편, 또 교남 지역 즉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남교육회의 『교남교육회잡지』에 1편이 실려 있다. 『서우』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는 박은식

⁹ 전은경, 「근대계몽기 지역 학회지와 지역 문학의 근대적 태동」, 『어문학』 146, 한국어문학회, 2019, 241쪽 <표 6> 참조하여 작성(이 표는 국내 지역 학회지 5개를 대상으로 서사물의 양식을 분류한 것임).

이 집필한 「夢拜乙支將軍記」(『서우』 16호, 1908.3.1.)이고, 『교남교육회잡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는 북악산인(北嶽山人)이라는 필명으로 한계기(韓繼箕)가 쓴 「小說 春秋夢」(『교남교육회잡지』 2호, 1909.5.25.)이다. 즉 전체 지역 학회지 가운데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와 영남 지역에서만 몽유록계 서사가 한 편씩 보이고 있다.

일본 유학생 잡지의 경우는 관서 지역 즉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일본 유학생들이 결성하여 만든 『태극학보』(1906.8.24.-1908.5.24.)가 총 20호, 조선 정부에서 파견하여 유학한 관비유학생들이 만든 『공수학보』(1907.1.31.-1908.초)가 총 5호, 영남 출신 일본 유학생들이 만든 『낙동친목회학보』(1907.10.30.-1908.1.30.)가 총 4호, 지역 등의 분파 없이 전체 일본 유학생들을 통합하고자 만든 『대한유학생회학보』(1907.3.3.-1907.5.25.)가 총 3호, 태극학회와 공수학회를 제외한 나머지 학회가 통합하여 만든 『대한학회월보』(1908.2.25.-1908.11.25.)가 총 9호, 뒤에 전체 일본 유학생회가 통합하여 만든 『대한흥학보』(1909.3.20.-1910.5.20.)가 총 13호 발행되었다.

일본 유학생들이 편찬한 학회지의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 출신들이 일본으로 유학 와서 힘든 유학생 생활 가운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도움과 격려를 하며 모임을 유지하다 보니, 그만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회를 결성하는 것이 용이했고 이들 중심으로 학회지를 발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수학회』는 관비유학생 모임이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지역 기반 학회지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또 지역 기반 학회지들을 모두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많았으나, 실제 제대로 일본 유학생 전체가 통합하게 된 것은 1909년 1월에 설립한 대한흥학회 때부터였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국내의 지역 학회지와 일본 유학생들의 지역 기반 학회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 출신 기반 일본 유학생회 학회지들 중 몽유록계 서사가 실린 것은 총 7편이었다. 『낙동친목회학보』에 1편, 『대한학회월보』에 2편, 『태극학보』에 4편이 각각 실렸다.¹⁰ 흥미로운 것은 국내 지역 학회지들과의 연관성이다. 몽유록계 서사가 실린 국내 지역 학회지는 평안도와 황해도 중심의 『서우』와 영남 중심의 『교남교육회잡지』였다. 일본 유학생회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와 이와 유사하다. 즉 『낙동친목회학보』는 영남 출신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 만들었고, 『대한학회월보』의 경우도 낙동친목회가 이후 대한학회로 통합되면서 이들 영남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다. 『태극학보』는 국내 지역 학회지인 『서우』와 그 출신 지역이 겹친다. 따라서 몽유록계 서사가 보이는 곳은 평안도와 황해도 중심의 관서 지역과 영남 지역인 것이다. 이는 국내 지역 학회지와 지역 기반 일본 유학생 학회지가 서로 교류하며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지역 기반 국내 학회지와 일본 유학생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는 총 9편이었다. 이를 도표화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근대계몽기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 정리표¹¹

필자	제목	지역	학회지	연도	몽유 등장인물	줄거리
최석하	무하향만필	일본유학생 (관서)	태극학보 4호	1906. 11.24	한 고조, 한 광무, 나파룬, 화성돈	주인공이 꿈에 중국, 프랑스, 미국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음

¹⁰ 일본 유학생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는 봉래산인(蓬萊山人)이 쓴 「夢白頭山靈」(『낙동친목회학보』 4호, 1908.1.30.), 우연자(吁然子)의 「擎山靈夢」(『대한학회월보』 2호, 1908.3.25.), 홍촌라생(弘村羅生)의 「教育者討伐隊-夢遊故國記」(『대한학회월보』 3호, 1908.4.25.), 최석하(崔錫夏)의 「無何鄉漫筆」(『태극학보』 4호, 1906.11.24.), 장응진(白岳春史)의 「春夢」(『태극학보』 8호, 1907.3.24.), 이규철(李奎澈)의 「無何鄉」(『태극학보』 20호, 1908.5.12.), 포우생(抱宇生)의 「莊園訪靈」(『태극학보』 21호, 1908.5.24.)으로 총 7편이었다.

필자	제목	지역	학회지	연도	몽유 등장인물	줄거리
백악 춘사 (장응진)	춘몽	일본유학생 (관서)	태극학보 8호	1907. 3.24	없음 (목소리만)	주인공이 꿈속에서 '쾌락, 용기, 활동, 신앙'이라는 4가 지 단어와 깨달음을 얻음.
봉래 산인	몽백두산령	일본유학생 (영남)	낙동친목회 학보 4호	1908. 1.30.	백두산령	주인공이 꿈에 백두산령과 대화를 나누며 고국을 걱정 함.
박은식	몽배을 지장군기	국내 관서 지역	서우 16호	1908. 3.1.	을지문덕 장군	주인공이 꿈에 을지문덕 장 군을 만나 가르침을 받음
우연자	라산령몽	일본유학생 (통합)	대한학회월 보 2호	1908. 3.25.	한라산령과 백의소년, 청의동자	주인공이 꿈에 한라산령과 소년 둘의 대화를 관찰함.
홍촌 라생	교육자 토벌대 몽유고국기	일본유학생 (통합)	대한학회월 보 3호	1908. 4.25.	고국의 연설자	주인공이 꿈에 고국에 가서 교육 관련 연설을 들음
이규철	무하향	일본유학생 (관서)	태극학보 20호	1908. 5.12.	고국의 노인들	주인공이 꿈에 고국에 가서 노인들의 대화를 관찰함.
포우생	장원방령	일본유학생 (관서)	태극학보 21호	1908. 5.24.	태백산 주인	주인공이 꿈에 태백산 주인 에게 가르침을 받음.
한계기 (복악 산인)	소설 춘추몽	국내 영남 지역	교남교육회 잡지 2호	1909. 5.25	공자, 증자	주인공이 꿈에 공자와 증자 를 만나 춘추 책을 전해 받음.

근대계몽기 학회지에 몽유록계 서사물을 실은 필자들은 기존 유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신학문에 대해서 열려 있거나,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한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한 국내와 일본 사이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교류하며 그들의 활동 역시 겹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학의 구학문을 수학했으면 동시에 신학문을 배웠던 이들 지식인들은 왜 이전 시대의 양식을 다시 가져왔는지 궁금해진다. 사실 서론에서도 설명했듯이 몽유록계 서사물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많이 등장했고,

11 근대계몽기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 중 서북협성학교생 윤감(尹鑑)이 기서의 형태로 실은 「춘몽」(『대한홍학보』 4호, 1909.6.20.)이라는 한문체의 작품도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이 근대계몽기 몽유록계 서사물들의 근대적 실험과 또 근대 문학으로서의 이행적 가능성을 천착해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한문체인 윤감의 「춘몽」은 본 논문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이후 침체기를 겪었다고 한다. 꽤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던, 혹은 등장하지 않았던 장르인 몽유록을 이 신지식인들이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몽유록계 서사가 실린 잡지의 목적과 또 몽유록계 서사의 역할과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근대계몽기 신지식인들이 학회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애국 계몽 사상이었고, 신교육의 필요성이었다. 그렇게 볼 때 그러한 주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몽유록계 서사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계몽 사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했다. 역사적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를 등장하여 직접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서사류이기도 했다.

덧붙여 학회지 역시 잡지로서 짧은 분량 안에 핵심적인 사항을 전달해야 하는데 몽유록계 서사는 한 장면을 강화하여 보여주기도 쉬웠다. 이러한 가운데 선택된 몽유록계 서사에 대해서는 사실 각 학회지의 성향과 독자 전략에 따라 조금씩 변형이 가해지기도 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선택의 이유와 이 시기 몽유록계 서사의 특징 및 근대문학을 추동해 오는 가능성으로서의 역할은 아래 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¹²

3. 몽유록계 서사의 계승과 역사 인식

먼저 국내 지역 학회지에 등장한 몽유록계 서사는 박은식이 대치생(大痴

¹² 문헌별의 연구(앞의 글, 345쪽)에서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물을 미완작품까지 포함하여 총 6편으로 보았는데, 이후 아단문고 등에서 출간된 학회지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미완작품을 제외하고 실제 학회지에 실린 완결된 몽유록계 서사물은 총 9편이다. 이 가운데 『교남교육회잡지』에 실린 「소설 춘추몽」과 『낙동친목회학보』에 실린 「몽백두산령」, 『태극학보』 8호에 실린 백악산인의 「춘몽」과 『태극학보』 20호에 실린 이규철의 「무하향」은 빠져 있다. 「소설 춘추몽」과 백악산인의 「춘몽」은 정여울의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앞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몽유록계 서사물까지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生)이라는 필명으로 쓴 「夢拜乙支將軍記」와 한계기가 북악산인(北嶽山人)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小說 春秋夢」을 들 수 있다. 이 두 작품 모두 전통적인 몽유록계 서사처럼 입몽 → 몽유 → 각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몽배을지장군기」에서는 역사적 인물인 을지문덕 장군이, 「소설 춘추몽」에서는 공자가 등장하고 있어서 이전 몽유록계 서사의 전형처럼 초월자, 역사적 인물, 신적인 존재 등이 꿈속에 출연하여 화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¹³

(가) 내가 전날에 경의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여 지금과 옛적을 굽어보고 우리러 볼 적에, 고구려 시대에 군세고 강한 패업이며 을지문덕공의 위대한 공적을 상상하매 천년의 세월 아래 문득 눈에 어린다. 나 여기에 개연히 한탄하여 이르기를 점치는 이가 말하되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리라 하니 어찌 믿지 못하겠는가. 고구려가 작은 지방으로써 수나라의 백만 대중을 격파하고 독립을 공고케 한 자는 을지공 일인의 공이니 우리나라 현재에도 을지공으로 있게 한다면 독립의 패업이 족히 열강을 능가할지니 금일 비참한 지경이 어찌 있으리오 하고 인물의 강함과 쇠함을 한탄하여 한숨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러니.¹⁴

(나) 화설 바다의 동쪽 한의 북쪽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명은 많을 필요가

¹³ 본문에 쓰인 한글 번역의 경우, 「몽배을지장군기」는 전은경,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화 과정」(앞의 논문, 29-33쪽)의 번역을 참조하였고, 「소설 춘추몽」은 전은경, 「근대계몽기 『교남교육회잡지』의 「로컬리티」 인식과 서사화 전략」(앞의 논문, 161-164쪽)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¹⁴ 余가 日昨에 京義列車로 平壤에 至호야 今古를 俯仰호시 高句麗時代에 雄強한 霸業이며 乙支文德公의 偉大호 功蹟을 想像호미 千載之下에 恍然在目이라. 余於是에 慨然發嘆曰古人이 云호되 國有一人이면 其 國이 不亡이라 호니 豈不信哉아 高句麗가 以偏小之邦으로 隋의 百萬大衆을 擊破호고 獨立을 鞏固케 호 者는 乙支公一人의 功이니 我韓 今日에도 使乙支公而在者면 獨立의 霸業이 足히 列強을 凌駕호지니 엇지 今日慘境이 有호리오 호고 人物의 隆衰를 嘆호야 歎泣하러니.(大痴子, 「몽배을지장군기」, 『서우』 16, 1908.3.1., 251~26쪽)

없고 혹 타인을 대하면 늘 북악산인이라 말한다.

나이 40 남짓에 오랜 성현을 스승으로 숭상하고 지금과 옛 문장을 벗 삼아 수간이 되는 방에 만권시서를 쌓아놓고 요순맹자의 도를 종교로 숭배하더니 시국을 돌아보매 맹자의 종교가 떨치지 않고 주자 법도의 도리가 위태롭고 무너져버린지라. 분개 한탄을 나날이 이기지 못하더니 때는 즉 융희 삼 년 (1909년) 늦봄(음력 3월)이라.¹⁵

(가)는 『서우』에 실린 박은식의 「몽배을지장군기」의 입몽 부분이고, (나)는 『교남교육회잡지』에 실린 북악산인 한계기의 「소설 춘추몽」의 입몽 부분이다. 먼저 (가)를 보면, 꿈에서 을지문덕 장군을 만나기 전 현실에서 평양에 도착하여 고구려와 을지문덕의 공을 되짚어 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을지문덕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 당대 수나라를 격파했던 고구려의 힘을 닮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특히 당대 열강에 둘러싸여 주권을 위협받던 상황에서 더욱 을지문덕 장군 일 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나)에서는 북악산인이라는 화자가 등장하여 시국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대로 된 맹자, 주자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위태롭게 된 나라의 현실에 비분강개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가)와 (나) 모두 당대의 현실이 ‘입몽’ 부분에 등장하는데, 두 작품 모두 당대의 현실을 위태하게 여기고 비분강개를 느끼는 부분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조선 시대 문유록계 서사물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해 말할 때 적절하게 이용되어” “통분하는 심정으로 전란의 참상을 문제 삼고, 책임을 묻는 작업을 설득력 있게 전개”¹⁶해온 상황과 맞물린다. 근대계몽기 역시 현실의 어려움과 참상,

¹⁵ “話說海之東漢之北에 有一人호니 姓名은 不用許多호고 或他人을 對호면 每道北嶽山人이라 行年四十有餘에 古昔聖賢을 師尙호고 今古文章을 朋交호야 數間茅廬에 萬卷詩書를 싸아놋코 堯舜孔孟의 道을 宗教로 崇拜터니 時局을 環顧호미 孔孟의 宗教가 不振호고 程朱의 傳道가 幾墜라 慨然恨嘆을 日日不勝호더니 是歲는 即 隆熙三年 暮春月也라”(北嶽山人(韓繼箕), <雜俎> 「小説 春秋夢」, 『교남교육회잡지』 제2호, 1909.5.25., 391~40쪽, 이하 제목만 표기)

또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몽유록계 서사물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 밤 꿈에 충무사 터를 찾아가니 한 대장군이 장검을 품고 나를 불러 앞에서 말하기를 네가 고구려의 패업으로써 일개 나 을지문덕의 공으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시 고구려의 민족은 천하에 극히 용맹한 민족이라. 그래서 저 수나라 양제의 백만 대중이 수륙병진하여 국경으로 압박해 오는데 전국 인민이 털끝하나도 겁내지 않고 각자 분노를 떨치며 싸우자 하여 대적을 보고도 없는 듯이 여기니 이는 내가 손을 빌려 성공한 이유라. 내가 수천의 매우 날쌔고 용맹스러운 기병을 거느리고 적의 백만 대중을 추격할 때에 일당 백의 용기를 갖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민족이 용맹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고구려민족으로 하여금 오늘날 대한민족과 같이 나약하고 물러난다면 을지문덕이 두 명이라 해도 어찌 이와 같으리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족이 즉 고구려민족이라. 예전에 어찌 저와 같이 용맹하고, 지금 어찌 이와 같이 나약하리오. 하면 오직 그 교육 여하에 있는지라.¹⁷

(라) 한 자리 위의 한 분 대성인이 의젓하게 정화하셨으니 강 어귀 바다를 보는 것이요 금성옥진(지와 덕을 뛰어나게 갖춘 상태)이라. 주공을 봉사하고 요순의 기상으로 의난조(악곡)를 부르시며 목석을 올리시니 시우화풍은 만물이 유형하고 대명이 증천하니 만상이 삼라로다. 온경을 수놓은 의를 계승하시며 예의를 수놓은 치마를 드리우시니 동정어묵은 신신요요(태연자약하고

1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11, 462쪽.

17 “是夕之夢에 忠武祠故址를 尋往호니 一大將이 長劒을 伏호고 招余而前曰爾가 高句麗의 霸業으로써 一個余乙支文德의 功으로 認하노가 不然호다. 當時 高句麗의 民族은 天下에 最히 勁悍호 民族이라 所以로 彼楊廣의 百萬大衆이 水陸並進호야 壓於境上호되 全國人民이 毫不畏懼호고 各自奮憤欲戰호야 視大敵如無호니 此는 余所以藉手成功者라 余가 數千精騎를 率호고 敵의 百萬大衆을 追擊호 時에 無不以一當百호얏스니 非其民族之勁悍이면 能如是乎아 向使高句麗民族으로 今日大韓民族과 如히 懦弱退縮호면 二個乙支文德이 其如之何오 雖然이나 今日 大韓民族이 卽 高句麗民族이라 昔何 勁悍如彼며 今何懦弱如此호 玆 惟其教育如何에 在호지라.”(『몽매을지장군기』, 26쪽)

낮빛은 편안하여 기쁨이 가득한 모습-공자에 대한 표현)하시고 옥패금장은 장연갱(금옥소리) 같으며 어약연비하시고 봉준용반의 의사며 강한을 빛나게 하고 추양을 꺾는 기상은 태화원기의 사시에 유행이라. 오도가 쇠하구나 주도가 흥하구나 태산이 높구나 천하가 작구나. 진체의 액을 면할 수 없고 쇠하는 주의 탄식으로 천하를 순환하던 거철(수레)은 문 앞에 빚겼더라.¹⁸

(다)와 (라)는 몽유 부분, 즉 꿈속의 장면으로 (다)는 을지문덕 장군이 꿈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고, (라)는 꿈속에서 시냇물에 배를 타고 공자가 태어난 곳인 이구산으로 찾아들어 그곳의 정경을 세세하게 묘사하다가 구인궁에 다 달아 대성인 즉 공자를 만나는 장면이다.

(다)에서는 꿈을 꾸기 전 평양에서 을지문덕 장군을 생각했다가 꿈속에서 아예 충무사 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때 을지문덕 장군이 나타나 거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게 된다. 을지문덕은 이미 화자의 생각을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 왜 고구려의 위업을 일개 나 을지문덕의 공으로 인식하느냐며, 고구려 전국 인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을지문덕 자신이 그 손을 빌려 성공한 이유라고 밝힌다. 즉 입몽에서 밝힌 ‘평양’이라는 공간은 “몽유자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었던 매개”이며, “장소에서 상기된 기억, 그 기억을 확인 또는 재구성하기 위해 오히려 꿈이라는 서사 장치”¹⁹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 장소를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확인, 재구성하는 것은 바로

18 “第一座上에 一位 大聖人이 儼然正坐호섯스니 河口海目이오 金聲玉振이라 周公을 夢思호고 堯舜의 氣像으로 猗闌操를 부르시며 木鐸을 울이시니 時雨和風은 品物이 流享호고 大明이 中天호니 萬象이 森羅로다 溫恭之敎衣를 襲호시며 禮義之繡裳을 垂호시니 動靜語嘿은 申申天天호시고 玉珮金章은 鏘然鏘然호야 魚躍鸞飛와 鳳蹲龍蟠의 意思며 江漢之濯 秋陽之曝의 氣像은 太和元氣가 四時에 流行이라 吾道가 衰歟아 周道가 興歟아 太山이 高歟아 天下가 小歟아 陳蔡의 厄을 不免호고 衰周의 嘆으로 天下를 循環호든 車轍은 門前에 비겨더라.”(『소설 춘추몽』, 41쪽)

19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한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집, 우리어문학회, 2011.9, 329쪽.

전통적인 몽유록계 서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재구성하여 (다)에서는 현재 국가의 문제를 을지문덕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해결해가고자 한 것이다. 그 해결방법은 바로 대한 민족, 청년에 대한 교육이었다.

(라)에서는 (다)처럼 대화나 혹은 연설 같은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완상을 표현한 전통적인 가사처럼 꿈속에서 이구산으로 배를 타고 떠나면서 기행문처럼 풍경과 정경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진행된다. 또한 그 묘사하는 문구도 이전 유교적인 전통과 조선 시대 가사에서 풍미하던 문장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다)처럼 회상 또는 기억의 확인을 위한 역사적인 공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전 유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전형적인 내용으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마) 즉 지금부터 일반 사회에 교육을 면려하여 용맹용감의 성질과 동심동덕의 단체를 양성하면 청년자제 중에 무수한 을지문덕이 배출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국위를 오르게 하리니 자제들에게 그 공부를 장려하라 하고 이로 인하여 일편 붉은 종이에 여덟 글자를 수여하기를 내가 거듭 절을 하며 받고 꿇어앉아 그것을 읽으니 그 글에 말하기를, ‘국성국혈이 강하게 이르면 적이 없다.’(國性國血至強無敵)이러라. 내가 이에 몸이 변하여 깨어나니 땀이 흘러 등을 적셨더라. 이에 그 일을 기록하여 우리 청년제군에게 고하느니라.²⁰

(바) 홀연히 집 안에서부터 제자 일인이 산인에게 크게 불러 말하기를 이분 성인은 후세에서 존칭하기를 대성지성 문선공 공모시오 나는 공자의 문하에 의지하여 앙망하는 증모(증자)로라. 성인이 일부 서책을 군에게 믿고 전하

20 “卽 自今曰로 一般社會에 教育을 勉勵호야 勁悍勇敢의 性質과 同心同德의 團體를 養成호면 靑年子弟 中에 無數호 乙支文德이 輩出호야 國權을 復호고 國威를 揚호리니 子其勉之호라 호고 因호야 一片絳色紙에 八個字를 授與호거늘 余가 再拜而受호고 跪而讀之호니 其 書에 曰 國性國血至強無敵이러라. 余乃轉身而覺호니 汗流浹背라 乃記其事호야 告靑年諸君호느니라.”(『몽매을지장군기』, 27쪽)

라 하시기로 일부를 주니 장차 일부하야 현세에 뿌리고 전하라 하매 산인이 두려워 떨며 일부를 정중히 받으니 제목에 대서특필로 써 있기를 춘추일부라 머리를 숙여 조아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올 때 문치마에 부딪쳐 땅에 넘어 지며 놀라 깨어나니 뜰에 산 살구가 가득하고 두견새가 간간히 울더라.²¹

(마)와 (바)는 각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절정이면서 동시에 내화(內話)인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외화(外話)의 장면이다. (마)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이 청년자제들을 교육하고 공부를 장려하여 무수한 을지문덕을 배출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이 등장하면서 꿈을 깨게 되고, (바)에서는 공자의 제자 증자가 나타나 공자가 쓴 춘추를 전하며 이는 공자가 직접 믿고 전하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역시 이 책을 현세에 뿌리고 전하라며 당부하면서 꿈에서 깨어난다.

(마)의 내용을 보면, 일반 사회와 청년제군들에게 교육을 장려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외부로부터의 멸망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자멸을 경계하며, 스스로 교육하고 강해질 때, 비로소 외부 열강들도 이길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은식의 생각은 “유학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에 입각해서 혁신해, 주체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각성 역시 이러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다.²²

이러한 생각은 (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한다. (바)에서는 공자가 <춘추> 책을 제자인 증자 편으로 전해주면서 이를 현세에 널리 알리고 전하라고

21 “忽然自室中으로 弟子一人이 大呼 山人曰 這位聖人은 後世에서 尊稱키를 大成至聖 文宣王 孔某시오 我는 孔門에 依仰하느 曾某로라 聖人이 一部書冊을 君의게 信傳하사시기로 一部를 出給하니 將此一部하야 現世에 播傳하라함이 山人이 戰栗恐懼히 一部를 敬受하니 題目에 大書特筆曰 春秋一部라 頓首拜謝하고 退出홀식 爲門楣所觸하야 蹶然什地而驚悟하니 滿庭山杏에 子規啼歇이라.”(『소설 춘추몽』, 41쪽)

2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10, 218쪽.

한 당부가 주제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유교의 회귀, 기존 구학문과 유교 사상에 대한 강조로만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설 춘추몽」이 실린 매체 『교남교육회잡지』의 한결 같은 논조는 바로 제대로 된 유교로 돌아가서 제대로 학문을 하자는 것이다. 즉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유교의 실제 덕목을 그릇되게 하는 당대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영남 지역 구세대의 완고한 양반들을 교육을 방해하는 인물로,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영남 지역을 낙후되고 뒤처지게 만드는 인물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한다.²³

이렇게 보면, (마)와 (바)의 주제는 매우 유사하다. 유교를 기본으로 하되 신학문을 받아들여 개혁과 변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권을 회복하고, 현재의 난세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²⁴ 이 두 작품은 주제 의식이나 서사적 표현 방법에서 보면, 모두 역사적 인물이나 성현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혹은 책)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 이 글의 화자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배워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즉 가르침과 교육, 계몽을 위한 방편으로 ‘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전 몽유록계 서사류의 형식을 빌려와 그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와 주제 의식의 강조는 결국 이 작품의 저자, 또는 이 작품이 실린 매체의 독자 설정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 몽유록 서사 내부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화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계몽적, 교훈적 태도를

23 『교남교육회잡지』에서 교남 즉 영남 지역 구세대들과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 및 반성과 관련한 내용은 전은경, 「근대계몽기 『교남교육회잡지』의 ‘로컬리티’ 인식과 서사화 전략」(앞의 논문), 1421~150쪽 참조.

24 (바)에서 공자가 전해 준 『춘추』의 경우, 공자가 춘추 시대 노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여 쓴 것으로, 특히 춘추 시대에 혼란했던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절대 강국도, 절대 약국도 없는 그 당대 상황을 미루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근대계몽기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알리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또한 더불어 진정한 유교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학문을 배척하지 않고 배워나가는 것 역시 가능한 일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취하고 있듯이, 작품 외부인 매체 내부에서도 작품을 통한 전달이 독자들에게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몽배을지장군기」가 관서 지역의 청년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라면, 「소설 춘추몽」은 교남(영남) 지역의 유학자와 청년에 대한 계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 편집자, 혹은 저자가 독자를 대하는 태도는 계몽적, 교훈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독자 인식이 전통적인 몽유록계 서사류를 계승하여 형식적으로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몽유록계 서사의 변형과 실험

(1) 매체의 연계와 거울 대칭적 구조

앞서 국내 지역 학회지의 몽유록을 살펴보았다면, 일본 유학생 잡지에 실린 몽유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 유학생 잡지에 실린 몽유록은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 7편이 실려 있었다. 『태극학보』에 실린 최석하(崔錫夏)의 「無何鄉漫筆」(1906.11.24.), 장응진(白岳春史)의 「春夢」(1907.3.24.), 이규철(李奎澈)의 「無何鄉」(1908.5.12.), 포우생(抱宇生)의 「莊園訪靈」(1908.5.24.) 『낙동친목회학보』에 실린 봉래산인(蓬萊山人)이 쓴 「夢白頭山靈」(1908.1.30.), 『대한학회월보』에 실린 우연자(吁然子)의 「拏山靈夢」(1908.3.25.), 홍촌라생(弘村羅生)의 「教育者討伐隊-夢遊故國記」(1908.4.25.)가 그것이다. 최석하와 장응진의 작품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 다섯 편 모두 1908년 1월에서 5월까지 발표된 것도 흥미롭다.

이 가운데 『낙동친목회학보』는 영남 출신 일본 유학생회인 낙동친목회의 학회지로 총 4호를 발행한 후, 일본 유학생회가 통합한 대한학회로 흡수되었다. 1908년 1월 11일 대한학회가 성립되었는데, 공수회와 태극학회를 제외

하고 낙동친목회를 포함한 나머지 학회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학회였다.²⁵ 특히 낙동친목회의 임원진이었던 이은우, 김기환 등이 대한학회에서도 임원을 맡는 등, 그 연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통합되기 직전 『낙동친목회학보』 제4호에 실린 「몽백두산령」과 이후 통합 학회인 대한학회에서 발간한 『대한학회월보』 제2호에 실린 「라산령몽」은 유사성과 대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관관계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함께 통합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시기 『태극학보』에 실린 「장원방령」 역시 유사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유학생들 간에 교류가 활발했으며, 이들 학회지 역사 서로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몽백두산령」이 꿈속에서 백두산령을 만나서 고국에 대한 걱정과 청년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면, 「라산령몽」은 꿈속에서 한라산령을 만나서 고국의 걱정되는 상황과 앞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장원방령」도 앞선 2편과 유사한데, 꿈속에서 태백산 주인을 만나 고국에 대한 걱정되는 상황을 물어보고 계책을 들으며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표 3〉 「몽백두산령」, 「라산령몽」, 「장원방령」의 특징 비교표

	「몽백두산령」	「라산령몽」	「장원방령」
학회지	낙동친목회학보	대한학회월보	태극학보
발표일시	1908.1.30.	1908.3.25.	1908.5.24.
현실 공간	일본	제주도	일본
몽유 공간	일본	제주도	태백산
초월자 등장	백두산령	한라산령과 두 소년	태백산 주인
서술자의 참여	초월자와 직접 대화	관찰자	초월자와 직접 대화
비판의 대상	조선의 상황	조선의 상황	조선의 상황
주제	청년의 역할	조선 내부의 개혁	교육 정책

25 김소영, 「한말 도일유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근대국가론」, 『한국근현대사연구』 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봄, 18쪽 참조.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약간씩 변이되면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마치 모방하되, 변형을 가미하여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초월자로 백두산령과 한라산령, 태백산 주인이 등장하는 것도, 몽유 부분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주제 의식을 보여주는 것도, 또 현 조선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또한 꿈을 꾸기 이전이나 이후인 외화의 인물이 대화에 직접 개입하는지 또는 관찰자로 지켜만 보는지,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점 역시 보여주고 있다.

세 작품 모두 주인공은 조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 비분강개를 느끼고 있다. 「몽백두산령」에서는 주인공이 “옛날을 회상하고 오늘날을 슬퍼함에 만상이 공허하기만 하”²⁶다며 소회를 토로한다. 「라산령몽」에서도 “무슨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한참 대답하고 비분강개”²⁷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비분강개할 만한 상황 즉 나라에 대한 슬픔과 울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원방령」에서는 “한반도에 돌아드니 사물의 형태는 적요하고 수심만 깊어지는데 가련하고 무죄한 저 민족”²⁸에 대한 안타까움과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가) 그 노인이 혈떡이며 조금 이따가 마침내 말하기를,

“나는 본디 백두산령으로 우리 사천 년 기업을 공고하게 하고 우리 삼천리강토를 유지하였다네. 의관문물은 중토가 되어 있고, 금은옥석은 사객이 군침을 흘리니

아! 시운이 변천하고 국사가 위태롭고 험함이로다. 우리 산림과 고기잡이의 권리와 금은동철의 종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방의 소요(騷擾)가

26 봉래산인(蓬萊山人), <文藻> 「夢白頭山靈」, 『낙동친목회학보』 제4호, 1908.1.30., 36쪽, 이하 제목만 표기함. (「몽백두산령」의 번역은 전은경, 「영남 출신 유학생 잡지 『낙동친목회학보』의 '지역성'과 서사문에 전략」, 앞의 논문, 77-81쪽 참조함.)

27 우연자(吁然子), <雜纂> 「擎山靈夢」, 『대한학회월보』 제2호, 1908.3.25. 53쪽. 이하 제목만 표기함.

28 포우생(抱宇生), <文藻> 「莊園訪靈」, 『태극학보』 제21호, 1908.5.24., 50쪽. 이하 제목만 표기함.

이어짐이 식일(式日)에도 쉬지 않음에 총포 연기와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은 눈에 띄는 것이 모두 시름겹고 참혹하며 아내와 모친이 울고 곡함은 뱃속까지 고통이라.”²⁹

(나) “나는 지공무사한 신명이라. 너희들을 같이 사랑하여 동등권리와 동등 자격을 주었더니 네 천의를 배반하며 신명을 저버리고 멸망의 지경에 스스로 빠져들므로 누차 하늘의 경계를 보이니 종시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니 할 수 없다” 하고,

소년에게 주었던 무슨 명부(冥符)를 철회하여 가지고 청의동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는 계림 운명부라 지금 내가 네게 맡기고자 하노니 그리 알고 근신하라 하고 곧 주라 한즉

소년이 방성통곡하여 말하기를, “성신이며 성신이며 죄가 있는 자는 벌을 주시려니와 사천년 역사는 어찌 하시려 하시며 삼천리 강산은 임의 처치하시려니와 이천만 생령은 어찌 하시려 하나니까” 하며,³⁰

(다) (내가) 답하기를 소생은 본시 한국인으로 국가의 위태함을 당하여 구제의 방책이 없기로 선생의 고견을 여쭙고자 왔거니와 원컨대 비루하다 마시고 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인이 말하기를, 굉장하구나 이 말이며, 기이하구나 이 말이며. 나의 절하는

29 “該老人이 喘息良久에 乃言曰 吾는 素以 白頭山靈으로 鞏固我四千年基業하고 維持我三千里疆土를 세 衣冠文物은 中土가 〇頭하고 金銀玉石은 四客이 流涎이러니 嗚呼라 時運이 變遷하고 國事岌岌이 로다 我山林漁採之權과 金銀銅鐵之鑛을 總是割與於人하고 繼以地方之騷擾가 式日不休에 砲煙彈雨는 滿目愁慘하고 妻啼母哭은 痛人骨髓라”(『몽백두산령』, 36쪽)

30 “나는 至公無私하고 神明이라 너희들을 갖지 사랑하야 同等權利와 同等資格을 주었더니 네 天意를 背反하며 神命을 저버리고 滅亡의 地境에 自陷함으로 累次 天警을 보이는 終始 깨닫지 못하고 罪惡을 육犯하니 恐를 읊다 하고 少年에게 주었던 무더운 冥符를 撤回하야 가지고 青衣童子다려 일너 曰 이는 鷄林 運命符라 只今 너가 네게 委置하라 하노니 그리알고 謹慎하라 하고 方將주라 한즉 少年이 放聲痛哭하야 曰 聖神이며 聖神이며 罪人는 罰을 주시려니와 四千年 歷史는 實지 하시라 하시며 三千里 江山은 任意 處置하시려니와 二千萬 生靈은 實지 하시라 하나니가 하딕”(『라산령몽』, 54쪽)

바도 국가를 걱정하는 자며 공경하는 바도 국가를 걱정하는 자라. 군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나 또한 무지한 노인이나 어찌 군을 위하여 한때의 토론을 감히 아끼리오. 대저 국가의 일치일란(一治一亂)은 예로부터 있어왔거니와 한국의 현금 정황이 어떠하뇨.³¹

위의 예문은 각 작품의 몽유 부분이다. 이들 모두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우선 (가)에서는 꿈속에서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이 사천 년 기업을 공고하게 하고 삼천리 강토를 유지해 온 백두산령이라 소개한다. 이 백두산령은 실제 당대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한다. 백두산령은 산림, 고기잡이 권리, 광산 등의 권리를 모두 빼앗기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고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³² 이는 매우냉철하고 명확한 현실인식이다.

(나)에서는 한 노인이 청의동자, 백의소년을 데리고 등장하는데, (가)에서와는 달리 화자는 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관찰자로서 바라보기만 한다. 노인은 스스로를 한라산령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이 백의소년에게 삼천리 반도를 다스리는 권한인 운명부를 주었으나, 신명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며 꾸짖으면서 그 권한을 청의동자에게로 넘겨버리려 한다. 즉 백의소년은 바로 조선을 관장하는 신령이지만, 조선이 스스로 망해가고 있다며 그 책임을 이 백의소년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앞서 (가)처럼 구체적인 조선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선이 반성하지 않고

31 “答曰 小生은 本是 韓國人으로 國家의 危亂을 當히야 救濟의 方策이 無히기로 先生의 高見을 聞코져 來히엿거니와 願컨디 鄙人 말으시고 一教를 垂히옵소서. 老人이 曰 壯哉라 此言이며 奇哉라 此言이며. 余의 拜히는 비도 國을 憂히는 者며 敬히는 비도 國을 憂히는 者라. 君言이 如此히니 余雖老耄 無知나 엿지 君을 爲히야 一時의 討論을 敢惜히리오. 大抵 國家의 一治一亂은 自古有之이니와 韓國의 現今 情況이 如何히뇨.”(『장원방령』, 51쪽)

32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뿐만 아니라 철도, 광산, 산업 등 전반에 걸쳐 수탈을 감행했다.(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204~205쪽)

스스로 망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 역시 ‘나’가 꿈에 고국에 갔다가 조국의 처참함에 슬퍼하며 비분강개 하나, 계책을 알지 못해 고민하던 중에, 태백산 자락에서 숙박할 곳을 찾던 중 태백산 주인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이 노인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 보고, 조국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계책을 물어보게 된다. 노인이 조선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에게 물어본 후, 그 상황에 맞게 계책을 알려주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이 노인은 몽유 뒷부분에서는 자신이 태백산의 주인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스스로를 겸손히 “무지한 노인”으로 낮추고 있으며, 조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물음을 던지는 ‘나’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일본 유학생인 ‘나’가 이 태백산 주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현 조국의 문제를 타결할 방법을 함께 찾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 작품 모두 백두산령, 한라산령, 태백산 주인이 등장하고 있으나, 각 작품의 표현 방법, 서술은 다르게 진행된다. 백두산령은 주인공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들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한다. 한라산령은 주인공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서, 한라산령과 두 소년의 대화를 주인공이 관찰만 하며, 조선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비판하다. 태백산 주인은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며 조선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교육’의 구체적인 강령과 정책을 제시한다.

이처럼 이 세 작품은 각각 백두산령과 한라산령, 태백산 주인이 꿈속에 출현하며, 조선의 현실에 대한 걱정과 비판, 또 청년들의 책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잡지의 내부에서 연계되고 모방되며 변형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모방 속에서는 주인공이 조선의 위대한 산의 신령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내용의 거울적 대칭을 이루면서도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거나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몽유록계 서사 안에서 새로운 변이를 창출해내고 있었다.

(2) 서사적 실험과 대화체 서사의 접목

앞 절에서 살펴본 봉래산인(蓬萊山人)의 「夢白頭山靈」(1908.1.30.)과 우연자(吁然子)의 「擎山靈夢」(1908.3.25.)이 실린 바로 다음 달에 『대한학회월보』에 홍촌라생(弘村羅生)의 「教育者討伐隊-夢遊故國記」(1908.4.25.)가, 『태극학보』에는 이규철(李奎澈)의 「無何鄉」(1908.5.12.)³³이 실리게 된다. 앞서 세 작품이 거울 구조를 이루면서 변형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교육자토벌대」와 「무하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사적 실험을 더욱 확장한다.

(라) 시대는 참 이같이 좋은 시대 천재일우의 호시대를 만나 좋은 학문=실용적 활학문 신학문이 많이 출현하였으니 참 인류사회를 위하여 크게 하례할 일이지마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아한의 소위 교육자, 저 사람들의 소위 교육법은 거꾸로 가는 방법이요, 조각만 보는 관찰이라. 이같이 좋은 학문의 혜택에 어두운 자는 오직 어린 아동과 부자의 어리석은 자식뿐이라. 우리 무리는 연과 이삼십 하고 또 겨우 끼니를 때우기에 급급한 자인즉 보통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또 저와 같이 비교적 큰금을 감히 바라는 자는 아니지마는 대개 대한동포의 일인이 되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아직 많으면 4-50인즉 이 남은 인생 다하기까지는 국가사에 몸과 마음을 바쳐 이바지할 의무가 있거늘 저 소위 교육자가 우리에게 「국문」도 분배하여 주지 아니하니 우리들은 어떤 연유로 애국의 진의를 알며 응분의 의무를 다할는지요.³⁴

33 이규철이 쓴 「무하향」은 『태극학보』 4호에 실린 최석하의 「무하향만필」과는 다른 작품이다. 최석하의 「무하향만필」은 꿈속에서 동서양의 위인들을 만나고 꿈에서 깬 이후 조선에도 이와 같은 영웅들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최석하의 「무하향만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헌별, 앞의 글, 347쪽, 3501~354쪽 참조)

34 “時代는 참 이갓치 조흔 時代 千千載一遇의 好時代를 만나 조흔 學問=實用的 活學問 新學問이 多多出來하얏스니 참 人類社會를 爲하야 크게 獻賀할 일이지마는 奈之何奈之何, 我韓의 所謂 教育者, 渠輩의 所謂 教育法은 跣行의 方法이요 片眼의 觀察이라. 이갓치 조흔 學問의 惠澤을 蒙하난 者는 오직 年穉한 兒童과 富者의 子孫뿐이라. 吾輩는 年過 二三十하고 또 糊口하기에 汲汲한 者인즉 普通學校에 다닐 수도 없고 또 如彼한 比較的 큰금을 敢望하난 者이 아니지마는 既爲大韓同胞의

(마) 잠시 후에 이웃 집 한 노인이 탕건 위에 정자관(程子冠)을 쓰고 들어와 안부를 묻고 강개하는 모양으로 말하되, 갑오병혁(갑오개혁)부터 이후로 오랑캐의 악풍이 동방예의국에 전염되어 수천 년 준행하던 공맹 성도가 불행한 운명을 당하며 심지어 과거까지 철폐하였으니 치국안민의 영재를 어느 곳에서 선용하리오. 성문 제자라고 하는 자에 진실로 통곡하고 눈물이 흐르는 일이니 모 촌 모 진사는 머리를 깎고 검은 옷으로써 돌이켜 호기를 만난 듯이 하여 백주대로상에서 구학문을 물리치고 신학문에 종사하라는 문제로 연설하대 그러. (중략)

주인도 또한 동성상응하여 발끈 성을 내어 얼굴빛이 달라지며 말하기를, 그 놈의 그 연설을 자네가 친히 목격하였나. 어제 동리 모모인이 와서 그 일을 말하되 내가 듣고 믿지 않고 전한 자에게 반대로 꾸짖었더니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혹 용모가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러니 니가 잘못 보았구나. 모 진사는 본래 성문수덕의 높은 자제로 설혹 천려일실(千慮一失)이 있을지라도 어찌 이러한 몽매한 경우어야 이르리오 하였더니 지금 자네의 말을 들으니 과연 확실히 사실이로군.³⁵

(라)는 흥춘라생의 「교육자토벌대-몽유고국기」의 몽유 부분의 한 장면이

一人되야 餘年이 尙多四五十호즈 이 餘年 다 ㅎ기가지는 國家事에 盡瘁홀 義務가 自有ㅎ거늘 彼 所謂 教育者가 我等에겐 「國文」도 分配ㅎ야 주지 아니ㅎ니 我等은 何로 由ㅎ야 愛國의 眞義를 知ㅎ며 應分의 義務를 盡홀는 지요.”(弘村羅生, 「教育者討伐隊-夢遊故國記」, 『대한학회월보』 제3호, 1908.4.25., 36쪽)

35 “少焉에 隣家 一老人이 宕巾上에 程子冠을 加着ㅎ고 人來ㅎ야 寒暄을 問ㅎ고 慷慨ㅎ는 貌樣으로 言호되 一自甲午兵革 以後로 蠻夷의 惡風이 東方禮義國에 傳染되여 幾千年 遵行ㅎ든 孔孟 聖道가 否運을 卒當ㅎ며 甚至 科擧까지 廢撤ㅎ었스니 治國安民의 英才를 何處에서 選用ㅎ리오. 爲聖門弟子者에 眞是痛哭流涕之事어늘 某村 某進士는 反以僧頭黑衣로 如逢好機ㅎ야 白晝大路上에서 舊學文을 拋却ㅎ고 新學問에 從事ㅎ라는 問題로 演說ㅎ데 그러.”(중략)

“主人도 ㄷㅎ 同聲相應ㅎ야 勃然變色 曰 그 놈의 其 演說을 자네가 親히 目擊ㅎ었나 昨日 同里 某某人이 來言其事由호되 余不信聽ㅎ고 反歸咎於傳者ㅎ야 衆人叢中에 或有容貌相似之人矣러니 子不誤見乎야. 某進士는 本來 聖門修德之高弟로 設或 千慮一失이 有ㅎ지라도 엇지 此等 朦昧ㅎ境遇에야 至ㅎ리오 ㅎ었더니 今聞子言호니 果是的 確事로곤”(李奎澈, 「無何鄉」, <문예> 『대국학보』 20호 1908.5.24., 441~45쪽)

다. 고국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한 주인공이 꿈속에서 고국을 방문하여 고향을 찾아가려 하다가 도중에 「농초부대회」라 하는 집회를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연설을 듣는 내용이다. 그 중 (라) 부분은 한 청년이 연단에 올라와 현재 교육을 토벌해야 한다는 비판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연설하는 장면이다. 실제 연설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삽입되어 있으며, 이 청년이 연설을 마치고 단을 내려간 후에는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찬성이라 외치는 장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인 주인공 자신은 이 토론회, 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관찰자로서만 등장한다.

(라)에서 연설의 장면이 몽유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면, (마)에서는 대화의 장면이 등장한다. (마)는 이규철의 「무하향」의 몽유 부분의 한 장면이다. 일본 유학생으로서 여름 방학 중 친구들과 우에노 공원의 동물원과 박물관 등을 방문했다가 돌아와 꿈속에서 고국을 방문하는 내용이다. 고국의 시골 마을에 도착한 주인공이 목을 곳을 찾다가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의 주인과 그 주인의 친구인 이웃 노인의 대화를 듣게 된다. 위의 인용문은 이웃 노인이 찾아와 모 촌 모 진사가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채 구학문을 물리치고 신학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으며,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들은 주인 노인 역시 이 이야기를 들었으나, 동리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모 진사가 자신의 죽마부우이나 절교할 것이라며 화를 낸다.

(라)에서는 연설의 장면이, (마)에서는 대화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은 그 연설이나 대화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자로서 지켜보기만 한다. 또한 두 작품 모두 꿈속에서 고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작품 모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초월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에서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초월자 대신에 교육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청년의 연설을 통해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면, (마)에

서는 조선에 있는 구 인물들인 두 노인의 대화를 통해서 조국 현실의 무지몽매함과 구세대들의 어리석음을 더욱 강조하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이 두 노인은 구학문을 배척하는 신학문이 몹쓸 것이며, 현 시대의 문제도 구학문으로 돌아가면 다시 태평성대가 될 거라고 낙관론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면서 시 경구를 찾으려 대화를 맺는데, 주인공은 그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다 소리를 지르려 하는 찰나,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이는 실로 유학생인 ‘나’가 구세대인 유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은 외국에 재물만 갖다 바치는 허랑방탕한 인물에 불과하며, 신교육을 주장하는 것도,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길이라 믿는 구세대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마치 이 ‘몽유’ 부분의 대화는 기존 『태극학보』 등의 유학생 잡지에 실렸던 대화체 서사류와 맥락을 같이한다. 「老而不死」(『태극학보』 23호, 1908.7.24.)나 「巷說」(『태극학보』 23호, 1908.7.24.) 모두 대화체 서사류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구세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즉 이러한 대화체 서사류가 이야기의 내화 즉 ‘몽유’ 속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전 몽유록계 서사에서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거나 유명한 인물, 혹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 배움을 얻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무하향」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깨고 비판의 대상만을 풍자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결국 이 「무하향」은 몽유록계 서사의 구성을 활용하되, 허구성을 강조하여 대조와 대비의 효과를 사용하면서 비판과 풍자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몽유록계 서사 내부에 대화체 서사를 삽입하면서 새로운 서사적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학회지의 독자 인식과 몽유록계 서사의 근대성

- 계승과 실험의 경계

앞에서 근대계몽기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물을 살펴보았다. 국내 학회지에 실린 「몽배을지장군기」와 「소설 춘추몽」은 전통적인 몽유록을 계승하면서 당대 국가의 문제를 다루고, 교육과 혁신을 통해 당면한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했다. 「몽배을지장군기」에서 청년 모두가 을지문덕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힘을 믿는 동시에, 이러한 영웅적 개인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소설 춘추몽」 역시 공자가 직접 <춘추>를 전해주며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려 전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제대로 된 유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구세대들의 반성과 신학문의 수용을 주장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국내 학회지에 실린 두 편의 몽유록계 서사는 교훈과 계몽을 위한 방편으로서 선택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을 꿈속에 등장시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의식을 계몽적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몽유록계 서사 내부에서도 동일한 장치로 진행된다. 화자는 이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에게 가르침을 받는 대상, 즉 계몽의 대상으로 호명된다. 이러한 관계는 필자가 독자 대상을 대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계몽의 대상으로서 독자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몽과 가르침을 주기에 용이한 몽유록계 서사를 선택하여 역사적 인물을 소환하는 등의 허구적 장치와 장면을 극대화하여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독자들을 교육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유학생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는 이러한 국내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 일본 유학생의 몽유록계 서사물들은 「몽백두산령」, 「라산령몽」, 「장원방령」은 모두 조선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그 문제를 타파할 방책으로 교육과 청년의 힘을 강조한

다. 「교육자토벌대」와 「무하향」 역시 조선의 문제를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교육의 개혁을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유학생 학회지에 실린 몽유록계 서사는 청년을 국난을 타파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면서도, 주제의식에서 본다면 고국 조선의 무지몽매한 상황,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몽백두산령」에서는 일본의 조국 침탈 상황을 드러내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나머지 두 작품은 외부적 문제보다 조선 내부적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일본 유학생으로서 고국을 떠나 있으면서 외부에서 내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청년들 스스로의 고민과 비판을 함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거리 두기, 즉 조선의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비판과 풍자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풍자의 대상이 명확하게 집중되다 보니, 허구성 역시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 개탄하면서 실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었고, 그것은 현장성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념이나 유교 사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조선에 드러난 문제를 신랄하게 바라보며 비판해 나갔기에 이러한 현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국내 학회지의 몽유록계 서사물이 전통 계승을 통한 계몽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일본 유학생 학회지의 몽유록계 서사물은 좀 더 조선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풍자와 비판을 강화한다. 또 이러한 풍자와 비판이 가미되면서 양식 내부에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사실 독자 대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국내 학회지의 경우 독자 대상을 교육과 계몽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면, 일본 유학생 학회지는 독자 대상이 곧 유학생 자신이었다. 즉 국내

학회지가 상정한 독자는 일반 지식인들이면서 이들은 교화하고 계몽되어야 대상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 유학생 학회지에서 상정한 독자는 유학생 자신들이었으므로 가르치거나 교화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 자신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판과 풍자가 강조되어 서사화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학회지의 몽유록계 서사에서는 역사적 인물과 위인이 일방적으로 스승과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주제의식이 선포되고 있다면, 일본 유학생 학회지에서는 꿈속에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더라도 이미 화자로 대표되는 일본 유학생들 또는 지식인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몽유록계 서사물에서 조선 내부가 계몽의 대상이자 타자화되고 있으며,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내 학회지의 몽유록계 서사에서는 왜 전통적 방법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꿈을 통해 교화하고 계몽해야 할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일본 유학생 학회지의 몽유록계 서사에서는 전통적 방법에서 더 나아가 변형과 풍자, 조선 내부의 비판이 더 많이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그 학회지가 대상으로 삼은 독자 대상이 달랐고, 그에 따라 독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상이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학회지에서는 독자 대상이 청년, 특히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자신들이었으므로 독자 자체가 계몽이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도리어 같은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조선의 고루한 구세대들과 폐습에 대해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그들 내부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몽유록계 서사 내부에서도 그러한 풍자와 비판이 강화되었고, 심지어 초월적 존재 없이 일본의 신문물과 조선의 구습에 물든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는 장치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켰다.

이처럼 근대계몽기 몽유록계 서사 양식은 국가의 존폐 위기 속에서 계몽과 교육이라는 필요, 또 조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판하며 풍자하려는 필

요에 의해 선택되었다. 전통적인 몽유록 양식을 계승하여 역사적 인물을 소환하고 이 인물을 통해서 독자 대상을 교화하고 계몽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국가의 현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선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영웅의 힘이 아니라,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인식하여 개인의 힘, 교육의 힘을 강조하는 것도 한 특징이 되고 있다.

또한 이전 몽유록계 서사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 대상에 따라 다양한 실험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학회지 혹은 잡지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비슷한 처지와 관심사를 가진 인물들이 이 잡지 내부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몽유록계 서사 양식의 경우에도 모방과 변형,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관심사를 표출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특히 구세대들의 폐습과 고루한 사상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하는 도구로서 몽유록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교류와 소통은 그들만의 새로운 ‘공통감’을 형성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계몽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감과 소통의 대상으로서 매체를 활용하고 향유하면서 이들 지식인들은 근대문학의 잠재적 작가가자 독자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문학이 ‘계몽’에서 ‘풍자’로, 또 ‘국가’의 문제로부터 ‘개인’의 문제로 시각이 점차 전환되면서, 국가를 위한 한 존재로부터 위기를 당면한 한 개인의 문제의식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경계의 위치에 바로 근대계몽기 몽유록계 서사 양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 시각의 전환이 이후 근대 단편소설에 등장하게 되는 ‘개인’의 문제로 점차 다가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대문학으로의 전환은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계승과 변형이라는 새로운 실험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우』, 『교남교육회잡지』, 『태극학보』, 『낙동친목회학보』, 『대한학회월보』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김소영, 「한말 도일유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근대국가론」, 『한국근현대사연구』 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봄.
김윤규, 『개화기 단행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한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집, 우리어문학회, 2011.9.
김찬기, 「근대계몽기 몽유록의 양식적 변이상과 갱신의 두 시선」, 『국제어문학회』 39, 국제어문학회, 2007, 315~341쪽.
류양선,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984, 91~120쪽.
문한별, 「근대전환기 학회지 수록 몽유 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39~361쪽.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85.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전은경,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와 과정-『서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 50,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5~40쪽.
_____, 「근대계몽기 『교남교육회잡지』의 ‘모컬리티’ 인식과 서사와 전략」, 『어문론총』 8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40~170쪽.
_____, 「근대계몽기 지역 학회지와 지역 문학의 근대적 태동」, 『어문학』 146, 한국어문학회, 2019, 219~254쪽.
_____, 「영남 출신 유학생 잡지 『낙동친목회학보』의 ‘지역성’과 서사문에 전략」, 『어문론총』 86,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59~86쪽.
정여울,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1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10.
가미네 시게토시, 다지마 데쓰오·송태욱 역, 『독서국민의 탄생』, 푸른역사,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about the Readers and the Narrative Experiment of the Academic Journal i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Monglyurok*

Jun, Eun-kyung | Kyungi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narrative of *Monglyurok*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 of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various academic journals appeared, including journals based on domestic regions, magazines as institutional magazines of political organizations, and journals published by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Among them, the narrative styles of *Monglyurok* was analyzed centering on the Korean journal and the Japa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narrative of *Monglyurok* i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was chosen by the need for enlightenment and education in the crisis of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need to grasp, criticize, and satirize the problems of Choseon. It was also summoned as a way to summon historical figures by inheriting the traditional *Monglyurok*, and to enlighten and enlighten readers through this person.

In addition,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various experimental devices are being used depending on the readers while inheriting the previous *Monglyurok*. With the advent of a new medium called journal or magazine, people with similar circumstances and interests were 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ithin this magazine. Among them, even in the case of *Monglyurok*, it was used as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 same interests as imitation,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were carried out. The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these intellectuals would have created a new “common sense” of their own. Sharing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using and enjoying the medium not as an object of enlightenment, but as an object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these intellectuals would have been an opportunity to grow as potential writers and readers of modern literature.

Key words :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local based academic journal, Journal of the Japanese Student Association, enlightenment, satire, media communication, modern literature, a potential writer, potential readers, perception about readers

논문접수일: 2021.03.15. 심사기간: 2021.03.31.~2021.04.08. 게재확정일: 2021.04.14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 1991.12.29 국제한국학및비교학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Etudes Coréennes et Comparées)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 (독일 베를린: 참가자 6명)
홀머 브로홀로스(독일 본대학교 교수)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김문학(일본 경도대학교 학위과정 이수중)
송영인(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워드 캠퍼스 교수)
고송무(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교수)
김필영(파리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1992. 5 프랑스 법에 따라 학회 등록 및 로고 창안 (법인 대표: 김필영)
- 1992.10.22-26 제2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과학아카데미)
공동개최: 카자흐스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약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구소련 붕괴 후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한국학 학
술대회
1993. 7.12-1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벨기에 루벵 카톨릭대학교)
- 1994 국제비교한국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 IACKS)로 학회 명칭 변경
1995. 7.24-26 제4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크질오다 사범대학)
크질오다 사범대학 당국으로부터 “쌀알 위에 그려진 홍범도 장군의 영정”을
기증받아 귀국 후 독립기념관에 회사함
- 1995.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권 발간
1996.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권 발간
- 1996.10. 4- 5 제5회 국내학술대회 (부경대학교)
1997. 7.29 제6회 국제학술대회 (몽고 울란바토르대학교)
1997.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권 발간
- 1998.10.24 제7회 국내학술대회 (경기대학교)
- 1998.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4권 발간

1999. 7.26 제8회 국제학술대회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과 과제”
- 1999.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5권 발간
2000. 6. 9 제9회 국내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1세기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
2000.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6권 발간
- 200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7권 발간
2001.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8권 발간
2001. 7. 3 제10회 국제학술대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후원 : 한국번역금고, 한국교류재단, 뉴욕 버팔로대학교 아시아연구전공
- 2001.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 200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9권 발간
2002. 6. 7 제11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Korean Studies at the Crossroads”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6.29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1호 발간
- 200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2호 발간
2003. 5.23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후원 : 대산문화재단
한인 미국인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UC Berkeley, Korean Studies Center와 공동 기획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각각 따로 개최하고 단행본은 공동 발간함
2003.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1호 발간
- 200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2호 발간
2004.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1호 발간
- 2004.11.30 단행본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발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12.10-11 제13회 국제학술대회 (UC/Berkeley, USA)
- 200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2호 발간
2005.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1호 발간
2005. 9.23 제14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 2005.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2호 발간
2006.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1호 발간

- 2006.11.22-23 제15회 국제학술대회 (Tottori University, Japan)
 “Cultural Exchange and Hallyu in Northeast Asia”
 후원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 2006.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2호 발간
- 2006.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2007.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1호 발간
- 2007.08.24-25 제16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현대문학”
 공동주최: 한국현대문학학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7.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2호 발간
2008.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1호 발간
2008. 7. 1- 2 제17회 국제학술대회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 2008.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2호 발간
2009.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1호 발간
2009.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2호 발간
- 2009.10.30-31 제18회 학회 및 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와 디아스포라”
 공동주최: 한국비평문학회, 현대문학이론학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후원: 동국대학교 BK21 인재양성사업단
- 2009.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3호 발간
2010.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1호 발간
2010. 5.08 제19회 국내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이상과 모더니즘” (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2010. 8.19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ICLA)에 패널 구성 참가
2010.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2호 발간
- 2010.10.15-17 제20회 국내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1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3호 발간
2011. 4.21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
 “Colonial Modern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East Asia”

- 공동주최: Korean Studies Institute, USC, LA, USA, 후원: 대산문화재단,
USC East Asian Studies Center, USC Korean Studies Center, USC Korean
Heritage Library, NEAC(North East Asian Council) in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1.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발간
2011. 6.11 창립 20주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서강대학교)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2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 201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발간
2012.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1호 발간
2012. 6.15~16 제23회 국내학술대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공동주최: 문화관광부
2012.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2호 발간
- 2012.10.13 제24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현대 한국문화와 미국”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201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3호 발간
2013. 4.23 제25회 국제학술대회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후원: 한국문학번역원
2013.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1호 발간
2013. 6.15 제26회 국내학술대회(서강대학교)
“미국한국학에 관한 질문과 모색: 문학, 영화, 번역의 문제”
후원: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발간
- 201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3호 발간
2014.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1호 발간
2014. 6.21 제27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4.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2호 발간
2014. 9.19~20 제28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도시샤 대학교)

-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과 담론의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도시사대학교 코리아센터
 후원: 대산문화재단
- 201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3호 발간
2015. 3.28 제29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비교문학의 현황과 과제”
2015.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1호 발간
2015. 7. 4 제30회 국내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문학·문화 연구의 탈경제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2호 발간
-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폭력의 정당과 노모스”
- 2015.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3호 발간
2016.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1호 발간
2016. 7. 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2016.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2호 발간
-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인문주의와 인문교육의 현황 및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 2016.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3호 발간
2017.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1호 발간
2017. 7. 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2017. 8.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2호 발간
- 2017.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3호 발간
2018. 2. 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2018.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1호 발간
2018. 7. 7 제36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문학의 정치사회학의 국제적 변화 양상 - 문학연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
- 2018.7.13-20 제37회 국제학술대회,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The 1st International Asian Congress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주최: Adam Mickiewicz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Poznan

2018.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2호 발간
2018.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3호 발간
2019. 4.20 제38회 국제학술대회(중국 산둥대학교)
“한중 근대화 및 근대화 담론”
(공동주최: 중국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한국학원))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1호 발간
2019.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2호 발간
2019.10.26 제 39회 국내학술대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사옥)
“한국에서의 외국문학연구, 그 역사와 전망”
2019.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3호 발간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1호 발간
2020. 8.12 제 40회 국내학술대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 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
2020.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2호 발간
2020.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3호 발간
2021. 2. 6 제 41회 국내학술대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 페미니즘/젠더의 향방)
2021.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1호 발간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제1대 1991-1992	고송무 1947-1993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1992-1993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올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제3대 1993-1995	이여복 1936-2003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제4대 1995-1997	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제5대 1997-1999	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제6대 1999-2001	김보희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7대 2001-2003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대 2003-2005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대 2005-2007	최동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0대 2007-2009	손종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대 2009-2011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제12대 2011-2013	김승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대 2013-2015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4대 2015-2017	이철의	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제15대 2017-2020	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6대 2020-현재	우찬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
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제13조(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
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
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예·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21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및 후원비
 -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2015년 12월 12일 개정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은 다른 출판물(단행본, 학술지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와 관련된 비교학적, 학제적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마감은 학회지 발행 2개월 전인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4. 논문투고는 학회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5.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하며 이를 포함한 국제비교한국학회 논문 투고 신청서를 학회 메일함(newiacks@empas.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편당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평생회비: 300,000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가 면제되며 심사료가 50% 감면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조판 25면 이내의 경우 게재료 (비전임) 100,000원/ (전임) 150,000원을 납부한다. 교내·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한다. 조판 25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7.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어 논문의 경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한글이나 영어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논문의체제는 ① 논문제목, ② 성명과 소속, 직위, ③ 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서양어초록(서양어제목과저자명, 소속기관명포함)과 주제어의순서에

따르며 각 주제어(Key-Words)는 5개 이상으로 표기한다. 서양어 논문의 경우,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도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9. 한글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내외로 하며 서양어 초록의 분량은 200 단어 내외로 한다.
10. 투고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11. 연구비 수혜사실은 투고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12. 원고 작성 시 한글(HWP) 2002, MS Word 2003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
13. 외국어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 논문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되,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관행을 따른다. (자세한 논문 작성의 예는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① 본문의 제목 번호는 1 - (1) - ① - ㉠의 순서로 붙인다.
 - ② 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한글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 ③ 논문, 작품은 「」로, 저서, 학술지, 잡지, 신문은 『』로, 인용문은 “ ”로, 강조할 때는 ‘ ’로 표시한다.
 - ④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에 맞추어 작성한다.
 - ㉠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 순으로 표시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앞의 주석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주석이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위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서양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 ㉣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학제간융합 연구의 특성상 특정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주 및 참고문헌의 형식에 따라야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 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대상

-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4조 심사

-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한다.

제6조 이의 신청

-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 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 간이나 기타 전공 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div> <div>점수</div> <div>항목</div> </div>	10	8	6	4	2	비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본학회지에게재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유(0)		무(10)			
총점						

논문 제목				
심사 요지				
평가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p>심사구분: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점), 게재 불가(50점미만) * 심사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각 최종판정의 해당 범위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p>			

20 년 월 일

소속 _____ 직급 _____ 심사위원 _____ ①

입금은행 (은행) 계좌번호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소속 및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
-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 ① 부정행위
-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회장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부회장 김양선(한림대/한국문학), 김정희(서울대/불문학), 류보선(군산대/한국문학), 민은경(서울대/영문학), 신수정(영지대/한국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양진오(대구대/한국문학), 우림걸(산동대/한국문학), 유성호(한양대/한국문학), 윤상인(서울대/일본학), 이명호(경희대/영문학), 이옥연(서강대/중국문학), 조성원(서울여대/영문학), 함정임(동아대/한국문학),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English Literature),

총무이사겸재무이사 최성민(경희대/한국문학), 윤인선(가톨릭대/한국문학)

편집위원장 오형엽 (고려대/한국문학)

상임편집이사 박성호 (경희대/한국문학)

편집이사 강용훈 (인천대/한국문학), 곽효환(대산문화재단, 경기대/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예란(광운대/신문방송학), 김용희(평택대/한국문학), 김태경(경희대/일본학), 김혜경(Universite Aix-Marseille/한국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서여명(남경대/중국학), 손유경(서울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성천(경희대/한국문학), 이승은(연세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연세대/영화학),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GeorgeMasonUniv. Korea/영문학), 최영진(중앙대/영문학), 홍용희(경희대/한국문학), SoraPark(Univ of Canberra/Communication)

연구이사 권혁률(길림대/한국문학), 김서영(광운대/철학), 김석(건국대/철학), 김예림(연세대/한국문학), 노대원(제주대/한국문학), 문혜원(아주대/한국문학), 박동호(경희대/한국어학), 박수연(충남대/한국문학), 박주택(경희대/한국문학), 심원섭 (독협대(일본)/한국문학), 양동국(상명대/비교문학), 엄성원(차의과대학/한국문학), 이윤종(서강대/영화학), 이재원(나사렛대/한국문학), 이형권(충남대/한국문학), 장철환(연세대/한국문학), 정끝별(이화여대/한국문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강석(연세대/한국문학), 최창록(남경대/한국문학), 여태천(동덕여대/한국문학)

섭외이사 서여명(남경대/한국문학)

기획이사 정은귀(외국어대/영문학)

편집위원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태경(경희대/일본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박성호(경희대/한국문학), 박인성(부산가톨릭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연세대/영화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만수(충북대/불문학, 연국),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GeorgeMasonUniv. Korea/영문학)

윤리위원장 오형엽 (고려대/한국문학)

윤리위원 김동식(인하대/한국문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이철의(상명대/불문학), 정영교(연세대/한국문학), 홍정선(인하대/한국문학)

감사 박형섭(부산대/불문학), 송명진(경기대/한국문학)

총무간사 양정현(서강대/한국문학)

편집간사 최지안(고려대/한국문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SN 1226-2250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발행인 우찬제

발행처 국제비교한국학회

편집인 오형엽

우)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정하상관(J관) J1107호 우찬제 교수 연구실(신수동)

Tel 02)-705-8284

E-mail newiacks@empas.com 양정현(총무간사)

학회계좌 (우리은행) 1002-561-787402

예금주 윤인선(국제비교한국학회)

제작처 한국학술정보(주) Tel. 031-940-1007

값 18,000원

* 이 도서의 판권 및 저작권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소유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

